

국립국어원
2012 국제 학술 대회

세계화 시대의 자국어 진흥 정책

Protecting and Revitalizing Native Languages
In an Era of Globalization

2012. 11. 20. - 21.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Korea Press Center, Seoul



국립국어원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차 례



일 정	4
환영사	6
축 사	10
기조연설	
언어제국주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진단과 저항 로버트 필립슨 (덴마크, 코펜하겐 경영대학원)	17
제1부	
공동체 중심 마오리어 전략의 방향 - 전략 방식의 원리와 구조 글레니스 필립바버라 (뉴질랜드, 마오리 언어위원회)	71
세계화 시대의 헝가리어 터마시 바러디 (헝가리 학술원 언어학 연구소)	88
제2부	
위협받는 언어들: 아프리카 토착어의 보존 시하우켈레 응구바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언어위원회)	131
인도네시아의 언어 다양성 보호 수기요노 (인도네시아, 언어 발전 진흥 기구)	165
한국의 언어 보존 정책 - 역사와 과제 - 김세중 (대한민국, 국립국어원)	196
제3부	
핀란드의 자국어 보호와 진흥 피르코 누올리에르비 (핀란드 언어원)	225
국가 통합의 주요 요소 스카코프 마하트 (카자흐스탄 문화정보부 언어위원회)	266
종합 토론	291

Schedule	5
Greetings	8
Congratulatory Address	12
Keynote speech	
How linguistic imperialism continues: diagnosis and resistance	41
Robert Phillipson (Copenhagen Business School, Denmark)	
Session 1	
Towards Community Centred Māori Language Strategy	
Rational and Structure of Strategic Approaches	79
Glenis Philip-Barbara (Māori Language Commission, New Zealand)	
The Hungarian Language in the Age of Globalisation	107
Tamás Váradi (Research Institute for Linguistics of the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Session 2	
Tongues under Threat –Preserving Indigenous African Languages	146
Sihawukele Ngubane (Pan South African Language Board)	
Safeguarding Language Diversity in Indonesia	179
Sugiyono (The Agency for Language Development and Cultivation, Indonesia)	
Preservation Policies for the Korean Language – History and Problems –	207
Kim Sejung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Republic of Korea)	
Session 3	
Protecting and revitalizing national languages in Finland	244
Pirkko Nuolijärvi (Institute for the Languages of Finland)	
State Language –Main Factor of Country Unity	277
Skakov Maxat	
(Language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pen Discussion	291

일 정

2012. 11. 20. 화	
13:00~14:00	참가자 등록 사회 정희원 (국립국어원)
14:00~14:20	개회사 민현식 (국립국어원장) 축사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4:20~15:20	기조연설 로버트 필립슨 (덴마크 코펜하겐 경영대학원)
15:20~15:40	휴식 사회 조태린 (국립국어원)
15:40~17:00	제1부 발표 뉴질랜드 글레니스 필립마버라 (마오리 언어위원회) 헝가리 터마시 바러디 (헝가리 학술원 언어학 연구소)
2012. 11. 21. 수	
09:00~10:00	참가자 등록 사회 김한샘 (국립국어원)
10:00~12:00	제2부 발표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하우켈레 응구바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언어위원회) 인도네시아 수기요노 (언어 발전 진흥 기구) 대한민국 김세중 (국립국어원)
12:00~14:00	점심 식사 사회 위진 (국립국어원)
14:00~15:20	제3부 발표 핀란드 피르코 누올리에르비 (핀란드 언어원) 카자흐스탄 스카코프 마하트 (카자흐스탄 문화정보부 언어위원회)
15:20~15:40	휴식
15:40~17:20	종합 토론 좌장 조남호 (국립국어원) 토론 김하수 (연세대) 김병욱 (경북대) 한학성 (경희대)
17:20~17:30	폐회

2012. 11. 20. Tue.	
13:00~14:00	Registration
	Presenter Jung Heewon (NIKL)
14:00~14:20	Opening Min Hyun-sik (Director General of NIKL) Greetings Choe Kwang-shik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14:20~15:20	Keynote Speech Robert Phillipson (Copenhagen Business School)
15:20~15:40	Break
	Presenter Cho Tae-rin (NIKL)
15:40~17:00	Session 1 New Zealand Glenis Philip-Barbara (Māori Language Commission) Hungary Tamás Váradi (Research Institute for Linguistics of the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2012. 11. 21. Wed.	
09:00~10:00	Registration
	Presenter Kim Hansaem (NIKL)
10:00~12:00	Session 2 South Africa Sihawukele Ngubane (Pan South African Language Board) Indonesia Sugiyono (The Agency for Language Development and Cultivation) Korea Kim Sejung (NIKL)
12:00~14:00	Lunch
	Presenter Wee Jin (NIKL)
14:00~15:20	Session 3 Finland Pirkko Nuolijärvi (Institute for the Languages of Finland) Kazakhstan Skakov Maxat (Language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15:20~15:40	Break
15:40~17:20	Open Discussion Chairman Cho Namho (NIKL) Panelists Kim Ha-soo (Yonsei University) Kim Byung-ook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an Hak-Sung (Kyung Hee University)
17:20~17:30	Clo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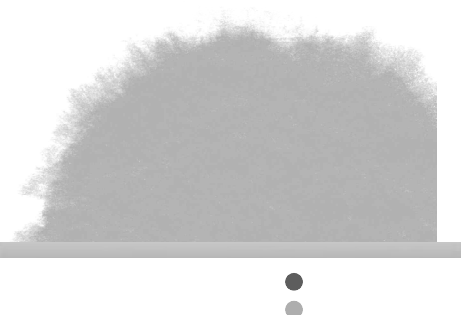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은 2010년부터 격년으로 세계 우수 국가의 언어 정책을 소개하고 기관 간 교류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세계화 시대의 자국어 진흥 정책’이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기조연설을 허락해 주신 로버트 필립슨 교수님과 각국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언어 정책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저희 국립국어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오늘 참석해 주신 국내외 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 나라 안에서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국제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적 공용어로 쓰일 수 있는 언어가 득세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역사적으로도 문화, 경제적 강대국의 언어가 서로 다른 언어 사용자들 간의 소통을 위한 매체로 자연스럽게 사용되며, 위세어로서의 지위를 누려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위세어는 국제적 의사소통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넘어서 작은 언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세어가 일상생활에도 잠식하여 각 민족 고유의 언어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의 급증으로 언어 공동체마다 다문화 문제가 대두되어 공동체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날 전 세계 언어 공동체마다 언어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어도 반만년 단일 민족의 평화 공동체였는데 19세기 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그들의 한민족 및 한국어 말살 정책으로 민족어 멸절의 위기를 겪었으나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 후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한국어 정책을 바르게 추진함으로써 오늘날 번영하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어도 영어의 위세와 이주민 증가로 언어 정책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어 이번 대회는 한국의 언어 정책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2002년 세계 모어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세계 사멸 위기 언어 지도’ 보고서에서 “하나의 언어가 사라지면 우리는 인간의 사고와 세계관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하는 도구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어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을 생태계의 또 다른 붕괴로 보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나의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언어 사용자의 예술과 기술을 포함하여 지식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곧, 언어는 문화의 기념비이자 살아 있는 박물관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류의 풍부한 문화 창조를 위해 세계 각국이 언어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세계 유수의 나라들이 민족어를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해 어떤 언어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지 논의하면서, 공동의 관심사를 나누고 위세어와 민족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인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로 결실 맺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리를 빛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발표를 맡아 주신 세계 각국의 언어 정책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2. 11. 20.

국립국어원 원장 민 현 식

Greetings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NIKL) has provided global events to exchange each country's language policies on a bi-annual basis since 2010. This year, we are holding an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titled “Protecting and Revitalizing Native Languages in an Era of Globalization”.

I would like to express a warm welcome and my appreciation to Prof. Robert Phillipson and other language policy experts for participating in this conference gladly. In addition, I also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all the other attendants for showing their continuous support and interest in NIKL's growth.

With globalization prevalent across the world,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ng in international society as well as in a country is rapidly growing. Given this, the prevalence of an international common language is understandable. Historically, the languages of economic and cultural powers have served as a dominant language to communicate among people using different native languages and naturally have exercised strong influence.

Today, however, the dominant language not just serve as a communication tool for the international society but also compromises the existence of small languages. The dominant language intrudes every walk of life and extends to the realm of each native language. In addition, every language community is troubled and split with cultural problems arising from the rapid increase of immigrants. In that respect,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every language community in the world today is waging a language war.

No exception applies to the Korean language. The Korean language community had been a peaceful unity of one nation for five thousand years. When Japan colonized the Korean peninsula in late 19th century, the Korean language was at the peril of extinction under the Japanese policy to eliminate the Korean language, Hangeul and the Korean national spirit. Fortunately, the collapse of the Imperialist Japan led us to establish the Republic of Korea, paving the way for promoting Korean language policy and laying the foundation for flourishing the Korean community. With the predominance of English and the increase of immigrants, Korea is now facing the need to change its language policy. I believe this event can help us establish such a Korean language policy.



UNESCO marking the International Mother Language Day in 2002. UNESCO also produced

Atlas of the World's Language in Danger, which UNESCO published with celebration of the International Mother Language Day in 2002, indicates “If a language vanishes, it means that we have permanently lost a tool to recognize and understand human thoughts and the world of view.” There are many who argue that the vanishing diversity of languages is tantamount to the collapse of an ecosystem. A language not just serves as a communication tool but also delivers the language user's art, techniques, knowledge and even wisdom. This implies that language is not just a cultural monument but also serves as a living museum.

Under the circumstances, we should join forces to conserve language diversity in order to guarantee diverse cultural activities across the globe. I hope that this event can serve as a valuable opportunity to discuss each country's language policies to protect and promote native languages, share common concerns, explore the ways of harmonizing dominant languages with native ones for the peaceful coexistence of humankind.

I again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the ladies and gentlemen and language experts who willingly accepted offer to make time and participate in the conference.

November 20, 2012

Min Hyun-sik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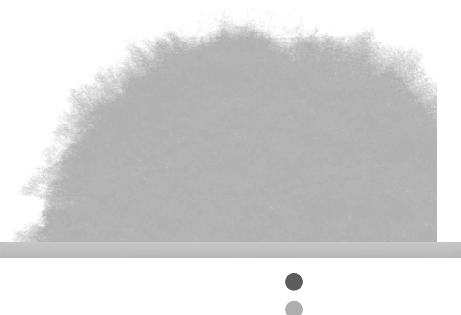
계절은 어느덧 겨울의 첫머리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이룬 결실을 정성껏 갈무리하는 이 계절에, 세계 여러 나라의 자국어 진흥 정책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로버트 필립슨(Robert Phillipson) 교수님을 비롯하여 멀리 세계 곳곳의 언어 정책 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드라마와 대중가요(K-pop)로 촉발된 한류의 열풍은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의 한국어 교육 수요에 부응하여 전 세계 43개국 90개소에 이르는 세종학당을 총괄 운영하게 될 세종학당재단이 지난 10월 24일 출범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문화 국경일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근간인 한글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편, 세계 곳곳에 한국어를 보급하는 일에 앞서 꼭 이루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를 보전하여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지난 수천 년간 사용되어 온 한국어를 더욱더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렇게 낙관하지 않습니다. 몇몇 강대국의 언어가 국제어로 급부상하면서 한국어를 포함한 많은 언어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약 6,000여 개의 언어 중 90% 이상이 21세기 중에 소멸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언어란 한 민족의 정신을 반영하는 거울이기에, 지구촌의 많은 언어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인류의 다양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는 자국어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국가적인 고민과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국제적 공용어로서 영어가 가진 힘에 맞서 자국의 언어를 지켜내기 위해 자국어 사용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로 인해 매우 다른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비슷한 고민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술 행사는 세계화를 통해 밀려오는 위세어에 맞서 자국어를 보존하고 진흥시키기 위한 고민을 나누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각국의 언어 현실에 따른 자국어 진흥 정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국립국어원 민현식 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분들,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우정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12. 11. 2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 광 식

Congratulatory Address

I am very glad to see all of you. I am Choe Kwang-shik,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e have at the entrance of winter, which is the season where we harvest crops that we have with great effort tended to all year. During this great time of year, I am very delighted to have an opportunity to share each country's policies to promote their native languages.

I also would like to express appreciation to Prof. Robert Phillipson, representatives of the language policy institutes from around the world and all participating attendants.

Recently, the Korean wave ignited by dramas and K-Pop is rapidly spreading to other countries bringing about the growth of interest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an effort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 the Sejong Academic Foundation was launched on October 24 to supervise 90 Sejong institutes that are operated in 43 countries. In addition, from the next year on, Hangeul Day will be designated as a public holiday to highlight the cultural value of Hangeul which has served as the backbone of the Korean culture.

Before we move on to promote Hangeul across the world, however, we need to get one thing done: It is to conserve and at the same time further develop the Korean language. Nothing is as important as refining the Korean language that has been used for thousands of years and delivering it to next generations.

We are facing tough conditions though. As some economic powers dominate the use of foreign language, many languages including the Korean language are losing opportunities to be utilized. Many linguists forecast that more than 90 percent of about 6,000 languages that exist in the world will be extinct in the 21st century. Language mirrors the spirit of a nation. In this respect, the fact that such a number of languages will be extinct implies that humankind will lose a variety of memories. That is why much part of the world is committing themselves to promoting and developing their native languages. In order to protect their native languages from the strong influence of English, which has been positioned as international common language, they promote various policies including requiring the legal use of a native language.



Each country in the world may apparently be different because of the diversity of languages and cultures but in reality, it proves that all of them have similar concerns and issues. Today's academic event is held to discuss measures to protect and revitalize various native languages from the intrusive influence of international common languages amid globalization. I expect this event will be of assistance to each country to promote the use of their native languages in concordance with their own language conditions.

I again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Min Hyun-sik,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presenters and all participants. I wish all of you good luck and health.

November 20, 2012

Choe Kwang-shik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국립국어원 2012 국제 학술 대회

기조연설

Keynote speech

로버트 필립슨
Robert Phillipson

덴마크, 코펜하겐 경영대학원
Copenhagen Business School, Denmark

기조연설 / Keynote speech



로버트 필립슨
Robert Phillipson

덴마크, 코펜하겐 경영대학원
Copenhagen Business School, Denmark

현 코펜하겐 경영대학원 교수, 유럽 연합 언어 정책 전문가

2010 유네스코 언어 평화(Linguapax)상 수상

암스테르담대학 박사 졸업

언어 학습, 언어 인권, 언어 정책 등에 관한 저서 11개국 출판

“언어 제국주의”(1992), “영어만 쓰는 유럽? 도전적인 언어 정책”(2003), “계속되는 언어 제국주의”(2009),

“다언어 교육을 통한 사회 정의”(2010) 등 집필

Robert Phillipson is a professor at Copenhagen Business School and he functions as an expert on language policy for the European Union. He was awarded the UNESCO Linguapax prize in 2010. He has a doctorate from the University of Amsterdam. His books on language learning, linguistic human rights, and language policy have been published in eleven countries. Main publications include *Linguistic Imperi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English-only Europe? Challenging Language Policy* (Routledge 2003) and *Linguistic Imperialism Continued*, a collection of articles and book reviews (Routledge and Orient Blackswan 2009), and *Social Justice through Multilingual Education*, edited with Skutnabb-Kangas, Mohanty and Panda (Multilingual Matters 2010).

언어제국주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진단과 저항

로버트 필립슨
(코펜하겐 경영대학원)

※ 이 글은 11월 국제 학술 대회 발표를 목적으로 작성된 초고로, 인용 등을 위한 정식 원고가 아님을 밝힙니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언어제국주의에 대한 연구: 원칙과 과제
- 역사와 개념 사이
- 언어제국주의의 확산
- 언어 교육학: 왜 이렇게 영어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신언어제국주의
- 언어제국주의와 저항 사이의 지속적 갈등

이러한 문제를 한국의 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제국주의자의 담론과 이에 대한 반응 몇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 다행스럽게도 영국과 미국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고하게 되었다. 언어를 통제하는 권력은 사람들의 땅을 빼앗거나 착취하는 것보다 훨씬 권위적인 것이다. 미래의 제국은 정신을 지배하는 제국이 될 것이다.

-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1941, 1943¹⁾

전 세계는 미국의 체제를 채택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은 미국 체제가 세계 체제가 될 때에만 살아남을 수 있다.

-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Harry Truman*), 1947²⁾

1) 1941: 하원, Morton, 1943에서 인용. 1943: 하버드대학(Harvard University)에서 명예 학위를 받을 때.

2) Pieterse 2004, 131에서 인용

한국에서 영어에 대한 태도는 신식민주의와 인종주의가 팽배한 미국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강하고 발전되었으며 아름다운 곳으로 상정하고 그에 반해 한국은 그 반대 이미지, 즉 약하고 낙후되며 열등한 곳’으로 여기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영어에 불안과 긴장감을 느끼고 있으며, 영어를 원어민과 같은 수준으로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영어를 구사하는 특혜를 누리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어 능력이 계층을 구분하는 표지로 기능하게 되었다.

- 박성열 조지프(*Joseph Sung-Yul Park*), 2012, 214

영국식 교육의 목적은 혈통과 피부색은 인도인이지만, 영국식 취향과 견해, 도덕성, 지성을 갖춘 부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 토마스 바빙턴 매킨리(*Thomas Babington Macaulay*), 1835

영어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영어의 노예로 만들게 된다. 매킨리(*Macaulay*)가 확립한 교육의 기초는 우리를 영어의 노예로 만들었다.

인도에 영향을 미친 가장 잘못된 믿음은, 자유에 대한 사상을 흡수하고 사고의 정확성을 개발하는 데 있어 영어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영어는 국제 무역 언어이고, 외교 언어이며, 풍부한 문학의 보고이자, 서구 문화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들 중 일부에게 있어서는 영어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 오늘날 영어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빼앗았고 우리의 모어를 몰아냈다. 이 부자연스러움은 영국과 우리의 불평등한 관계 때문이다.

-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³⁾, 1909, 1921

영어 대화의 세계는 인종 차별적이다. 급여 체계와 고용 관행, 광고에 있어서도 인종 차별적이다. 그리고 교과서와 교실에서 주입된, 모어 사용자는 대부분 영어라는 사상 역시 인종 차별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 지배 언어인 영어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 더글러스 루미스(*Douglas Loumis*), 1977. 7. 24.

3) *Gandhi*(2010) 참조

언어제국주의에 대한 연구: 원칙과 과제

언어제국주의에 대한 연구는 특정한 언어가 국제적으로 군림하는 이유와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지배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여러 쟁점들이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제국(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언어 정책의 역할은 무엇인가? 유럽 언어들이 어떻게 해당 지역의 언어를 소멸시키면서 유럽 외의 대륙에 정착되었는가? 식민 정책을 통해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전파된 언어들은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유용한 유대를 형성하고 국가 내적인 통합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외와 착취를 지속시킴으로써 서구의 이익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세계화된 세상에서 영어는 영미의 이익에 봉사하는 기능을 벗어나 다양한 이용자들의 의사소통에 기여하는 보다 더 공평한 수단이 되었는가? 아니면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과 군사 지배 및 신자유주의 경제가 유일한 제국주의적 언어를 보다 공고히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을 구성하게 하는가? 한편 영어 교사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영국과 미국의 산업은 아시아의 영어 학습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 적합한 처사인가, 아니면 언어학적, 교육학적, 문화적으로 적절치 못한 상업적이고 정치적인 사업일 뿐인가? 국제적으로 중국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중국어의 국제적 전파는 새로운 형태의 언어제국주의를 만들어 낼 것인가?

한국의 상황에서 중요한 과제는 국제 언어에 대한 유창성을 제고하면서도 한국어의 생명력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여러 국가에서 나타난 영어의 팽창을 고려할 때, 영어와 모국어 사이의 균형을 확립하는 데 성공한 국가가 있는가? 언어 정책, 언어 관리, 언어 교육에 대한 수많은 연구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 것이 있는가?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려는 광풍(영어 열풍, Park 2012, 208)은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렀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영어 학습에 대한 강박 관념에 가까운 현상이 존재하는가? 이 강박 관념의 원인은 무엇이고, 경제적 이념적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이유로 매우 중요한 이 문제가, 맹렬히 공격받아야 하는 일탈적인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인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의 언어 정책이 국가적인 요구와 다양한 국제적 요구 모두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은 주어진 맥락 속에서 언어제국주의를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근거를 탐구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 ‘제국주의’라는 용어를 분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중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 원리는 언어제국주의를 언어 차별(linguicism, Skutnabb-Kangas 1988, 13)의 변종으로 설명하는데, 언어 차별은 사회 구조와 사상을 통해서 기능하며 특

정 언어 집단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라는 개념을 내포한다. 언어제국주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의한다(Phillipson 1992, 2009).

- 언어제국주의는 문화, 교육, 매체, 의사소통, 경제, 정치, 군사 활동의 제국주의적인 구조와 맞물려있다.
- 본질적으로 언어제국주의는 착취, 불공정, 불평등, 계층의 개념을 포함하며, 지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특권이 주어진다.
- 좀 더 많은 자원과 기반 시설이 지배적인 언어에 주어진다는 점에서 언어제국주의는 구조적 문제이다.
- 신념, 태도 그리고 형상화를 통해 지배 언어를 미화하고, 다른 것들에 오명을 씌우고 언어적 계급을 합리화한다는 점에서 언어제국주의는 이념적이다.
- 지배는 패권적(hegemonic)이며, 언어제국주의가 내면화됨으로써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 언어제국주의는 다른 언어 사용자들은 평등한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 언어 사용은 종종 퇴보적(subtractive)이 되며, 교육을 통해서 지배 언어의 유창성을 제고하는 것은 다른 언어의 희생을 통한 강화와 관련이 있다.
- 언어제국주의는 인종 차별, 성 차별 그리고 계급을 통한 사회적 구조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 언어를 편애하는 언어 차별의 일종이다. 언어 차별은 지배 언어의 표준 형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 수요와 공급, 추진과 유인의 요인이 항상 존재하는데, 그 배후에는 행위자(정책 집행자)들과 기관들이 있다.
- 언어제국주의는 자본주의가 과거 300년에 걸쳐서 발전시킨 양식의 일면이기 때문에 특정한 언어에 대해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투입한 언어 자본의 투자량과 형태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언어제국주의는 항상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되고 저항을 받는다.

언어제국주의가 주어진 맥락 속에서 자리를 잡았는지의 여부는 실증적 문제인데,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들을 조사하고 위에 언급된 여러 변수를 참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다양한 층위에서 연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적 층위에서는, 영어 같은 지배적인 언어 사용자와 다른 언어 화자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개별 국가의 층위에서는 지배적인 공용어와 소수 언어 사이의 관계와 연관이 있다. 국가보다 작은 집단 층위에서는 회사나 대학과 같은 기관의 언어 정책 관련 쟁점이나 원칙의 문제가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그 정책이 명시적이냐 암시적이냐의 문제와 관련될 수도

있다. 권력이 특정 언어와 관련되어 있다는 핵심적 사실과 이를 사회 정의의 역동적인 측면이라고 인식하는 태도가 이 모든 문제들에 스며들어 있다.

어떤 언어가 선의의 목적으로도 악의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언어제국주의에 대한 필자의 연구는 영어나 다른 어떤 제국주의적인 언어를 악으로 묘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영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언어이고, 따라서 필자의 목적은 영어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영어 사용과 학습량의 증가가 다른 언어나 그 언어 사용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언어의 계층화는 전형적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특정 언어 사용자들의 이익을 위해 작용한다. 지배 언어는 일반적으로 일부 사람들에게만 문호를 개방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폐쇄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려면 언어 정책 문제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역사와 개념 사이

제국주의라는 용어는 피지배 국민과 영토에 대한 지배 권력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통제력을 의미하는 라틴어 ‘*imperium*’에서 유래하였다.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에, 군사력과 상업 활동, 그리고 기독교 선교 활동이 결합하여 서구의 문화적 행동 양식과 교육 제도 및 언어의 이식이 용이해졌다. 오늘날 무엇인가를 제국주의적 또는 식민주의적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거의 항상 내재적으로 그것을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적대감이 있음을 의미한다(Howe 2002, 9). 그래서 제국주의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상당 부분에 걸쳐 있던 로마 제국에서, 정복지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되었던 전략은 이미 2000년 전에 통찰력 있게 분석된 바 있다(Tacitus 1948, 72).

라틴어를 거부하는 대신에 그것을 구사하려는 열정이 생겨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 의상도 환영을 받아 토가(toga)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점차적으로 오락 시설, 예를 들어 회랑, 목욕탕, 호화로운 연회와 같은 것들을 미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새로운 것을 ‘문명화’라고 말하였는데, 실제로 그것은 노예화의 한 특징일 뿐이었다.

식민지 경영을 위해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은 일찍이 인식되었다. 1492년 스페인의 이사벨라(Isabella) 여왕은 ‘해외 정복 수단, 본국에서 교육받지 않은 언어를 억압하기 위한 수

단’으로써 카스티야어(Castilian)를 확립하는 계획을 제안 받았는데, 작가인 안토니오 데 네브리하(Antonio de Nebrija)는 언어는 언제나 제국의 배우자였고 영원히 그 친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Illich 1981, 34-35). 언어는 국내 교육 체제의 표준이자 사회 통제의 수단이었으며, 다른 지역의 식민지 경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프랑스어가 유럽에서 세속적인(비종교적인) 용도로 국제어가 되었을 때, 특정 언어의 본질적인 우월성에 대한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 베를린 학회(The Academy of Berlin)는 1782년에 왜 프랑스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었는가에 대한 주제로 대회를 열었다. 입선 논문은 프랑스어의 구문론을 따르지 않는 언어는 비논리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언어학 지식이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지만, 반면 대중문화에는 일부 언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언어 계층의 유지는 전형적으로 피지배 언어(단순한 방언, 토착어)에 오명 씌우기, 지배 언어에 대한 미화(우월한 명료성, 풍부한 어휘), 언어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합리화를 전형적으로 수반하는데, 이는 언제나 지배 언어의 이익(우월한 문화와 ‘진전’으로의 접근)을 목적으로 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리스어가 아닌 언어의 사용자들을 ‘미개인(*barbarian*)’이라고 낙인찍었는데, 이는 언어가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웰시(*Welsh*)’라는 용어는 영어 사용자들이 스스로 ‘킴리(*Cymry*)’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고대 영어에서 ‘*Welsh*’는 외국인 또는 이방인이라는 뜻으로, 자신들의 언어 관점에서 지배 집단과 구별해 낙인을 찍은 부류를 의미한다. 지배 언어는 신의 언어(산스크리트어, 이슬람 세계의 아랍어, 남아프리카의 네덜란드어), 이성과 논리와 인권의 언어(프랑스 혁명 전후의 프랑스어), 종족-민족 집단의 언어(나치 이념에서 독일어), 발전과 근대성과 국가 통합의 언어(식민지 독립 후의 영어)로 구분된다. 다른 언어들은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이러한 기능과 특징을 박탈당했다.

식민지 정부는 유럽 언어에 유리한 차별 정책을 시행하였다. 언어학과 프랑스의 식민지 조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프랑스어가 언어적 만행, 곧 *glottophagie*(Calvet 1974)를 통해서 다른 언어를 어떻게 소멸시켰는지를 입증해 준다. 언어적 계층화는 오늘날 영어의 세계적 지배를 찬양하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인종 차별과 나란히 식민지 경영을 합법화하기 위한 근거로 상당히 중요시되었다(Phillipson 2009). 국제 연합 제노사이드 조약(Genocide Convention)에 정의되어 있듯 언어 학살은 어떤 사회가 지배 문화와 언어로부터 강력하게 공격을 받는 것이며, 이는 현대 세계에서도 여전히 널리 행해지고 있다(Skutnabb-Kangas 2000). 이러한 정책은 인류에 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Skutnabb-Kangas & Dunbar 2010).

언어제국주의의 확산

영국의 영토를 기반으로 한 영어 확장은 영국 제도(British Isles) 전역에 걸쳐서 시작되었다. 1536년의 웨일스 연합법(The 1536 Act of Union with Wales)은 영국의 권리, 법률, 관습 그리고 언어에 대한 복종을 포함하고 있었다(Jenkins 2007, 32). 일부 켈트어가 살아남았고 웨일스와 스코틀랜드의 게일어가 현재 재활성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제도 전반에 걸쳐서 단일 언어 사상이 전파되면서 강력한 결과를 초래했다. 단일 언어 사상은 북아메리카와 오스트랄라시아(Australasia)에 있는 식민지 정착민들에게도 과급됐다.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은 1907년에 “우리에게는 하나의 언어를 위한 자리(room)밖에 없으며, 그것은 바로 영어이다.”라고 밝혔다. 사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언어를 가진 국가 중 하나이다. 캐나다나 남아프리카 같은 정착 식민지와 달리, 인도나 대부분의 아프리카와 같은 개척 식민지에서는 다른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이들 지역에는 기후의 문제로 유럽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오스트랄라시아와 태평양에서의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의 세력은 지속적인 식민지화의 물결과 유럽의 경쟁국 간 군사적 충돌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1815년과 1914년 사이에 이천백만 명의 영국과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민을 떠났고, 가장 많은 수가 미국으로, 이보다 적은 수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로, 그 다음으로는 남아프리카로 떠났다. 또한 네덜란드인, 프랑스인, 포르투갈인과 스페인인의 인구 이동은 영토를 점령할 권리를 가정하는 것이기도 했다. 원주민들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가정하는 무주물 신화(terra nullius)의 목적은 뉴암스테르담(이후의 뉴욕), 뉴잉글랜드, 뉴질랜드, 노바스코샤, 히스패니아(Hispania) 등에 모국과 똑같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는 처음에는 선교 사업과 교육에 이용되기도 하였지만, 영토와 자원에 대한 경쟁이 격화되자 정착민들과 토착민들 사이에 분쟁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때부터 교육은 성공의 유일한 가능성이 되었다. 그래서 ‘언어는 영어를, 매너는 세련되게, 종교는 기독교를’이라는 원칙에 따라 부모는 자녀들을 기숙학교에 보내 교육을 시켰다(Spring 1996, 152). 이런 정책의 직접적 결과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에 본래 존재했던 언어 중 아주 소수만이 살아남았다. 이러한 현상은 소수 언어에 대한 언어제국주의를 입증해 준다.

언어제국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극단적인 사례가 중국의 언어적 소수자들에 대한 탄압이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2010년 교육 계획은 위구르인들이 지배적인 한족 언어에 완전히 동화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위구르인들의 전통

적인 경제와 문화, 종교적 관례를 탄압하는 조치와 딱 들어맞는다. 티베트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책이 있었다. 스탈린 시절의 소련에서 ‘이중 언어’ 교육이란 러시아어 단일 언어 사용으로의 변화를 의미했다. 한국과 같은 점령지에서 일본의 정책은 이론적으로는 일본어 이외의 언어를 말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어를 동아시아의 공용어로 만들겠다는 중대한 목표를 가지고 일본어에만 특권을 부여하는 언어 차별 정책과 이념을 도입하였다(Toshiaki 2005).

미국 식민지에서의 교육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행해졌다. 필리핀에서는 1898년부터 1940년까지 교육에 있어 영어의 배타적인 사용이 강요됐다. 미국 식민지 시절 동안에 공교육, 특히 언어와 문학 교육은 미국 식민주의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교육 과정과 교육학의 결합된 힘은 이념적 전략을 구성하고, 식민지적 관계와 현실에 대한 신화를 합리화하여 도입하고 정당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Martin 2002, 210).

정책의 세밀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했지만 프랑스와 영국은 둘 다 토착 언어들에 대해 — 그 언어들이 아예 무시되었거나 초급 교육 단계에서 사용되었거나 간에 — 낮은 지위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공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구 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저학년 이후에는 특히 더했다. 해당 지역의 전통과 교육 관행이 무시되었고,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토착민 문화’라는 노골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지배 언어에 문명화 속성을 부여하였다(Phillipson 1992, 127-8). 정책들이 실제로는 상당히 다양한 상황에서 임시로 실행되었더라도 이러한 일반화는 정당하다. 프랑스 식민지에서 흑인 엘리트를 육성하기 위한 목표는 프랑스 본국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영국 식민지에서 서는, 영어가 식민지 엘리트가 되는 공식적 도구이자 비결이었다(Ngugi 1986, 115).

세계은행은 개발 도상국의 교육 기금을 조달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기관은 식민지나 식민지에서 이제 막 독립한 국가들에서 언어제국주의 정책을 지속시켜 왔다.

세계은행의 실제 역할은 아프리카에서 제국주의적 언어의 강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초등 교육 전반에 있어서 언어적으로 아프리카화하는 것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듯하다. 예를 들어, 대학을 안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에 관한 보고서에도 아프리카 고등 교육에서의 언어 지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Mazrui 1997, 39).

교육에 대한 세계은행의 재정 지원은 조직적으로 지역 언어를 무시하고, 식민지였던 국가들에서의 영어 사용을 강화하였다. 스리랑카의 대학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방대한 양의 자금은, 다중 언어 국가에서 영어만 교육함으로써 교육을 퇴보시키는 세계은행과 다른 이해 관계자(미국 같은)에 의한 강압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Perera & Canagarajah 2010, 116).

피시먼·콘래드·루벌로페즈(Fishman, Conrad & Rubal-Lopez 1996)의 ‘탈제국주의. 이전 에 영국과 미국의 식민지였던 지역에서의 지위의 변화, 1940-1990(Post-imperial. Status change in former British and American colonies, 1940-1990)’는 여러 전후 사정 속에서

영어의 기능에 대해 풍부한 경험적 서술을 하고 있다. 29명의 기고자들은 특별히 그들이 담당한 국가 연구에서 언어제국주의가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기고자들은 모두 이 문제를 다루었다. 한 편집자가 개념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어떤 기고자도 영어의 지배를 이론화하기 위해 좀 더 강력하고 정확한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았다. 피시먼(Fishman)은 영어가 제국주의자의 도구에서 다국적 도구로 재개념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영어는 어찌되었건 자본주의 이후가 아닌 제국주의 이후(영미의 영토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 확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관점에서 정확히 다시 조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같은 책, 8쪽). 기업 활동과 지역 경제 블록은 권력의 소재를 이전의 민족국가 제국주의보다 더 널리 분산시켰다.

언어제국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영어가 강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 모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 회의적인 학자들은 (a)다른 언어에 비해 영어를 선호하는 언어 차별 정책에 지원을 하는 미국과 영국의 적극적인 영어 증진 활동과 (b)영어가 열어 주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문호 때문에 적극적으로 영어를 배우려는 식민지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 사이에 엄격한 구분이 있는 것처럼 문제를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문제는 마치 (a)는 강요를 포함하고 있지만 (b)는 자유로운 선택인 것처럼 정리된다(Kirkpatrick 2007, 35-7).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이분법이다. 두 요소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권위에 의한 강요나 자유에 의한 선택 모두 맥락상 자유롭지 않다. 추진과 유인의 요인들은 둘 다 언어 패권과 계층화에 기여한다.

또한 커크패트릭(Kirkpatrick)도 이전에 영국과 미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에서 영어가 가지는 힘은 식민 지배자들의 노력 때문이라기보다는, 현대 세계 경제에서 이 국가들의 관여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피시먼(Fishman)의 결론(1996, 640)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분석은 이러한 관여가 ‘중대한 이익’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다국적 기업과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의해 제안된 서구 지배적인 의제를 전제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처럼 보인다. 2008년의 금융 경제 위기는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는 중국 및 다른 국가들의 세력 증대를 드러냈지만, 지금까지 영어는 세계적, 지역적으로 이익을 강화시키고 다른 언어 사용자들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착취를 위한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해 왔다.

이전에 식민지였던 국가들에서 영어의 강력한 지위는 식민지 시대의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독립 이후 수년에 걸쳐서 영어가 사회 경제적 이동에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예측 변수가 되었다는 점은 엘리트 집단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제가 세계화되면서, 영어 교육은 사회 계급들 사이의 격차를 더욱 넓히고 있다(Mohanty 2006, 268-9).

영미의 담론에서, 영어는 종종 국제 통상이나 국제 관계의 ‘언어’ 또는 ‘공통어’로 언급되는데 이는 영어가 상업이나 국제 관계의 유일한 언어라는 잘못된 인상을 준다. 영어를

특별히 옹호하는 주장의 전형적인 예는 ‘초국가(super-state)’ 유럽 연합(현재 유럽 연합은 27 개 회원국이 있다)의 형성을 주장하고, 젊은 사람들의 소비 행태와 국제 교역 통합에 따라 영어를 ‘공통어’로 언급한 한 정치학자의 저술에서 볼 수 있다(Morgan 2005, 57). 모건(Morgan)은 유럽에는 많은 ‘공통어’가 존재한다는 것, ‘국가 간 공통적인 젊은 세대 문화’가 본질적으로 미국적이라는 것, ‘상거래 관행’의 통합은 미국 기업에서 나왔다는 것과 그것이 구현하고 있는 개념적 세계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영어가 중립적이라거나 어느 사회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여하는 단순한 도구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공통어(lingua franca)’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프랑크족(Franks)의 언어에서 유래하지만 이것은 모국어(母語)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를 뜻하는 것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기능에 대해서는 영어가 많은 영역에서 중요한 사회적 목적에 기여한다는 사실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한다. 영어는 좀 더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서술될 수 있다

- 경제 언어(사업과 광고에서 기업의 신자유주의 언어)
- 감정 언어(할리우드, 대중음악, 광고, 소비와 향락주의의 언어)
- 학술 언어(연구서 출판, 국제 회의, 고등 교육에서 학습 내용 전달 수단)
- 문화 언어(이는 여러 국가에서 외국어 학습의 전통적 목표인 영어 사용 국가의 문학 교과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보통 교육의 한 요소로 언어 학습과 통합되어 있다.)
- 국가 간 전쟁 언어(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과 그 충성스런 시종들에 의한 공격, 전 세계 700개 이상의 미군 기지의 존재를 기반으로 함)

식민지 시대 이후에, 영어는 엘리트 집단을 형성하는 중요한 언어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의 강화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식민지들이 정치적 독립을 쟁취했을 때 권력을 가지게 된 엘리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이것은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이후에 세계은행의 방대한 원조를 통해서 강화되고 적극적으로 촉진됐다. ‘미국적 언어’로서 전 세계적인 영어가 존재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영어를 공통어라고 부르는 것이 영어를 문화적으로 중립적인 매체로 이해하는 것이라면 이는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다(Phillipson 2008b, 2009). 논의되고 있는 언어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모국어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외국어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는 적절하지 않은 용어이다. 그 언어가 문화나 그밖의 구체적 목적과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추측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것은 교과목으로서의 어떤 언어를 가리키는 말로는 정확하지 않은 용어이다. 반어적으로, 이 용어는 예루살렘을 재탈환하고 소아시아에서 이슬람교를 제거하려고 출정한 유럽 십자군의 혼종 언어를 지시하기 위한 명칭에서 (아랍어와 페르시

아어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역사적 연속성이 있는 반면에, 현재 영어는 본질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제시된 세계적인 민영화 운동과 연결되어 있다. 인권은 적을 비난할 때가 아니라면 더 이상 의제로 채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언어 교육학: 왜 이렇게 영어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중국, 일본, 한국 등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 많은 영어 원어민을 교사로 채용하면 공교육에서 언어 학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다. 다음과 같은 면의 소양이 부족한 교사들은 매우 위험하다.

- (1) 영어 체계와 음성학, 통사론, 형태론, 화용론, 담화 패턴, 언어의 다양성에 대한 지식
- (2) 교육 이론과 언어 학습 이론에 대한 이해
- (3) 학습자 국가의 학습 전통에 대한 이해
- (4) 학습자의 모어에 대한 숙달과 지식
- (5)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고급 수준까지 학습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음
- (6) 이중 언어 또는 다중 언어 환경에서 살았던 경험
- (7) 자신의 문화가 우수하다고 믿는 경우, 문화적 상대성에 대한 인식
- (8) 교사로서 제한된 경험
- (9) 외국어를 성공적으로 가르친 경험의 부족

게다가 사회 언어학의 역동적인 분야나, 이중 언어 사용 연구, 문화 간 의사소통, 언어 권리, 언어 기술과 다중 매체 언어 사용 및 국제적 의사 소통의 변화하는 방식과 더불어 현재의 세계화 국면에 있어서 교육에 대한 영향력으로서 언어 정책 등에 대한 일반적인 무지의 문제도 있다.

이 글의 시작 부분에서 인용한 Loumis(1977)는 일본에서 여러 해 동안 일한 미국 정치학자인데, 본질적으로 ‘원어민’은 미국적 삶의 방식을 대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동아시아와 중동 전역에 걸쳐서, 마치 국적과 생물학적 혈통이 진실로 중요한 자격 요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원어민’은 하얀 피부색을 가진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또는 뉴질랜드에서 온 누군가로 이해되고 있다. 교육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능숙한 언어 교수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결과가 실망스러운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인식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원어민 채용에 대한 결정은 아마도 선의로 이루어졌겠지만, 언어 학습과 언어 교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

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계의 무지는 아시아에서만 특유한 것은 아니다.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도 똑같이 무지한 결정을 하였다. 예를 들어 그들은 외국어 학습은 이룰수록 더 좋고 하였으며, 이러한 전제를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맹목적으로 신뢰하였다. 유럽 연합은 초등학교에서, 즉 11살 이전에 두 가지 외국어 학습을 권장한다. 교육적으로 무지한 이러한 결정은 정치인들 자신이 외국어 학습에 성공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유발된 것일까?

이렇게 잘못 유도된 정책 뒤에는 중요한 구조적인 영향이 있다. 영국과 미국은 1930년대의 제한된 협력 이후에, 1950년대부터 영어를 세계 언어로 키우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였다. 앞서 인용한 처칠이 강조한 내용대로, 미국과 영국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언어적으로 서로 가깝다. 1945년 이후 세계적으로 미국화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영국은 식민지 지배 이후에도 피지배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영국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기를 원했다. 교육은 의존을 영속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영국과 미국에 의해 전파된 영어 교육은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과 이중 언어 교육의 증거를 무시하는 다섯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 영어는 단일 언어로(monolingually) 교육되어야 한다.
- 영어는 원어민에게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
- 영어는 어릴 때 배울수록 더 좋다.
- 영어는 많이 배울수록 더 좋다.
- 다른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 영어의 수준이 떨어질 것이다.

다섯 가지 원칙은 사실 오류이다.

- 단일 언어 사용의 오류
- 원어민 오류
- 조기 교육의 오류
- 최대 노출의 오류
- 축소(subtraction)의 오류

이러한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한 신뢰는 유일한, 혹은 지배 도구로서의 영어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진다(Phillipson 1992, 183-218). 이 오류들은 수익이 되는 영어 교육 사업 및 단일 언어 교육과 교과서가 세계적으로 적절하다는 추정을 뒷받침한다.

이 다섯 가지 오류들은 유럽 대륙에서의 외국어 교수에는 영향력이 없었다. 덴마크, 독

일, 네덜란드,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영어는 학교에서 외국어로서 성공적으로 교육되었다. 핀란드어는 덴마크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등과 같은 게르만 어족 언어가 아니지만, 핀란드에서도 외국어 학습의 결과는 동일했다. 영어는 (인도와 케냐와 같은 이전의 식민지에서도) 교육의 매개체로 사용되지 않고 하나의 과목으로 교육되었다. 많은 요소들이 유럽에서의 성공적인 영어 학습에 기여했다. 이는 학습 부담량이 아시아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잘 훈련되어 있고 영어에 상당히 익숙하다. 사람들은 학교 밖에서, 매체 속에서, 젊은이 문화 속에서, 여가 활동에서 영어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 중에 어느 것도 한국에서는 적용될 것 같지 않다. 앞서 인용한 박성열(2012)에서는 “능숙한 영어 실력은 세상의 다른 많은 지역에서처럼 사회 계층 표지로 작용한다.”라는 결론이 올바른 것일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부유층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높은 수준으로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영어 학습에 많은 비용을 들이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들이 만나게 되는 교사와 단일어 학습 자료가 적절하지 않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신언어제국주의

이 부분에서는 정치 경제학과 언어 정책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사회 과학적 접근 방법에 영감을 받아 신언어제국주의를 이론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본 제국주의는 “국가와 제국의 정치”(그 권력이 영토에 대한 통제와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에 기반하고 있는 행위자의 측면에서 독특한 정치 프로젝트인 제국주의)와 “시공 속에서 자본 축적의 분자 과정”(시공간 안에서 자본에 대한 통제와 이용이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는 널리 퍼진 정치, 경제적 과정으로서의 제국주의)의 모순된 혼합이다(Harvey 2005, 26). 첫 번째는 국가 및 국가 결합, 또는 기업이나 대학 같은 단체가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언어 자본에 투자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상명하달식 과정이다. 두 번째는 매일의 생산 활동, 무역, 상업, 자본 흐름, 자본 전달, 노동력 이동, 기술 전달, 환 투기, 정보의 흐름, 문화적 충돌과 기타 등등을 통해서(국가 또는 지역적 세력 집단과 같은) 영토적 주체(territorial entities)로 향하거나 멀어지면서 경제 권력이 움직이는 방식이다(같은 책).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은 결정적으로 언어에 의존하고 언어로 구성된다.

영어는 기업 세계와 정부의 이익에 봉사하는 자본주의 신제국주의적 언어로 보일 수 있다(Phillipson 2008a, 2009). 이것은 경제, 정치와 담론의 교차점에서, 변증법적 과정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언어 자본 축적의 분자 과정을 거쳐 활성화된 언어에 딱 들어맞는다.

신언어제국주의에 관한 정치적 논증 방식은 의사 결정과 언어 정책 및 언어 계획을 나타내는 반면, 경제적 논증 방식은 모든 단계에서 그러한 결정을 통한 실무, 언어 계획 결정의 실행, 수많은 맥락 속에서 영어의 실제적 사용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자국어를 보존하고 있던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에서 영어가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할 때,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국가에서 영어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언어 자본 축적 현상이 발생한다. 싱가포르 부모들이 점차적으로 가정에서 아시아 언어 대신 영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 이는 언어 자본이 축적됨을 의미한다. 독일어나 스웨덴어 사용자가 학문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도 역시 이와 유사하다. 이러한 각각의 경우를 고려했을 때, 개인은 이 언어 자본이 자신의 사적 이익에 가장 잘 기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신제국주의적 언어를 선택한다. 또한 영어를 자신의 언어 목록에 하나 더 추가하기보다, 자신의 언어를 희생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언어가 위축되는 변화를 보일 때, 그리고 만약 이것이 단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다른 언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업, 가정 또는 학문과 같은 영역을 잃는다면 사실상 언어 자본 강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두 구성 요소가 모순적으로 결합된 언어 정책의 뒤얽힘(interlocking)에 대한 분석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목적에 기여하는 공동의 의제 및 일정한 목적을 위해 영어를 사용하는 다수의 흐름을 강조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새로운 담론과 기술이 채택되고 창의적으로 적용되지만 이는 ‘자유로운’ 세계와 경제 시장으로 불리는 조작된 세계일 뿐이다.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와 스페인어 같은 다른 주요한 국제적 언어의 적극적인 증진은 또한 시장의 힘과 각 언어에 관련된 문화를 강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에 투자된 언어 자본은 현재 영어의 월등한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하지는 않는다. 중국의 세계 제국화는 아직 진행 중이다.

국제적 언어의 증진 그 자체는 미디어 생산물과 상업적 활동에 적합한 경제 용어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테솔(TESOL, 다른 언어 사용자에 대한 영어 교수) — 교수 자료, 시험, 노하우, 원어민 교사 기타 등등 — 은 영국과 미국의 중요한 영리적 사업이고 영어 신제국주의의 핵심적 분야이다. 영어 교수 분야에서 영국은 무형 수출로 직접적으로 13억 파운드를 벌어들이고 다른 교육 관련 수출로 100억 파운드 이상을 벌어들인다(영국의 영어 교수 제공자와 더 넓은 교육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저술인 Graddol(2006) 서문에서, 주한 영국문화원 원장 닐 킨녹 경(Lord Neil Kinnock)). 주한 영국문화원은 문화적 외교와 상업적 홍보 활동을 결합하고 있으며, 현재 영어 교수와 영어 능력 시험을 통해서 대부분의 활동 자금을 조달한다. 미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은 없지만 2011년 11월에 (힐러리 클린턴이 장관인) 국무부와 언어 교수 단체 테솔 인터내셔널(TESOL International) 사이의 전략적 제휴를 공표했다.

그들의 목적은 미국 밖에서 영어 교수를 강화하고 영어 교육 효율성과 배양 능력을 향상하며 자신들의 국제적 활동을 증진하는 것이다. 또 미국에 기반을 둔 영어 자원과 전문 지식에 대한 국가적 접근을 확장하기 위함이며, 미국 기업, 대학, 출판업자와 다른 영어 교육 관계자들과의 공동 작업을 위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세계적으로 퍼뜨리기 위한 것이다.

세계적인 영어 홍보는 경제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영어에 대한 공급이 진공 속에서 나타난 것은 아니며,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적절하다는 가정하에 영국과 미국의 정치 세력에 의해 조직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정당성에 대해 아시아 정부들은 지금까지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요한 출판사들은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뻗어 있다. 예를 들어, 피어슨 에듀케이션(Pearson Education)의 국제 사업은 최근에 급속도로 성장했고, 110개국 이상의 나라에 진출해 있다(<http://www.pearson.com/index.cfm?pageid=18>, 2008년 1월 15일 접속). 영어 능력 시험 토플(TOEFL)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s of Princeton, NJ)의 웹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의 세계적 임무는 시험 이상의 것이다. 우리의 생산품과 서비스는 지식과 기술을 측정하고, 학습과 실천을 증진하며, 세계 모든 사람들의 교육 발전과 직업적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세계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피어슨(Pearson)은 최근에 영어 시험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토플(TOEFL)과 케임브리지 대학의 동급 국제 영어 능력 시험(IELTS) 등 상당히 수익성이 높은 시험들과 경쟁하고 있다.”

신언어제국주의가 초국가적, 국가적, 또는 국가 내부적으로 주어진 맥락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실증적 연구와 철저한 기록과 그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일부 유럽의 상황 속에서 행해진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 언어위원회의 대표와 일부 국수적인 정치인들은 덴마크어가 이미 영역을 상실했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고등 교육에서 영어의 사용량이 교육 매체(예를 들어 영어를 배우는 과정 혹은 정도)와 과학 서적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반응을 보였다. 사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 전에 이 문제는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으며, 존재하는 일부 실증적 연구는 영어가 공제적이라기보다 부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영어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정의가 필요하다. ‘영역’은 넓은 의미(예를 들어 대학 언어)에서 또는 좀 더 좁은 의미(예를 들어 생물학과 같은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 용어)에서 사용될 수 있다. ‘상실(loss)’도 언어 사용을 결정하는 배후의 집단과 사람 및 힘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 실패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용어이다. 언어 자본 축적과 강탈이라는 용어는 언어 정책 분석과 형성의 한 관점으로서 언어 관례의 변화와 그 결과의 인과 관계 요소를 확인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언어제국주의와 저항 사이의 지속적 갈등

브라질, 중국, 일본, 한국의 경제적 활력은 교육과 연구가 각 국가의 자국어로 수행되어 학문 서적으로 출판된다는 데에 기반을 둔다. 방대한 분량의 영어로 된 과학 출판물은 언어 계급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다. 따라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세계 출신의 학자들은 점점 더 영어로 책을 출판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Mar-Molinero 2010). 영어로 된 과학 출판물이 극도로 중시되는 반면,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다른 언어로 출판된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인용 색인은 언어 흐름의 자기 보강 고리(self-reinforcing loop of language)를 확립한다. 영어는 널리 유포되고 색인되며, 한층 더 인용된다. 영어는 인용되고 나아가 색인되며 더 나아가 널리 유포된다(Tonkin 2011, 109).

인도에서, 그리고 상당히 팽창하는 다른 경제권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전적으로 영어로 출판된다. 이것은 식민지 시대 언어 계층의 연속성과 지역 언어에 대한 자원 투자의 실패를 반영한다. 세계 여러 지역의 대학들은 남아프리카와 중동, 홍콩에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의 지배적인 역할과 지역적 요구에 봉사할 의무 사이의 갈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대학들이 원래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 대학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영어만을 사용할 경우,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의 대학들에서 중국,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같은 국가로 대학 캠퍼스를 수출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인지 의심스럽다. 각각의 경우에 지역 언어 강화 정책이 없거나 무시된다면 영어는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가 되어 버린다.

유럽 연합은 모든 유럽 연합 언어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언어주의와 모든 학생들이 3가지 언어를 구사하게 하는 정책을 지지한다. 그러나 유럽 연합 기구에서 다언어주의 관리 는 무척 복잡하며, 시장의 힘은 유럽 연합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서도 영어의 지위를 강화시키고 있다(Phillipson 2011). 그래서 다른 언어들은 추방되거나 자신들의 언어 자본이 강탈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위에 상술한 개념적 틀은 이 글의 초기에 제기된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탐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분석은 언어제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교육 경험의 자료에 의해서 보충될 수 있다. 거시-사회언어학과 언어 정책 분야에서 이루어진 학문 성과가 지난 20년 동안 극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이것은 불평등의 문제, 사회적 정의와 신제국주의적 언어 세계의 질서가 형성되는 방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영어 능력을 계발하기를 바라지만 대부분 이것은 축소적(subtractive)인 학습 결과를 수반한다. 예를 들어, 영어로 이루어지는 학교 수업과 단일 언어 학사 학위는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세계적 엘리트 형성을 강조하는 양상은 세계적으로 영어를 매체로 하는 국제학 교가 2001년에 대략 1,700개에서 2009년에 5,270개로 급격히 증가한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영역은 세계적으로 현재 180억 달러의 가치가 있고 2020년까지 주로 인도, 중동과 아시아에서 팽창되어 그 가치가 두 배가 될 것이다(Hoare 2009). 이 학교를 졸업한 많은 학생들은 아마도 영어 사용 국가의 대학에서 계속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문화에서 기원하는 언어적 뿌리는 세계 경제와 국제적 이동성과 더불어 그들의 정체성보다도 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조적으로, 북유럽 국가 정부들은 영어 능력의 향상이 모어의 역할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래서 핀란드와 스웨덴의 많은 대학들은 졸업생과 직원들이 실제로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장할 언어 정책을 만들었다. 대학들은 공적으로 자금이 지원된 기관으로서 모국어를 증진할 책임이 있고, 국제 사회 관행의 참가자로서 그들은 또한 영어와 다른 국제어로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대학들은 언어제국주의의 부정적 영향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고 이것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 상호 간의 협동은 북유럽 각료 회의에서 2006년에 승인되고 덴마크어, 페로어(Faeroese), 그린란드어, 핀란드어, 아이슬란드어, 노르웨이어, 사미어(Saami), 스웨덴어와 영어로 공포된(www.norden.org) ‘북유럽 언어 정책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a Nordic Language Policy)’을 공식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문서는 모든 북유럽 국가 주민들의 언어권을 명기하고 있고 언어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주요한 기관들에게 적극적인 언어 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장한다. 이는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정부 차원의 명시적 언어 정책이기에, 언어 정책이 단순히 시장의 힘에 맡겨지거나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 정책의 기저에 흐르는 사고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두 언어를 통합하는 것이다. 초점은 ‘영어를 유일한 대학 교수 언어로 선택함으로써 영어 제국에 대한 집착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두 언어를 조화롭게 결합시키는 것’이다.

특히 고등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선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사회에 필수적인 북유럽 국가들의 언어와 학문 언어로서의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모두 가능해야 한다.
- 사회에 필수적인 북유럽 국가 언어에 의한 학문적 결과의 발표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
- 과학 기술 언어, 특히 문서 형태의 교수는 사회에 필수적인 북유럽 국가들의 언어와 영어로 행해져야 한다
- 종합 대학, 대학 그리고 다른 학문 기관은 그들 분야 내에서 언어 선택, 언어의 동등한 사용, 언어 교육과 번역 보조금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북유럽 국가에 있는 대학들은 모국어와 주로 영어를 의미하는 국제어에 의한 학습, 교육과 출판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보장할 것을 권고받았다(Harder(2009)의 ‘코펜하겐 대학에서의 자연과학의 발전에 대한 유용한 분석’을 참조). 이러한 국가에서 문학 학사와 석사 수준에서 이중 언어 현실로의 이행(미국과 유럽 연합이 현재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볼로냐 과정(Bologna process)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은 언어 선택의 문제, 양질의 언어 구사, 언어 능력 개발 등이 언어 전문가들의 해결 과제가 아니라 모든 고등 교원의 책임이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는 내용과 매체가 완전히 통합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성취하기란 힘겨운 일이 될 것이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몇몇 대학은 상당히 자세한 언어 정책을 대학의 웹 사이트에 올려놓았다. 핀란드어, 스웨덴어와 영어로 게시된 헬싱키 대학의 언어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수칙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언어는 학문적 공동체 내에서 하나의 자원이다.
- 대학의 이중 언어와 복수 언어 환경 및 국제화는 모두를 위한 풍족함의 원천이고 연구 수행의 국제적인 비교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 언어 능력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그리고 핀란드 문화를 다른 국가에 알리기 위한 수단이다. 대학은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지원하든 것뿐만 아니라 학생과 직원들이 언어 유창성을 획득하도록 지원한다. 복수 언어와 복수 문화 공동체는 창의적인 사고를 증진한다.

헬싱키 대학 언어 센터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공식적인 연구 자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대조적으로, 코펜하겐 대학은 덴마크어와 영어 모두를 잘 구사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모든 교수진의 대표자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국제화 및 동등한 기능 센터(Centre for Internationalisation and Parallel Competence)’를 설립했다(www.cip.ku.dk). 어떤 연구에서는 동일한 강의 내용을 양쪽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강의를 촬영하기도 한다. 또 다른 연구는 교육 매체로서 영어의 사용에 대한 대학 교수의 태도에 대한 것이다. 웹 사이트에서는 센터가 대학 교수의 영어 능력을 증명하는 절차를 개발했다고 알리고 있다. TOEPAS(대학 교수진의 구술 영어 능력 테스트)는 대학 교수들에게 안성맞춤일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영어 능력에 대한 상세한 서면과 구술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특별한 능력 개발 도구이다.

학문과 학문 언어는 시장의 힘으로부터 점점 증가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이것과 전통적인 학문의 자유 사이에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다. 학술 대회나 응용 프로그램 및

전문적 발전 등에서 상호 작용의 많은 형태는 지배 언어, 특히 영어를 불공평하게 선호한다. 정치인들은 기업 세계 및 유럽 연합과 연합한 자신들만의 의제가 있다. 우리 학자들은 우리의 실천이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의 원칙을 유지한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 필요는 대학들이 언어 정책을 확립하고 실행하며 언어적 다양성을 강조하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모든 학자들은 최선의 영어 능력을 갖추고 이를 통해 수용적이며 생산적으로 말하고 저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모국어의 독창성을 희생하거나, 일반 대중이 잘 아는 자국어어를 훼손하면서까지 일어나서는 안 되며 일어날 필요도 없다. 교원들과 학생들이 단순히 이 제한적인 계획에 순응하지 않고 영어 지배 제국의 세력 속에서 적극적인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 대학은 다양한 언어 속에서 부가적인 복수언어주의를 보장하는 조치에 전념해야 한다.

부록에서는 복수 언어를 사용하는 고등 교육과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분류 체계를 상술하였다(Phillipson 집필 중). 이것은 언어 지위 계획, 언어 자료 계획, 언어 습득 계획, 말뭉치와 어법 계획, 언어 기술 계획과 같이 주요한 언어 정책과 언어 계획에 따라서 체계화되었다. 이러한 범주들은 서로 공존하고 있다. 이 분류 체계는 능동적인 기관의 언어 정책이 구체화되면 조정되어야 하고, 지역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개선되어야 하는 잠정적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 영어 사용의 점진적인 증가는 시장의 힘에 따르는 교수와 학생 모두의 양질의 외국어 기술 문제와 함께 대체로 즉흥적으로 진행되었다.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좀 더 철저한 분석과 계획이 실행될 때가 되었다. ‘세계화 시대의 자국어 보전과 진흥’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학술 대회는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건설적인 방법이다.

부 록

복수 언어를 사용하는 고등 교육과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분류 체계

- 지위 차원(언어 지위 계획)

○ 거시적 수준(*Macro level*)

국제적, 국가적 그리고 기관의 복수 언어 사정과 제한
세계적, 지역적 언어 생태계의 계층과 그에 대한 인식
언어 자본 축적 또는 강탈의 경제적 요소와 과정
중심적 학문 영역에서의 언어 유지와 혁신의 정도
언어 인권 준중의 정도

○ 미시적 수준(*Micro level*):

핵심적 대학 활동 속에서의 구술과 저술 그리고 웹 사이트 상의 언어 사용
언어권, 언어 의무 그리고 언어적 다양성의 인식

- 다음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언어 자료 계획)

○ 다음의 언어 선택을 위한 명시적, 함축적 언어 정책

내부적, 외부적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기관
부서와 문학사, 문학석사 그리고 박사 수준의 모든 학위

○ 언어 정책 결정의 실행과 검토를 위한 책임

○ 특정한 학습과 연구 사정 속에서 교육 매체/매체들

○ 기관과 개인의 복수 언어 사용 정체성과 복수언어주의에 대한 인식

○ 교원 및 학생의 언어 숙달에 대한 증명

○ 교습과 연구의 질 평가와 증진을 위한 기준

○ 출판물의 언어와 출판물의 통계적 분석의 양을 정하는 언어 정책

- 실행 공동체의 창설과 유지를 위한 과정(언어 습득 계획)

○ 학문적 언어 숙달 개발을 위한 기능적 목표와 교수와 학생

○ 분화된 활동을 위한 유창성 개발에 대한 학습 과정

습득(듣기, 읽기)과 생산(말하기, 쓰기)

○ 번역과 대조적 연구에 의지할 수 있는 누적적인 초언어적, 상위 의사소통적, 이질 문화적 인식의 개발

- 언어 학습 센터에서의 자기 교육을 포함하는 핵심적인 교습과 학습 활동에 있어서
정보 통신 기술의 통합
- 모든 수준의 지식 습득과 창조에서의 교사와 학생의 역할
- 기관 내부와 다음의 외부적 지식 공유
국제적인 학술 논문과 저서
지역 대중 매체
교과서와 참고서
인터넷

- 다음에서 결정된 바에 따른 수준1(L1)/수준2/수준3에서의 형식(말뭉치와 어법 계획)

- 권위 있는 참고서와 자료 속에서 언어의 체계화
- 학문적 목적을 위한 장르와 담론에 있어서 언어 형태의 관습
- 필요한 경우에 전문 용어와 어법의 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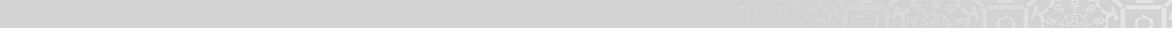
- 기술(언어 기술 계획)

- 인터넷에 기반한 교수와 학습 지원
- 온라인 자료의 상술
- 언어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참고 문헌

- Calvet, L-J. (1974). *Linguistique et colonialisme: Petit traité de glottophagie*. Paris: Payot.
- Fishman, J. A., A. W. Conrad and A. Rubal-Lopez, (eds.) (1996). *Post-imperial English. Status change in former British and American colonies, 1940-1990*. Berlin: Mouton de Gruyter.
- Gandhi, M. K. (2010). *M. K. Gandhi's Hind Swaraj. A critical edition*. Annotated and edited by S. Sharma and T. Suhrud. New Delhi: Orient Blackswan. First published in Gujarati in 1909.
- Graddol, D. (2006). *English next*. London: British Council.
- Harder, P. (ed.) (2009). *English in Denmark: Language policy, internationalization and university teaching*. Copenhagen: Museum Tusculanum Press for the University of Copenhagen.
- Harvey, D. (2005) [2003]. *The new imperi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oare, S. (2009). The *Guardian Weekly*, 4 December 2009.
- Howe, S. (2002). *Empire,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Illich, I. (1981). *Shadow work*. Boston: Marion Boyars.
- Jenkins, G. H. (2007). *A concise history of Wal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rkpatrick, A. (2007). *World Englishe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English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umis, Douglas (1977). English conversation as ideology. In *Essays on Language*, ed. Y. Kurokawa. Tokyo: Kiriara Shoten, 1-26.
- Mar-Molinero, C. (2010). The spread of global Spanish: From Cervantes to *reggaetón*. In Coupland, N. (ed.), *The handbook of language and globalization*. Malden, MA: Wiley-Blackwell, 162-181.
- Martin, I. P. (2002). Canon and pedagogy: the role of American colonial education in defining standards for Philippine literature. In A. Kirkpatrick (ed.), *Englishes in Asia: communication, identity, power and education*. Melbourne: Language Australia, 201-211.
- Mohanty, A. (2006). Multilingualism and predicaments of education in India. In O. García, T. Skutnabb-Kangas and M. E. Torres-Guzmán, eds. *Imagining multilingual schools. Languages in education and globaliz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262-83.
- Morgan, G. (2005). *The idea of a European super-state. Public justification and European integr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orton, H.V. (1943). *Atlantic meeting*. London: Methuen.
- Ngũgĩ wa Thiong'o (1986) *Decolonising the mind: The politics of language in African literature*, London: James Currey.
- Park, Joseph Sung-Yul (2012). English language as border-crossing: Longing and belonging in the South Korean experience. In Rapatahana and Bunce (eds.), 208-220.

- Perera, K. and S. Canagarajah (2010). Globalization and English teaching in Sri Lanka: Foreign resources and local responses. In Vaish, V. (ed.), *Globalization of language and culture in Asia. The impact of globalization processes on language*. London: Continuum, 106-119.
- Phillipson, R. (1992). *Linguistic imperi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hillipson, R. (2008a). The linguistic imperialism of neoliberal empire. *Critical Inquiry in Language Studies*, 5/1, 2008, 1-43.
- Phillipson, R. (2008b). Lingua franca or lingua frankensteinia? English in European integration and globalisation. *World Englishes*, 27/2, 250-284, a 'Forum' consisting of the article, responses by seven scholars and a closing word by Robert Phillipson.
- Phillipson, R. (2009). *Linguistic imperialism continued*. New York and Abingdon: Routledge (also published by Orient Blackswan for seven South Asian countries).
- Phillipson, R. (2011) The EU and languages: diversity in what unity? in A. L. Kjør & S. Adamo (Eds.), *Linguistic diversity and European democracy*, pp. 57-74 (Farnham: Ashgate).
- Pieterse, J. N. (2004). *Globalization or empire*. New York: Routledge.
- Phillipson, R. (in press). Additive university multilingualism in English-dominant empire: the language policy challenges. In *Professionalising multilingualism in higher education*, ed. G. Ziegler, Bern/Frankfurt: Peter Lang.
- Rannut, M. (1994). Beyond linguistic policy: the Soviet Union versus Estonia. In Skutnabb-Kangas, T., & Phillipson, R. (eds.), *Linguistic human rights: Overcoming linguistic discrimination*. Berlin: Mouton de Gruyter, 179-208.
- Roosevelt, T. (1919). Letter to R.K. Hurd, January 3.
http://urbanlegends.about.com/library/bl_roosevelt_on_immigrants.htm.
- Skutnabb-Kangas, T. (2000). *Linguistic genocide in education - or worldwide diversity and human rights?* Mahwah, NJ: Lawrence Erlbaum.
- Skutnabb-Kangas, T. and R. Dunbar (2010). *Indigenous children's education as linguistic genocide and a crime against humanity? A global view*. Guovdageaidnu/ autokeino: Galdu, Resource Centre for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http://www.galdu.org>).
- Spring, J. (1996). *The cultural transformation of a Native American family and its tribe 1763-1995*. Mahwah, NJ: Lawrence Erlbaum.
- Tacitus on Britain and Germany* (1948). A new translation of the 'Agricola' and the 'Germania' by H. Mattingly. West Drayton: Penguin.
- Tonkin, H. (2011). Language and the ingenuity gap in science. *Critical Inquiry in Language Studies*, 8/1, 105-116.
- Toshiaki, Y. (2005). L'aménagement linguistique du Japon imperial - la Corée pendant la période de colonisation (1910-45), le "Mandchoukuo" 1931-1945) et "La sphere de



co-prospérité de la grande Asie orientale” (1941-1945). Dans Calvet, Louis-Jean et Pascal Griolet (dir.) 2005. *Impérialismes linguistiques hier et aujourd’hui. Actes du colloque franco-japonais de Tôkyô (21, 22, 23 novembre 1999)*. Aix-en-Provence : INALCO/ÉDUSUD, 97-118.

How linguistic imperialism continues: diagnosis and resistance

Robert Phillipson

(Copenhagen Business School, Denmark)

* DRAFT TEXT - INTENDED FOR THE NOVEMBER CONFERENCE NOT FOR CITATION

The article has sections covering

- The study of linguistic imperialism: principles and challenges
- A historical and conceptual interlude
- Expansion through linguistic imperialism
- Language pedagogy: why so much English?
- Linguistic neoimperialism
- Ongoing tensions between linguistic imperialism and resistance

and attempts to connect these issues to the Korean situation. It begins with a few samples of imperialist discourse and reactions to it.

The British Empire and the United States who, fortunately for the progress of mankind, happen to speak the same language and very largely think the same thoughts.

The power to control language offers far better prizes than taking away people's provinces or lands or grinding them down in exploitation. The empires of the future are the empires of the mind.

Winston Churchill,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Kingdom, 1941 and 1943¹⁾

1) 1941: House of Commons, cited in Morton 1943. 1943: when receiving an honorary degree at Harvard University.

The whole world should adopt the American system. The American system can survive in America only if it becomes a world system.

Harry Truma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47²⁾

Attitudes to English in Korea have been deeply impacted by neocolonial and racial US influence. ‘As the US was constructed as powerful, advanced and beautiful ... Koreans were understood as its mirror image – weak, backwards and inferior’, as a result of which Koreans experience anxiety and tension vis-à-vis English and the monumental but ultimately impossible task of becoming fluent and on a par with ‘native speaker’ competence. The rich can afford preferential treatment, as a result of which competence in English is a class marker.

Joseph Sung-Yul Park, 2012, 214

In the British empire the purpose of education was to produce ‘A class of persons, Indian in blood and colour, but English in taste, in opinions, in morals, and in intellect.’

Thomas Babington Macaulay, 1835

To give millions a knowledge of English is to enslave us. The foundation that Macaulay laid of education has enslaved us.

Of all the superstitions that affect India, none is so great as that a knowledge of English is necessary for imbibing ideas of liberty, and developing accuracy of thought. English is a language of international commerce, it is the language of diplomacy, and it contains many a rich literary treasure, it gives us an introduction to western culture. For a few of us therefore, a knowledge of English is necessary. (...) today English has usurped the dearest place in our hearts and dethroned our mother-tongues. It is an unnatural place due to our unequal relations with Englishmen.

Mahatma Gandhi 1909³⁾, 1921.

2) Cited in Pieterse 2004, 131.

3) See Gandhi(2010).

The world of English conversation is racist ..., racist in its payscale, racist in its hiring practices, racist in its advertising, and in the ideology put forward in its textbooks and classrooms... the idea of the “native speaker” is mostly a fraud ... what is important is to stop thinking of English as the language of cultural domination.

Douglas Loumis, 1977, 7, 24

The study of linguistic imperialism: principles and challenges

The study of linguistic imperialism focuses on how and why certain languages dominate internationally, and attempts to account for such dominance in a theoretically informed way. Many issues can be clarified: the role of language policy in empires (British, French, Japanese, etc.); how languages from Europe were established on other continents, generally at the expense of local languages; whether the languages that colonialism took to Africa and Asia now form a useful bond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re necessary for national unity internally - or are they a bridgehead for Western interests, permitting the continuation of marginalization and exploitation? In a globalizing world, has English shifted from serving Anglo-American interests into a more equitable instrument of communication for diverse users? Or do US corporate and military dominance worldwide and the neoliberal economy constitute a new form of empire that consolidates a single imperial language? Is the global UK-US trade of exporting native English Language Teachers sufficiently well qualified to solve Asia's English learning problems, or is this a commercially and politically driven business that is unqualified linguistically, educationally, and culturally? With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China globally, will the vigorous promotion of Chinese internationally convert into a novel form of linguistic imperialism?

In the Korean context, a key challenge is to maintain the vitality of a successful national language while also addressing the need to promote proficiency in relevant international languages. In view of the expansion of English in many contexts and countries in recent decades, are there countries that have succeeded in establishing a balance between English and national languages? Are there useful guidelines in the

extensive literature on language policy, language management, and language in education policy that provide guidelines for addressing such challenges? Is the frenzy to learn English in Korea (*yeongeo yeolpung*, Park 2012, 208) leading to successful results, and if not why not? Is there an almost neurotic obsession with learning English in Korea, China and Japan? What are its causes, and can the obsession, with its multiple economic and ideological consequences, be seen as an aberration that ought to be vigorously combated? What measures can be put in place to ensure that language policy in Korea meets both national needs and a variety of international needs in a changing world?

Answers to such questions can be sought by exploring the evidence for or against linguistic imperialism in a given context. Imperialism needs careful definition if it is to be used analytically. This principle guided the definition of linguistic imperialism as a variant of linguisticism (Skutnabb-Kangas 1988: 13), which functions through structures and ideologies, and entails unequal treatment for groups identified by language. Linguistic imperialism entails the following (Phillipson 1992, 2009):

- linguistic imperialism interlocks with *a structure of imperialism* in culture, education, the media, communication, the economy, politics, and military activities
- in essence linguistic imperialism entails *exploitation*, injustice, inequality, and hierarchy that privileges those able to use the dominant language
- it is *structural*: more material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are accorded to the dominant language than to others
- it is *ideological*: beliefs, attitudes, and imagery glorify the dominant language, stigmatize others, and rationalise the linguistic hierarchy
- the dominance is *hegemonic*, it is internalised and naturalised as being ‘normal’
- this entails *unequal rights* for speakers of different languages
- language use is often *subtractive*, proficiency in the imperial language and in learning it in education involves its consolidation at the expense of other languages
- it is a form of *linguicism*, a favouring of one language over others in ways that parallel societal structuring through racism, sexism and class: linguisticism serves to privilege users of the standard forms of the dominant language, which represent convertible linguistic capital

- there are always both *supply and demand* elements, push and pull factors, behind which there are identifiable actors or agents
- since linguistic imperialism is one dimension of the way *capitalism* has evolved over the past 300 years,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volume and type of investment in the *linguistic capital* of specific languages, national or international
- linguistic imperialism is invariably *contested and resisted*.

Whether linguistic imperialism is in place in any given context is an empirical question that needs investigation through exploration of the relevant evidence and with reference to the variables listed above. The issues can be investigated at a variety of levels. For instance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is could be a ques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peakers of a dominant international language such as English and speakers of other languages. At the level of a country, it relate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 dominant national language and minority languages. At the sub-national level, it could be language policy issues and principles in an institution such as a company or a university, and whether such policies are overt or covert. Permeating all such issues is the key fact that power is associated with particular languages, and awareness of this as a dynamic aspect of social justice.

It is also important to recall that any language can serve good or evil purposes. My exploration of linguistic imperialism does not involve demonizing English or any other imperial language. English is currently the world's most dominant language, so my purpose is to explore what purposes English serves in any context, why this is happening, and how the increased use and learning of English relates to other languages and their speakers. Hierarchies of language typically serve the interests of speakers of some languages better than others. A dominant language typically opens doors for some and closes them for others. Investigating such issues requires that language policy issues are seen in a historical perspective.

A historical and conceptual interlude

The term imperialism derives from the Latin *imperium*, covering military and political control by a dominant power over subordinated peoples and territories. In the period of global European dominance, a combination of military, commercial, and Christian missionary activities facilitated the transplantation of Western cultural and educational norms, and languages. Using terms like imperialism is contentious, because ‘Defining something as imperial or colonial today almost always implies hostility to it, viewing it as inherently immoral or illegitimate’ (Howe 2002, 9), although the dominant tend to have no illusions about the workings of empire. In the Roman empire that covered much of Europe and North Africa, the strategy for co-opting a conquered people was insightfully analysed 2000 years ago (Tacitus 1948, 72):

in place of distaste for the Latin language came a passion to command it. In the same way, our national dress came into favour and the toga was everywhere to be seen. And so the Britons were gradually led on to the amenities that make vice agreeable – arcades, baths and sumptuous banquets. They spoke of such novelties as ‘civilization’ when really they were only a feature of enslavement.

The significance of language for the colonial adventure was appreciated from its inception. In 1492 Queen Isabella of Spain was presented with a plan for establishing Castilian ‘as a tool for conquest abroad and a weapon to suppress untutored speech at home’: for its author, Antonio de Nebrija, ‘Language has always been the consort of empire, and forever shall remain its mate’ (Illich 1981, 34-5). The language was to be fashioned as a standard in the domestic education system, as a means of social control, and harnessed to the colonial mission elsewhere.

When French became a lingua franca for secular purposes in Europe, there was widespread belief in the intrinsic superiority of the language. The Academy of Berlin held a competition in 1782 on the theme of why French was a ‘universal language’. A winning essay argued that languages which do not follow the syntax of French are illogical and inadequate. While linguistic knowledge shows unambiguously how false such ideas are, there is a quite widespread belief in popular culture that some languages are superior to others.

Maintenance of a linguistic hierarchy typically involves a pattern of *stigmatisation* of dominated languages (mere ‘dialects, ‘vernaculars’), *glorification* of the dominant language (its superior clarity, richer vocabulary), and *rationalis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guages, always to the benefit of the dominant one (access to the superior culture and ‘progress’). The ancient Greeks stigmatised non-Greek speakers as *barbarian*, meaning speakers of a non-language. The term *Welsh* was used by speakers of English to refer to people who call themselves *Cymry*. ‘Welsh’ in Old English means foreigners or strangers, a stigmatising categoris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ominant group and in their language. A dominant language is projected as the language of God (Sanskrit, Arabic in the Islamic world, Dutch in South Africa), the language of reason, logic and human rights (French both before and after the French Revolution), the language of the superior ethno-national group (German in Nazi ideology), the language of progress, modernity, and national unity (English in much postcolonial discourse). Other languages are explicitly or implicitly deprived of such functions and qualities.

Colonial governments implemented *linguicist* policies that discriminated in favour of European languages. An analysis of the links between linguistics and the furtherance of the French colonial cause documents how French ‘consumed’ other languages by processes of linguistic cannibalism, *glottophagie* (Calvet 1974). Linguistic hierarchisation figured prominently, alongside racism, in the legitimisation of the colonial venture, as it does in arguments that celebrate the current dominance of English globally (Phillipson 2009). Linguistic genocide, as defined in work on the United Nations genocide convention, is in fact still practised widely in the modern world when groups are forcibly assimilated to the dominant culture and its language (Skutnabb-Kangas 2000); such policies can also be seen as a crime against humanity (Skutnabb-Kangas and Dunbar 2010).

Expansion through linguistic imperialism

The expansion of English from its territorial base in England began with its imposition throughout the British Isles. The 1536 Act of Union with Wales entailed subordination to the ‘rights, laws, customs and speech of England’ (cited Jenkins 2007, 132). Throughout the British Isles a monolingual ideology was propagated, with devastating

effects, even if some Celtic languages have survived and Welsh and Scots Gaelic are currently being revitalised. A monolingual ideology was exported to settler colonies in North America and Australasia. President Theodore Roosevelt wrote in 1907: 'We have room for but one language here, and that is the English language'. In fact the United States is one of the most linguistically diverse countries in the world. Unlike settler colonies, such as Canada or South Africa, different policies were evolved in exploitation colonies such as the Indian subcontinent and most African colonies, where the climate precluded settlement by Europeans.

The present-day strength of English, French, Spanish and Portuguese in the Americas, in Africa, in Asia, Australasia and the Pacific is a direct consequence of successive waves of colonisation and of the outcome of military conflict between rival European powers. Between 1815 and 1914 over 21 million British and Irish people emigrated, the greatest number to the United States, and increasing numbers to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and to a lesser extent South Africa. This demographic movement, also undertaken by the Dutch, French, Portuguese and Spaniards, assumed a right to occupy territory as though it was unoccupied: the myth of *terra nullius* which assumed that aboriginals had no right of ownership of the land. The aim was to establish replicas of the 'home country' in New Amsterdam (later New York), New England, New Zealand, Nova Scotia, Hispania, etc.

Native American languages were initially used in missionary work and education, but when competition for territory and resources intensified, conflict between the settlers and indigenous peoples increased. Education was then established on the principle 'that the only prospect of success was in taking the children in boarding schools, and making them "English in language, civilized in manners, Christian in religion"' (Spring 1996, 152). As a direct result of such policies, very few of the languages originally present in the USA, Canada, and Australia have survived. This exemplifies linguistic imperialism vis-à-vis minority languages within a polity.

Linguistic imperialism is a reality in many contexts worldwide. An extreme case is the oppression that linguistic minorities are exposed to in China. A 2010 education plan for the 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 is designed to assimilate Uyghurs

to the dominant Han Chinese language totally and rapidly, this policy dovetailing with measures to crush traditional economic, cultural and religious practices of the Uyghurs. There are comparable measures of linguistic imperialism in Tibet. In the Soviet Union under Stalin, 'bilingual education' meant transition to monolingualism in Russian. Japanese policy in occupied territories such as Korea was in theory not aimed at destroying languages other than Japanese, but Japan in reality instituted linguistic policies and ideologies that privileged Japanese alone as a key dimension of the creation of Japanese as 'the common language of eastern Asia' (Toshiaki 2005).

Education in US colonies functioned along similar lines. In the Philippines, there was an insistence on an exclusive use of English in education from 1898 to 1940: '... public education, specifically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during the American colonial period, was designed to directly support American colonialism. The combined power of the canon, curriculum, and pedagogy constituted the ideological strategies resulting in rationalising, naturalizing, and legitimizing myths about colonial relationships and realities.' (Martin 2002, 210).

Despite differences in the articulation of policies in the French and British empires, what they had in common was the low status accorded to dominated languages, whether these were ignored or used in the early years of education; a very small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in formal education, especially after the lower grades; local traditions and educational practice being ignored; unsuitable education being provided; an explicit policy of 'civilizing the natives', and the master language being attributed civilizing properties (Phillipson 1992, 127-8). These generalizations are valid, even if policies were in fact worked out *ad hoc* in a wide variety of situations. In French colonies, the goal of producing a black elite entailed using the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s of metropolitan France. In the British empire, 'English was the official vehicle and the magic formula to colonial élitism' (Ngũgĩ 1986, 115).

The World Bank has played a decisive role in funding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ts policies have continued the linguistic imperialism of the colonial and early postcolonial periods:

The World Bank's real position ... encourages the consolidation of the imperial languages in Africa. ... the World Bank does not seem to regard the linguistic Africanisation of the whole of primary education as an effort that is worth its consideration. Its publication on strategies for stabilising and revitalising universities, for example makes absolutely no mention of the place of language at this tertiary level of African education (Mazrui 1997, 39).

World Bank funding for education has systematically neglected local languages, and intensified the use of English in many former colonies: 'The vast amount of money that was made available for universities in Sri Lanka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outside of a context of coercion by the World Bank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such as the USA) to regress to English Only education in a multilingual country' (Perera and Canagarajah 2010, 116).

Fishman, Conrad and Rubal-Lopez's *Post-imperial English. Status change in former British and American colonies, 1940-1990* (1996), has a wealth of empirical description of the functions of English in many contexts. The 29 contributors to the volume were specifically asked to assess whether linguistic imperialism was in force in the country studies they were responsible for. They all address the issue, one editor challenges the validity of the concept, but no contributors assess whether there might be more powerful or precise ways of coming to grips with theorising the dominance of English. Fishman speculates on English being 'reconceptualised, from being an imperialist tool to being a multinational tool ... English may need to be re-examined precisely from the point of view of being post-imperial (... in the sense of not directly serving purely Anglo-American territorial, economic, or cultural expansion) without being post-capitalist in any way' (ibid., 8). Corporate activities and regional economic blocs have made the locus of power more diffuse than in earlier, nation-state imperialism.

Scholars who are sceptical about linguistic imperialism as an explanatory model for the way English has been consolidated worldwide tend to analyse matters as though there is a strict choice between (a) active US-UK promotion of English, supported by linguist policies that favour it over other languages, and (b) colonised people and others actively wishing to learn English because of the doors,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that it opens. Matters are summed up as though (a) involves imposition, whereas (b) is a

‘free’ choice (e.g. Kirkpatrick 2007, 35-7). This is a false dichotomy: the two elements do not exclude each other, and neither imposition nor freedom is context-free. Push and pull factors both contribute to linguistic hegemony and hierarchy.

Kirkpatrick (ibid.) also accepts Fishman’s conclusion (1996, 640) that the strength of English in former British and American colonies is more due to such countries’ engagement in the modern world economy rather than ‘to any efforts derived from their colonial masters’. This analysis seems to ignore the fact that this engagement presupposes a western-dominated globalization agenda set by the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IMF, and the U.S. military intervening whenever ‘vital interests’ are at risk.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es of 2008 exposed instability and the increased influence of China and other expanding economies, but hitherto English has served to consolidate the interests of the powerful globally and locally and to maintain an exploitative world order that can disenfranchise speakers of other languages.

The strong position of English in former colonies represents a continuation of the policies of colonial times. It has strengthened an elite class, with the effect that, for instance, in India ‘Over the post-Independence years, English has become the single most important predictor of socio-economic mobility. ... With the globalized economy, English education widens the discrepancy between the social classes’ (Mohanty 2006, 268-9).

In Anglo-American discourse, English is often referred to as ‘*the language*’ or the ‘*lingua franca*’ of global business or international relations, which creates the false impression that English is the only language of commerce or international relations. A typical example of special pleading for English can be seen in a book by a political scientist who argues for the formation of a European Union ‘super-state’ (the EU now has 27 member states), and who cites the familiar trope of English as a ‘*lingua franca*’, along with young people’s consumerism and global business integration (Morgan 2005, 57). Morgan seems unaware that there are *many* ‘lingua francas’ in Europe, or that the ‘common transnational youth culture’ is essentially American, and that the convergence of ‘business practices’ derives from the US corporate world, and the conceptual universe it embodies. It is false to project English as though it is ‘neutral’, English as a mere tool that serves all equally well, in whatever society they live.

The term *lingua franca* derives etymologically from ‘the language of the Franks’, but it has been extended to refer to a language for communication between speakers who do not share a mother tongue. However this function needs to be related to the fact that English serves key societal purposes in many domains. English might be more accurately described as

- a *lingua economica* (in business and advertising, the language of corporate neoliberalism),
- a *lingua emotiva* (the imaginary of Hollywood, popular music, advertising, consumerism and hedonism),
- a *lingua academica* (in research publications,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as a medium for content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 a *lingua cultura* (rooted in the literary texts of English-speaking nations that foreign language learning traditionally aims at in many countries, and integrates with language learning as one element of general education).
- the *lingua bellica* of wars between states (aggression by the US and its loyal acolytes in Afghanistan and Iraq, building on the presence of over 700 US bases worldwide).

In many postcolonial contexts English is a key language of *elite formation*. Consolidating this process suited the elites that were in power when political independence was gained in African and Asian colonies. It was reinforced and actively promoted by massive ‘aid’ from Britain and the US, and later by the World Bank. The worldwide presence of English as a *lingua americana* is due to the massive economic, cultural and military impact of the USA.

Labelling English as a *lingua franca*, if this is understood as a culturally neutral medium that puts everyone on an equal footing, is therefore simply false (Phillipson 2008b, 2009). It is an *invidious* term if the language in question is a first language for some people but for others a foreign language. It is *misleading* if the language is supposed to be disconnected from culture and very specific purposes. It is an *inaccurate* term for a language that is taught as a subject in general education. Ironically, there is a historical continuity in the way the term originated (from Arabic and Persian) as a designation for the hybrid language of European crusaders who were out to recapture

Jerusalem and eliminate Islam from Asia Minor, while now English is viscerally connected to the crusade of global corporatisation, marketed as freedom and democracy. Human rights have been dropped from this rhetoric, as they are manifestly no longer on the agenda, except when criticising 'enemies'.

Language pedagogy: why so much English?

It is puzzling that several Asian countries have assumed that employing large numbers of native speakers of English as teachers will solve the language learning problems of the Chinese, Japanese, or Koreans in general education. There is a serious risk of such teachers being underqualified, as concerns

- (1) knowledge of the structure of English, of phonetics, syntax, morphology, pragmatics, discourse patterns, and the diversity of the language worldwide
- (2) familiarity with educational theory and theories of language learning
- (3) familiarity with the learning traditions of the country of the learners
- (4) proficiency in and knowledge about the mother tongue of learners
- (5) no proven experience of learning at least one foreign language to a high level
- (6) experience of living in a bilingual or multilingual environment
- (7) awareness of cultural relativity, in particular if they believe their culture is superior
- (8) limited experience as teachers
- (9) lack of experience of teaching a foreign language successfully

in addition to general ignorance about the dynamic fields of sociolinguistics, bilingualism studies, cross-cultural communication, language rights, and language policy as these impact on education in the current phase of globalization, along with changing patterns in language technology, multi-media language use,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Loumis, an American political scientist who worked for many years in Japan (cited at the beginning of this article), concluded that 'native speaker' in essence means a representative of the American way of life(1977). Throughout eastern Asia and the Middle East, 'native speaker' is understood as someone from the USA, UK, Australia

or New Zealand with a white skin colour, as though national and biological origins are the real qualification that matters. Which is educational nonsense.

If criteria for competent language teaching are not met,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 results are disappointing. There appears to be an increasing realization that this is the case. The decision on employing native speakers was probably made with the best of intentions, but was based on a lack of understanding of what language learning and language teaching involve. This ignorance in political circles is not something uniquely Asian. European political leaders have made equally uninformed decisions, for instance they blindly assume that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the earlier the better’, as though this variable itself is a panacea. The EU recommends the learning of two foreign languages in the primary school, i.e. before age 11. Could it be that such educationally ignorant decisions were in part triggered by politicians’ personal traumatic experience of limited success in their own foreign language learning?

There are significant structural influences behind such misguided policies. The USA and the UK coordinated efforts to promote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from the 1950s, after limited collaboration of the 1930s. As stressed by Churchill, cited earlier, the USA and UK are close culturally, politically and linguistically. In the post-1945 world, global Americanisation was intensified, and the British wished to ensure that postcolonial countries would continue to serve the interests of the British economy. Education played a major role in perpetuating dependence. English language education as propagated by the British and Americans builds on five tenets that ignore the evidence of successful foreign language learning and bilingual education. The *five tenets*

- English is best taught monolingually
- The ideal teacher of English is a native speaker
- The earlier English is taught, the better the results
- The more English is taught, the better the results
- If other languages are used much, standards of English will drop

are in fact *fallacies*.

- The monolingual fallacy
- The native speaker fallacy

- The early start fallacy
- The maximum exposure fallacy
- The subtractive fallacy.

Belief in these tenets leads to an insistence on English as the sole or dominant medium of instruction, the language through which other subjects are taught (Phillipson 1992, 183-218). The fallacies underpin the profitable English teaching business and the assumption that monolingual pedagogy and textbooks are globally appropriate.

The fallacies have not been influential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in continental Europe. In countries such as Denmark, Germany, the Netherlands, Norway and Sweden, English is learned relatively successfully in school as a foreign language. The same is true in Finland, even if Finnish is not a Germanic language, which Danish, German, Dutch, Norwegian and Swedish are. English is taught as a subject, not used as a medium of instruction (as is the case in former colonies such as India and Kenya). Many factors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learning of English in Europe, among them that the learning task is much smaller for most Europeans as compared with speakers of an Asian language. Teachers are well trained and have good proficiency in English. There is extensive exposure to English outside school, in the media, in youth culture, and in leisure activities.

It is unlikely that any of these factors apply in Korea. Joseph Sung-Yul Park (2012, cited earlier) is presumably right in concluding that proficiency in English, as in many other parts of the world, is a class marker. The wealthy can give their children preferential treatment that may trigger a high level of proficiency in English. Many others who go to great expense on English learning are unlikely to achieve the desired result if the teachers they or their children encounter, and monolingual teaching materials, are inappropriate.

Linguistic neoimperialism

This section aims at theorizing linguistic neoimperialism, inspired by social science approaches to political economy and the connections between this and language policy. Capitalist imperialism ‘is a contradictory fusion of “*the politics of state and empire*” (imperialism as a distinctively political project on the part of the actors whose power is based in command of a territory and a capacity to mobilize its human and natural resources towards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ends) and “*the molecular processes of capital accumulation in space and time*” (imperialism as a diffuse political-economic process in space and time in which command over and use of capital takes primacy)’ (Harvey 2005, 26, emphasis added). The first is the top-down process of what a state, or combination of states, or an institution such as a corporation or a university, does to achieve its goals, which includes the way it invests in and manages linguistic capital. The second is the way ‘economic power flows across and through continuous space, towards or away from territorial entities (such as states or regional power blocs) through the daily practices of production, trade, commerce, capital flows, money transfers, labour migration, technology transfer, currency speculation, flows of information, cultural impulses, and the like’ (ibid.). Most of these are crucially dependent on language, and constituted by language.

English can be seen as the *capitalist neoimperial language* that serves the interests of the corporate world and the governments that it influences (Phillipson 2008a, 2009). This dovetails with the language being activated through *molecular processes of linguistic capital accumulation in space and time*, in dialectic processes at the intersection of economics, politics and discourses. So far as linguistic neoimperialism is concerned, the ‘political mode of argumentation’ refers to decision-making, language policy and planning, whereas the ‘economic mode of argumentation’ refers to the working through of such decisions at all levels, the implementation of language planning decisions, actual use of English in myriad contexts.

When English increasingly occupies territory that hitherto was the preserve of national languages in Europe or Asia, what is occurring is *linguistic capital accumulation* over a

period of time and in particular territories to the benefit of users of English. When Singaporean parents gradually shift from an Asian language to the use of English in the home, this represents linguistic capital accumulation. If users of German or Swedish as languages of scholarship shift to using English, similar forces and processes are at work. When considering agency in each of these examples, the individuals concerned opt for the neoimperial language because they perceive that this linguistic capital will serve their personal interests best. There may also be a false belief that this requires the sacrifice of their own language rather than an addition to their language repertoire. When language shift is subtractive, and if this affects a group and not merely individuals, there are serious implications for other languages. If domains such as business, the home, or scholarship are 'lost', what has occurred is in fact *linguistic capital dispossession*.

Analysis of the interlocking of language policies with the two constituents of the 'contradictory fusion' can serve to highlight both corporate agendas, which serve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purposes, and the multiple flows that make use of English for a range of purposes. New discourses and technologies are adopted and creatively adapted, but in a rigged, incorrectly called 'free' global and local market. The active promotion of other major international languages such as Chinese, French, Japanese, and Spanish also aims to strengthen the market forces and cultures associated with each language, but the linguistic capital invested in these languages does not at present seriously threaten the current pre-eminence of English. A Chinese global empire may be on the way.

International language promotion itself needs to be seen in economic terms, dovetailing with media products and many commercial activities. TESOL (the Teaching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 teaching materials, examinations, know-how, native speaker teachers et al – is a major commercial enterprise for the British and Americans, and a vital dimension of English linguistic neoimperialism. 'The English language teaching sector directly earns nearly £1.3 billion for the UK in invisible exports and our other education related exports earn up to £10 billion more' (Lord Neil Kinnock, Chair of the British Council, in the Foreword to Graddol 2006, a work that and aims to strengthen 'the UK's providers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and 'broader

education business sectors'). The British Council combines cultural diplomacy with commercial promotion, and now funds most of its activities through its English teaching and proficiency testing activities. The USA does not have a comparable institution, but a strategic partnership was announced in November 2011 between the Department of State (headed by Hilary Clinton) and TESOL International, the language teacher body. Their aim is to spread information and network worldwide, to strengthen English teaching outside the USA to 'improve ELT efficiency and capacity building' and to 'work in coordination with U.S. companies, universities, publishers, and other ELT stakeholders to enhance their international outreach and operations; and expand countries' access to U.S.-based English language resources and expertise.'

The promotion of English worldwide is economically driven. The 'demand' for English does not emerge *ex vacuo* but is orchestrated by British and American political forces, on the assumption that the 'supply' is globally relevant. The validity of this claim needs questioning, a task that Asian governments need to undertake more energetically than hitherto.

The major publishing houses are now global. For instance, 'Pearson Education's international business has been growing rapidly in recent years, and we now have a presence in over 110 countries.' (<http://www.pearson.com/index.cfm?pageid=18>, accessed 15 January 2008). The website of Educational Testing Services of Princeton, NJ,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TOEF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states: 'Our global mission goes far beyond testing. Our products and services enable opportunity worldwide by measuring knowledge and skills, promoting learning and performance, and supporting edu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all people worldwide.' Pearson recently launched an English test that now competes with TOEFL and its Cambridge equivalent, IELTS, both of which are extremely lucrative.

Whether linguistic neoimperialism is in force in a given context – supranational, national, or sub-national – needs empirical examination, thorough documentation and analysis. This has not always been done in some European contexts. For instance, representatives of the Danish Language Board and some nationalistic politicians have reacted to the increased use of English in higher education, as a medium of instruction (for instance

courses or whole degrees that are taught in English) and as the language of scientific publication, by concluding that the Danish language has already suffered ‘domain loss’. In fact the issues were not properly investigated before such ‘conclusions’ were drawn, and the few empirical studies that exist reveal that English is being used additively rather than subtractively. The concepts for assessing the impact of English need careful definition: ‘domain’ can be used in a wide sense (*e.g.* university language) or in a much narrower sense (*e.g.* terminology in a natural science discipline such as biology). ‘Loss’ is also an unhelpful term because it fails to focus on agency, on the people and forces behind decisions on language use. The terms linguistic capital accumulation and dispossession can serve to meet the need to identify causal factors in changes in linguistic practices and their consequences, as one aspect of language policy analysis and formation.

Ongoing tensions between linguistic imperialism and resistance

The economic dynamism of Brazil, China, Japan and Korea builds on education and research conducted in a national language, in each of which a great deal of scholarship is published. The immense volume of scientific publication in English serves to consolidate a hierarchy of languages. Thus scholars from the Spanish-speaking world increasingly need to publish in English (Mar-Molinero 2010). While scientific publication in English is extremely important, claims for an overwhelming statistical preponderance tend to ignore what is in fact published in other languages. Citation indexes establish a ‘self-reinforcing loop of language flow: English circulates widely, is indexed and hence is cited: English is cited and hence is indexed and hence circulates widely’ (Tonkin 2011, 109).

Research in India, another significantly expanding economy, is almost entirely published in English, which reflects continuation of the linguistic hierarchy of colonial times, and failure to invest resources in local languages. Universities in many parts of the world are confronted by the tension between the dominant role of English and the obligation to serve local needs, as evidence from South Africa, the Middle East and Hong Kong (Phillipson 2009, chapter 8) shows. The export of entire university campuses by Australian, British, and American universities to countries like China, Malaysi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is of questionable value when such universities are English-only, with the same academic and cultural content as in the original Australian, British or American university. In each context English is more the problem than the solution if policies for strengthening local languages are non-existent or neglected.

The European Union advocates policies to promote multilingualism and the goal of all schoolchildren becoming trilingual, so as to strengthen all EU languages. However the management of multilingualism in EU institutions is exceptionally complicated, and market forces are strengthening the position of English nationally as well as in the EU system (Phillipson 2011). There is therefore a risk of other languages being displaced and dispossessed of their linguistic capital.

The conceptual framework elaborated above can serve to explore the questions raised initially in this article in more depth. Analysis can be supplemented by documentation of educational experience in devising ways of counteracting linguistic imperialism. Even if the volume of academic work in the area of macro-sociolinguistics and language policy has increased dramatically over the past 20 years, much of it does not engage directly with issues of inequality, social justice, and the way a neoimperial linguistic world order is being constituted. It is logical that people in many countries wish to develop competence in English, but in many contexts this entails subtractive learning. For instance, English-medium schooling and monolingual university degrees that neglect mother tongues and national languages can have this effect.

One development that strengthens global elite formation is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English-medium international schools around the world, from around 1,700 in 2001 to 5,270 in 2009. The sector is 'now worth \$18bn worldwide and set to double in value by 2020' with expansion mainly in India, the Middle East, and Asia (Hoare 2009). Presumably many of such schools' graduates go on to study at universities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It is likely that their linguistic roots in their cultures of origin will be weaker than their identification with the global economy and international mobility.

By contrast, the governments of the Nordic countries are determined that increased proficiency in English should in no way reduce the role of national languages. Many

universities in Finland and Sweden have thus formulated language policies that aim at ensuring that their graduates and staff are in effect bilingual: universities have a responsibility as publicly funded institutions to promote national languages, and as participants in an international community of practice they also need to function in English and other international languages.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are aware of the risk of the negative impact of linguistic imperialism and are taking measures to counteract it.

Inter-Nordic collaboration has resulted in the formulation of a *Declaration on a Nordic Language Policy*, approved in 2006 by the Nordic Council of Ministers, and promulgated in Danish, Faeroese, Greenlandic, Finnish, Icelandic, Norwegian, Saami, Swedish, and English (www.norden.org). The document specifies the language rights of all residents in a Nordic country, and sets out goals for language policy. It encourages key institutions to develop active language policies. Since this is the first time that government-level language policy in this area has been made explicit, it is positive that language policy is not merely being left to market forces and improvisation. The underlying thinking is both/and rather than either/or. The focus is not on a single medium of instruction - opting for an English-medium university would represent adherence to the empire of English - but a combination.

Specifically in relation to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the Declaration stipulates:

- *that* it be possible to use *both* the languages of the Nordic countries essential to society and English as languages of science
- *that* the presentation of scientific results in the languages of the Nordic countries essential to society be rewarded
- *that* instruction in scientific technical language, especially in written form, be given in both English and the languages of the Nordic countries essential to society
- *that* universities, colleges, and other scientific institutions can develop long-range strategies for the choice of language, the parallel use of languages, language instruction, and translation grants within their fields.

Universities in the Nordic countries are therefore encouraged to ensure a healthy balance between studying, teaching, and publishing in a national language, and important

democratic principle, and in international languages, which means mainly English (see the useful analysis of developments in the natural sciences at Copenhagen University in Harder 2009). The transition to bilingual realities at BA and MA levels in such countries – strongly influenced by Americanisation and the Bologna process that the EU is now promoting globally – requires issues of language choice, language quality control, and language competence development to be seen not as a task that the language specialists can be left to sort out but as a responsibility for all higher education staff, since there is complete integration of content and medium. Achieving this will be an uphill task.

Several universities in Sweden and Finland have published fairly detailed language policies on their websites. Thus the *University of Helsinki* language policy, presented in Finnish, Swedish, and English, declares that it is based on the following strategic precepts:

- Languages are a resource within the academic community.
- The University's bilingual and multilingual environment and internationalisation are sources of enrichment for all and are a necessity for the international comparability of its research performance.
- Language skills are a means to understanding foreign cultures and for making Finnish culture known to others. The university promotes the language proficiency of its students and staff as well as supports their knowledge of different cultures.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communities promote creative thinking.

While the Helsinki University language centre offers a range of services, it does not have a research entitlement. By contrast, Copenhagen University has established a research and teaching *Centre for Internationalisation and Parallel Competence* which is well placed to work with representatives of all faculties so as to ensure quality control, of both Danish and English (www.cip.ku.dk). One ongoing study involved filming a lecturer delivering the same content in both languages to different audiences. Another study was of attitudes of university lecturers towards the use of English as the medium of instruction. The website states that Centre “has developed a procedure for certifying university lecturers’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The certification with the name TOEPAS (Test of Oral English Proficiency for Academic Staff) is not only tailor-made for university lecturers, but is also

a unique competence development tool which provides the participants with detailed written and oral feedback on their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Scholarship and scholarly languages are under increasing pressure from market forces. There is an unresolved tension between these and traditional academic freedoms. Many forms of interaction, at conferences, in applications and professional advancement etc., unjustly favour (speakers of) dominant languages, especially English. Politicians have their own agendas, in league with the corporate world and the European Union. We academics need to ensure that our practices maintain principles of academic freedom and university autonomy. The need is for universities to act to strengthen language policy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and linguistic diversity. It makes sense for all academics to be optimally proficient in English, receptively and productively, in speech and writing. However this should not and need not occur at the expense of creativity in the mother tongue, or through downgrading national languages that are important for ensuring an informed general public. Universities should be committed to measures to ensure additive multilingualism, in a variety of languages, so that their staff and students can be active agents in influencing English-dominant empire, rather than merely complying with this restrictive project.

An appendix elaborates a taxonomy of variables impacting on multilingual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Phillipson in press). It is structured along the main strands of language policy and planning: status and prestige planning, discourse planning, acquisition planning, corpus and usage planning, and language technology planning. These categories exist in symbiosis with each other. This taxonomy should be seen as a provisional tool that should be adjusted when active institutional language policy formation takes shape, and refined to meet local conditions and needs. The progressive increase in the use of English in many countries has largely evolved through improvisation, with issues of the quality of the foreign language skills of both lecturing staff and students left to market forces. Given the importance of the issue,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it is time for more rigorous analysis and planning to be undertaken. Conferences such as the one organiz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on ‘Protecting and Revitalizing Native Languages in an Era of Globalization’ are a constructive way of promoting dialogue on these important topics.

References

- Calvet, L-J. (1974). *Linguistique et colonialisme: Petit traité de glottophagie*. Paris: Payot.
- Fishman, J. A., A. W. Conrad and A. Rubal-Lopez, (eds.) (1996). *Post-imperial English. Status change in former British and American colonies, 1940-1990*. Berlin: Mouton de Gruyter.
- Gandhi, M. K. (2010). *M. K. Gandhi's Hind Swaraj. A critical edition*. Annotated and edited by S. Sharma and T. Suhrud. New Delhi: Orient Blackswan. First published in Gujarati in 1909.
- Graddol, D. (2006). *English next*. London: British Council.
- Harder, P. (ed.) (2009). *English in Denmark: Language policy, internationalization and university teaching*. Copenhagen: Museum Tusculanum Press for the University of Copenhagen.
- Harvey, D. (2005) [2003]. *The new imperi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oare, S. (2009). The *Guardian Weekly*, 4 December 2009.
- Howe, S. (2002). *Empire,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Illich, I. (1981). *Shadow work*. Boston: Marion Boyars.
- Jenkins, G. H. (2007). *A concise history of Wal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rkpatrick, A. (2007). *World Englishe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English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umis, Douglas (1977). English conversation as ideology. In *Essays on Language*, ed. Y. Kurokawa. Tokyo: Kiriara Shoten, 1-26.
- Mar-Molinero, C. (2010). The spread of global Spanish: From Cervantes to *reggaetón*. In Coupland, N. (ed.), *The handbook of language and globalization*. Malden, MA: Wiley-Blackwell, 162-181.
- Martin, I. P. (2002). Canon and pedagogy: the role of American colonial education in defining standards for Philippine literature. In A. Kirkpatrick (ed.), *Englishes in Asia: communication, identity, power and education*. Melbourne: Language Australia, 201-211.
- Mohanty, A. (2006). Multilingualism and predicaments of education in India. In O. García, T. Skutnabb-Kangas and M. E. Torres-Guzmán, eds. *Imagining multilingual schools. Languages in education and globaliz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262-83.
- Morgan, G. (2005). *The idea of a European super-state. Public justification and European integr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orton, H.V. (1943). *Atlantic meeting*. London: Methuen.
- Ngũgĩ wa Thiong'o (1986) *Decolonising the mind: The politics of language in African literature*, London: James Currey.
- Park, Joseph Sung-Yul (2012). English language as border-crossing: Longing and belonging in the South Korean experience. In Rapatahana and Bunce (eds.), 208-220.

- Perera, K. and S. Canagarajah (2010). Globalization and English teaching in Sri Lanka: Foreign resources and local responses. In Vaish, V. (ed.), *Globalization of language and culture in Asia. The impact of globalization processes on language*. London: Continuum, 106-119.
- Phillipson, R. (1992). *Linguistic imperi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hillipson, R. (2008a). The linguistic imperialism of neoliberal empire. *Critical Inquiry in Language Studies*, 5/1, 2008, 1-43.
- Phillipson, R. (2008b). Lingua franca or lingua frankensteinia? English in European integration and globalisation. *World Englishes*, 27/2, 250-284, a 'Forum' consisting of the article, responses by seven scholars and a closing word by Robert Phillipson.
- Phillipson, R. (2009). *Linguistic imperialism continued*. New York and Abingdon: Routledge (also published by Orient Blackswan for seven South Asian countries).
- Phillipson, R. (2011) The EU and languages: diversity in what unity? in A. L. Kjør & S. Adamo (Eds.), *Linguistic diversity and European democracy*, pp. 57-74 (Farnham: Ashgate).
- Pieterse, J. N. (2004). *Globalization or empire*. New York: Routledge.
- Phillipson, R. (in press). Additive university multilingualism in English-dominant empire: the language policy challenges. In *Professionalising multilingualism in higher education*, ed. G. Ziegler, Bern/Frankfurt: Peter Lang.
- Rannut, M. (1994). Beyond linguistic policy: the Soviet Union versus Estonia. In Skutnabb-Kangas, T., & Phillipson, R. (eds.), *Linguistic human rights: Overcoming linguistic discrimination*. Berlin: Mouton de Gruyter, 179-208.
- Roosevelt, T. (1919). Letter to R.K. Hurd, January 3.
http://urbanlegends.about.com/library/bl_roosevelt_on_immigrants.htm.
- Skutnabb-Kangas, T. (2000). *Linguistic genocide in education - or worldwide diversity and human rights?* Mahwah, NJ: Lawrence Erlbaum.
- Skutnabb-Kangas, T. and R. Dunbar (2010). *Indigenous children's education as linguistic genocide and a crime against humanity? A global view*. Guovdageaidnu/ autokeino: Galdu, Resource Centre for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http://www.galdu.org>).
- Spring, J. (1996). *The cultural transformation of a Native American family and its tribe 1763-1995*. Mahwah, NJ: Lawrence Erlbaum.
- Tacitus on Britain and Germany* (1948). A new translation of the 'Agricola' and the 'Germania' by H. Mattingly. West Drayton: Penguin.
- Tonkin, H. (2011). Language and the ingenuity gap in science. *Critical Inquiry in Language Studies*, 8/1, 105-116.
- Toshiaki, Y. (2005). L'aménagement linguistique du Japon imperial - la Corée pendant la période de colonisation (1910-45), le "Mandchoukuo" 1931-1945) et "La sphere de

co-prospérité de la grande Asie orientale”(1941-1945). Dans Calvet, Louis-Jean et Pascal Griollet (dir.) 2005. *Impérialismes linguistiques hier et aujourd’hui. Actes du colloque franco-japonais de Tôkyô(21, 22, 23 novembre 1999)*. Aix-en-Provence : INALCO/ÉDUSUD, 97-118.

Appendix

A taxonomy of variables impacting on multilingual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 Status dimensions (*status and prestige planning*)
 - *Macro* level:
international, national, and institutional multilingual context and constraints;
hierarchies in global and local language ecologies, and perceptions of them;
economic factors and processes of linguistic capital accumulation or dispossession;
extent of language maintenance and innovation in central academic domains;
degree of respect for linguistic human rights.
 - *Micro* level:
language use in core university activities, spoken and written, and on websites;
awareness of language rights, language duties and linguistic diversity.
- Policy decisions (*discourse planning*) that determine
 - *explicit and implicit language policies* for choice of language for an institution, including internal and external communications a department, and for all degrees at BA, MA and PhD levels;
 - responsibility for *implementing and monitoring* language policy decisions;
 - *medium/media of instruction* in specific learning and examining contexts;
 - institutional and personal multilingual *identity*, and *perceptions* of multilingualism;
 - *certification* of language competence of staff and/or students;
 - *criteria* for assessing *quality* of teaching, and of research, and for promotion;
 - languages of *publication*, and language policy in bibliometric quantification.
- Processes for creating and maintaining communities of practice (*acquisition planning*)
 - *functional goals* for academic language competence development, staff and students;
 - *learning processes* relative to proficiency development for differentiated activities: in reception (listening, reading) and in production (speaking, writing);

- development of cumulative *metalinguistic, metacommunicative and intercultural awareness* that can also draw on translation and contrastive language study;
 - *IT integration* in core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including self-instruction at a language *learning centre*;
 - *teacher and student roles* in knowledge assimilation and creation at all levels;
 - *knowledge sharing within an institution and externally*.
 - international scholarly articles and books
 - local mass media popularization
 - textbooks and reference works
 - internet.
- Form in L1/L2/L3/... (*corpus and usage planning*) as determined in
- *codification* of language in authoritative reference works and materials;
 - conventions of linguistic form in *genres and discourses* for academic purposes;
 - *terminology* and usage creation when needed.
- Technology (*language technology planning*)
- internet-based *teaching and learning support*,
 - elaboration of online *materials*,
 - development of language technology *software*.

국립국어원 2012 국제 학술 대회

제1부 Session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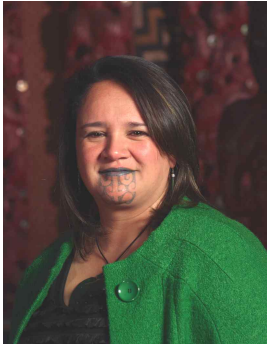
글레니스 필립바버라
Glenis Philip-Barbara

뉴질랜드, 마오리 언어위원회
Māori Language Commission, New Zealand

터마시 바러디
Tamás Váradi

헝가리, 헝가리 학술원 언어학 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Linguistics of the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Hungary

제1부 / Session 1



글레니스 필립바버라
Glenis Philip-Barbara

뉴질랜드, 마오리 언어위원회
Māori Language Commission, New Zealand

현 마오리 언어위원회 최고 경영자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행정학교(ANZSOG) 행정학과 석사 과정

Glenis Philip-Barbara is currently the Chief Executive of the Māori Language Commission and is studying towards the achievement of a Masters Degree in Public Administration through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School of Government.

공동체 중심 마오리어 전략의 방향

전략 방식의 원리와 구조

글레니스 필립바버라

(마오리 언어위원회)

‘언어 재생’에 대한 논의의 도입

Stewart(1968)에 의하면, 언어의 생명력이란 고립되지 않은 공동체의 원어민이 사용함으로써 살아있는 언어로 유지되는 언어의 지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언어의 재생(language revitalisation)’이란 이러한 공동체의 화자, 혹은 공동체 언어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언어의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재생’(Spolsky 1991, Spolsky 1996a)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언어의 생명력을 회복하거나 혹은 모국어를 세대 간에 전달하는 중대한 문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Spolsky & Shohamy 2001, 350-351).

Richard Benton(1979)에서 1970년대에 마오리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마타와이아(Matawaia), 루아토키(Ruatoki), 루아토레아(Ruatorea) 등 비교적 고립되어 있는 마오리 공동체만이 마오리어를 모어로 유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 당시 모든 다른 지역, 대체로 기존의 마오리어를 구사하는 공동체에서는 노인들만이 마오리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여러 단계에서 제2 언어로 마오리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교육 환경은 마오리 공동체와 분리되어 있으며, 교실이나 학교를 위해 조성된 언어 맥락이다.

언어를 안정화하는 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성과가 미흡할 수도 있으며 완벽하게 성공하는 일은 드물다. 따라서 완벽한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마오리 사람이든 브르타뉴 사람이든 누구든 언어 보존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로 인해 신념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Fishman 2007, 80).

언어 구사자의 수를 늘리고 그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며, 언어 특성의 보전을 향상시키며, 현대 사회에 사용하기 적합한 언어 자료를 만드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강조되어 왔다.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언어가 유창할수록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리라는 기대—이것은 마오리어 구사 인력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와 언어에 숙달될수록 더 고급한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욕구로 인해 동기가 부여되어 왔다. 어떤 학생들은 직업을 구하고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오리어를 배운다. 또 다른 학생들은 마오리어를 구사하는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 마오리어를 배운다. 앞에서 언급한 조슈아 피시맨(Joshua Fishman)에 따르면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책무로 인해 동기를 부여받는 언어 공동체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는 그들 언어의 생명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공유함으로써 촉진되어야 한다.

공동체 중심 마오리어 재생 전략

본 공동체 중심 전략은 언어를 구사하는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가정과 공동체에서 매일 이 언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상적 상호 작용 상황에서 세대 간, 그리고 어린 아이들 상호 간에 존재하는, 만성적인 언어 사용의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언어 재생에 대한 노력은 마오리어를 유산으로 인정하며, 마오리어 법(1987)에 따른 마오리어의 공식적 상태를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청이나 그 밖의 정부 단체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기관 중심의 개입이 공동체 중심의 언어 재생을 이룰 수 없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언어 사용을 중시하여도, 과거에 고립된 마오리 공동체에서 사용되던 마오리어를 현실적으로 회복시킬 수는 없다.

현재 마오리어 사용과 관련하여, 마오리어의 재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5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지속적인 몰입 - 이 전략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에 가장 초점을 둔다. 특히, 최소 하루 이상 지속되는 몰입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다. 언어 몰입 시간이 길어질수록, 언어 맥락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고 실제 용법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진다.
2. 세대 간 의사소통 - 세대 간 의사소통은 미래에 스스로 존재 가능한 언어 공동체를 설립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방법은 마오리어를 구사하는 노인 세대가 후세대와

아이들과 함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들이 자연스럽게 마오리어를 배우며 어른이 되게끔 한다. 아이들이 그들의 힘만으로 어른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 세대원들은 다른 세대와 함께 마오리어 몰입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언어에 대한 유창성과 자신감을 얻어야 한다. 아이들이 배운 마오리어는 공동체에서 사용되는 기존의 ‘정상적인’ 형태의 언어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훈련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3. 지속적인 말하기 능력 개발 - 언어 재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2~3세대 기성인은 제 2외국어로 마오리어를 배웠을 확률이 높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원어민으로서의 능력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능력을 배우기 위한 교육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언어의 ‘질’이란 매우 주관적이지만, 지역 특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된 원어민의 언어 형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장르의 언어(격식체, 문학체, 구어체)를 구사하는 능력을 쌓는 것은 언어 공동체가 보다 온전한 상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4. 지속적인 비판 의식 및 언어 계획 촉진 - 비판 의식이란 어떤 것을, 왜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모든 참여자는 언어 재생에 집중된 리더십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 공동체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활동을 통한 학습은 다른 지역 공동체와 함께 공유하여 제한된 자료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동체 구성원은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논쟁하며, 통찰력과 실적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적 포럼을 개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관련된 정부 기관에 직접적인 피드백을 전달할 수도 있다.
5. 마오리 공동체 발전 - 마오리 공동체 발전은 굉장히 넓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전략에는 발전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문화적 통합, 권한 부여 및 자기 결정이 그것이다. 이 발전 전략의 가장 큰 목적은 언어 공동체를 개발하고 유지시켜 장기적으로 다음 세대로도 전달하는 언어 재생을 위한 것이다.

1. 지속적인 몰입

세 가지 몰입 활동이 우선으로 고려되었다. 이는 언어 사용 환경의 세 가지 종류에 관한 것이다.

- 1.a. 접근 강화 몰입(Proximity-Determined Immersion, Takiwā Rumaki, ‘Ahakoa ko wai’) - 공동체 몰입 센터는 공동체 인원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

하고, 이로 인한 세대 간의 공동 상호 작용과 더 넓은 공동체의 마오리어 사용을 장려한다. 잘 관리된 지역의 공동체의 집중 활동은 참여자 수를 늘릴 것이다. 각 공동체는 각자의 필요에 적합한 환경을 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부족 전통 회의장(marae) 기반, 도시 공동체 시설, 초등학교(kura)와 연계).

1.b. 단체 강화 몰입(Group-Determined Immersion, Whānau Rumaki, ‘Ahakoa ki whea’)

- 가정과 여러 세대가 참여하는 교육 활동이나 참여 단체를 지원하여 언어 사용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인정한다. 이 단체들은 지속적인 훈련 활동을 체계화하고 유지하여 (특정 훈련 기간 또는 활동 환경에서) 언어를 보존하고 세대 간의 사용을 확산시킨다.

1.c. 생활 기반 몰입(Lived Immersion, Papakāinga Rumaki, ‘Ahakoa he aha’) - 세 번째 전략은 살아있는 공동체의 언어 활용을 중요시한다(공동 가구 및 사회적 연결).

기존의 이러한 공동생활 장소는 파파카잉가(papakāinga)였는데, 이는 파카파파(whakapapa) 또는 신앙 체계를 통해 대부분 공유하고 있었다. 다른 공동 생활체와 기존의 파파카잉가(papakāinga)의 확대의 필요성 역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

- 매일 규칙적으로 교류하는 가까이 사는 지역 공동체
- 특정 기간 동안 공동 생활 (2-25주)
- 유지되는 언어 공동체 내에서 시간 공유 순환
- 언어가 활발히 사용되는 부족 전통 회의장(Marae)/파파카잉가(papakāinga) 주거지

이 네 가지 선택을 통해 우리는 파카파파(whakapapa) 또는 공동의 책무를 통해 언어의 완전성을 높이고, 장기간 몰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2. 세대 간 의사소통

세대 간의 언어와 문화 전승은 언어 재생에 기초가 되는 사회적 원리이다.

2.a. 지역 공동체를 기본으로 한 원리 - 이는 아이들의 보호자가 아이들에게 마오리어를 사용할 것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다세대가 거주하는 지역 공동체에서 마오리어 사

용을 일반화함으로써 문화적 및 언어적 정체성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2.b. 출생부터 시작되는 몰입 - 아이를 가질 예정인 부모나, 아기들이 있는 지역 공동체에서 아이의 출생부터 마오리어를 사용할 것을 강조한다. 언어 능력이 부족할 경우, 예비 부모들은 자신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켜 아이의 언어 사용을 도와야 한다. 이것은 언어 계획, 말하기 능력 개발 및 아이의 언어 발달 관찰을 필요로 한다.
- 2.c. 아동의 마오리어 능력 개발 - 부모와 보호자를 지원할 자원을 조달하고 언어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마오리어 능력 개발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으로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장의 종류 및 언어의 맥락을 이해하여야 한다.
- 2.d. 지역 미타(mita)의 관련성 - 지역 언어 사용의 변화를 위해서는 세대 간의 언어 전달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역양, 숙어 및 문체는 격식 있는 언어 교육으로는 배우기 힘들고 주로 구두로 전달된다. 아이들은 이러한 언어의 변화를 모어로 배워 보존할 수 있다.

3. 공동체의 말하기 능력 개발

이 전략의 중심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과 예비 구성원들을 위해 접근하기 쉬운 몰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몰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언어 공동체의 능력은 구성원들의 종합적인 언어 능력의 영향을 받는다.

- 3.a. 언어 능력 개발 - 지역 공동체가 언어 습득에 필요한 주도권을 갖고 있도록 한다. 이는 특히 언어 능력이 낮거나, 새로 소개된 공동체 구성원이 있을 경우 중요하다.
- 3.b. 몰입 훈련 실행 - 모든 일상적인 몰입 활동은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실행되어야 한다. 교육자들은 지역 공동체가 다음과 같은 것들에 접근함으로써 언어 습득의 표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 매일 다세대 간에 사용되는 언어 사용의 본보기가 되고
 - 각 지역 공동체가 관심 있어 하는 맥락에서 다양한 언어를 선택하고

- 기존에 사용되는 언어 패턴에 새로운 언어 자료를 소개하며
- 비슷하게 동기 부여가 된 언어 공동체 간의 교류를 촉진한다.

4. 공동체의 높은 의식 및 훈련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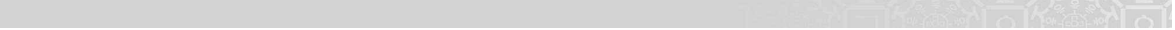
지역 공동체는 언어 재생 전략을 공유하는 다른 지역 공동체에게 활발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두 가지 면이 우선시된다.

- 4.a. 공동 활동 - 통합된 지역 공동체 지원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지역 공동체가 서로 교류하며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나 장애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아이들은 훈련 중인 다른 아이들과 교류하며 가정을 넘어서서 자신의 언어 사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 4.b. 교육 관리 및 멘토링 - 이 전략의 가장 큰 목적은 안정적이고 자체 유지가 되는 언어 공동체를 개발하는 것이다. 언어 재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강화하며 언어 계획을 주도함으로써 외부의 지도자가 공동체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 밖의 지원은 공동체 사이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5. 마오리 공동체 발전

언어 재생의 핵심 과제는 자체적으로 유지 가능한 언어 공동체를 개발하여 이 공동체가 그들의 언어를 위협하는 외부 요인들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내적인 냉소나 무관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언어 공동체는 높은 수준의 헌신과 동기를 유지해야 영어 지배와 외부의 반대 세력으로 인한 압력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 5.a. 문화적 완전성 - 언어 재생에서 정체성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중요한 요소는 미타(mita)의 유지, 문화적 표현과 긍지이다.
- 5.b. 권한 - 언어 공동체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강조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재설립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공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동의 책임감을 요구한다.



5.c. 자기 결정 - 이것은 마오리인에게 프로젝트의 공동 소유권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해 줌으로써 목표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언어 공동체는 그들의 맥락에 맞게 자신을 개발할 능력과 기회가 있어야 하며, 이는 국가 정책의 목적 혹은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는 독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Benton, R. A. (1979). *Sociolinguistic survey of language use in Maori communities and households*. Wellington: Maori Unit, New Zealand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 Fishman, J. A. (2007). What Do You Lose When You Lose Your Language? *Stabilizing Indigenous Languages*, 71.
- Spolsky, B., & Shohamy, E. (2001). Hebrew after a century of RLS efforts. *MULTILINGUAL MATTERS*, 350-363.
- Stewart, W. A. (1968). A Sociolinguistic Typology for Describing National Multilingualism. In J. A. Fishman (Ed.), *Readings in the Sociology of Language* (pp. 531-545). The Hague: Moulton.

Towards Community Centred Māori Language Strategy

Rational and Structure of Strategic Approaches

Glenis Philip-Barbara
(Māori Language Commission)

Introduction to Revitalisation

Language vitality, first described by Stewart (1968), refers to the capacity of a language to be sustained as a living language in an unisolated community of native speakers. It can then be inferred that ‘language revitalisation’ describes interventions, processes or objectives that seek to restore this ‘vitality’ to a community of speakers or community who aspire to be speakers.

My preference for the term revitalization (Spolsky 1991; Spolsky 1996a) highlights ... the critical importance of restoring ‘vitality’ or normal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the language as a mother tongue (Spolsky & Shohamy, 2001, pp. 350-351).

Richard Benton’s (1979) survey of Māori language speakers in the 1970’s showed that only relatively isolated Māori communities such as Matawaia, Ruatoki and Ruatorea had retained native speaker populations. In all other regions at that time reo use, on the whole, was prevalent only among elderly native speakers, the remanent of former Māori speaker communities. Overwhelmingly today people have learnt to speak Māori language as a second language within educational institutions from early childhood to tertiary education. These learning environments are generally separate to communities and are language contexts constructed for classrooms and schools.

Creating community is the hardest part of stabilizing a language. Lack of full success is acceptable, and full successes are rare. ... So even in your lack of full success, dedicated language workers, whether they be Maoris, Bretons, or whatever, become committed to each other and therefore they are members of the community of belief (Fishman, 2007, p.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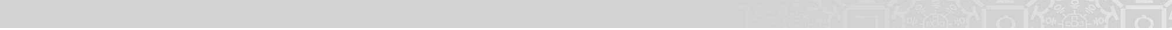
For many years there has been an emphasis placed on increasing the numbers of speakers and their proficiency, on improving the integrity of language quality, and on creating relevant language resources for contemporary use. This has been motivated, to an extent, by the desire to associate proficiency with employability, building workforce capacity in Māori language and with encouraging students to progress to higher education. Career and educational goals may form part of the motivation for some students to learn to speak Māori, for many others they make a personal decision to learn to speak to be able to participate in Māori speaking community settings. The statement made by Joshua Fishman above speaks of the need to recreate communities of speakers motivated by personal, social and cultural commitment, and roused by a shared belief in their ability to restore their language vitality.

Community-Centred Māori Language Revitalisation Strategy

This community-centred strategy is a response that advances speaker community development and supports the normalisation of daily intergenerational use in the home and community. It highlights the need for interventions that respond to the chronic lack of reo use between generations and between children in natural daily interaction. It posits language revitalisation efforts as the principal objective of recognition of Māori language as a taonga and of its official status as described in the Māori Language Act 1987. This does not discount the efforts of the education sector and other state agencies but recognises a persistent inability of institutional-centred interventions to achieve community-centred language revitalisation. At the same time prioritising natural use of reo in everyday settings cannot realistically reinstate the type of community isolation that sustained Māori language use in the past.

Five strategic objectives are prioritised to support the core elements for language revitalisation relevant to the current circumstances facing Māori language use:

1. Sustained Immersion - The strategy places the highest priority on establishing immersion settings, in particular immersion environments sustained for periods longer than a day. This length of time is necessary to provide direct experience of reo use across a full range of normal daily activities. The longer the period of full immersion the greater the exposure to language contexts and the intensity of practical use.

- 
2. 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 - 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 seeks to establish self-priming (self-sustaining) speaker communities in the future. The intention of this approach is to normalise reo use among older generations to speak Māori to younger ones in order for children to be naturally inclined to speak Māori to children when they reach adulthood. It is unrealistic to expect children alone to effectively manage the language use of older generations. Instead each generation should acquire the confidence and the proficiency to participate effectively in Māori language immersion activities with other generations. Children may have acquired a form of language use not well aligned with the normal form of local language used in the community. The community as a whole should be actively involved.
 3. Ongoing Oral Language Proficiency Development - The older two or three generations participating in language revitalisation-based programmes are most likely to be second-language learners. In order to restore native speaker capacity, community members will need to participate in learning activities that improve practical oral language proficiency. The notion of language quality is highly subjective however the alignment of language use patterns with the language use of local native speakers in the past is an important factor in strengthening local identity. Restoring language capacity and proficiency in a range of genres (formal, creative, and colloquial) undergirds the integrity of language use for a speaker community.
 4. Ongoing Promotion of Critical Awareness and Language Planning - Critical awareness refers to knowing what to do and why it should be done. All participants need a base level of awareness driven by key revitalisation-focused leadership. As approaches are applied to local community settings the learnings from the activities should be shared among other regions to maximise the impact of limited resources. This may include national forums to share, debate and promote insights and achievements. This will also provide more direct feedback to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5. Māori Community Development - Development for Māori communities can be considered in very broad terms. For this strategic approach three key aspects of development are highlighted as having significant relevance: cultural integrity, empowerment and self-determination. The main objective of development in this

strategy is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robust speaker community with the capacity to retain language vitality in the long-term, over multiple generations.

1. Sustained Immersion

Three forms of immersion activity have been prioritised for development. They recognise three forms of control over language use settings:

- 1.a. Proximity-Determined Immersion (Takiwā Rumaki: ‘Ahakoa ko wai’) – Community immersion centres will provide ready access of community members to Māori immersion environments with an emphasis on enhancing shared interaction between generations, and encouraging broad community use. Well managed community-focused activities at the location will help increase participation. Communities should have ability to determine the most appropriate setting for their needs (i.e. marae-based, urban community facility, associated with kura, etc)
- 1.b. Group-Determined Immersion (Whānau Rumaki: ‘Ahakoa ki whea’) – Support provided to groups who are able to demonstrate an ongoing commitment to facilitating immersion activities for families and for multi-generational forms of group activity will recognise social networks based on reo use. These groups would organise and manage sustained immersion activities (specific periods of immersion and/or activity settings) to increase the integrity and spread of intergenerational reo use.
- 1.c. Lived Immersion (Papakāinga Rumaki: ‘Ahakoa he aha’) – The third strategic approach prioritises reo use in lived community (shared residential location and/or social connection). Formerly these conditions were papakāinga, communal settlements most commonly based on shared connection through whakapapa or systems of belief. The dispersal of most previous papakāinga communities other forms of communal living need to be considered. This may include:
 - Whānau living in close proximity with regular daily interaction

- Fixed length communal living (e.g. 2 to 25 week periods)
- Time-share rotation within a sustained speaker community
- Marae/papakāinga flats with intensive reo use support

These four options have the potential to build integrity of reo use based on whakapapa or shared commitment to form medium to long-term immersion environments.

2. Intergenerational Language Transmissio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language and culture is the foundational social mechanism of language revitalisation:

- 2.a. Whānau-based mechanism – Emphasis is given to the primary caregivers speaking Māori to children. This seeks to instil a cultural and identity centred socialisation in reo Māori as normal practice within multi-generational whānau.
- 2.b. Immersion from birth – Priority would be given to expectant parents or whānau with infant children to establish the norm of speaking Māori to children from birth. When proficiency is low expectant parents have the ability to plan the strengthening of their own proficiency in order to pave the way for their child's reo use. This priority requires language planning, oral proficiency development and monitoring child progress.
- 2.c. Child language development in Māori – The stages in reo use development of children need to be understood well for a better alignment of resources and language planning support among parents/caregivers. The types of phrases and language contexts should be prioritised to make parental support more effective.
- 2.d. Relevance of local mita – Providing support for intergenerational language transmission is an essential approach for retaining local variation in reo use. The emphasis on accent, idiom and style of reo use are difficult to learn in formal reo learning

programmes and are primarily transmitted orally. Children have a greater potential to retain these local reo variations, as their mother tongue.

3. Community Oral Language Proficiency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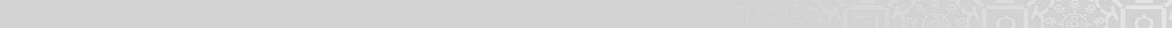
Establishing immersion environments with ready access to speaker community members and prospective members is a central pillar in the strategy. The capacity of speaker communities to establish immersion domains is directly influenced by their collective level of language proficiency:

- 3.a. Proficiency development – ensuring whānau have access to supportive initiatives of reo acquisition. This is particularly relevant for community members with low proficiency or newly introduced community members.
- 3.b. Immersion practice – everyday activities in immersion should be practiced with supportive facilitation. Immersion activity facilitators can encourage whānau to develop norms of reo use by approaches such as:
 - role-modelling reo use within everyday intergenerational settings,
 - selecting varied language use contexts of interest to whānau,
 - introducing language corpus to extend existing reo use patterns, and,
 - encouraging interaction with similarly motivated speaker communities.

4. Community Critical Awareness and Immersion Management

Whānau can be actively supported by similarly engaged whānau with shared understanding of revitalisation strategy. Priorities are given to two areas:

- 4.a. Shared practice – integrated whānau support allow for like-minded whānau to interact and share insights and problem-solve identified barriers or difficulties. Children get to socialise with friends in immersion extending reo use beyond their home environment.

- 
- 4.b. Immersion management mentoring – the primary goal is to form stable, self-managed speaker communities. Providing information on revitalisation strategies, approaches for strengthening immersion and guiding language planning may be provided by an external leader working toward building that capacity within the community. Further support can be provided by inter-community collaboration.

5. Māori Community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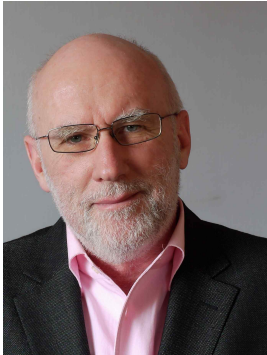
A central theme of revitalisation is the enabling of self-sustaining speaker communities sufficiently robust to withstand unfavourable external factors on their reo and to counter internal cynicism and apathy. Speaker communities need to maintain a high level of commitment and motivation in achieving revitalisation under the pressure of English language dominance and external mita.

- 5.a. Cultural integrity – the relevance of identity in language revitalisation can not be overstated. Important factors are retention of mita, cultural expression and pride.
- 5.b. Empowerment – Speaker communities must strengthen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motivation of all community members. The reestablishment of these communities requires shared responsibility to making an ongoing contribution.
- 5.c. Self-determination – This factor is centrally important to achieving development as Māori instilling a sense of collective ownership of the project. In order to sustain activity in the long-term speaker communities should have the ability and opportunity to guide their development appropriate to their context, independent of State policy objectives or economic and social impacts.

BIBLIOGRAPHY

- Benton, R. A. (1979). *Sociolinguistic survey of language use in Maori communities and households*. Wellington: Maori Unit, New Zealand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 Fishman, J. A. (2007). What Do You Lose When You Lose Your Language? *Stabilizing Indigenous Languages*, 71.
- Spolsky, B., & Shohamy, E. (2001). Hebrew after a century of RLS efforts. *MULTILINGUAL MATTERS*, 350-363.
- Stewart, W. A. (1968). A Sociolinguistic Typology for Describing National Multilingualism. In J. A. Fishman (Ed.), *Readings in the Sociology of Language* (pp. 531-545). The Hague: Moulton.

제1부 / Session 1



터마시 바러디
Tamás Váradi

헝가리, 헝가리 학술원 언어학 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Linguistics of the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Hungary

현 헝가리 학술원 언어학 연구소 부소장
외트뵈시로란드대학 영어학 박사
대조 언어학, 제2 언어 습득, 사회 언어학, 전산 언어학 연구

Dr. Tamás Váradi is the deputy director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Linguistics of the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He holds a Ph.D. in English Linguistics from Eötvös Loránd University, Budapest. Dr. Váradi started out his research career in the field of contrastive linguistics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later engaged in a major sociolinguistic study of Hungarian. Since the late eighties he has become interested in computational linguistics.

세계화 시대의 헝가리어¹⁾

터마시 바러디

(헝가리 학술원 언어학 연구소)

서 론

본고는 세계화 시대에 헝가리어의 위치는 어떠한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화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특정 언어의 지속 가능성은 해당 언어가 최근에 생겨난 디지털 문화의 일부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지원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본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헝가리어의 주된 사용 영역을 비롯하여 제도, 정책, 법적 지원의 측면에서 헝가리어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시대에 헝가리어를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언어학적 개요

헝가리는 중부 유럽에 있으며, 인구는 약 천만 명이다. 헝가리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라 말하는 헝가리어 또는 마자르어는 특이한 현상을 보인다. 헝가리어는 우랄 어족(또는 피노 우그리아 어족)의 한 줄기인 우그리아어파에 속한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는 일종의 ‘언어학적 섬’에 해당한다. 언어학적으로 헝가리어와 가장 근접한 핀란드어와 에스토니아어는 중부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발트 해 지역에서 사용된다.

유형론적으로 헝가리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헝가리어는 합성과 파생이 매우 생산적으로 일어나는 매우 풍부한 교착적인 형태론적 특성을 지닌다. 헝가리어 문장 성분의 어순은 (문장 성분 내의 단어 순서는 정교한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1) 본고의 참고 자료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준 가브리엘라 코바치(Gabriella Kovács)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Abondolo(1992)와 Kiss(1987)를 참고하라.

역사적 개관

헝가리어의 역사는 헝가리인의 조상이 본래 살았던 곳으로 여겨지는 우랄 산맥에서 유럽으로 이주를 시작한 기원전 1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기 5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고대 튀르크 유목민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언어는 튀르크 어족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896년경 마자르 부족은 카르파티아 분지(Carpathian Basin)에 정착한 뒤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이슈트반 1세는 1000년에 헝가리 왕국을 세웠으며, 헝가리는 그 이후 지금의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헝가리어로 된 가장 초기의 기록 유물은 19세기 중반까지 공식적인 언어 사용을 지배한 언어인 라틴어 문서에 적힌 토착어 기록이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예배 언어로 헝가리어가 쓰였고, 성경 전문을 헝가리어로 번역한 책이 1590년에 처음 출판되었다.

오스만 제국의 침략에 대항하는 전투로 인해 16세기 초 헝가리는 황폐해졌고, 세 지역으로 갈라졌다. 이 중 동프로테스탄트 트란실바니아는 독립을 간신히 유지하였지만, 중부 지역은 150년 이상 동안 터키에 점령되었고 서부 지역은 합스부르크가의 지배를 받았다. 17세기 말 터키 전투 이후 헝가리는 통합되었으나, 오스트리아-헝가리 군주제가 붕괴된 1918년까지 합스부르크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

18세기 말부터 힘을 모으기 시작한 합스부르크에 대한 저항은 소위 개혁 시대(1825-1848)에 강력한 힘을 펼치게 되면서 1848-1849년의 혁명과 독립 전쟁에서 절정에 달했다. 공개적인 정치적 투쟁은 억압을 받았으므로, 합스부르크 통치에 대한 반대는 언어적 저항의 형태를 취했다. 이에 따라 계몽주의 작가 집단은 최초의, 그리고 가장 저명한 헝가리어 연구자인 페렌츠 커진치(Ferenc Kazinczy)의 주도하에 헝가리어를 개혁하고 강화하는 계몽운동을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헝가리어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신조어 및 새로운 문구들이 생겨났고, 구문은 다듬어졌으며,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지위와 신용을 얻게 됐다. 헝가리어는 1792년에 중고등 교육 과정의 교과목으로 도입되었으나 대학 교육 과정에서는 라틴어와 독일어에 그 자리를 내주었다. 1844년에 와서야 헝가리 의회는 헝가리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말에 헝가리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쟁에 패한 헝가리 왕국이 1920년 체결된 트리아농 조약에 따라 영토의 3분의 2를 빼앗긴 것이다. 이는 약 3백만

명의 헝가리어 원어민들이 갑자기 새로이 편입된 국가의 이류 시민이자 소수 언어 사용자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트리아농 조약 이후, 헝가리인은 세계를 영토 내, 국경 너머, 외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인식하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헝가리인들은 19세기의 위대한 개혁가인 이슈트반 세체니(István Széchenyi)의 ‘민족은 그 자신의 언어 속에서 살아있다’(Nyelvében él a nemzet)라는 훌륭한 격언을 고수하며, 정치적·행정적 경계들로 갈라져 있으나 정신적으로는 단일체인 헝가리 민족을 하나로 묶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헝가리어를 꼽는다.

언어 법안

이제 현재의 상황으로 돌아와 언어와 관련해 유효한 법안을 간략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헝가리에는 온전히 언어 문제만을 다룬 단일 법안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공식적 기본법인 헌법에 높은 수준의 선언들이 들어 있으며, 이름과 지명 및 외래어의 사용을 규제하는 특별법이 존재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헝가리어의 지위에 대한 최근의 의회 제정 법령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기본법

프레임볼룸(preambulum), 소위 국가적 공언으로 불리는 헝가리 헌법(공식적 기본 법률)은 다음과 같은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모든 카르파티아 분지의 인공적, 자연적 자산과 더불어 헝가리 속에 살아 있는 우리의 유산, 독특한 언어 및 헝가리 문화를 안전하게 지키고 증진하는 책무를 진다.

H조는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 (1) 헝가리의 공용어는 헝가리어이다.
- (2) 헝가리는 헝가리어를 보호한다.
- (3) 헝가리는 헝가리 문화의 일부로서 헝가리 수화를 보호한다.

이름 표기

2004년 1월 1일에 제정된 법령 2002의 XLV²⁾는 헝가리 시민의 이름에 대해 규정한다. 가장 중요한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모든 헝가리인들의 이름은 헝가리어 철자법을 준수해야 하며, 남성형 또는 여성형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헝가리인의 이름은 헝가리 과학원의 언어학 연구소에서 편찬하고 출간한 공인된 명부에서 선택해야 한다. 만약 사용하려는 이름이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연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언어 전문가들은 제출한 이름이 법적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만약 그것이 외국 이름인 경우, 그들은 그 이름이 남성형인지 여성형인지의 여부와 승인된 이름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의 여부 및 그 이름이 유래된 언어와 문화가 무엇인지를 조사해야 하는 등의 힘겨운 책무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소의 권한은 연구소에 제출한 헝가리 이름에 국한된다. 즉, 헝가리에 거주하는 소수 언어 사용자 부모들은 이러한 과정이 면제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이 이름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각 지방 정부의 등록 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거기에는 참고용으로 사용되는 헝가리 내 소수 언어 사용자를 위해 승인된 별도의 이름 목록이 있다.

지명

정부령 303/2007(XI. 14.)³⁾은 지명에 대해 규정한다. 지명의 제정, 유지 및 수정에 대한 문제는 지역 개발부에서 담당한다. 실제로 그 임무는 사법 행정부, 내무부, 국방부, 외무부, 국가 자원부뿐만 아니라 헝가리 과학원, 에외트비시 로런드(Eötvös Lorand)대학과 같은 다수의 정부 기관들이위원을 임명하는 지명 위원회에 위임된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새로운 지명 선정을 비롯하여 넓은 의미에서의 지명의 개명도 관할한다. 위원회의 임무는 언어학적, 역사적, 문화적 및 정치적인 고려 사항들이 개입되는 섬세한 일이다. 전반적으로 위원회는 위의 정부령에 규정된 지침에 따라 활동하는 독립된 전문 기구이다.

2) <http://www.1000ev.hu/index.php?a=3¶m=10107>

3) http://net.jogtar.hu/jr/gen/hjegy_doc.cgi?docid=A0700303.KOR

외래어

공공장소에서 외래어 표지판이 널리 퍼지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의 압력에 따라 정부는 법령 XCVI(2001)⁴⁾을 통과시켰다.

“기업의 광고 게시물, 상점 간판 및 기타 공적인 발표문은 헝가리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상점의 간판에 쓰인 상점 이름(회사명 또는 상품명은 제외), 고객용 문서 정보는 헝가리어로 작성되어야 한다(§2 (1)). 만약 외래어와 함께 같은 크기의 헝가리어가 인식 가능하게 표시된다면, 외래어 표기가 허용될 수 있다(§2 (2)).
-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 대중이 접근 가능한 개인적 장소 및 민간 시설, 시민을 위한 정보, 그리고 교통 정보는 헝가리어로 작성되어야 한다(§3 (1)). 만약 외래어와 함께 같은 크기의 헝가리어가 인식 가능하게 표시된다면, 외래어 표기가 허용될 수 있다(§2 (2)).
- 이 법령에 따라, 헝가리어 사용에 정착된 표현은 외래어 표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만약 정착된 표현이나, 그것의 헝가리어 번역에 대한 정확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면 소비자 보호 당국은 언어학 자문 위원회와 접촉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구해야 한다. 당국은 협의에 근거하여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5 (1)).
- 소수 민족의 권리에 대한 법령 No. 77(1993)의 §42에 따라 소수 민족 언어로 된 문구는, 해당 지방 정부에 그 민족이 거주한다면 관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6 (4)).

모든 외국어 명칭(로고 및 상표 등록된 슬로건은 제외)은 해당 외국어 명칭과 동등하게 표시된 헝가리어 번역과 함께 게시되어야 한다. 외래어 표현으로 보이는 것이 언제 헝가리어 어휘 목록에 통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당연히 대규모 말뭉치를 참고하지 않고는 매우 해결하기 어렵다. 논쟁이 발생할 경우, 헝가리 과학원 내에 새로이 임명된 언어학 자문 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한다.(E. Kiss 2004) 법령의 도입은 공공의 이익을 따른 것이며, 한동안 이 법령의 시행 여부는 주요한 논쟁거리였다. 오늘날 자문 위원회는 여전히 존재하나, 부다페스트 시내를 거닐다 보면 이 법령이 노골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위원회는 외래어의 지위나 특정 표현에 대해 논쟁이 제기된 사례들을 조사한다. 만약 그 사례들이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는다면, 위원회는 그에 대해 어떠한 자체적인 조치도 취할 수 없으며 벌금조차 부과할 수 없다.

4) http://www.complex.hu/jr/gen/hjegy_doc.cgi?docid=A0100096.TV

철자법

철자법이 엄격한 법적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헝가리 문화에서 이는 법령과 동등한 시행력을 가지며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어 또는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독일어와 비교했을 때, 헝가리어 철자법은 상대적으로 알기 쉽다. 주요 원칙 중 하나는 어휘 항목 내의 문자소와 음소가 상당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철자법에서 규칙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방법은 발음에 맞춰 철자를 조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비슷하게 대응시키는 것은 간단하고 자동적이라 간주되는 동화 규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모국어 사용자를 위한 것이지만, 정서 체계의 당위적 명료성으로부터의 근본적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

헝가리어 철자법에 대한 책임은 헝가리 언어 위원회를 통해 이를 시행하는 헝가리 과학원에 있다. 위원회는 도서관, 2차 중등 교육 기관을 포함하여 언어학자뿐만 아니라 헝가리 학계의 모든 분야를 대표한다. 첫 공식 철자법은 1832년 발표되었으며(Fábián 2007), 현 철자법은 1984년 발표된 11차 수정안이다. 12차 수정안은 2004년부터 준비 중에 있다. 새로운 수정안을 제안하면, 이를 과학, 문화, 언어학 단체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히 검토하게 된다. 장기간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변화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Keszler 2010). 이는 위원회가 변화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저항과 상업적 이익이 개입된 기득권층의 반대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전략을 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언어 함양

모국어의 지위에 대한 우려는 헝가리 문화의 내부적 과제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헝가리어는 19세기 전반기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항한 독립 전쟁에서 주요 전투의 배경이었다. 실제로 헝가리 과학원(또는 학회)은 헝가리어를 보호하고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1830년에 설립되었다. 상당히 최근까지 언어 함양은 헝가리 언어 학계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 분야였다. 헝가리어 쇠퇴에 대한 우려는 헝가리 지식인들의 마음속에도 강력하게 자리 잡았다. 지속적인 퇴보의 운명을 지닌 살아 있는 유기체라는 언어에 대한 낭만적 개념은,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누구라도 손쉽게 가질 수 있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독립 국가의 개념에 있어서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언어의 기능에 의해 강화된다. “Nyelvében él a nemzet”(민족은 그 자신의 언어 속에 살아 있다.) (István Széchenyi).

이러한 관점이 지배적인 것이 반드시 언어 함양자(언어 순화주의자) 자신들의 활동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규범 언어학의 완고한 반대자이자 선구적 이론 언어학자인 István Kenesei는 다음과 같은 현실주의적 의미에 주목한다.

“언어가 동시대 헝가리 사회의 일부임을 자각하고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 사용 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초등 및 중등학교의 헝가리어 교사들은 그들이 우연히 마주친 새로운 현상에 대해 언어학자들이 조언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 만약 언어학자들이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자기들 나름의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결정이 옳든 그르든.”(Kenesei 2002)

일반 대중의 이와 같은 강력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언어학 연구소는 일반 대중의 언어 사용에 대한 질문에 답해 주는 전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중한 우리 말’이라는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상위 10위권 내에 들며 수십 년간 방송되고 있다.

일반 대중으로부터의 인기와 미디어 및 학교에서 받고 있는 높은 명망에도 불구하고, 언어 함양자들은 몇 가지 근거에서 여러 언어학자들에게 심각한 비판을 받는다(Kontra 2010, Nádasy 2003, Kálmán & Nádasy 1999, Sándor 2002). 그들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판정을 내리고 있으며, 그들의 견해는 실질적 언어 사용면에서 견고한 실증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활동은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비표준적인 형태의 언어 사용자에 대한 모욕 또는 차별을 초래한다는 비난을 받으며 그 결과로 그들의 교수법이 실질적인 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모국어 내 언어 차별이라는 용어(Kontra 2010, Skutnabb-Kangas 1988)로 불리는 것인데, 이는 많은 언어 사용자의 언어 인권의 총체적 침해를 초래한다. 이러한 관행은 모든 단위의 교육 기관들에 상당히 만연해 있다.

Pléh(1995)는 헝가리인들이 상당히 규범 지향적인 언어 공동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언어 사용자들이 잘못됐다고 낙인 찍힌 발음을 할까 두려워 과도한 발음 수정을 하는 현상이 만연한 사실로부터 입증된다.

언어 정책

고귀한 선언과 헝가리 문화와 대중적 사고 속에서 언어 함양이 누리는 존중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준에서 설립된 언어 정책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Kontra(2010, 190)는 엄중

히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헝가리 정부나 인접 국가에서 운영하는 헝가리어 기구들은 체계적, 이성적, 이론적으로 건강한 사회적 노력을 근간으로 하여 기능하는 어떠한 언어 정책 지침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집시에 대한 언어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헝가리어의 의사소통 기술을 강화하는 계획도, 헝가리 소수 언어가 언어학적으로 처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어떠한 실행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자유방임주의 언어 정책이 위험에 처한 언어의 악화를 지속시켜, 소멸 및 언어학적 집단 학살을 초래하는 커다란 위기를 가져왔기에 특히 우려되는 바이다. 자유방임주의 언어 정책은 영어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해당 언어에 상당한 위기를 가져왔으며(Phillipson 2003, 1-23), 따라서 의도적인 (국가) 언어 정책의 부재는 모든 헝가리 시민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

2010년은 심각한 철자법 오류에 노출된 헝가리 모국어를 보호하자는 캠페인을 펼쳤던 팔 슈미트(Pál Schmitt)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였으나, 이러한 거친 여론이 형성됐던 2010년 이래 변화된 것은 거의 없다. 신임을 잃은 대통령(표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이 남긴 하나의 족적은 만장일치로 의회를 통과한 헝가리어의 날에 대한 의회 결의안(66/2011 [IX.29])이었다. 결의안의 핵심은 단지 헝가리어의 날을 11월 13일로 제정하는 기념적인 과업뿐만이 아니라 학계, 교회 및 민간단체 대표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자문을 받아 헝가리어 지위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보고서에 기초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다음의 주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모국어 학문 및 교육
- (2) 헝가리어와 인접국의 헝가리어
- (3) 헝가리어와 3차 교육 기관
- (4) 헝가리어와 공교육
- (5) 헝가리어와 대중 매체
- (6) 헝가리어와 종교 언어의 사용
- (7) 헝가리어와 언어 기술
- (8) 헝가리어와 국가
- (9) 헝가리어와 언어 함양
- (10) 헝가리어와 사회적 약자 집단
- (11) 헝가리어와 예술

이 보고서는 출판되어 웹사이트 ‘<http://www.magyarhelyvert.hu>’에 공개된 뒤 대중에게 정밀 검토를 받았다. 작성 시기에 그 보고서나 실행 계획에 대한 공개적 자문의 최종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상 분야의 범위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광범위한 참여는, 종합적인 국가 언어 정책이 한 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한다.

EU 내에서의 헝가리어

헝가리는 연합 확대에 있어 단일 움직임으로는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로, 다른 9개국과 함께 유럽 연합(EU)에 2004년 가입했다. 이로써 헝가리어를 포함해 공용어의 수는 현재 23개로 증가했다. 유럽 연합 가입에 앞서 헝가리 법률은 유럽 입법과 조화를 이뤄야만 했으며, 이는 소위 공동체 연합으로 불리는 가장 중요한 유럽 법률과 규제 및 결정 등의 총체가 헝가리어로 번역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일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엄청난 작업의 분량은 85,000~100,000쪽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헝가리의 유럽 연합 가입이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받은 반면, 주요 사회 언어학자인 예너 키시(Jenő Kiss)는 다소 우려 섞인 목소리로 언어 정책의 관점에서 헝가리의 지위를 논하였다(Kiss J. 2004). 의심할 여지 없이 유럽 연합 가입은 법률에 근거하여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였지만, 당연히 이는 사실상의 지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공용어의 동등성에 대해 명확히 기록된 유럽 법률상의 규정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 연합 설립에 대한 조약의 24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유럽 연합의 모든 시민들은 유럽 연합 조약의 13조 또는 본 조항에 언급된 기관, 기구, 사무소 또는 단체들에서 55(1)조에 언급된 언어 중 하나로 문서를 작성하고 동일한 언어로 답변할 수 있다.

일반 대중이 관심을 갖는 대부분의 문서는 모두 공용어로 번역되는데, 이상하게도 그 문서가 최초로 작성된 언어의 표시는 전혀 없다. 유럽 연합의 DG 번역(역주: 유럽 위원회 조직 내 번역 서비스)은 이러한 모든 언어의 방대한 양의 문서를 번역하는 영웅적인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간과 예산의 제한이 있으므로, 유럽 연합은 언어 사용의 관점에서 다단계 시스템을 운영한다. 유럽 연합의 다양한 기관 및 기구들은 하나(프랑스와 유럽의 법정)에서 셋(유럽 특허 사무소)내지는 다섯(유럽 품종 사무소) 개의 범위에 걸쳐 선별된 소수의 실무 언어를 채택한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모든 기관의 누리집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사용한다.

헝가리어가 현존하는 약 6,000종의 언어 중 모국어 이용자 관점 수로는 50~60위에 위

치하므로 소수 언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음에도, 유럽 연합 내에서 실무 언어로서의 역할을 헝가리어에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헝가리 시민들이 실제로 헝가리어로 제안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헝가리어 지침이나 양식을 기대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f. Kiss 2004).

사실 헝가리어의 새로운 역할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과 같은 유럽 연합 내 3대 주요 언어가 지배하는 상황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는 사회 언어학자들이 있다(Szépe 2001).

헝가리어는 과연 위험에 처해 있는가?

Kiss(2004, 15)가 언급한 바와 같이, 헝가리인들은 헝가리어와 실제 헝가리 국가의 생존에 대한 우려를 곱씹는 경향이 있다. 그는 2004년에 실시된 조사에서, 은퇴 세대 응답자의 45%, 중등학생의 48%, 초등학생의 45%가 a)방치에 의해서, 또는 b)인구의 감소에 의해서 헝가리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언급한다. 이러한 높은 비율의 비판적 견해는 확실히 언어학적 이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Kiss는 이것은 위기에 처했을 때 강화되는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의 위협이 언어의 운명과 관련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 헝가리 국경 내의 헝가리어와 관련하여, 헝가리어가 멸종 위기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어쨌든 모든 문맥과 상황에서 헝가리어를 사용하는 9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고, 확고한 성문 표준이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강력한 국가 배경이 존재하므로 헝가리어의 장기적 미래에 대해 의심을 할 이유가 거의 없다. Kiss가 헝가리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고등 교육과 일부 기술 등록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일부 언어 영역이 토대를 상실하고 권위를 잃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이는 헝가리어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상황이 아이들을 영어 학교로 보내도록 부모들을 부추기지는 않을까? 아이들이 거리에서 헝가리어를 접하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영어를 모국어처럼 능숙하게 습득하는 것에 최상의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수십 년 내에 특정 분야에서 헝가리어가 불편해져 대신 영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영어 지배적인 다중 언어 사용자의 수가 젊은이들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Kiss 2004, 168)

소수 언어로서 헝가리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이웃 나라들에서 진행되는 상황과 유사한 것이며,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만한 일이다.

소수 언어로서의 헝가리어

위에서 언급하였듯 트리아농 조약의 결과로 수백만 명의 헝가리어 사용자들이 본국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들은 공용어의 지위가 주어지지 않은 소수 언어로 규정된 헝가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멀리 받는 이류 시민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 지역에서 소비에트 시대 동안 국수주의는 억압받았으며, 언어 박탈을 포함하여 인접국에서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헝가리인의 삶의 변화에 대한 언급은 금기시됐다. 즉, 이념의 지배하에서 사회주의 캠프 내의 모든 사람들은 형제처럼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의무가 있었다.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대중적 논의의 전면으로 쏟아져 나왔으며, 형제 같은 공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한층 더 복잡한 상황으로 대체되면서 헝가리어 지위에 대한 재평가를 불러왔다. 소수 언어 사용의 지위에 대한 글이나 책의 출판 또는 연구가 금지된 초기와 달리 (오스트리아 부르크렌란트주에서의 헝가리어 지위에 대한 슈산 갈(Susan Gal)의 고전적 연구가 1979년에 뉴욕에서 출판되었다), 일련의 새로운 연구와 종전에는 유용하지 않았던 자료들이 등장했다(Lanstyák & Szabolcs 1998, Csernyicsk & Váradi 1996, Kontra & Hattyár, Magyarok és nyelvtörvények (Hungarians and Language Legislation) 2002, Kontra & Saly, Nyelvmentés or nyelvárulás?(Saving or Betraying the Language?) 1998 참조).

공간 제약상 이러한 문헌에 대해 자세히 다룰 수 없으므로, 요약 부분에서 헝가리어 사용이 인접국 내에서 점차 위협에 처해지고 있다는 지배적인 견해를 언급하고자 한다. 특히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은 다수 언어 사용 집단 속에 산재하여 살고 있는 헝가리어 사용자들이다. 이 모든 지역, 학교 단위에 헝가리어 학교가 없기 때문에, 헝가리어는 고군분투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강화된 다수 언어 학교 교육은 소수 언어 사용을 억압하는 전통적인 수단이었다. Göncz(1999)는 다음을 인용한다.

“아이들에게 ‘만약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들의 뿌리,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포기하는 편이 낫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많은 아이들은 수치심을 느끼고, 잘못 선택된 주요 언어를 탓하기보다 그 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게 된다. 이러한 장애물들을 간신히 극복한 아이들은 전형적으로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포기하고 학교의 통제 속에서 사회적 엘리트의 가치와 규범 체제를 채택하게 된다.”(Kiss 2004, 133)

이러한 전형적인 상황에서 사회-심리학적 동기는 상당히 분명하며 이에 저항하기 어렵다. 이상적으로 이러한 이중 언어 상황에서 교육 체계는 동화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이게 된다(Kontra 2010, 19). 이러한 문제는 개입된 국가 간의 정치적 관계에 있어 본

질적인 대상이 되지만, 이들이 유럽 연합에 가입한 이후에도 반드시 나아진 것은 아니다.

요 약

현 상황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 지으며, 구문론적 구조와 어휘 자원 등 헝가리어의 언어 내적인 윤곽은 영어를 포함한 그 어떤 언어로부터도 구조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지는 않다는 É. Kiss의 견해에 동의한다. 언어 운동가들의 목소리로 증폭된 현대의 언어 변화는, 헝가리어가 수세기에 걸쳐 보여 준 언어 접촉 현상과 그 범위와 종류에서 차이가 없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명확하지 못하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헝가리 내에서 사용되는 헝가리어와 인접 국가에서 사용되는 헝가리어의 지위 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즉각 알아챌 수 있다. 헝가리 내에서의 헝가리어 지위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며, 압도적인 인구가 사용하는 모국어이다.⁵⁾ 헝가리어는 국가 언어이자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음이 헌법에 성문화되어 있으며, 헝가리를 통합시키는 가장 강력한 결속 수단 중 하나이다. 그 권위는 단지 고등 교육 같은 시장성 있는 분야와 학문적 출판물 및 논문과 같은 주변적인 분야에서만 도전받고 있을 뿐이다.

이 상황은 헝가리어가 헝가리 국외, 특히 인접국 내에서 사용될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는 언어 변화를 통한 언어 상실의 점차적이면서 회복 불가능한 과정이 상당히 눈에 띈다. 헝가리 본토에서 헝가리어를 사용하며 사는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인구가 인접국에서 소수 언어의 상황 속에 살고 있다.⁶⁾ 이들 지역에서 헝가리어가 직면한 주된 위협은 세계화의 영향이라기보다는 헝가리어 중심의 이중 언어 사용의 언어학적, 문화적 가치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동화에 대한 끈질긴 압력이다. 헝가리어 중심의 이중 언어 사용은 현 지정학적 상황에서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다.

5) 2001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인구의 약 4%가 다른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헝가리어를 구사하는 집시 인구를 고려하더라도 그 비중은 8~10%가 된다고 볼 수 있다.

6) 2011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헝가리 총 인구 수는 9,986,000명인 반면 헝가리 국외의 카르파티아 분지에 살고 있는 헝가리인은 총 2,377,000명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시대의 헝가리어

세계화는 모든 언어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이는 헝가리어에도 중대한 도전이며, 이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이 있다. 이 제안은 헝가리어의 권위를 강화하는 모든 단위 교육 기관 내의 헝가리어 교육 증진, 학문 영역에서 헝가리어의 사용 진작, 외래어의 제한된 사용을 위한 법적 조치에서부터 소수자 상황에서 헝가리어인의 언어 권리 강화 등을 망라한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사실은 헝가리어가 단지 세계화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디지털 통신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기적 전망에 대한 견해로서, 세계화의 기술적 기반은 디지털 통신(이동 통신과 인터넷)에 의해 주로 확보되고 있다. 디지털 문화로 진행 중인 흐름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세계화의 부작용으로부터 언어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목적을 둔 전략들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한다. 의사 소통의 수단이자 문화적 유산 및 지식의 전승자로서(이는 언어의 다양한 기능 중 단지 두 가지 예일 뿐이다), 언어는 디지털 문화에 복잡하게 속해 있는데, 이런 경향은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 세대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심화될 것이다(Prensky 2005/2006).

어떠한 언어가 디지털 시대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디지털 기반을 갖춘 곳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는 주로 인간 언어 기술 분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언어학자들의 책임이지만, 쌍방향 Web 2.0의 시대에는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의 형태로써 자발적인 공동 노력에 의해 도움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후자의 가장 유명한 예로는 위키피디아(Wikipedia)의 경이로운 성공이 있다. ‘디지털 시대에서의 언어의 소멸’이라는 적절한 제목이 붙은 신랄한 글에서, Kornai는 언어 생존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모국어로 된 위키피디아의 존재를 가정한다. “위키피디아가 없다면 생존도 없다”(Kornai).

언어 기술 및 언어 자원

우리 시대에 의사소통은 전자 매체의 형태로 대량의 텍스트(연설이든 문서든)를 생산하는 전자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언어의 과거 기록에 대한 디지털화는 어느 한 언어의 모든 언어학적, 문화적 유산이 디지털 형태로 포착되면, 단지 시간상의

문제가 되어 증가하는 속도가 진전되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의 다음 세대는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어떤 정보를 검색하며 소통하는 데 주로 디지털 장비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언어 사용에 대한 새로운 매체나 경로는 언어 기술에 의해 적절하게 지원받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어 자원의 핵심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해당 언어의 일반적 참조 말뭉치이다. 이러한 자원 중 가장 훌륭한 표본 하나는 영국 국가 말뭉치(British National Corpus: <http://www.natcorp.ox.ac.uk/>)이다. 이는 1990년대 초반에 구축되었고, 오늘날 규모 면에서 10배에 달하는 다른 말뭉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성과 방법론적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하나의 말뭉치가 제공하는 가장 큰 혜택은 실질적인 언어 사용의 분석을 위한 굳건한 실증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언어 운동가가 방어하기 어려운 한 가지 책임은, 편견은 없을지라도 언어 사용의 실질적인 사실 대신에 자신들의 선호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을 공포하는 것이었다. 자체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뭉치 언어학(Kennedy 1998)은 ‘말하는 대로’ 언어를 분석하는 것에 관한 한 그 자체로 필수불가결함을 입증하는 활발한 지식 분야가 되었다. 언어의 다양성에 대한 안정적인 표준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참조 말뭉치 묶음이 일반적인 표준의 문서화, 감독 및 유지의 수단이 된다.

사실 막스 바인라이히(Max Weinreich)의 의역에 의한 유명한 재담⁷⁾을 마르코 타디츠(Marko Tadic)가 기발하게 의역에 사용⁸⁾한 것처럼, 한 언어는 그 배경에 수백만 단어 규모의 말뭉치를 가진 방언이 있을 수 있다. 언어의 실질적인 사용과 관련된 언어학자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는 진정한 언어의 상태를 반영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언어 기술은 단지 전문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광범위한 사회적 필요를 위한 역할을 하며, 폭넓게 인식되지는 않더라도 우리 일상 생활의 일부를 차지한다. 철자 및 문법 검사기와 같은 일상의 소소한 장치에서부터 음성 인식 및 번역 장비에 이르는 언어 기술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많은 장치들에 포함되어 있다. 물론 가장 광범위하고 우리가 매일 접하는 사용 영역은 텍스트의 홍수를 순환시키는 월드 와이드 웹(www)이다. 이를테면, 언어 자원은 언어 기술을 주도하는 연료이며, 때때로 통계적 장치 번역으로서의 언어 기술은 거대한 데이터 세트를 위한 끝없는 욕구를 보여 준다.

7) “Language is a dialect with an army and a navy.”

8) 개인적인 대화

유럽 언어 공공 기반 계획

1980년대 후반 이후 유럽 연합은 언어 자원이 언어 기술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인식해 왔다. 최근 유럽 단일 연구 지역(ERA·European Research Area)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연구 기반의 발전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첫 번째 주요 인프라 시책은 유럽 연구 인프라 전략 포럼(ESFRI, European Strategy Forum on Research Infrastructures)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그 첫 번째 로드맵⁹⁾은 범유럽적으로 관심이 높은 35개 연구 인프라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는 26개국의 제휴를 포함하는 진정한 범유럽적 프로젝트인 CLARIN 프로젝트(<http://clarin.eu>)가 있다. CLARIN 시책의 임무는 언어 기술의 혜택을 e-과학, 특히 인문학과 사회 과학 분야에서 실시하는, 사실상 네트워크화된 인프라를 개발하는 데 있다. 이 장기 프로젝트는 최근 2개년의 초기 단계를 완료하였고, 5년간의 구축 단계를 시작하였으며, 그 뒤에는 운영 단계가 이어지게 된다.¹⁰⁾ 또 다른 관련 프로젝트로는 FLARENET(언어 자원 네트워크 조성)이 있는데, 이는 모든 부분의 이해 관계자를 모아서 해당 부문의 통합을 위한 유럽식 전략과 상식적 관점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유럽적 규모에 기초하여 언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야심 찬 시책은 탁월한 네트워크인 META-NET(다중 언어 기술 동맹)¹¹⁾이며, 이것의 임무에는 META-SHARE(<http://www.meta-share.eu/>)로 불리는 언어 자원 및 기술 저장고의 분산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언어 자원은 분명한 자격(CCL(Creative Commons licences)을 기초로 하는 META-SHARE 자격 범위 중 하나)과 적절한 메타 데이터 및 문서를 갖추고 동시에 오픈 소스와 다운로드 가능한 것을 선호한다.

또한 META-NET은 언어 기술 지원의 관점에서 무려 31개 언어에 대한 백서¹²⁾를 일련의 이중 언어 형태로 하여 유럽 언어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풍부한 정보를 비롯해 각 언어에 유용한 언어 기술 지원 상태에 대해 대등한 평가에 기반한 비교 평가를 제공한다.

9) http://ec.europa.eu/research/infrastructures/index_en.cfm?pg=esfri-roadmap

10) <http://flarenet.eu/>

11) <http://www.meta-net.eu/>

12) <http://www.meta-net.eu/whitepapers>

EFNILEX

EFNILEX은 유럽 국립 언어 연구소 연맹(EFNIL)의 프로젝트이다.¹³⁾ EFNILEX은 주요 출판사에서 상업적 가치가 없는 언어들의 이중 언어 사전 개발을 지원하는, 언어 기술의 잠재력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EFNILEX의 임무는 이러한 언어들의 언어학적 고립을 경감함으로써 덜 자원화된 언어를 지원하고, 유사한 규모의 다양한 언어 사용자 간의 의사 소통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언어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

의도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된 것은 병렬 말뭉치(번역된 텍스트)의 부족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일반 대중이 아닌, 병렬 말뭉치에서 비롯된 문맥상 적절한 번역어에서 특히 혜택을 보는 사전 편찬자를 위한 도구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도구의 흥미로운 특징은 사용자의 필요와 능숙도에 따라 사전을 조정하는 기능이다. 한도를 조정함으로써 범위(표제어의 수)와 정확성 간의 적합한 균형을 창출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http://efnilex.efnil.org>를 참조하라.

헝가리어 언어 기술 지원

헝가리어는 상대적으로 언어 기술의 관점에서 양호한 지원을 받고 있다. 헝가리어 국가 말뭉치(Váradí 2002)¹⁴⁾는 인접국에서 살고 있는 헝가리어 소수자와 헝가리 국내의 총 5개의 언어 분야(언론, 순수 문학, 과학, 공공 및 민간)에서 수집된 1억 8,500만 어절을 포함한다. 이는 현재 기가(십억 어절) 규모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이 말뭉치는 형태론적으로 분석한 주석이 포함되며, 97.5%의 정확도로 각 어절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 준다. 또한 이것은 120만 어절¹⁵⁾로 된 구문 분석 말뭉치(문법적으로 분석된 문장으로 구성된 말뭉치)를 포함하며, 영어-헝가리어와 헝가리어-영어를 포괄하는 산업 강도 장비 번역 시스템인 중간 규모의 WordNet(Kuti et al. 2007)¹⁶⁾과 이 두 언어¹⁷⁾ 간에 사용되는 수십 종의 언어 쌍을 연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 17위를 차지한(2009년 12월 기준)¹⁸⁾ 강력한 위키피디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13) <http://efnil.org/projects/efnilex>

14) http://mnsz.nytud.hu/index_eng.html

15) http://www.inf.u-szeged.hu/rgai/nlp?lang=en&page=nlpproj_syntax

16) http://www.inf.u-szeged.hu/rgai/nlp?lang=en&page=nlpproj_hunont

17) www.webforditas.hu, www.itranslate4.eu

18) http://en.wikipedia.org/wiki/Wikipedia:Multilingual_ranking_December_2009#100_000.2B_articles

언어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적절한 제목의 논문 ‘디지털 시대에서의 언어의 소멸’에서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모국어 위키피디아의 존재를 가정한 **Kornai**에 따르면, 위키피디아의 규모 및 수준은 위기에 처한 언어들에 대한 신선한 접근이라는 면에서 특히 중요하다. “위키피디아가 없다면, 생존도 없다”(Kornai). 이는 흥미로운 기저 현상을 드러내는 위키피디아의 특정 언어 편집의 규모와 반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생존을 위한 충분 조건이기는 하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다. 그가 언급한 사례들 중 보크몰(**Bokm(El)**)과 뉘노르스크(**Nynorsk**)가 있다. 이 둘은 노르웨이어의 다양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수년간 위키피디아의 존재와 나란히 진행해 왔지만, 현재는 뉘노르스크보다 보크몰이 4배가량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창출된 콘텐츠 이용자에 대한 둘의 관점 차이이다. 뉘노르스크는 도메인 수의 크롤이 단지 2,600만 단어인데 비해 보크몰은 16억 2천만 단어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양측에서 창출된 모든 공식적인 페이지를 고려한 것이다. **Kornai**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뉘노르스크를 지원하는 정교하고 균형 잡힌 공식적 언어 정책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인들은 블로그와 트위터에서의 사용으로 이미 이들에 대한 선택을 결정하였으며, 디지털 시대에 오직 그들과 함께 할 언어로 보크몰어를 택하였다(Kornai,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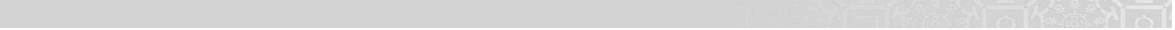
결론

헝가리어는 전 세계의 헝가리인, 특히 인접국에서 살고 있는 토착 헝가리 인구를 통합하는 강력한 결속원으로서 존중받고 있다. 헝가리의 현 행정 경계 내에서 헝가리어의 지위와 장기적인 생존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언어 그 자체에 반하는 무분별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또는 어휘적 약화 면에서의 위협에 직면하지는 않았다. 헝가리어는 압도적으로 다수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으며, 아주 미미한 부분을 제외하면 사용상 제한이 없이 일상 생활의 모든 활동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모국어인 헝가리어만을 사용하는 집단이 아주 드물고(만약 어쨌든 존재한다면) 언어 변환 과정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인접국과는 철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언어의 장기적 미래에 대한 우려는 디지털 문화 출현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완전히 성장한 언어 사용의 장기적 지속을 위해서는, 언어의 디지털 기반을 적절하게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미래 디지털 네이티브의 의사소통과 정보의 필요성에 맞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참고 문헌

- Lanstyák, I., & Szabolcs, S. (Eds.). (1998). *Tanulmányok a szlovák - magyar kétnyelvűségről* (*Studies on Slovak - Hungarian bilingualism*). Pozsony: Kalligram Kiadó.
- Gal, S. (1979). *Language Shift. Social Determinants of Linguistic Change in Bilingual Austria*. New York: Academic Press.
- Csernyicskó, I., & Váradi, T. (Eds.). (1996). *Kisebbségi iskolai nyelvhasználat* (*Minority language use at school*). Budapest: Tinta Kiadó.
- Skutnabb-Kangas, T. (1988). Multilingualism and the education of minority children. In T. Skutnabb-Kangas, & J. Cummins (Eds.), *Minority Education: From Shame to Struggle* (pp. 9-44). Philadelphia: Clevedon.
- Sándor, K. (2002). Nyelvművelés nálunk és más nemzeteknél (Language Cultivation in Hungary and in other nations). *Társadalomkutatás (Social Sciences)*, 20, 12 1-149.
- Nádasdy, ç. (2003). *Élések és szabályok – éráók nyelvrol, nyelvészetröl 1990-2002*. Budapest: Magvetöl Kiadó.
- Szépe, G. (2001). *Nyelvpolitika: Múlt és jövöl* (*Language Policy: Past and Present*). Pécs: Iskolakultúra.
- f. Kiss, K. (2004). *Anyanyelvünk állapotáról* (*On the State of our Mother Tongue*). Budapest: Osiris Publishing House.
- Abondolo, D. (1992). Hungarian. In W. Bright,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Linguistics, Volume 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ábián, P. (2007). A magyar helyesírás sorsfordulói (The vicissitudes of Hungarian Orthography). In G. Bozsik, V. Eöry, & R. V. Raisz (Eds.), *Hagyomány és újítás a helyesírásban* (pp. 11-23). Eger: EKF L'ceum Publishing House.
- Keszler, B. *Beszámoló az MTA Magyar Nyelvi Bizottságának 2010. évi munkájáról* (*Annual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Hungarian Language for 2010*).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http://mta.hu/data/cikk/11/74/71/cikk_117471/MagyarNyelviBiz2010.pdf.
- Kenesei, I. (2002). Hányféle igazság van? (How Many Truths Exist?). *Magyar Nyelv (The Hungarian Language)*, 39-49.
- Kiss, f. K. (1987). *Configurationality in Hungarian*. Akadémiai Kiadó.
- Kiss, J. (2004). A magyar nyelv és az Európai Unió (The Hungarian Language and the European Union). In Z. Kulcsár (Ed.), *25 év anyanyelvünk szolgálatában* (*25 years in the service of our mother tongue*) (pp. 26-40). Budapest: Akadémiai Kiadó.
- Kontra, M. (2010). *Hasznos nyelvészet* (*Useful Linguistics*). Somorja: Fórum Kisebbségkutató Intézet.
- Kontra, M., & Saly, N. (Eds.). (1998). *Nyelvmentés or nyelvárulás? (Saving or Betraying the Language?)*. Budapest: Osiris.

- 
- Kontra, M., & Hattyár, H. (Eds.). (2002). *Magyarok és nyelvtörvények (Hungarians and Language Legislation)*. Budapest: Teleki László Alapítvány.
- Kálmán, L., & Nádasy, ç. (1999). *Hárompercesek a magyar nyelvről (Three minute writings on the Hungarian Language)*. Budapest: Osiris.
- Pléh, C. (1995). On the dynamics of stigmatization and hypercorrection in a normatively oriented language community.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111, 3 1-45.
- Phillipson, R. (2003). *English-Only Europe? Challenging Language Policy*. New York/London: Routledge.

The Hungarian Language in the Age of Globalisation¹⁾

Tamás Váradi

(Research Institute for Linguistics of the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Introduction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position of the Hungarian language in the age of globalisation. It argues that globalisation goes hand in hand with digital communication and any concern about the sustainability of particular languages should be examined in terms of how much support that language enjoys to enable it to function as part of the emerging digital culture.

The paper is divided into two main parts. First it gives a brief account of the state of the Hungarian language in terms of its institutional, policy and legal support as well as its main domains of usage. The second part of the paper reviews what efforts are being done to support the Hungarian language in the digital age.

Linguistic Profile

Hungary lies in Central Europe, its population currently numbering a little under ten million people. Hungarian or magyar, as Hungarians refer to their language, presents a curious phenomenon. It belongs to the Ugric branch of the Uralic (or Finno-Ugric) family of languages. In terms of its geopolitical situation it represents a linguistic island. Its nearest relatives, the Finnish and Estonian languages are spoken far away in the Baltic region.

1) I wish to acknowledge with gratitude the help of Ms Gabriella Kovács in compiling background research material for the present article.

Typologically, Hungarian offers some unique features: it has an extremely rich agglutinative morphology with productive compounding and derivation. Its syntax is non-configurative, and constituent order is relatively free (though word order inside constituents follow delicate rules). For further details see (Abondolo, 1992; Kiss, 1987).

Brief Historical Overview

The history of the language goes back to approximately 1000 BC when Hungarian ancestors started migrating towards Europe from the Ural mountains where they are thought to originate from. Between the 5th and 9th centuries A.D. they came into contact with Old Turkic nomadic people and the language became influenced by the Turkic languages. Around 896 the Magyar tribes settled down in the Carpathian Basin and converted to Christian religion. King Stephen I founded the Kingdom of Hungary in 1000 and Hungary has been in existence in this part of Europe ever since.

The earliest written relic of Hungarian dates from, a piece of vernacular embedded in Latin script, the language that dominated formal language use till as late as the mid-nineteenth century. With the rise of the Protestant Church, the language of liturgy became Hungarian and the first Hungarian translation of the full text of the Bible was printed in 1590.

In the early 16th century following a devastating defeat against the invading Ottoman Empire, Hungary became divided into three parts, in the East Protestant Transylvania managed to stay independent, the central part of the country was occupied for the Turks for over a hundred and fifty years, while the Western strip came under Habsburg rule. After the defeat of the Turks at the end of the seventeenth century the country was united but under the dominance of the Habsburgs, who ruled Hungary till 1918, when the Austro-Hungarian Monarchy collapsed.

Resistance to Habsburg rule gathered momentum at the end of the eighteenth century and unfolded at great strength in the so called Reform Age(1825-1848) culminating in the Revolution and War of Independence of 1848-1849. As open political fight was oppressed, opposition to the Habsburg rule took the form of linguistic resistance. Accordingly, a group of enlightened writers led by Ferenc Kazinczy, the first and the most renowned Hungarian language cultivator, launched a campaign to reform and enhance the

Hungarian Language. As a result, the Hungarian language received countless number of newly coined words and phrases, its syntax was streamlined and the language acquired a whole new status and respectability that it had not enjoyed earlier. The Hungarian language was introduced as a subject at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as late as 1792 but university education was dispensed in Latin and German. It was only in 1844 that the Hungarian Parliament adopted Hungarian as the official language of debate.

The end of the First World War brought a traumatic event for Hungary. As a defeated party of the War, the Hungarian Kingdom was deprived of two thirds of its territory in the Trianon Agreement concluded in 1920. It also meant that about three million native Hungarian speakers suddenly found themselves degraded to secondary citizens and speakers of a minority language in their newly assigned country. Since the Trianon Agreement, Hungarians divide the World into three parts: Inland, Across the borders (határontúli) and Foreign. To this day, public thinking adheres to the great saying of the great nineteenth century reformer, István Széchenyi that 'A nation lives in its language' (Nyelvében él a nemzet) and considers the Hungarian language as the most important unifying force of the Hungarian Nation, a spiritual unity divorced from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boundaries in the region.

Language Legislation

Turning now to the present situation, let us briefly review the effective legislation relating to language.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is no single legislation that is devoted entirely to language. There are high-level declarations in the Constitution formally the Fundamental Law and there are specific laws regulating the use of first names, geographic names and foreign words. Finally, one should mention a recent Act of Parliament on the state of the Hungarian Language.

Fundamental Law

The Preambulum, called National Avowal, of the Hungarian Constitution (formally the Fundamental Law) carries the following commitment:

We commit to promoting and safeguarding our heritage, our unique language, Hungarian culture, the languages and cultures of nationalities living in Hungary, along with all man-made and natural assets of the Carpathian Basin.

Article H declares that

- (1) In Hungary the official language shall be Hungarian.
- (2) Hungary shall protect the Hungarian language.
- (3) Hungary shall protect Hungarian Sign Language as a part of Hungarian culture.

First Name Use

Act XLV of 2002²⁾, enacted on 1st January 2004 regulates the use of first names for Hungarian citizens. The most important stipulations are as follows: all Hungarian first names must comply with Hungarian orthography and they must be either male or female in use. Hungarian names must be selected from a rota of approved names compiled and published by the Research Institute for Linguistics of the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If the intended name is not included in the list, an application must be submitted, which is referred to the Institute for professional opinion. The linguist experts examine if the suggested name meet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law. In case of foreign names, they face the sometimes arduous task of establishing what language and culture the name comes from, whether it functions as a recognised name at all and whether they are worn by men or women etc.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competence of the Institute is confined to intended Hungarian names, in other words, parents of minority languages living in Hungary are exempt from this process. They must turn to respective registry office of their local governments for permission and there are separate lists of approved names for the minority languages inside Hungarian that are used as terms of reference.

2) <http://www.1000ev.hu/index.php?a=3¶m=10107>

Geographical names

The use of geographical names is regulated by Government Decree 303/2007(XI. 14.).³⁾ The issue of assigning, maintaining and modifying geographical names is supervised by the Minister for Regional Development. In practice, the task is delegated to the Committee on Geographical Names, to which a number of Government Offices and institutions appoint members such as the Ministry of Justice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Ministry of Defence, Foreign Ministry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Resources as well as the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and Eötvös Lorand University. The Committee sits regularly and rules on suggestions of new names, as well as renaming of geographical names in the broadest sense. Their task is a delicate one involving linguistic, historical, cultural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On the whole the Committee acts as an independent professional body acting along the guidelines defined by the above decree.

Foreign names

Ostensibly yielding to popular pressure to act against the spread of foreign signs in public places, the Government passed Act No. XCVI.(2001)⁴⁾ "On publishing of business advertising, shop labels and other public announcement in Hungarian".

This act prescribes that

- on the inscriptions of a shop, the name of the shop – excluding company names or product indicators –, and written information for customers must be written in Hungarian (§2 (1)). It is acceptable to make inscriptions simultaneously in a foreign language and in Hungarian, if the size and the perceptibility of the Hungarian equivalent is the same as of the text written in a foreign language (§2 (2))
- on public places and public facilities, and on private places and private facilities

3) http://net.jogtar.hu/jr/gen/hjegy_doc.cgi?docid=A0700303.KOR

4) http://www.complex.hu/jr/gen/hjegy_doc.cgi?docid=A0100096.TV

accessible to the public, information for citizens and traffic information must be written in Hungarian (§3 (1)). It is acceptable to make inscriptions simultaneously in a foreign language and in Hungarian, if the size and the perceptibility of the Hungarian equivalent is the same as of the text written in a foreign language (§3 (2))

- under this Act, expressions prevalent in Hungarian language use are not counted as expressions of a foreign language. If the prevalence of an expression, or the accuracy of its Hungarian translation raises a question, consumer protection authorities contact the Linguistic Advisory Council for an professional advice. Authorities must accept this expert opinion as a basis of arrangement (§5 (1))
- according to §42 of Act No. 77 (1993) “on the rights of ethnic minorities”, inscriptions written in minority languages are not concerned, if a local government of the given minority exists in place (§6 (4))

All foreign names (logos and trademarked slogans excepted) must be shown in the company of their Hungarian translation displayed with the same typographic prominence as the original foreign name. What counts as a foreign expression and when is it seen as integral part of the Hungarian lexical stock is, of course, a contentious issue which is difficult to resolve, particularly without reference to large-scale reference corpora. In case disputes arise, a newly appointed Linguistic Advisory Council within the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is asked to adjudicate (É. Kiss 2004). Introduction of the Act was followed with keen public interest and for a while its implementation was a matter of public debate. Today the Advisory Council may still be in existence but a casual walk in downtown Budapest will convince anyone that the Act is blatantly ignored. The Council examines cases referred to it by parties disputing the foreign status or otherwise of particular expressions. If cases are not reported and brought to the Council it does not have any mandate to take action of its own initiative, much less to impose fines etc.

Orthography

Although spelling rules are not strictly speaking legal instruments, however, in Hungarian culture they have a heavily centralised position with a force in implementation which equals that of Acts. In comparison with English or French but even with German Hungarian orthography is relatively transparent. One of its main principles is the close correspondence between the graphemic and phonemic levels in the lexical items. One motivation for regular changes in the orthographic rules is to align spelling with pronunciation. This close correspondence, however, disregards assimilation rules, which are assumed to be straightforward and automatic. They certainly are to native speakers but they are capable of producing fairly radical departures from the presumed transparency of the writing system.

Responsibility for Hungarian orthography rests with the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which executes this through the Hungarian Language Committee. The Committee has representatives from all departments of the Academy as well as linguists from all parts of the Hungarian Academia including libraries and secondary grammar schools. The first official Orthography was published in 1832(Fábián 2007), the current version is the 11th edition, which was published in 1984. The 12th edition has been in preparation since 2004. The proposed new edition has been subjected to scrutiny by the linguistic community and experts from various fields of scientific and cultural life. Despite the length of the consultations the planned changes are relatively minor (Keszler) attesting to the relatively cautious strategy the Committee tends to adopt towards change in recognition of the resistance to change by the general public and the vested commercial interests involved.

Language Cultivation

Concern over the state of the mother tongue has long been an integral theme in Hungarian Culture. As noted above, the Hungarian language was a major battle ground in the fight for independence against the Habsburg Empire in the first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Indeed, the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or the Learned Society

as it was known then) was set up in 1830 with the purpose to protect and cultivate the Hungarian Language. Language cultivation has been a very popular activity in Hungarian linguistics until quite recently. Worry over the decay of the language is strongly entrenched in the mind of even educated Hungarians. The romantic notion of language as a living organism whose fate is constant deterioration is a view that the proverbial man in the street would readily identify. This view is presumably enhanced by the functioning of the language as the single most important constituting factor in the concept of nationhood. “Nyelvében él a nemzet”(A nation lives in its language)(Count István Széchenyi).

The dominance of this view is not necessarily due to the activity of language cultivators themselves. István Kenesei, a leading theoretical linguist, a die-hard opponent of prescriptive linguistics, notes with a sense of realism that

“a considerable language aware part of contemporary Hungarian society, which consists mostly of those teachers of Hungarian at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level, who are capable of influencing public thinking on matters of language use, do expect linguists to give advice on new phenomena they (teachers) come across. And if the linguists fail to do so, they will make their decisions nevertheless, whether right or wrong.”(Kenesei 2002)

To serve this strong demand by the general public, the Research Institute for Linguistics has been operating a telephone hotline service to answer any queries from the general public over language use. Also, the programme entitled “Our Dearest Mother Tongue” is within the top ten most popular radio programme and it has been running for decades.

Despite their popularity with the general public and the high prestige they enjoy in the media and schools, language cultivators come in for severe criticism from various linguists on several grounds (Kontra 2010) (Nádasdy 2003) (Kálmán & Nádasdy 1999) (Sándor 2002). They are charged with making pronouncements that are entirely subjective and their views lack any solid empirical basis in terms of actual language use. Their activities are considered not only unscientific but even actually harmful in that their teachings often result in stigmatisation causing humiliation or discrimination to speakers of non-standard forms. This is what (Kontra 2010) following (Skutnabb-Kangas 1988) terms *linguicism* in native language, resulting in gross infringement of linguistic human rights of a great number of speakers. This practice is quite widespread

in educational institutions at all levels.

Csaba Pléh notes (Pléh 1995) that Hungarian is a heavily normatively oriented language community. This is evidenced by the relatively widespread phenomenon of hypercorrection when speakers are afraid of pronouncing a form that has a stigmatised use as well.

Language Policy

Despite lofty declarations and the esteem that language cultivation enjoys in Hungarian culture and in popular thinking there is no consistent body of language policy that is instituted at the state level. As (Kontra 2010, 190) states sternly

“Neither the Hungarian State, nor the Hungarian organizations operating in the neighbouring countries have any language policy guidelines that would serve as the basis for systematic, rational and theoretically sound social effort. We don’t have language policy about the roma population, nor any plans to enhance the communicational skills of Hungarians, nor any action plans to alleviate the linguistically endangered position of Hungarian minorities. This situation is particularly worrying because the laissez faire language policy carries considerable risks, leading to further deterioration, death and linguistic genocide of endangered languages. Laissez faire language policy involves significant risks for any language apart from English (cf. Phillipson 2003, 1-23), it is obvious therefore that the lack of a conscious (state) language policy holds significant risks for every Hungarian citizen.”

Little changed since 2010 when this harsh opinion was formed although on assuming office that year our previous President Pál Schmitt launched a campaign to protect the Hungarian mother tongue only to be exposed to gross orthographic errors. One legacy of the discredited President (who resigned on charges of plagiarism) may have been a Resolution of Parliament 66/2011 [IX.29] on the Day of the Hungarian Language, which was passed by Parliament unanimously. The focus of the Resolution was not only the ceremonial task of instituting 13th November as the Day of the Hungarian Language but also asked the Government to prepare a Report on the State of the Language based on widespread consultation with representatives of academia, churches and civil

organisations and to prepare an action plan based on the Report and submit it to Parliament. The Report covers the following topics:

- (1) Native language science and education
- (2) The Hungarian language and Hungarians in neighbouring countries
- (3) The Hungarian language and Tertiary level education
- (4) The Hungarian language and public education
- (5) The Hungarian language and mass media
- (6) The Hungarian language and religious language use.
- (7) The Hungarian language and language technology
- (8) The Hungarian language and the state
- (9) The Hungarian language and language cultivation
- (10) The Hungarian language and socially deprived groups
- (11) The Hungarian language and arts

The Report was published and exposed to public scrutiny on the website [http://www.magyarhelyvert.hu\(forhungarianlanguage\)](http://www.magyarhelyvert.hu(forhungarianlanguage)). At the time of writing, there is no information on the final outcome of the public consultation of the Report nor of the Action Plan. The scope of the subject areas as well as the broad participation of experts gives ground to hope that this initiative may be one step towards a comprehensive state language policy.

The Hungarian Language in the EU

Hungary joined the European Union in 2004 along with nine other countries in what is still the biggest single move of enlargement of the Union. This has increased the number of the official languages to 23, which now included Hungarian. Prior to the act of accession Hungarian legislation had to undergo harmonisation to the European legislation, which meant, as a requisite side-effect that the collection of the most important European laws and regulations, decisions etc. called *Acquis Communautaire* had to be translated into Hungarian. This monumental work is estimated to run to cc. 85,000-100,000 pages.

While Hungary's accession enjoyed widespread popular support, leading sociolinguist Jenő Kiss discusses Hungary's position in terms of language policy in a more cautious voice(Kiss J. 2004). The accession undoubtedly brought about *de jure* equal position but this was, of course, a far cry from the *de facto* situation. There is no provision in European legislation that explicitly states the equality of the official languages. However, article 24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stipulates that

Every citizen of the Union may write to any of the institutions, bodies, offices or agencie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or in Article 13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in one of the languages mentioned in Article 55(1)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have an answer in the same language.

Most of the documents of general public interest are translated into all of the official languages and, curiously, there is no indication of which language the document originated from. DG Translat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is undertaking a heroic job of translating tremendous amount of documents in all these languages. Due to time and budgetary constraints, the European Union operates a multi-tier system in terms of language use. The various institutions and bodies of the Union adopt working languages, which come from a select few, ranging from one (French, European Court) to three (European Patent Office) to five (European Plant Variety Office). Typically, the home page of all of these institutions use English as default.

Though Hungarian does not count as a small language in terms of its native speakers, – it ranks 50-60 among the approximately 6000 living languages – it is unrealistic to expect Hungarian ever to serve as a working language within the Union. In practice, therefore, Hungarian citizens may be disadvantaged if they submit an application to a Call for Proposal in Hungarian or if they expect Hungarian guidelines or forms (É. Kiss 2004).

Indeed, there are sociolinguists that view Hungary's new role as being exposed to the linguistic dominance of three major powers within the European Union, i.e. English, French and German (Szépe 2001).

Hungarian as an endangered language?

As noted by Kiss (Kiss J. 2004, 15) Hungarians tend to brood over the survival of the Hungarian language and indeed the Hungarian nation. He cites a survey carried out in 2004 in which 45 % of respondents in retirement age, 48%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and 45%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nsidered that the Hungarian language may disappear a) through neglect or b) through the vanishing of the population. Such high ratio of pessimistic views can certainly not to be explained by linguistic reasons alone. Kiss holds that it has much to do with the general sense of threat as a nation which in times of crisis is reinforced and is associated with the fate of the language. As regards Hungarian within the current borders of Hungary, there is no doubt that Hungarian is exposed to no threat of extinction: after all it is spoken by well over nine million people in all contexts and situations, it has a solid codified standard and there is a strong state behind in support of it, so there is hardly any reason to have any doubts about their long-term future. What doubt É. Kiss raises relates to Hungarian losing prestige and losing ground in some areas of language use mostly in higher education and some technical registers.

Will it not lead to the devaluation of the Hungarian Language? Will this situation not prompt Hungarian parents to send their children to English language schools? [...] Will they not think that their children will pick up Hungarian in the street anyway and what serves their interest best is if they acquire native-like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at school? Within a couple of decades, will we not face a situation when increasingly large part of young people become English dominant bilingual speakers, who because they feel uncomfortable in certain areas of Hungarian are prone to use English instead? (É. Kiss 2004, 168)

The above questions are raised on the analogy of the process that is going on in the neighbouring countries with respect to Hungarian as a minority language, a situation that deserves special attention.

Hungarian as a minority language

As mentioned above, as a result of the Trianon Treaty, millions of Hungarians found themselves displaced of their homeland and doomed to live the lives of despised second-rate citizens with their native language Hungarian destined to be a minority language if it is given any official status at all. During the Soviet era in the region, nationalism was oppressed and the vicissitudes, including language deprivation, of minority Hungarians living in the neighbouring countries was taboo: under the ruling ideology all the peoples in the socialist camp were supposed to be living in fraternal peace and happiness.

Following the fall of the Soviet regime, this issue gushed fore in the public discussions and the false pretence of brotherly coexistence yielded to a far more complex situation, which brought about the re-appraisal of the language positions as well. Whereas earlier it was prohibited to study and publish articles or books on the state of minority language use, (Susan Gal's classic work (Gal 1979) on the state of Hungarian in Burgenland, Austria was published in New York), there has been a series of fresh research and previously unavailable data appearing since, cf. (Lanstyák & Szabolcs 1998) (Csernyicskó & Váradi 1996) (Kontra & Hattyár, *Magyarok és nyelvtörvények* (Hungarians and Language Legislation) 2002) (Kontra & Saly, *Nyelvmentés or nyelvárulás?* (Saving or Betraying the Language?) 1998).

Space limitations prevent me from surveying this literature but in summary we can state that the prevailing view is that Hungarian language use is increasingly becoming endangered in the neighbouring countries. Especially severely effected are the Hungarian speakers living scattered among communities of majority speakers. In all those regions where there is no Hungarian schooling at all levels, Hungarian is facing an uphill struggle. Enforced majority language schooling has long been a classical means of oppressing minority language use. As Göncz suggests (Göncz 1999) cited by (É. Kiss 2004, 133)

“It sends the message to children that they had better give up their roots, their language and culture if they want to succeed. [...] Many children develop a sense of shame, they tend to blame themselves instead of the ill-chosen majority language while those who manage to overcome these obstacles, typically give up their language and culture and adopt the system of values and norms of the social elite in control of the schools”.

The socio-psychological motivations in such a typical situation are very clear and difficult to resist. Ideally, education system in such bilingual situation should be additive rather than assimilative (Kontra 2010, 19) but this issue is inherently subject to the bilateral political relations between the countries involved, which did not necessarily improve even after both of them joined the European Union.

Summary

To conclude the overview of the current situation one can agree with É. Kiss that as regards the inherent linguistic profile, the syntactic structure and lexical resources of the Hungarian language is facing no structural threat from any language, including English. It can be safely assumed that what change is registered, amplified by the voice of language cultivators is no different in kind and scope to the language contact phenomena that Hungarian displayed over the centuries.

As regards, language use, however, the situation is less clear and reassuring. First of all, one should immediately distinguish between the position of Hungarian used inside Hungary and the use of the Hungarian language in the neighbouring situation. The position of Hungarian inside Hungary is overall pretty stable, it is the native tongue of the overwhelming part of the population.⁵⁾ It is the state language, its unlimited use is codified in the Constitution, the Hungarian language is seen as one of the strongest bond uniting the Hungarian Nation. Its prestige is challenged only in marginal areas like scientific publications and dissertations as well as in certain well marketable areas of higher education.

The situation is drastically different when Hungarian language use is considered outside Hungary, in particular, among the neighbouring countries. Here the gradual and irreversible process of language loss through language change is much in evidence. Hungarians living in minority language situation in these countries number about one third of Hungarian speakers living in the homeland⁶⁾. The main threat Hungarian faces

5) According to 2001 census figures, some 4 per cent of the population declared themselves belonging to other nationalities. Even considering the roma population, most of them Hungarian speakers anyway, the number may be around 8-10 per cent.

6) According to the 2011 census, the total population of Hungary numbered 9,986 million, while Hungarians living in the Carpathian Basin outside Hungary totalled 2,377 million persons.

in these regions is not so much the influence of globalisation as the relentless assimilative forces operating in an environment that is indifferent if not alien to the linguistic and cultural value of Hungarian-dominant bilingualism, which is the most that one could set as an objective in the present geopolitical setting.

Hungarian in the Digital Age

Globalisation is a phenomenon that affects all languages, big or small. It raises grave challenges to Hungarian as well and there has been several suggestions how to respond to them. They range from legal action to limit the use of foreign terms, promotion of Hungarian language use in the academic domain, promotion of Hungarian language education in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of all levels, enhancing its prestige to strengthening of language rights of Hungarian in minority situation etc.

What has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is that Hungarian is affected not only by globalisation but by the fact that the language is increasingly used in a setting that is dominated by digital communication. Indeed, view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technical underpinnings of what is referred to as globalisation is ensured to a large extent by digital communication (mobile telecommunications and the Internet). The on-going shift to digital culture calls for a reappraisal of strategies aimed at protecting and preserving languages from the presumed ill effects of globalisation. Language both as a means of communication and as a carrier of cultural heritage and knowledge (to cite only two of the multitude of functions language fulfils) is intricately embedded in digital culture and this trend is likely to be even more dominant as further generations of digital natives arise (Prensky 2005/2006).

In order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any language in the digital age, it is vital that the language should be supported with appropriate digital infrastructure. This is mainly the responsibility of computational linguists working in what in the field of human language technologies but in the age of the interactive Web 2.0 it is increasingly helped by voluntary collective effort in the form of crowd sourcing.

The most eminent example of the latter is the phenomenal success of the Wikipedia. In an incisive article aptly titled “Language death in the digital age” Kornai indeed assumes the existence of native language Wikipedia as the *sine qua non* of survival.

“No wikipedia, no survival” (Kornai, to appear).

Language Technology and Language Resources

In our age communication is overwhelmingly pursued by electronic devices, producing massive amounts of texts (whether speech or written language) existing in electronic media. The digitisation of past records of language is progressing at an increasing pace with the result that it is just a matter of time when all the linguistic and cultural heritage of any one language will be captured in digital form. The future generation of digital natives will resort to digital machines to communicate, to look up any information, to record their lives etc. It is of paramount importance, therefore, that these new channels and new media of language use are adequately served by language technologies.

One of the central pillars of language resources is a general purpose reference corpus of the language. One of the best specimen for such resource is the British National Corpus (<http://www.natcorp.ox.ac.uk/>), which was prepared in the early nineties and although nowadays there exist corpora ten times as large, it still remains unsurpassed in terms of its composition and its methodological care. One enormous benefit such a corpus offers is that it provides a solid empirical base for the analysis of actual language use. One charge that language cultivators have a hard time to fend off is that the pronouncements they make are based on their predilections if not prejudices instead of the actual facts of language use. Though not without its own shortcomings, corpus linguistics (Kennedy 1998) has grown into a robust discipline which proved itself indispensable when it comes to analysing language ‘as she is spoke’. Wherever there exists a stable standard variety of the language, compilation of a reference corpus is a means of documenting, monitoring and sustaining the general standard. Indeed, to use Marko Tadic’s ingenious paraphrase⁷⁾ of the famous quip by Max Weinreich paraphrase⁸⁾ one can state that a language is a dialect with a hundred million word corpus behind it. For linguists and anyone concerned with the actual state of language use, it is an indispensable tool to reflect veritably the state of the language.

7) Personal communication

8) “Language is a dialect with an army and a navy.”

Language technology is not just for the specialists. It serves a wide range of societal needs and is part of our daily lives even if it is not widely recognised. From everyday humble tools like spelling and grammar checkers to speech recognition and machine translation, language technology is embedded in many applications that we use daily. Its most widespread domain of use is, of course, the world wide web, through which circulate the deluge of texts that we face every day. Language resources are the fuel, as it were, that drives language technologies and sometime, as in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language technology shows an insatiable appetite for huge datasets.

European language infrastructure initiatives

It has been recognised by the European Union since the late eighties that language resources are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language technologies. Recently more and more attention was paid to the development of research infrastructure in an effort to strengthen the European Research Area. The first major infrastructure initiative was launched by ESFRI (European Strategic Forum for Research Infrastructure), which launched its first Roadmap⁹⁾ that included 35 research infrastructure of pan-European interest. Among them was the CLARIN project (<http://clarin.eu>), a truly pan-European project involving partners from 26 countries. The mission of the CLARIN initiative is to develop a virtual networked infrastructure that brings the benefit of language technologies to doing e-science,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long-term project has recently completed its two-year initial phase and has started its five-year construction phase to be followed by the operational phase.

Another related project is FLARENET (Fostering Language Resources Network)¹⁰⁾ which aims to bring together all stakeholders of the sector and develop a common view and a European strategy for consolidating the sector.

Currently the most ambitious initiative for developing the language technologies on a European scale is the network of excellence META-NET (Multilingual Technology Alliance)¹¹⁾, whose mission includes creating a distributed network of repositories of

9) http://ec.europa.eu/research/infrastructures/index_en.cfm?pg=esfri-roadmap

10) <http://flarenet.eu/>

11) <http://www.meta-net.eu/>

language resources and technologies called META-SHARE (<http://www.meta-share.eu/>). The resources are preferably open-source and downloadable with a clear licence (one from a range of META-SHARE licences based on the Creative Commons licences) and proper metadata and documentation.

META-NET also prepared a large scale survey of the European languag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ir language technology support in the form of a series of bilingual White Papers on as many as 31 languages.¹²⁾ The series provide a wealth of information as well as comparative evaluations based on peer assessment of the state of language technology support available to the respective languages.

EFNILEX

EFNILEX is a project of the European Federation of National Institute of Language (EFNIL)¹³⁾. Its aim is to explore the potential of language technology to help the development of bilingual dictionaries in language pairs which are not considered commercially viable by major publishing houses. The mission of EFNILEX is highly compatible with the aim of supporting less-resourced languages by alleviating their linguistic isolation and enhancing their prestige as a language that can serve to communicate with speakers of a variety of languages of similar size.

The bottleneck to realizing this objective in its intended scope was the scarcity of parallel corpora (translated texts). In the end the outcome was a tool that serves not so much the general public directly but lexicographers who benefit particularly from the contextually appropriate translational equivalents derived from the parallel corpora. A particularly intriguing feature of the tool is the facility to tailor the dictionary to the needs and competence level of the users. By adjusting the parameters one can generate a suitable trade-off between coverage (number of headwords) and precision. For further details visit <http://efnilex.efnil.org/>

12) <http://www.meta-net.eu/whitepapers>

13) <http://efnil.org/projects/efnilex>

Language technology support for Hungarian

Hungarian is relatively well supported in terms of language technology. The Hungarian National Corpus¹⁴⁾ (Váradi 2002) contains 185 m words collected from five gross language varieties (press, belles lettres, scientific, official and personal) collected from inside Hungary and the Hungarian minorities living in the neighbouring countries. It is currently being upgraded to giga size (1000 m words). The corpus is fully annotated with morphological analysis and each word disambiguated to 97.5 per cent accuracy. It also has a treebank (a corpus consisting of parsed sentences) of 1.2 m words¹⁵⁾, a medium sized WordNet¹⁶⁾ (Kuti et al. 2007) an industry-strength machine translation system covering English-Hungarian and Hungarian-English and an innovative technology that can connect to dozens of language pairs using the above two¹⁷⁾. Last but not least it has a vibrant Wikipedia that ranks 17th (according to Dec 2009 figures).¹⁸⁾

How to estimate the threat to languages?

The size and quality of Wikipedia assumes particular importance in a fresh approach to endangered languages by Kornai, who in an aptly titled article “Language death in the digital age” assumes the existence of native language Wikipedia as the sine qua non of survival. “*No wikipedia, no survival*” (Kornai, to appear). It is a sufficient but not necessary condition for survival and a close study of the size and vibrancy of particular language editions of Wikipedia reveal intriguing underlying phenomena. Among the cases he cites is Bokmål and Nynorsk, the two officially recognized varieties of Norwegian, which for many years were side by side in terms of Wikipedia presence but by now there are four times as many articles in Bokmål than in Nynorsk. Even more surprising is the disparity between them in terms of user generated content: a crawl of the .no domain yielded 1,620 million words in Bokmål but a mere 26 million words in

14) http://mnsz.nytud.hu/index_eng.html

15) http://www.inf.u-szeged.hu/rgai/nlp?lang=en&page=nlpproj_syntax

16) http://www.inf.u-szeged.hu/rgai/nlp?lang=en&page=nlpproj_hunont

17) www.webforditas.hu, www.itranslate4.eu

18) http://en.wikipedia.org/wiki/Wikipedia:Multilingual_ranking_December_2009#100_000.2B_articles

Nynorsk and that even considering that all official pages are published in both varieties! Kornai concludes: *“In spite of a finely balanced official language policy propping up Nynorsk, the Norwegian population has already voted with their blogs and tweets to take only Bokmål with them to the digital age”* (Kornai, to appear, 2)

Conclusions

The Hungarian language is revered as the strongest bond uniting Hungarians all over the world, particularly the indigenous Hungarian population living in the neighboring countries. Its status and long-term survival within the current administrative borders of Hungary cannot be questioned and despite ill-advised opinions to the contrary the language itself faces no threat in terms of structural or lexical depravity. It is spoken by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population, and apart from (so far) really marginal domains its unconstrained use is universal in all walks of life. The situation is drastically different in the neighboring countries where truly monolingual native Hungarian communities are very rare (if they exist at all) and a relentless process of language shift is going on.

Any concern over the long-term future of the language has to consider it in terms of the emerging digital culture. This has the implication that care the longevity of full-fledged language use must give priority to ensuring that the digital infrastructure of the language is properly developed and maintained. To suit the communicational and informational needs of the future digital natives.

Works Cited

- Lanstyák, I., & Szabolcs, S. (Eds.). (1998). *Tanulmányok a szlovák - magyar kétnyelvűségről* (Studies on Slovak - Hungarian bilingualism). Pozsony: Kalligram Kiadó.
- Gal, S. (1979). *Language Shift. Social Determinants of Linguistic Change in Bilingual Austria*. New York: Academic Press.
- Csernyicskó, I., & Váradi, T. (Eds.). (1996). *Kisebbségi iskolai nyelvhasználat (Minority language use at school)*. Budapest: Tinta Kiadó.
- Skutnabb-Kangas, T. (1988). Multilingualism and the education of minority children. In T. Skutnabb-Kangas, & J. Cummins (Eds.), *Minority Education: From Shame to Struggle* (pp. 9-44). Philadelphia: Clevedon.
- Sándor, K. (2002). Nyelvművelés nálunk és más nemzeteknél (Language Cultivation in Hungary and in other nations). *Társadalomkutatás (Social Sciences)*, 20, 121-149.
- Nádasdy, Á. (2003). *Ízlések és szabályok – Írások nyelvről, nyelvészetről 1990-2002*. Budapest: Magvető Kiadó.
- Szépe, G. (2001). *Nyelvpolitika: Múlt és jövő (Language Policy: Past and Present)*. Pécs: Iskolakultúra.
- É. Kiss, K. (2004). *Anyanyelvünk állapotáról (On the State of our Mother Tongue)*. Budapest: Osiris Publishing House.
- Abondolo, D. (1992). Hungarian. In W. Bright,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Linguistics, Volume 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ábián, P. (2007). A magyar helyesírás sorsfordulói (The vicissitudes of Hungarian Orthography). In G. Bozsik, V. Eőry, & R. V. Raisz (Eds.), *Hagyomány és újítás a helyesírásban* (pp. 11-23). Eger: EKF Líceum Publishing House.
- Keszler, B. *Beszámoló az MTA Magyar Nyelvi Bizottságának 2010. évi munkájáról (Annual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Hungarian Language for 2010)*.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http://mta.hu/data/cikk/11/74/71/cikk_117471/MagyarNyelviBiz2010.pdf.
- Kenesei, I. (2002). Hányféle igazság van? (How Many Truths Exist?). *Magyar Nyelv (The Hungarian Language)*, 39-49.
- Kiss, É. K. (1987). *Configurationality in Hungarian*. Akadémiai Kiadó.
- Kiss, J. (2004). A magyar nyelv és az Európai Unió (The Hungarian Language and the European Union). In Z. Kulcsár (Ed.), *25 év anyanyelvünk szolgálatában (25 years in the service of our mother tongue)* (pp. 26-40). Budapest: Akadémiai Kiadó.
- Kontra, M. (2010). *Hasznos nyelvészet (Useful Linguistics)*. Somorja: Fórum Kisebbségkutató Intézet.
- Kontra, M., & Saly, N. (Eds.). (1998). *Nyelvmentés or nyelvárulás? (Saving or Betraying*

- the Language?*). Budapest: Osiris.
- Kontra, M., & Hattyár, H. (Eds.). (2002). *Magyarok és nyelvtörvények (Hungarians and Language Legislation)*. Budapest: Teleki László Alapítvány.
- Kálmán, L., & Nádasy, Á. (1999). *Hárompercesek a magyar nyelvről (Three minute writings on the Hungarian Language)*. Budapest: Osiris.
- Pléh, C. (1995). On the dynamics of stigmatization and hypercorrection in a normatively oriented language community.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111, 31-45.
- Phillipson, R. (2003). *English-Only Europe? Challenging Language Policy*. New York/London: Routledge.

국립국어원 2012 국제 학술 대회

제2부 Session 2

시하우켈레 응구바네
Sihawukele Ngubane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언어위원회
Pan South African Language Board, Republic of South Africa

수기요노
Sugiyono

인도네시아, 언어 발전 진흥 기구
The Agency for Language
Development and Cultivation, Indonesia

김세중
Kim Sejung

대한민국, 국립국어원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Republic of Korea

제2부 / Session 2



시하우켈레 응구바네
Sihawukele Ngubane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언어위원회
Pan South African Language Board,
Republic of South Africa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언어위원회 위원장
나탈대학 박사

Sihawukele Ngubane was the former chairperson of the Pan South African Language Board.
He gained his Ph.D. degree from the University of Natal(UKZN).

위협받는 언어들: 아프리카 토착어의 보존

시하우켈레 응구바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언어위원회)

초 록

본 발표의 목적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언어 계획 정책과 그 시행이 끼친 영향을 평가하고, 인종 차별 정책 이후 남아공의 사회 언어학적 상황을 파악 하며, 남아공 언어 법안을 검토하고, 국가와 지방 및 지역 차원의 언어 다양성 및 정책 관리 상황을 평가하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언어 차별에 대해서 살펴본다.

서 론

2012년 2월 21일, 국제 연합 산하의 세계 각국은 세계 모어의 날(International Mother Language Day)을 기념했다. 세계 전역의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을 기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동시에, 이 날은 또한 1952년 2월 21일 방글라데시에서 모국어인 벵골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라는 시위를 벌였던 학생 4명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했다. 남아공에서의 기념행사는 언어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자유 투쟁과 우리의 토착어가 응당 받아야 할 인정을 받게 하려는 갈망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투쟁에 불을 붙이는 불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땅의 고귀한 아들인 치에치 마시니니(Tsietsi Mashinini)는 우리가 언젠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언어와 다른 언어들을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젊음을 희생했다. 그와 코초 세아틀로로(Khotsho Seathlolo) 및 수천 명의 젊은이들은 아프리카칸스어를 교수 언어로 시행하는 것과 영어와 아프리칸스어만을 공인하는 정책 전반을 거

부하기 위해 저항하였는데, 이 정책들은 토착어 발전에 매우 유해했던 것이다.

그들이 아프리카언어 언어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언어를 교수 언어로 시행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정책은 국민들의 의지에 반해서 행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프리카언어를 배우고 말하는 것에 저항하는 태도를 길러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당연하게도 정부의 인종 차별 정책 수행이 아프리카언어를 악으로 여기게 했지만, 우리는 이 언어를 배우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에 대해 징벌을 가하지는 말아야 한다.

1. 남아공의 상황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처럼 남아공도 토착어의 지속적인 존재를 위협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토착어는 식민지 시대 이전 아프리카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사하였는데, 식민지 시대에 식민 주국국의 언어가 지배 언어가 되었다.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걸쳐 대다수의 아프리카인들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외국어들을 이용한다.

남아공 헌법에 따르면 남아공의 모든 공식 언어들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고, 공평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영어 외의 모든 언어들이 진흥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이것이 남아공의 일반 국민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남아공 언어위원회(PanSALB)는 종전에 소외되었던 남아공 토착민들의 언어를 발전시키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 인구의 단 8%만을 차지하는 반면 토착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공 국민의 대다수가 토착어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들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21세기 들어 영어는 아프리카인 및 비아프리카인의 삶의 모든 영역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다. 영어가 지성과 교양을 상징하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명망을 부여하는 반면 토착어들은 부차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영어는 사업, 과학, 학문, 인터넷, 교육, 방송, 대중 매체, 의료 및 제약, 공청회, 광고, 거리 표지판, 제품 등의 매체가 되며, 또한 대다수의 아프리카인들의 삶 속에 포함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특히 단 하나의 토착어만이 사용되는 시골 지역 사람들은 영어에 능숙하지 않다. 이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할 경우, 이들은 언어 형식으로 인해 낙인찍히며, 원시적인 사람 심지어는 미개한 사람으로 비춰진다. 깊은 산촌의 역양으로 말하는 농고마(Nongoma) 출신의 사람이 요하네스버그로 오면, 그는 줄루어(IsiZulu)로 ‘바리(bhari, 바보)’ 또는 ‘임파타(impatha)’ 등으로 불리게 된다.

남아공에서 모든 아프리카인들의 관심을 끌 만한 토착어를 찾는 데에 해결책은 여전히 없다. 일부 사람들은 남아공에 국가를 통합시킬 하나의 국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어느 언어가 그 역할을 할 것인가이다. 토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줄루어와 코사어(IsiXhosa)가 이 나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며, 따라서 응구니(Nguni) 어족의 언어가 국어로 선택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토어(Sesotho)를 사용하고 있다. 한 언어를 공용어로 채택한다는 것은 특정 언어들의 더 심한 소외를 의미하기 때문에 고통받게 될 다른 소수 토착어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민주주의 원칙과 권리 장전에 반한다.

나이지리아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수는 250~500가지이다. 하우스어(Hausa)는 나이지리아와 서아프리카 국경 지역 국가들에서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 동아프리카에서는 스와힐리어(KiSwahili)가 국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만약 남아공에서 하나의 지배적 토착어를 공용어로 선택한다면, 소수 언어 공동체들에게 이 언어 사용을 강제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한 언어가 지배적이게 되면,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보다 큰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되며, 교육상 성취에서의 이점으로 인해 직업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른 언어 집단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 남아공에서 영어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힘을 부여받는 것이다. 줄루어 사용자로서 필자는 벤다어(Tshivenda) 사용자와 의사소통하기 위해 모어 외에 추가적으로 벤다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종전에 소외되었던 9개 언어 모두를 진흥시킨다면 가까운 미래에 국가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보게 될 테지만, 한 언어만을 진흥시킨다면 원치 않는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단 하나의 공용어만이 널리 쓰이고 나머지 언어들은 공용어라기보다는 국어로서만 간주되는 아프리카 내 다른 많은 나라들과는 달리, 남아공에서는 11개 언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훌륭한 정책을 시행했다. 하나 이상의 국어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벨기에, 캐나다, 스위스가 바로 그 예들이다. 이 길은 따를 만한 것인가? 우리는 남아공의 국어로 두 주요 언어군들 각각에서 한 언어씩 고르고, 여기에 벤다어와 총가어(Xitsonga)를 추가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이는 각 언어가 헌법에 의해 공인된 공식적 지위를 보유하는 동시에 공식적인 정부 문서들에 네 가지 언어가 사용될 것임을 암시한다. 현재 영어는 공통어이다. 그러나 영어가 영어를 제2언어로 하는 화자들을 통합하는 힘을 갖고 있는가? 공통어로서의 토착어가 없는 상황에서 남아공은 의사소통 목적으로 영어를 계속 사용할 것이다.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영어가 어떠한 토착 부족의 언어도 아니기 때문에 중립적이라고 믿는다. 게다가 영어는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며, 따라서 다양한 인구 집단에 있어 공통의 언어로 이용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영어의 사용은 문맹이면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의 성장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종전의 식민 지배력을 상징한다. 그러나 일부 남아공 사람들은 이에 개의치 않으며, 세계

공통어라는 이유로 영어를 계속해서 사용한다.

남아공에는 언어 문제의 진전을 위해 인식해야 할 두 가지 대조적 측면이 있다. 첫째는 서류상으로는 언어 다양성을 보존하는 헌법과 정책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헌법에서 예상하는 각 언어에 대한 동등한 존중을 총체적으로 그다지 많이 이룩하지 못하였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서류상으로 남아공 헌법은 민주주의, 11개의 공용어, 남아공 언어위원회에 기반해 언어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남아공의 학술 기관들은 아프리카 언어들을 가르치고 연구한다. 남아공의 언어 다양성은 틀림없이 아프리카 대륙에 걸쳐 가장 진보적인 헌법상의 언어 규정에 의해 뒷받침된다. 헌법은 여러 언어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모든 사람이 그들의 모어로 말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는 권리 장전을 제공한다. 이는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것은 서류상의 이야기일 뿐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1961년 남아프리카가 공화국이 되었을 때, 아프리칸스어와 영어만이 공용어였다. 오늘날 남아공에는 11가지 공용어가 있다(수화는 표준화되지도 않았고, 남아공의 열두 번째 공용어로 포함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도전 과제이다). 11가지 공용어 외에 로베두어(Khilobedu), 북 은데벨레어(Northern isiNdebele), 소토어(Sesotho)의 영향을 받은 푸티어(Phuthi)와 같은 방언이 있으며, 응구니 어족의 언어들 가운데에서도 완전히 발달한 언어로는 인식되지 못하는 주요 방언들이 있다. 이민자 집단들은 여전히 그들의 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구자라트어, 힌디어, 그리스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가 남아공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언어들은 남아공에서 비공용어로 분류될 수 있다.

남아공 통계청의 2001년 11개 공용어에 대한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줄루어가 약 23%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코사어가 16%, 아프리칸스어가 13.3%로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8.2%를 차지했다. 가장 적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1.6%의 은데벨레어였다. 통계에 따르면, 영어는 사용자 수로 겨우 6위를 기록했으며, 남아공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제2 언어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공 토착민의 대다수는 9개 토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토착어에 대한 위협에 대해 다름으로써 토착어들의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남아공 통계청은 2003년 4,480만 명 이상이 일상생활에서 모어로 사용하는 언어가 25가지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정부의 업무는 거의 전적으로 영어로만 수행되는가? 또한 어떻게 영어가 문화적으로 다양한 남아공 의회의 언어로서의 지위를 지닐 수 있는가? 의회에는 통·번역자들로 구성된 언어 부서가 있지만, 지도자들이 토착어의 공적 인지도나 신뢰도를 끌어올리지 않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사실 남아공의 민주주의 체제는 토착어의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 왔지만 동시에 토착어

의 최악의 적이기도 했다. 토착어를 진흥하기 위한 기관들이 설치됐지만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받지 못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금 없는 권한과 마찬가지로 셈이다.

2. 남아공의 언어 계획 정책과 수행 분석

한 국가의 언어가 그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민감한 문제가 된다. 남아공 헌법에서 제공된 권리 장전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모든 이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지만, 권리 장전의 규정과 불일치한 방식으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문화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상기한 권리를 부정당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든 언어가 생활 문제에서 중요하며 사회의 발전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전제 위에서의이다. 어느 나라에서든 현대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앞서 토착어를 습득하고 대중들이 자신의 모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인종 차별 정책을 만든 국민당(Nationalist party)이 ‘흑인 자치 구역’을 만들었을 때, 그들은 토착민들을 더 작은 규모의 민족들로 분리하는 데 성공하였다. 트란스케이(Transkei)와 시스케이(Ciskei)에서 진흥된 언어는 코사어였다. 보푸타츠와나(Bophuthatswana)에서는 츠와나어(Setswana), 카응과네(KaNgwane)에서는 스와티어(Siswati), 콰데벨레(KwaNdebele)에서는 은데벨레어가, 가장쿨루(Gazankulu) 지역에서는 총가어가 진흥됐다. 흑인 자치 구역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했다. 이는 토착민 간의 구분을 영구화하였는데, 토착민들은 서로를 다르다고 간주하였다. 대부분의 도시 지역들에서는 영어와 아프리칸스가 지배적이었다. 토착어들은 흑인 자치 구역에서만 사용되었다. 학생들은 초등 교육 단계에서는 주로 토착어로 교육받았고, 영어는 상위 단계와 고등 교육 기관에서 교수 수단으로 계속 유지되었다.

1995년 당시 예술문화과학기술부는 언어계획사업단(LANTAG, Language Plan Task Group)을 설립하였는데, 그 임무는 남아공의 국가적 언어 계획에 대해 조언하는 것이었다. 이 단체의 권한은 언어 정책에 착수하는 것이었고 남아공 언어위원회의 권한과 중복되지 않았다. 언어계획사업단 설립의 목적은 언어 다양성에 대한 편협한 태도와 그 결과로 생긴 토착어들에 대한 위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이러한 위협들은 무엇인가?

- 아프리카에서의 영어 헤게모니
- 교육에서의 언어
- 부족 제도
- 도시화와 이민
- 사업 및 정부 공식 문서에서의 언어 사용
- 기술
- 현대화
- 세계화
- 국경 간 이동
- 국제화
- 관광
-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이들 중 일부를 아래에서 간략히 논의한다.

1) 국경 간 이동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화자들도 남아공에 살고 있다. 곧, 각 부족 토착어를 사용하거나 프랑스어(중앙 및 서아프리카)나 포르투갈어(모잠비크, 앙골라) 등 식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남아공에 사는 것이다. 이들이 남아공으로 왔을 때 그들은 영어를 배워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이 영어 사용자 수를 증가시켜 남아공의 토착어에 위협을 가한다. 남아공 주민들은 다른 언어에 대한 학습이 권장되지 않은 채 하나의 지역에서 하나의 토착어만을 말하고 진흥시켜 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국어 외에 다른 언어들을 말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벤다어(Tshivenda)를 사용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줄루어를 하는 콰줄루나탈 지역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 각 지방에서 토착어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 지역에서 쓰이지 않는 다른 언어들을 그 지역 공용어로 추가해야 하며, 이는 지역 간 의사소통을 강화시킬 것이다.

2) 교육에서의 언어

고등 교육 기관들이 언어 정책들에 착수하였지만, 이 정책들은 대개 시행되지 않았다. 언어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기관들은 다중 언어 사용보다 이중 언어 사용에 초점을

맞췄다. 콰줄루나탈(KwaZuluNatal)대학은 зулу어와 영어를 진흥시키며, 스텔렌보스(Stellenbosch) 대학은 영어와 아프리칸스어를 진흥시킨다. 포트헤어(Fort Hare)대학은 코사어와 영어를, 프리토리아(Pretoria), 유니사(Unisa) 및 프리스테이트(the Free State)대학은 영어와 아프리칸스어를 진흥시킨다.

3) 기술

인터넷의 페이스북, 트위터 및 와츠앱과 같은 누리 소통망(SNS) 서비스나 휴대 전화 서비스에서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루어진다.

4) 세계화

국제적 무역이나 소통에 영어가 이용된다. 직업을 구하고 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 현지 인들은 영어를 사용하도록 압박을 받는다. 예를 들면 이력서는 영어로 작성되고, 면접도 영어로 행해진다. 은행 계좌 개설 등의 공식 문서 서식에도 영어가 사용된다.

5) 현대화

젊은이들은 독서 문화, 특히 토착어 문학을 향유하지 않는다.

6)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남아공 라디오 방송국들은 청취자들이 충분한 지적 수준을 갖추지 못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많은 고위 정치인들이 아프리카 언어 라디오 방송국을 무시하는 이상한 현실을 반영한다. 토착어를 사용하는 라디오 방송국들은 대중들이 토착어로 시사 문제, 정치적 화제들을 토론하는 데에는 시간을 거의 할당하지 않는다. 영어를 사용하는 방송국들만이 시사 문제를 다룬다. 달리 말하면, 영어 방송국들은 ‘담화 라디오’인 반면 토착어 방송국들은 ‘음악 라디오’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의 영향으로 커뮤니케이션, 상업 및 사업의 언어로서 영어는 단단히 자리 잡는다. 영어는 지성의 상징이 되었고, 남아공의 엘리트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언어가 되었다.

언어는 유형, 무형의 전통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모어의 보

급을 진흥하는 모든 활동들은 언어 다양성 및 다중 언어 교육을 진흥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 걸쳐 언어적, 문화적 전통을 더 충만하게 인식하게 하고, 이해, 관용 및 대화에 기초한 결속을 고양하는 데 기여한다.

3. 헌법 규정들

남아공 헌법 제1장(수립 규정), 6항(언어)에서는 남아공의 언어 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에 대해 밝히고 있다. 남아공의 공용어는 페디어(Sepedi), 소토어, 츠와나어, 스와지어, 벤다어, 종가어, 아프리칸스어, 영어, 은데벨레어, 코사어, 줄루어이다. 남아공 헌법 2절은 모든 공용어의 이용을 증진하고 그 지위를 끌어올리는 실질적이면서 긍정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규정한다. 중앙 및 지방 정부들은 언어 사용 정도, 현실성, 비용, 지역 상황 및 전국 또는 지방과 관련된 인구상의 필요와 선호의 균형을 고려해 행정 목적에 부합하는 두 가지 공용어를 이용할 수 있다. 중요한 규정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앙 정부가 모든 공용어가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하고 공평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의 2절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서 공용어의 사용을 규제, 감독해야 한다는 점이다.

5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남아공 언어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규정이다.

- 모든 공용어, 코이어족, 나마어족, 산어족, 수화의 사용 및 발달을 위한 상황 조성 및 진흥
- 독일어, 그리스어, 구자라트어, 힌디어, 포르투갈어, 타밀어, 텔루구어, 우르두어, 아랍어, 히브리어, 산스크리트어 및 남아공에서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언어들을 포함하여 남아공 내 공동체에서 흔히 사용되는 모든 언어에 대한 존중 보장과 각 언어의 진흥

4. 남아공 언어위원회(PanSALB)

남아공 언어위원회는 1995년 법령 59에 의해 설립된 법정 기관이고, 공명정대하게, 두려움이나 선호, 편견 없이 활동할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181항 2절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독립적이고, 헌법과 법률에만 종속되며, 공명정대해야 하고, 두려움, 선호, 편견 없이 각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나아가 이 법률은 어떠한 정부 인사나 기구도 그 기능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의회(181항 3절)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남아공 언어위원회가 직면한 과제는 그 기능이 국가의 어떤 기구에 의해서도 도움을 받거나 보호받지 못하며, 그 결과 널리 알려진 자금 흐름 문제에 지속적으로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다.

181항 4절은 “어떠한 정부 인사나 기구도 이 기관들의 기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남아공 언어위원회 관련 기관에는 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재무부, 남아공 언어위원회 법안의 관제 임무를 가지는 예술문화부, 예술문화포트폴리오위원회 등이 있다. 남아공 언어위원회의 권한에 더하여 헌법, 남아공 언어위원회 법안, 지방언어위원회(PLC, Provincial Language Committees)뿐만 아니라 국가언어기구(NLB, National Language Bodies)에 대한 규범과 규정들이 2005년 정부 관보에 발표되었다. 국가사전편찬부(NLU, National Lexicography Units)는 위원회에 보고하는 협회의 비망록과 조항들에 의해 관리된다.

남아공 언어위원회가 언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할한다고 주장하던 정부 인사들에게도 혼란이 만연했다. 언어를 다룬 법안들을 시행해야 하는 바로 그 사람들 스스로가 종종 이 법안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언어 발전을 조정하는 일이 정부의 임무로 할당되지, 남아공 언어위원회의 임무로 편성되지 않는다는 남아공 언어위원회는 감독 기능을 하는데, 단지 감독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공에서 다중 언어 사용의 진흥에 있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및 지방 정부들과 상호 협력하도록 헌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남아공 언어위원회는 전국에 걸쳐 지방언어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지방 정부들과 몇 차례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 부처에는 언어 담당 부서나 예산, 여러 언어 사용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할 통역 서비스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지방 정부들은 여전히 통합 발전 계획(IDP) 전략들을 단지 영어로만 작성하면서, 그들이 전달한 계획을 각 언어 공동체가 완전히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연설에 영어만을 사용하며, 그 때문에 의회에서는 불필요한 전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왜 학교 교육 과정에 남아공 수화를 포함시키는 데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피터마리츠버그(Pietermaritzburg)의 법정 사례를 들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오백만 명의 청각 장애인들이 통역자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다는 사실에 무관심한가? 민주 체제 시행 18년을 맞으며, 언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우리를 압박한 영국 출신의 변호사와 남아공 법정에 다시 한 번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후손들에게 주고 싶은 것에 대한 애정에서 스

스로 언어 법안을 제정할 수는 없었는가? 아니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비정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우리는 이 나라에서 새로운 제국주의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자들과 싸워 온 것이 아니다.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들이 외국어보다 못하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자유로워졌으나,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언어적 권리를 행사하는 대신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생활을 영어가 지배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굴복시켰다.

남아공 언어위원회는 위원회의 임무에 전념하고, 당면한 도전 과제들을 다룰 것을 표명하였다. 2011년과 2012년에 다음과 같은 언어 관련 성과들이 있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 리펠리페그프와브(Ljpejpegpwab) - 용어 사전 프로젝트 완결
- 벤다어 및 스와지어 사전 출간
- 북서 지방 IKS 엑스포 워크숍
- 츠와나어 국가언어기구(NLB)의 HIV/AIDS 전문 용어의 인증, 총가어 국가언어기구(NLB)의 철자법 규칙 및 은데벨레어 진흥 및 인지 캠페인
-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 츠와나어, 줄루어, 코사어, 세페디어, 아프리카ンス어
- 선진 연구를 위한 아프리카인중앙협의회(CASAS)와 제휴하여 세계 모어의 날 기념
- 독립 신문사와 교육 과정 내 언어 향상을 위한 업무 협정 체결

위에 언급한 예들은 위원회가 제한된 기금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핵심 임무를 보여 준다.

5. 남아공 언어 법안에 대한 검토

1995년 벤 응구바네(Ben Ngubane) 박사가 지명한 네빌 알렉산더(Neville Alexander) 박사가 주도한 언어계획사업단과 예술문화과학기술부(DAST)가 국가 언어 계획 보고서를 1996년 내각에서 발표하였다. 언어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도움을 주도록 초빙되었는데, 이들은 에이브리햄 찰스 은카빈데(Abraham Charles Nkabinde) 교수, 템바 음시망(Themba Msimang) 교수, 케티웨 마라이스(Khethiwe Marais) 교수, 케두시지 부텔레지(Qedusizi Buthelezi) 교수 등이었다. 이후 교육 정책 내 언어(1996), 학교 내 언어 정책을 규제하는 남아공 학교 법안의 언어 정책에 대한 규범과 표준(1996), 고등 교육을 위한 언어 정책(200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가 언어 정책의 틀은 2003년 내각에 의해 승인되었다. 정책에 대한 진술, 시행 계획, 남아공 언어 법안 및 남아공 언어 전문 위원회 법안(DAC 2003a, 5)을 내각에 제출했다.

이 과정은 언어에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고등 교육 기관들에 잘 수용되었다. 민주주의가 시행된 지 18년이지만 남아공에서 정부의 언어 정책과 실제 언어 관행 사이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학교와 대학에서 아프리카 언어들을 학습하는 것, 대학에서 교수 언어로 토착어를 사용하려는 시도, 다중 언어 사용, 정부 부처나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토착어를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현재 상태의 법안은 다중 언어 사용을 촉진하지도 않고, 남아공 언어위원회에 어떠한 강제력도 부여하지 않는다. 이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부처들에 대한 징벌 조항들도 없다. 언어와 모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점이 제안된 법률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대부분의 학교에는 이처럼 중요한 측면을 전달할 교사가 부족하다. 교사 양성도 부재하다. 학교들은 모어 교육에 관계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데, 이는 학교에서의 교수 학습 언어에 대한 의사 결정권자인 학부모들이 토착어를 잘 유지하면서 경제적 계급이 올라간 사람들 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녀들이 토착어를 배우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흑인 남아공인들에 의해 면접이 영어로 시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이 채용에서 탈락하는 것을 경험한다. 지성과 영어는 동의어로 취급된다. 사람들은 역할 모델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이들은 토착어를 상당히 유창하게 구사하는 지적인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에는 계속 외국어를 사용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왔다. 이들은 국가 발전 계획에 토착어에 대한 내용은 별로 담겨 있지 않은 상황을 경험해 왔다.

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수년이 흐른 시점에서, 공공 기관은 언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조성하는 선두에 서야만 한다. 모든 공공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존중과 관용을 증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총체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인간 존엄성의 가치에 경의를 표하고 이를 지키고 있는가? 대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이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지만, 권리 장전의 규정과 불일치한 방식으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하여 고수해야 하는 남아공 헌법의 장엄한 내용이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에게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

2012년 1월 17~18일 예술문화포트폴리오위원회는 정부가 제안한 SA 언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참가자 대부분은 이 법안이 불충분하다는 데 동의했다.

2012년 1월 25일 예술문화부는 동일한 위원회에 30차례 이상 해당 법안을 제출하여 대응 내용을 법안에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문화부에 의해 수정된 내용에 감사하지만 변화가 상당히 미미하고, 공청회 동안 대부분의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제기된 우려

를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1) 두 가지 공용어

이 법안이 정부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개연성이 낮다는 사실에서 논의가 출발한다. 정부에는 “토착어의 사용을 증진하고 그 지위를 끌어올리는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11개 공용어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고, 공평하게 다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역할이 기대되었다.

우리는 이 법안이 헌법 6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국가 부처, 공공 단체 또는 공기업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공용어로 적어도 두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안이 대중에게 최소한 한 가지 토착어 서비스를 더 제공하는 점진적인 계획을 포함하는 언어 정책을 시행하도록 정부 부처에 강제해야 한다고 본다.

2) 언어 정책을 채택할 시기

예술문화부는 모든 국가 부처, 공공 기관 및 공기업이 18개월 이내에 언어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위원회의 잔여 임기가 겨우 24개월 남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8개월은 긴 시간이다. 위원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과정이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3) 지방 정부들

우리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 남아공의 지방 정부들은 헌법 6항 3절 b에 근거해 언어 정책 채택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지방 정부들은 이러한 헌법상 요구 사항을 수행하는 데 12개월을 보장받아야 한다.
- 어떠한 지방 정부라도 공동체의 20%가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 언어를 분명히 공용어로 사용해야 한다. 이는 언어 사용상의 지역적 현실을 수용함을 의미한다.

4) 언어 옴부즈맨, 언어조사위원회 및 개선책을 위한 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안에 언어 권리를 위반한 자를 다루는 필수적인 체계가 부족하며, 이 법안이 언어 권리 위반의 희생자를 위한 개선책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우리의 견해는 공평한 언어 제도를 가진 다수의 국가들에서 시행 중인 최상의 국제적 표준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 언어 법안은 공용어의 이용을 규제하는 핵심적인 법률 체계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이러한 언어 법안은 종종 공용어의 형평성 형성을 초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탁월한 법률 체계로 이루어진다.

남아공 언어위원회의 결정을 강제하기 위해 법정을 이용하는 현 체계는 보통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고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다. 이는 언어 옴부즈맨과 언어조사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다루어질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문제를 언어 옴부즈맨에 회부하고, 언어 옴부즈맨에서 언어조사 위원회로 그 문제를 회부함으로써 언어 법안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시도할 수 있다.

언어 옴부즈맨과 언어조사위원회는 남아공 언어위원회의 사무소에 마련된다. 고등 법원의 판사 또는 사법서비스위원회에 의해 특별히 임명된 심사 위원들이 제기된 분쟁을 판결하기 위한 언어조사위원회를 주재하는 위원으로 임명된다.

언어조사위원회의 심사는 고등 법원과 동등한 관할권을 가지며, 평등 법원(Equality Court)의 적용 가능한 규칙, 규정들은 필수적인 조정 이후에 언어조사위원회를 규제하는 정부 부처의 규정에 따른 공표가 있을 때까지 언어조사위원회에서 적용될 수 있다.

5) 개선책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어떤 사람이든 또는 구성원들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 언어 집단의 구성원들이나 어떤 정부 기구든 언어조사위원회에 적절한 개선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부터 초래된 언어 권리, 언어 정책, 언어 관행에 대한 위반 혐의 또는 위반 조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 언어 법안 또는 국가 언어 정책 틀에 포함된 의무의 불이행
- 남아공 언어위원회의 권고, 판결 또는 결정의 불이행

언어조사위원회는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개선책을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다.

- 임시 명령
- 확인 명령
- 중간 명령 또는 중단 명령
- 피해 보상 명령
- 문제 제기된 상황을 다루는 특별 조치의 이행 명령

- 언어 정책 및 실행의 감사 시행을 피소자에 요구하는 명령
- 법률의 규정 및 남아공 언어위원회의 판결, 권고, 또는 결정의 준수 명령
- 소송 절차 당사자에 대한 비용 책정 명령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 대한 고소 관련 절차에서 언어조사위원회는 동일한 조직이나 기관에 관해 남아공 언어위원회에 들어온 유사한 고소와 관련한 정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언어조사위원회가 어떠한 신청이 중요한 새로운 원칙을 제기하는 것이라 판단하는 경우, 언어조사위원회는 그 고소가 결과적으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자에게 비용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만약 남아공 언어위원회 법안이 우선적으로 수용되지 않는다면, 중앙 정부의 공용어 사용에 대한 헌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안이 다른 어떤 법률의 상충하는 규정보다 우선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언어 권리 위반자를 다루는 더 나은 체계를 설립하는 것에 부응하도록 남아공 언어위원회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는데, 이는 언어 권리 위반의 희생자들에게 개선책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어 옴부즈맨과 언어조사위원회의 수립을 통해 이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다.

남아공 언어위원회는 공청회 동안 의회에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받았고, 우리는 우려된 사항의 일부가 수정된 법안에 포함됐다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현재 법안은 우리의 견해대로 그 목적을 직접적으로 밝히는 ‘공용어 사용 법안 2011’로 수정되었다. 2절 9b에서는 두 가지 언어를 공용어로 할 것이 고려되어 토착어를 위태롭게 한다고 여겨졌던 것과 달리 수정 법안에서는 정부 부처들이 행정 목적으로 적어도 세 가지 공용어를 규정할 것을 허용했다는 점이 또 다른 돌파구이다.

6. 국가, 지방 및 지역 단위의 언어 다양성 및 정책 관리

남아공에서 언어 다양성이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는 종전에 소외되었던 언어들이 공식적 지위를 얻을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모든 언어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행사에서 널리 퍼져야 한다. 각 공용어의 위엄은 존중받아야 하며, 공평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언어 정책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힘겨운 현실은 다양한 언어 집단 출신의 사람 두 명 이상이 접촉하며 언어 선택에 직면하는 상황이다. 대상이 되는 청중이나 독자들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정부 관계자 및 서비스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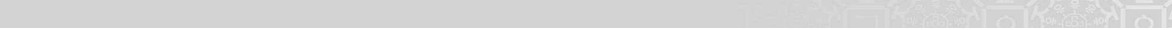
공자들은 양측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공통어를 선택해야 한다는 도전에 직면한다. 일부 경우, 영어가 유일한 선택지인 상황에서 그 공동체들이 영어를 말하거나 읽을 수 없다면 의사소통은 실패한다. 직장에서 인적 자원은 효율적인 다양성 관리를 위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문화적 가치, 태도, 종교적, 사회적 요인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작업 환경에서 인력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럽 중심의 사고방식이라는 유산은 의사 결정을 할 때 아프리카인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준다. 적절한 인적 자원 접근은 다양한 문화와 대조적인 세계관 모두를 받아들이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7. 결 론

남아공 언어위원회는 남아공에서 토착어가 직면한 도전에 유념하는 동시에 우리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토착어 진흥 5개년 전략을 신중하게 숙고하였음을 확신한다. 조직이 처했던 모든 장애물들과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남아공의 젊은이들에게 자신들의 모어를 수용할 것과 다중 언어를 사용할 것을 장려해야 한다. 다수의 백인들이 토착어 학습을 거부하는 것과 아프리칸스어 사용을 배제하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조직들이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에 비추어, 일단 의회에서 통과된 언어 법안은 사람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사회의 모든 층위에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은 지금부터 또 다른 20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필자는 일단 우리가 공동으로 행동한다면 남아공에서 언어 풍경이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다. 유럽 연합은 세 가지 미만의 공용어를 채택했다. 아프리카 대륙의 대다수 국가들이 한 가지 공용어를 선택한 반면 남아공은 11가지 언어를 공용어로 채택했다. 만약 우리 모두가 다양한 언어 및 문화를 아우르는 상호 작용의 질적인 향상에 투자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토착어를 자랑스러워 하고 다양성을 통해 이득을 얻는 보다 나은 남아공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Tongues under Threat

—Preserving Indigenous African Languages

Sihawukele Ngubane
(Pan South African Language Board)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resentation is to examine the impact of South Africa's language planning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sociolinguistic situation in South Africa after apartheid; to review the South African Languages Bill; and to assess the management of language diversity and policy at national, provincial and local levels, posing some solutions to the problems. The paper will finally look at language discrimination.

Introduction

On 21 February 2012, under the umbrella of the United Nations, the world celebrated International Mother Language Day. While the focus is on celebrating language and cultural diversity worldwide, the celebrations was also about commemorating the killing, on 21 February 1952, of four students who had campaigned for the official use of their mother language, Bengali, in Bangladesh. Celebrations in South Africa are against the backdrop of our own struggle for freedom which was interwoven with language and the desire to have our indigenous languages accorded their deserved recognition. In this sense, language was the spark that lit the struggle, especially among the youth.

In this context, Tsietsi Mashinini, that noble son of our soil, sacrificed his youth so that we could one day be able to speak our own and one another's languages without fear. He, Khotsho Seathlolo, and thousands of our youth defied all odds to reject the imposition of Afrikaans as a medium of instruction and generally the policy of recognising only English and Afrikaans, which was highly detrimental to the development of our indigenous languages.

It is instructive to note that they did not reject Afrikaans as a language but rather its imposition as a medium of instruction. Because this was done against people's will, the end result is that we have people who to their detriment have developed an attitude against learning Afrikaans and speaking the language. Granted, the conduct of the apartheid government caused Afrikaans to be demonised, but we should not inflict punishment on ourselves by refusing to learn this language.

1. SOUTH AFRICAN CONTEXT

South Africa like many countries in Africa is faced with challenges that threaten the continued existence of indigenous languages. Indigenous languages were spoken by the majority of people in Africa before colonial times, when the languages of the colonists became dominant. Today, most Africans across the continent find themselves using foreign tongues as tools of communication.

According to the South African Constitution all official languages of South Africa must enjoy parity of esteem and must be treated equitably, and all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will be promoted and developed. What does this mean to an ordinary South African? The Pan South African Languages Board (PanSALB) was mandated to create an environment primarily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eviously marginalised languages of the indigenous people of South Africa. Whereas speakers of English as a first language make up a mere eight per cent of the population, mother-tongue speakers of indigenous languages constitute 80 per cent. But although the majority in South Africa speaks indigenous languages, their languages are facing extinc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English continues to dominate in all spheres of life, for both African people and non-Africans. English symbolises intelligence and sophistication and it confers

prestige on the people who use it, while the indigenous languages remain on the periphery. English is the medium of business, science, academia, the internet, education, broadcasting, media, medicines and drugs, public debates, advertising, street signs, and products – and also in the homes of most African people.

The majority of the people are not proficient in English, especially in rural areas where only one indigenous language is spoken. When these people migrate from rural to urban areas they are stigmatised by their form of speech, and viewed as primitive and even uncivilised. Take someone from Nongoma who communicates in a deep rural accent to Johannesburg – he or she will be called names such as '*bhar*' ('fool') or '*impatha*' in isiZulu.

There is still no solution to finding an indigenous language that will appeal to all Africans in South Africa. Some people argue that South Africa needs to have a single national language that will unite the nation. The question is: which one? The demographics of speakers of indigenous languages indicate that isiZulu and isiXhosa are the most widely spoken in the country and therefore an Nguni language should be selected as a national language. In other parts of the country the seSotho group of languages is spoken by a large population. And we still have other, minority, indigenous languages that will suffer if such an option is adopted because it will mean further marginalisation of certain languages, which is at odds with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the Bill of Rights.

In Nigeria the number of spoken languages is between two 250 and 500. Hausa is spoken by millions in Nigeria and its bordering countries in West Africa, whereas in East Africa KiSwahili is widely used although it is not a national language. If we in South Africa choose one dominant indigenous language we will impose it on minority speech communities. Moreover, when a language is dominant its speakers tend to have more political power, and are also able to dominate other language groups, professionally, economically, socially and culturally because of their advantage in educational achievement.

Today in South Africa to be able to speak English confers power. As a Zulu speaker, I need to be able to speak Tshivenda in addition to my mother tongue, to communicate with a Tshivenda speaker. But promoting all nine previously marginalised languages will see the nation coming together as one in the near future whereas promoting one language will lead to unwanted divisions and conflicts. South Africa has adopted eleven official languages, a good policy, unlike many countries in Africa

where only one official language prevails and the rest are considered as national (rather than official) languages. Countries do have more than one national language. Belgium, Canada and Switzerland are examples. Is this a route to follow? We could choose one language from each of the two main language groups and add Tshivenda and Xitsonga as national languages of South Africa. If the answer is yes, the implication will be that we will have four languages to be used for official government documents while each language retains its official status as afforded by the Constitution. At present English is the *lingua franca*. But is English a unifying force for second language speakers? In the absence of an indigenous language as a *lingua franca*, South Africa will continue to use English for communication purposes. Some scholars, indeed, believe that because English is not the language of any indigenous tribe it is neutral. Moreover, it is used globally and therefore should be used as a common language for a diverse population. But at the same time the use of English poses a severe developmental threat to those who are illiterate and uneducated; and secondly, English represents the former colonial power. Some Africans, however, are not concerned about this, and they continue to use English because it is a world language.

In South Africa there are two contrasting aspects of language that we need to acknowledge in order to make progress on the matter of our languages. The first is that which is on paper, in our Constitution and policies. The second is the painful reality that collectively we have not done much to bring about the parity of esteem envisaged in our Constitution. On paper, we acknowledge that our Constitution recognises our diversity by prescribing, in the foundation of our democracy, eleven official languages and a Pan South African Language Board. Our academic institutions teach and research African languages. South Africa's language diversity is supported by arguably the most progressive constitutional language provisions on the African continent. The Constitution enshrines multilingualism and further provides in the Bill of Rights that everyone will have the right to speak and receive information in their mother tongue. It accords us the right to use our languages without fear. But this is the scenario on paper. What is the reality?

In 1961 when South Africa became a republic, Afrikaans and English were the only two official languages. Now we have eleven (sign language is still a challenge for us because it is not standardised and is not included as the twelfth official language of South Africa). Besides the eleven official languages there are dialects such as Xhosa, Northern isiNdebele, and isiPhuthi which are influenced by Sesotho, and amongst the

Nguni language groups there are also prominent dialects not recognised as fully-fledged languages. Then, immigrant communities still speak their home languages: Gujarati, Hindi, Greek, Portuguese, German, Dutch, French and Spanish are also spoken in the country. These languages may be classified as unofficial languages of South Africa.

According to Statistics South Africa the 2001 demographics of speakers of all eleven official languages indicates that IsiZulu is the most widely spoken with almost 23 per cent, followed by isiXhosa with 16 per cent; and Afrikaans with 13.3 per cent. English has 8.2 per cent first language speakers. The smallest language is isiNdebele with 1.6 per cent. According to the demographics of speakers of languages in South Africa, English is ranked only at number six and yet it is mainly used as second language by most people in South Africa.

The majority of indigenous people of South Africa speak the nine indigenous languages and we need to improve the level of indigenous languages by addressing the threats to them.

Statistics South Africa indicated in 2003 that there are 25 languages used daily by more than 44.8 million people as their home language. Why, then, is it that the work of government is conducted almost entirely in English? And how has English assumed the status of *the* language of our culturally diverse Parliament? We know that Parliament has a language unit fully staffed with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yet our leaders continue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not raising the public profile of, and confidence in, indigenous languages.

If truth be told, our democratic dispensation has done much for the development of indigenous languages but at the same time it has been the worst enemy of indigenous languages. Institutions that are meant to promote indigenous languages have been put in place but have not been adequately funded to perform their tasks, which amounts to an unfunded mandate.

2. Unpacking language planning policy and implementation in South Africa

The language of any nation is sensitive when the rights to it are violated. The Bill of Rights, as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of South Africa, stipulates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use the language and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ir choice, but no one exercising these rights may do so in a manner inconsistent with any provision of the Bill of Rights. Persons belonging to a cultural, religious or linguistic community may not be denied the right, with other members of that community.

It is on this premise that we argue that languages are significant to the livelihood of any nation and it is part of societal development. Before any nation can develop to modernity it is important that they master their indigenous languages and the masses become literate in their mother tongues.

When the Nationalist party of apartheid created 'homelands', they succeeded in dividing the indigenous people into smaller nations. In Transkei and Ciskei the language promoted was isiXhosa; in Bophuthatswana it was seTswana; in KaNgwane it was Siswati; in KwaNdebele it was isiNdebele; in Gazankulu it was xiTsonga. Homelands preserved their culture and languages. This perpetuated division among indigenous people, who saw themselves as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most urban areas, English and Afrikaans dominated. Indigenous languages were only spoken in the homelands. Schoolchildren were mainly taught in indigenous languages at a primary level and English remained the medium of instruction at higher levels and in higher learning institutions.

In 1995, the then Department of Arts, Culture, Science and Technology established a Language Plan Task Group (LANTAG), whose terms of reference were to advise the minister on the national language plan for South Africa. The mandate of this group was to work on the language policy and did not duplicate the mandate of PanSALB. The purpose of LANTAG was to influence attitudes of intolerance towards language diversity and the resultant threats to the indigenous languages.

What are these threats?

- English hegemony in Africa
- Language in education
- Tribalism
- Urbanisation and migration
- Language usage in business and government official documents
- Technology

- Modernisation
- Globalisation
- Cross-border movement
- Internationalisation
- Tourism
- Media and Communication

Some of these are discussed briefly below.

1) Cross border movement

Speakers of languages from other parts of Africa (their own languages and colonial languages such as French from Francophone Central and West Africa, and Portuguese from Mozambique and Angola) live in South Africa. When they arrive, they have to learn English. This poses a threat to mother-tongue languages of South Africa by growing the number of English speakers. Local South Africans are unable to speak languages other than their mother tongues because in our provinces only one indigenous language is spoken and promoted, without encouraging the learning of others. For instance, a tshiVenda speaking person may experience a communication challenge and be forced to use English for communication in KwaZulu-Natal where the majority of people speak isiZulu. For indigenous languages to develop in the provinces, an additional language that is not spoken there should be added, to enhance communication across provinces.

2) Language in education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have embarked on language policies that are often not implemented. Those institutions that have achieved successful languages policies focussed on bilingualism rather than multilingualism. The University of KwaZulu-Natal promotes isiZulu and English; Stellenbosch promotes English and Afrikaans; Fort Hare, isiXhosa and English; Pretoria, Unisa and the University of the Free State, English and Afrikaans.

3) Technology

On the Internet, social networks such Facebook, Twitter and Whats app, and cell phones, communication is in English.

4) Globalisation

International trade and communication are in English. For business purposes, local people are forced to use English when seeking jobs and making business transactions. For example, CVs are in English, and interviews are still conducted in the medium of English. Opening a bank account and other official forms are in English.

5) Modernisation

Young people are not part of a reading culture, especially indigenous language literature.

6) Media and communication

Radio stations in South Africa reflect the anomaly that many senior politicians snub African language radio stations because they perceive their listeners as not sophisticated enough. The radio stations broadcasting in indigenous languages allocate hardly any time for the public to debate topical political issues in these languages. Only English-medium stations air debates on topical issues. Put differently, English stations are talk radio, whereas the indigenous ones are music radio.

The effect of all this is the entrenchment of English as the language of communication, commerce and business; it has become a symbol of intelligence and the language that is a must to know in order to fit in the circles of our country's elite.

Languages are the most powerful instruments of preserving and developing our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All moves to promote the dissemination of mother tongues will serve not only to encourage linguistic diversity and multilingual education but also to develop a fuller awareness of linguistic and cultural traditions throughout the world and to inspire solidarity based on understanding, tolerance and dialogue.

3. Constitutional provisions:

Chapter 1 (Founding Provisions), Section 6 (Language) of the Constitution of South Africa states the founding principle of the language policy in South Africa.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Republic are Sepedi, Sesotho, Setswana, siSwati, TshiVenda,

XiTsonga, Afrikaans, English, isiNdebele, isiXhosa and isiZulu. The state is compelled by the Constitution under sub-section (2) to take practical and positive measures to elevate the status and advance the use of all official languages. The nation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may use any two official languages for the purpose of government, taking into account usage, practicality, expense, regional circumstances and the balance of the needs and preferences of the populations as a whole or in the province concerned. What needs to be highlighted as significant provision is that the national government must regulate and monitor the use of official languages without detracting from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2), all official languages must enjoy parity of esteem and must be treated equitably.

Sub-section (5) makes provis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an South African Language Board for the following reasons:

- To promote, and create 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and use of all official languages; the Khoi, Nama and San languages; and sign languages.
- To promote and ensure respect for, all languages commonly used by communities in South Africa, including German, Greek, Gujarati, Hindi, Portuguese, Tamil, Telegu, Urdu, Arabic, Hebrew, Sanskrit and other languages used for religious purposes in South Africa

4. The Pan South African Language Board

PanSALB is a statutory body established in terms of Act 59 of 1995 and it is expected by law to act impartially and without fear, favour or prejudice (Section 181 (2) which states:

These institutions are independent, and subject only to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and they must be impartial and must exercise their powers and perform their functions without fear, favour or prejudice.

The law further stipulates that no person or organ of state may interfere with its functioning and it is accountable to the National Assembly (Section 181 (3)). The challenge facing PanSALB is that its operations is not assisted nor protected by any organ of State and as a result it is continually confronted with widely publicised cash flow problems.

Section 181 (4) states that: “no person or organ of state may interfere with the functioning of these institutions”.

The National Treasury through its funding decision; the Department of Arts and Culture through its custodianship of the PanSALB Act; and the Portfolio Committee of Arts and Culture. In addition to the mandate of PanSALB the Constitution and the PanSALB Act, Norms and Rules for National Language Bodies (NLBs) as well as for Provincial Language Committees (PLCs) have been published in Government Gazettes in 2005. The National Lexicography Units (NLUs) are governed through their Memorandums and Articles of Association who then report to the Board.

Confusion is widespread, with people in government pointing to PanSALB for everything that is related to language. Laws dealing with languages are often not understood by the very people who must implement them. Coordination of language development falls within government and does not form part of the mandate of PanSALB. PanSALB is tasked with a monitoring function and is not only a watchdog but the Constitution allows partnership with government departments and municipalities to be sourced to minimise costs in the promotion of multilingualism in South Africa.

PanSALB has signed several memorandums of understanding with provincial governments in the formulation of provincial language committees throughout the country. But the reality is that government departments have no language units, no budgets and no translation services with which to implement the use of the languages of the people they serve. Municipalities still write their Integrated Development Plan (IDP) strategies only in English and expect communities to fully appreciate their delivery plans. The politicians still struggle to deliver their speeches only in English and thereby render

the entire translation service in Parliament redundant. Why did it have to take a court case in Pietermaritzburg to remind us that the Constitution places an obligation on us to have South African sign language in the school curriculum?

Why are we unconcerned that five million people from the deaf community cannot access our hospitals because there are no interpreters? Eighteen years into a democratic dispensation, we once again have to thank our courts and a lawyer from Brits for forcing us to pass a Language Act. Couldn't we do it ourselves in observance of our Constitution and above all out of love for who we are and what we want to bestow on our children, or have we become heartless people who only care about our egos? We have not fought the imperialists in order to create a new imperialism in this country. Using a foreign language is like declaring that our languages are inferior to foreign languages. We are liberated, but instead of exercising our linguistic right to use our languages we surrender our freedom by allowing English to dominate our lives politically, socially, economically and psychologically.

The Board is committed to its mandate and has ensured that challenges are addressed. It is pleasing to note some language-related achievements for 2011/2012:

- Ljpejpepwab – glossary project concluded
- Tshivenda and SiSwati dictionaries published
- IKS Expo workshop in the North West
- Setswana National Language Body verification and authentication of HIV/AIDS terminology; Xitsonga NLB orthography rules and isiNdebele language promotion and awareness campaign.
- Microsoft Project: Setswana, isiZulu, isiXhosa, Sepedi and Afrikaans
- International Mother Tongue Celebration in partnership with the Centre for Advanced Studies of African Society (CASAS)
- Entered into partnership with Independent Newspapers to promote languages in schools.

The aforementioned examples show that with the limited funds available the Board managed to implement its core mandate.

5. Review of the South African Language Bill:

In 1995 Langtag Committee led by Dr Neville Alexander was appointed by Dr Ben Ngubane, the then Minister of Department of Arts, Culture, Science and Technology (DAST) and later in 1996 the National Language Plan Report was presented to Cabinet. Language experts were invited to serve in the committee and they were Profs Abraham Charles Nkabinde, Themba Msimang, Ms Khethiwe Marais and Ms Qedusizi Buthelezi. This was followed by the Language in Education Policy (1996); Norms and Standards on Language Policy of the South African Schools Act (1996) which regulates language policy in schools and the Language Policy for Higher Education (2003).

The National Language Policy Framework was approved by Cabinet in 2003. The Framework provided Cabinet with a policy statement, an implementation plan and the South African Languages Act and the South African Language Practitioners' Council Act (DAC 2003a:5). This process was well received from all corners of Language stakeholders and by Institutions for Higher Learning. Eighteen years in Democracy there are still huge gaps between government language policy and language practice in the Country. The study of African languages at schools and universities, attempts to use indigenous languages as media of instruction at universities, multilingualism, the use of indigenous languages in government departments, public and private sector still raises serious concerns by many.

The Bill in its current form does not foster multilingualism, nor does it give any enforcement power to the PanSALB. There are no punitive measures for people or departments that do not comply with the law. The reality is that the proposed Bill is a reflection of our lack of seriousness about language and mother tongue issues. The truth is that most of our schools are in tatters and lack teachers to deliver on this important aspect. Teacher development is non-existent. Our schools are refusing to have anything to do with mother tongue education, because parents who are the decision makers on the language of teaching and learning in a school are refusing to have their children taught in a language that reflects who they are – understandably so, as they have not witnessed anyone climbing the economic ladder while remaining true to indigenous languages. Daily they experience their children failing to find employment because interviews are conducted by black South Africans in English. Intelligence and English are made to be synonymous. People have no role models.

They are exposed to an intelligent state president who is very eloquent in his mother tongue but yet continues to express himself in a foreign language. They are exposed to a national development plan that does not say much about our languages.

These many years into our democracy,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at the forefront of fostering respect for linguistic diversity. All public institutions should take the lead in promoting respect and tolerance in general. But does this happen? Are we collectively observing and honouring the values of human dignity enshrined in our Constitution? The answer appears to be no.

Everyone has the right to use the language and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ir choice, but no one exercising these rights may do so in a manner inconsistent with any provision of the Bill of Rights (section 30).

These are the glorious words of our country's Constitution to which we have to adhere in order to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But the reality points us in a different direction.

On 17-18 January 2012, the Portfolio Committee on Arts and Culture held public hearings on the government's proposed SA Languages Bill, which revealed that most participants agreed that the Bill as it stood was inadequate.

On 25 January 2012, the Department of Arts and Culture was appearing before the same committee to respond to the more than 30 submissions it received on the Bill. As much as we appreciate the changes made by the Department, we are however concerned that the changes are very minimal and are not addressing the concerns raised by most stakeholders during the public hearings.

1) TWO OFFICIAL LANGUAGES

Our point of departure was that the Bill is unlikely to give effect to the government's constitutional obligation. Government is expected to "take practical and positive measures to elevate the status and advance the use of [indigenous languages]" and to ensure that all 11 official languages "enjoy parity of esteem and ... [are] treated equitably".

We agree that the Bill should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6 of the Constitution and identify at least two official languages that any national department, national public entity or national public enterprise will use for purposes of government. However, we feel that the Bill should also compel departments to implement a language policy that includes a progressive plan to deliver services to the public in at least one indigenous language additionally.

2) PERIOD TO ADOPT LANGUAGE POLICY

The department is of the view that every national department, national public entity and national public enterprise must adopt a language policy within 18 months. We are of the view that this is too long,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the current committee has only 24 months left in office. It is our view that the committee should see this process to fruition before its term comes to an end.

3) MUNICIPALITIES

It is our view that:

- Municipalities in South Africa are obliged in terms of subsection 6(3) (b) of the Constitution to adopt language policies.
- Municipalities should be granted 12 months to comply with this constitutional requirement.
- Any municipality must use a specific official language if 20 per cent of the community it serves uses that language. This implies acceptance of the regional realities of language usage.

4) INSTITUTION OF LANGUAGE OMBUDSMAN, LANGUAGE TRIBUNAL AND REMEDIES

Most importantly, the Bill lacks the necessary mechanism to deal with language rights violators and fails to offer remedies to the victims of such violations. Our view is based on best international practice in many countries with an equitable language dispensation. A National Language Act is regarded as one of the core legislative

mechanisms to regulate the use of the official languages. Such a Language Act often comprises the pre-eminent legal mechanism aimed at bringing about a form of official language equity.

The current system of using the courts to enforce decisions of PanSALB is ineffective as it is inaccessible to ordinary people and very costly. This can be address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language ombudsman and language tribunal.

An aggrieved person might then seek to enforce any right in terms of the Language Act by referring the matter to the language ombudsman, and from there to the language tribunal.

The language ombudsman and the tribunal's seat should be at the offices of PanSALB. A judge of the High Court, or a judge or judges specifically appointed by the Judicial Services Commission, will be designated as presiding officer/s of the language tribunal to adjudicate any dispute referred to it.

A judge of the language tribunal will have concurrent jurisdiction to that of the High Court and the applicable rules/regulations of the Equality Court will after the necessary adjustment be applicable in the language tribunal, pending the publication by the minister of regulations regulating the language tribunal.

5) Remedies

Any person acting on his or her own behalf, or any person, body of persons or institution acting on behalf of its members or members of a language group or any organ of state may thus apply to a language tribunal for an appropriate remedy.

An application may be made concerning any alleged violation or threatened violation of a language right, language policy or language practice resulting from:

- the non-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s contained in a Language Act or National Language Policy Framework
- the non-compliance with a recommendation, finding or decision of PanSALB.

A language tribunal may grant such remedy as it considers appropriate and just in the circumstances, including:

- an interim order
- a declaratory order
- an interlocutory order or interdict
- an order for the payment of any damages
- an order for the implementation of special measures to address the situation complained of
- an order requiring the respondent to undergo an audit of language policies and practices
- an order to comply with any provision of the Act or a finding, recommendation or decision of PanSALB
- an appropriate order of costs against any party to the proceedings.

In proceedings relating to a complaint against an organ or institution, a language tribunal may admit as evidence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y similar complaint to PanSALB in respect of the same organ or institution.

Where the language tribunal is of the opinion that an application has raised an important new principle, the language tribunal may order that costs be awarded to the applicant even if the applicant has not been successful in the result.

It is our view that this Act should take precedence over any inconsistent provision of any other Act except the Constitution on the use of official languages by national government, unless the PanSALB Act is accepted as primary. If so, we recommend that the PanSALB Act be reviewed to cater for the establishment of a better mechanism to deal with language rights violators, as it fails to offer remedies to the victims of such violations. This can be address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language ombudsman and language tribunal.

PanSALB was given a platform to present its views in Parliament during the Public Hearing and we are pleased that some of our concerns were included in the revised Bill. The Bill is now amended as ‘Use of official languages Bill, 2011’ which in our view talks directly to its purpose. Another breakthrough is Clause 4 which allows government Departments to identify at least three official language for government purposes as opposed to two which we felt it compromises indigenous languages as contemplated in subsection (2)9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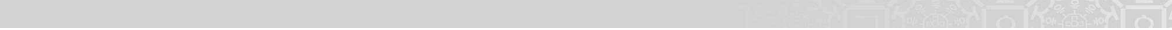
6. Managing language diversity and policy at national, provincial and local levels

The major challenge facing language diversity in South Africa is the creation of opportunity for previously marginalised languages to attain official status. This interpreted by an ordinary person, that any person may speak in his/her language in any given time. The parity of esteem principle should prevail in the work place, at home, church and community events. The dignity of each of the official languages should be respected and should be used equitably. The harsh reality in the ideals of the language policy is when two or more people from various language groups come into contact and they are confronted by making a language choice. Government officials and service providers who speak a different language from the targeted audience are faced with a challenge of choosing a common language that is accessible to both parties. In some cases there is a communication breakdown if those communities are not literate and cannot speak English in a situation where English is the only option. At work place, Human Resources must be transformed for effective diversity management in work place. Cultural values, attitudes, religious and social factors contribute negatively in people management in the work environment if not well managed. The legacy of Eurocentric way of thinking affects the Africanist world view in decision making. Proper human resources approaches must be developed to have a buy-in of all diverse cultures and contrasting worldviews.

7. Conclusion

While we are mindful of the challenges facing indigenous languages in South Africa, we at PanSALB are confident of our carefully considered five-year turnaround strategy of promoting indigenous languages to the best of our ability to fulfill our core mandate. With all hurdles and hiccups faced by the organisation we are still determined that we will succeed if we are given the opportunity.

Our youth must be encouraged to embrace their mother tongues and also to be multilingual. It does not help that many white people refuse to learn to speak the



indigenous languages and that there are organisations that campaign for the exclusive use of Afrikaans.

In the light of the above one argues that the language Act once it is passed by parliament must make provision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at all levels of the society taking into consideration people's needs. The process may still take us another twenty years from now, I believe that once we commit ourselves jointly we will rise above all challenges facing the language landscape in South Africa. The European Union has adopted less than three official languages; most countries in the African Continent have opted for one while South Africa has eleven languages. If we all invest in improving the quality of interaction across diverse languages and cultures we will achieve a better South Africa where we shall all be proud of languages and benefit through our diversity. Together we can achieve more.

THANK YOU.

제2부 / Session 2



수기요노
Sugiyono

인도네시아, 언어 발전 진흥 기구
The Agency for Language Development, Indonesia

현 언어 발전 진흥 기구의 언어 발전 및 보존 센터 책임자
인도네시아대학·레이던대학 통합 프로그램 박사
실험 음성학, 음향 심리학, 전산 언어학 연구

Sugiyono is the Director of the Center for Languag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at the Agency for Language Development and Cultivation. He wrote a dissertation on experimental phonetic and psycho-acoustic research of Melayu-Kutai language to be a Ph.D. from sandwich program held by University of Indonesia and University of Leiden, Holland. His interest on computer linguistics started in 1989 as he gets training on language computation held by ILDEP (Indonesian Linguistics Development Project) at University of Leiden and kept improving.

인도네시아의 언어 다양성 보호

수기요노
(언어 발전 진흥 기구)

1. 개 요

문화유산으로서의 언어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계화 시대에, 문제는 언어의 소멸을 어떻게 늦출 것인가이다. 약 6,500종의 언어 가운데 해마다 100여 종의 언어가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사용되는 언어 100여 종과 호주 토착어 200여 종 이상이 소멸되었다. Nettle and Romaine(2000)은 다음 세기에 세계 언어의 절반 가량이 사라질 것으로 추정하였다. 퍼스트 피플 문화 재단(First People's Cultural Foundation 2005)의 사이먼 로빈슨(Simon Robinson) 대표는 21세기 말까지 대략 세계 언어의 90%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언어가 더 이상 발달하지 않고 사용자가 감소하거나 사라져 간다면 그 언어는 위험에 처했다고 간주된다. 제1 언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곳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대부분 제2 언어인) 다른 언어가 채택되고 사용되는, 이른바 이중 언어의 사용 때문에 언어가 소멸하게 된다.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새로 도입된 언어 때문에, 처음에 배우고 사용했던 조상 대대로의 언어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언어의 전환이 일어난다. 세대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언어 학습이 확산됨에 따라 제1 언어는 점차 소수 언어로 전락한다고 할 수 있다(Dorian 1994, 135).

언어 소멸에 대한 위협을 언어의 죽음에 비유해 분류해 보면, 언어의 즉각적 소멸은 갑작스런 죽음, 급진적 소멸은 급진적(radical) 죽음, 불안정한 이중 언어 사용 상황에서 소수 언어가 역으로 다수 언어가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소멸은 상하반전의(bottom-to-top) 죽음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McMahon 1994, 234)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 문헌어까지 포함하여 — 언어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 언어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책임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것은 관련 기관에

대한 연간 예산 지원, 국가 교육 체계에서 언어 사용 보호, 언어학적 규제 강화의 방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언어 개발 함양 기구(ALDC: Agency for Language Development and Cultivation)를 설립해 거의 모든 지방에 지사를 두고 있다. 비록 학습·교육 과정의 초기 단계에 제한되지만, 국가 교육 체계에서 정부는 교실 내 상호 작용의 매개로서 지방어의 사용을 허용한다. 또한 규제 강화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 법령 24를 발표하였다. 이는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언어와 문헌의 다양성을 이용하고 개발하며, 함양 및 보존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2. 언어학적 사실: 숫자와 생명력

지리적으로 인도네시아는 13,466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다도해 국가인데, 육지 면적은 약 191만 km², 해상 면적은 약 62억 7,900만 km²로 최소 10개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Ethnologue(2012)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는 1,128개 이상의 부족이 거주하고 있고, 약 726종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그 많은 언어들 가운데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 인도네시아 공용어)는 만다린어, 영어, 힌디어, 에스파냐어, 러시아어, 벵골어, 아랍어, 포르투갈어에 이어 세계적으로 사용 인구가 많은 언어이다. 심지어 인도네시아어는 프랑스어보다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1990년대 이래 ALDC는 인도네시아 전체 영토의 75%가량을 포괄하는 언어 지도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남은 지역은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인 말루쿠와 파푸아이다. Wurm(1981)이나 Ethnologue(2000)와 같은 여타의 언어 지도와 달리, 인도네시아의 프로젝트는 단순히 다른 연구가들의 조사에 근거해 지도를 제작하지 않고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을 취한다. 각 조사 지역에서 수집하는 자료에는 스와데시(Swadesh) 어휘 목록과 문화 어휘, 수백 개의 구문 및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구전 민간 문화 말뭉치뿐만 아니라 질문지의 모든 문항도 음성 형식으로 녹음, 저장되어 있다.

2008년 전체 조사 대상 지역이 확정되고 지도로 만들어진 언어는 인도네시아어를 제외하고 최소 442종에 달했다. 언어 분포 지도는 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PETA BAHASA DI 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

PUSAT BAHASA
DEPARTEMEN PENDIDIKAN NAS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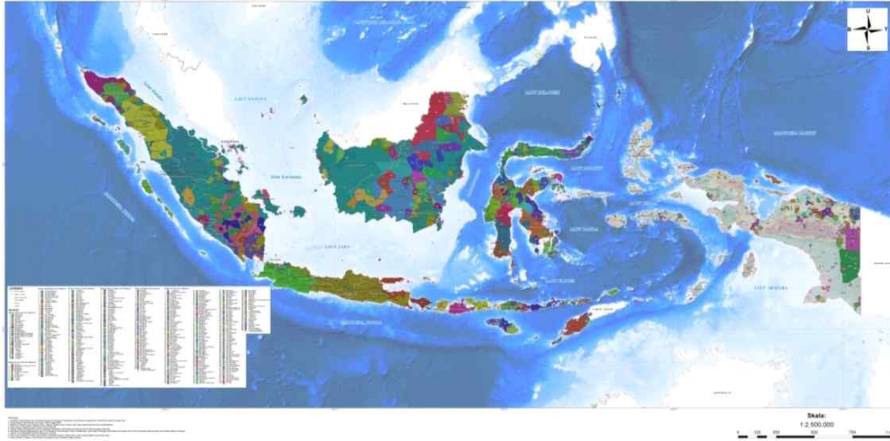


도표 1. 인도네시아 언어 지도

이 연구를 통해 나머지 지역인 말루쿠와 파푸아에 대해서도 언어 분포 지도가 작성될 것이다. 2011년까지 이미 프로젝트의 85% 정도가 진행되었고, 133종의 또 다른 언어가 확인되면서 현재 총 언어 수는 575종으로 집계되었다. 언어 분포 지도는 이후 2013년에 갱신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의 언어 지도는 늦어도 2015년에 완료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 지도 제작 프로젝트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 각 언어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조어를 재구하기 위한 역사·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각기 다양하다. 그 중 3종의 언어를 수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바어는 8,430만 명, 순다어는 3,400만 명, 마두라어는 1,360만 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놀로그(Ethnologue)의 현재 목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각 언어 사용 인구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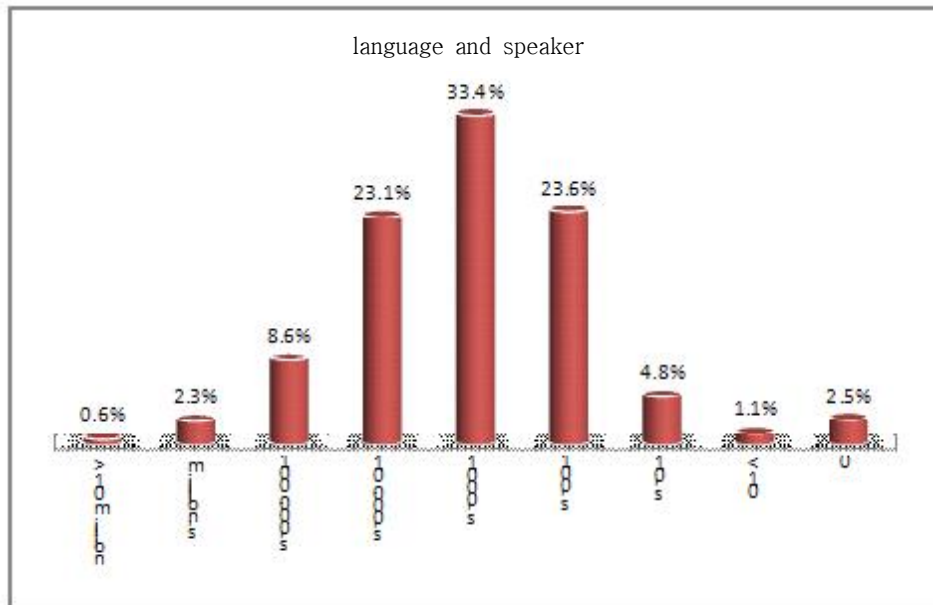


도표 2. 언어 사용자 수에 따른 언어 비중

유네스코의 ‘소멸 위기에 처한 세계 언어 분포 지도’에 따르면, 640종 이상의 인도네시아 토착어(지방 언어) 가운데, 말레이-폴리네시아어가 400종 이상이고, 파푸아어가 240종 인 것으로 나타났다(2001, 135). 이 중 약 154종의 언어가 되살아났고, 139종의 언어는 소멸 위기에 처했으며, 15종의 언어는 이미 소멸하였다.

표 1. 소멸 위기에 처했거나 소멸한 언어의 수

Location	Endangered	Extinct
Java	0	0
Borneo	1	0
Moluccas	22	11
Papua and Halmahera Island	67	1
Sulawesi	36	1
Sumatra	2	1
Timor-Flores and Bima, Sumbawa	11	0
Total	139	15

소멸 위기에 처했거나 이미 소멸한 언어의 대부분은 말루쿠, 파푸아, 할마헤라 섬, 술라웨시에서 발견되었다. 지리적 경계가 언어의 생명을 지속시킨다고 한다면, 바다와 숲, 산과 같은 자연적 경계로 인해 고립된 지역의 언어는 다른 언어와 거의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한 지역에서의 언어 소멸은 상당 부분 자연 재해나 부족 간 전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의 토착어 사용자 수가 감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시화와 이민족 간 결혼의 결과이다. 이 두 가지로 인해 토착어 사용자는 공용어인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게 된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도네시아어 사용자 수는 증가하게 되고, 제1언어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일상 대화에서는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모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다.

1990년 인도네시아 인구 조사에서, 174,303,277명의 인도네시아인 가운데 14.8% 이하만이 모어로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그보다 많은 32,607,330명으로 18.7%를 기록했다. 이는 토착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이들 가운데 거의 6,832,185명이 일상 대화에서 더 이상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소멸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민족 간의 결혼과 도시 공동체 내에서의 이민족 간 접촉으로 인해 토착어 사용자 수의 감소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1언어 또는 제2언어로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수의 증가는 정치 경제적으로 인도네시아어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입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인도네시아어는 1928년에 국어(national language)로 지정되었고, 1945년 인도네시아가 독립함에 따라 국가 승인 언어(the authorized language of the country)가 되었다. 국어와 국가 승인 언어로서 인도네시아어의 전략적 지위는 완벽한 언어 정책과 언어 계획에 의해 진흥되어 인도네시아 언어의 급성장을 이끌어냈다. 언어 정책에 의해 과학과 기술 발전에 따른 어휘들이 개발되고 문법이 표준화되었으며, 국내외적으로 인도네시아어 화자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언어 다양성은 문자 체계의 다양성에도 반영되어 있다. 물론 모든 언어가 문자 체계를 지닌 것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의 문자 전통은 수 세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인도네시아의 토착어 문자 체계는 팔라바 왕조와 아랍어의 문자 체계에서 유래하였다. 400년대 이래로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팔라바 왕조에서 문자 체계가 기원했으며, 그로부터 약 1000년 후에 아랍어 문자 체계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왔다는 설이 있다. 19세기까지 최소 11개의 토착어 문자 체계가 사용되고 발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바어, 순다어, 발리어, 부기어, 카로니즈어, 만다일링어, 람퐁어, 레장어, 토바어, 크린치어가 바로 그것이다. 이 중 자바어와 발리어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반면, 나머지 대부분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문자 체계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문자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사람의 수도 줄어들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발달한 문자 체계는 브라흐미 문자에서 기원하였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최소 200종의 문자 체계가 브라흐미 문자에 의해 개발되었거나 영향을 받았다. 심지어 오늘날 인도에서 발달한 거의 모든 문자 체계는 브라흐미 문자 체계에서 파생된 것이다. 버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힌두교-불교를 통해 인도의 영향을 받으며, 인도의 문자 체계인 산스크리트어를 채택한 경우가 많았다. 산스크리트 문자 체계는 버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팔리 문자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말레이제도에서 카비 문자로 변형되었다. 카비 문자는 주로 고대 자바 문학에서 쓰였는데, 태국 리곤의 비문을 보면 자바섬 외부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 쿠타이 카르타네가라 이스트 보르네오, 케다, 버마, 태국, 웨스트 자바에 일부 남아있는 4-7세기경의 비문을 보면, 남인도의 그란타 문자가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지역으로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오래된 비문은 팔라바 왕조 시기인 5-6세기경에 구리 도자기판에 쓰여졌다.

그란타 문자는 남인도에서 브라만 드라비다 계층이 산스크리트어로 성스러운 경전을 쓰기 위해 사용했다는 설이 있다. 4세기 팔라바 왕조 시기에 사용된 문자의 형태를 보면 동남아시아에 들어온 그란타 문자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 팔라바 문자는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해졌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인도네시아의 토착어 문자 체계에서 발달해 간 문자 체계의 중심이라고 보았다.

600~800년경 누산타라에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아랍 문자가 그 지역의 문자 체계에 영향을 끼쳤는데, 그것이 말레이 언어에 맞게 수정되어 29개의 아랍 문자에 말레이 음운 체계 내의 6개 문자가 추가된 자비 문자가 형성되었다. 이 자비 문자는 당시 팔라바와 브라흐미에서 파생된 문자 체계가 이미 사용되고 있던 지역에서도 무난히 발달되었다. 예를 들어, 이미 카비에서 파생된 자바 문자를 가지고 있던 자바에서도 페곤(pegon)으로 알려진 아랍식 말레이 문자가 특정 지역에서 사용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발달한 11개의 문자 체계는 인도네시아의 문해(literacy) 전통이 이미 수 세기 전에 시작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 팔라바, 카비, 아랍어 문자로부터 채택, 수정된 새로운 문자 체계의 생성은 문자 체계에 대한 정보를 생산해내는 것이 그 당시의 문명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되었음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의 11개 지역 문자 체계는 높은 문화적 가치와 상당한 인지도를 지니고 있었다.

보다 보편적인 라틴 문자가 들어오면서 토착어 문자 체계는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토착어 문자 체계의 사용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노력을 펼쳤으나, 소

멸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처럼 원주민이 사용하는 토착어 문자 체계가 사라져감에 따라, 인도네시아인이 이룩해 온 고도로 발달된 상징적 사고방식 또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비록 토착어 문자 체계를 되살리는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채택한다면 인도네시아인의 고도로 발달된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많은 문자 체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와 세계인에게 상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언어 기관

일제 치하 기간에 인도네시아 위원회가 설립되었다(1942). 독립 이후 1947년 ITCO (Institute voor Taal en Culture Onderzoek)의 설립은 인도네시아 언어 역사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었다. ITCO는 언어와 문화에 관한 학문 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이후에 이사가 된 겔드(GJ Geld)가 이끌었다. 겔드뿐만 아니라 호이카스(C. Hooykaas), 푸르바다르민타(WJS Poerwadarminta), 테이우(A. Teeuw), 파어 판 바우던(PAE Van Wouden), 룰빈크(Roolvink) 및 몇몇 네덜란드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ITCO에서의 성과로 인해 명성을 얻었다. 그 후, 아래와 같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 1) 1948년에 2월 28일자 교육문화부령 교수문화 No. 1532/A에 의거, 족자카르타에 Balai Bahasa(언어의 전당)가 설립되었다.
- 2) 1952년 Balai Bahasa는 인도네시아 대학 어문학부 소속의 Lembaga Bahasa dan Budaya(언어문화 연구소)로 변경되었다. 이는 같은 해 8월 1일자로 시행된 교육문화부령에 의한 것이다. 연구소는 족자카르타 지부, 싱아라자 지부, 마카사르 지부를 두었다.
- 3) 1959년 Lembaga Bahasa dan Budaya는 6월 1일자 교육문화부령 No. 69626/B/B에 따라 기존 지부의 수와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Lembaga Bahasa dan Kesusastraan(언어 문학 연구소)으로 변경되었다. 이로써 연구소는 인도네시아 대학 어문학부 소속을 벗어나 교육문화부의 산하 기관이 되었다.
- 4) 1966년 대통령령 75/V/Kep/II/1966에 의거, Lembaga Bahasa dan Kesusastraan는 문화집행위원회총국 산하의 Direktorat Bahasa dan Kesusastraan(언어 문학국)으로 변경되었다.
- 5) 1969년 Direktorat Bahasa dan Kesusastraan은 5월 27일자 교육문화부령 No. 034/1969에 따라 Lembaga Bahasa Nasional(국립 언어 연구소)로 변경되었다.

- 6) 1975년 Lembaga Bahasa Nasional은 대통령령 No. 44와 45, 교육문화부령 No. 079/O/1975에 의거하여 Pusat Pembinaan dan Pengembangan Bahasa(언어 함양 개발 센터)로 변경되었다. 지부의 명칭 또한 족자카르타 언어의 전당, 텐파사르 언어의 전당, 우중판당 언어의 전당으로 변경되었다.
- 7) 1999년 9월 23일자 교육문화부령 No. 226/O/1999와 no. 227/O/1999에 따라 Pusat Pembinaan dan Pengembangan Bahasa의 14개 지부가 설립되었다. 이들 지부는 반다아체(Banda Aceh), 메단(Medan), 페칸baru(Pekanbaru), 파당(Padang), 팔렘방(Palembang), 반둥(Bandung), 세마랑(Semarang), 수라바야(Surabaya), 반자르마신(Banjarmasin), 자야푸라(Jayapura), 폰티아낙(Pontianak), 팔랑카라야(Palangkaraya), 마나도(Manado), 팔루(Palu)에 위치한다.
- 8) 2000년 Pusat Pembinaan dan Pengembangan Bahasa의 명칭이 국가교육부 사무총국 산하의 Pusat Bahasa(언어 센터)로 변경되었다.
- 9) 2008년 벵쿨루 (Bengkulu), 방카벨리통(Bangka Belitung), 리아우 제도(Kepulauan Riau), 반텐(Banten), 누사틉가라티무르(Nusa Tenggara Timur), 고론탈로(Gorontalo), 암본(Ambon), 트로나테(Ternate) 등 8개 주도에 지부가 추가 설립되었다.

법령 24/2009는 교육문화부를 인도네시아의 언어와 문학에 관한 문제를 관장하는 책임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이후, Pusat Bahasa(언어 센터)는 교육문화부 직속 언어 연구소인 Badan Pengembangan dan Pembinaan Bahasa(언어 개발 함양 기구)로 변경되고, 권한도 강화되었다. 이 연구소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언어 사용을 감독하고 함양, 발달시키면서 언어와 문학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고, BIPA(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인도네시아어)를 통해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업무에 포함된다.

수도인 자카르타에 본부를 두고 언어와 문학 관련 문제를 다루는 이 연구소는 아래의 지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30개 지부의 도움을 받고 있다.



도표 3. 지부의 분포

언어 관련 전문 기관들의 설립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계획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을 통해 국내에서의 언어 다양성 문제를 다루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 대학에 설립되고 있는 언어 센터들도 언어 연구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 평가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지방 정부가 설립한 지역 언어 센터도 전문 기관의 지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버팀목이 되고 있다.

4. 교육에서의 언어

전국적으로 국가 교육 체계에서는 인도네시아어가 교육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이지만, 토착어 또한 상호 작용의 매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950년 이래로 인도네시아에서는 교실 내 상호 작용의 매개로서의 토착어 사용이 허용되어 왔다. 법령 20/2003의 근간이 되는 1954년의 법령 4, 1989년의 법령 12, 법령 2를 포함하여, 국가 교육 체계에 관한 법령 20/2003과 법령 24/2009는 교실에서의 토착어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초급 교육 단계에서는 특정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기 위해 토착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어와 토착 언어뿐만 아니라 외국어조차도 학습자의 외국어 능력 습득을 보조하는 매개체로 사용될 수 있다.

교육 언어로서의 토착어 사용은 인도네시아가 이미 1990년대에 UNESCO EFA가 천명한 원칙들을 1950년부터 이행해 왔음을 보여 주는 실질적 증거가 된다. 토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잡을 수 없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프로그램은 통상적으로 3학년이나 4학년에 이루어지는

공용어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다. 저학년 수업에서의 매개로써 제1 언어를 활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MLE(다중 언어 이용 교육)를 시행해 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새로운 MLE 프로그램은 2000년대에 UNESCO에 의해 도입되었다.

교실 수업의 매개로써의 외국어(주로 영어) 사용은 법령 4/1950 이후 허용되었다. 그때 당시의 외국어가 지식과 특수 기술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법령 20/2003의 33조와 법령 24/2009의 29조는 학습자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매개로써 외국어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외국어 그 자체를 교육의 대상으로 하여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학습자는 외국어 교육의 결과를 드러내기 위해 최종 보고서(논문)를 외국어로 작성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외국어 숙달을 지원한다.”라는 문구는 국제 표준을 갖춘 학교인 (R)SBI에서 폭넓게 해석된다. (R)SBI에서는 4학년 때부터 영어나 다른 외국어로 특정 과목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어와 종교, 시민권, 역사 및 지역학 등의 수업에서는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에 걸맞게, 교사들은 TOEFL 점수 7.5 이상을 갖추고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영어 또는 다른 외국어 구사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R)SBI는 다문화 국가에서, 그리고 정보 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 영어와 다른 외국어의 능력 향상을 선도하는 문화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R)SBI의 학생들은 최소한 인도네시아어를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외국어에도 능통하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서 반드시 토착어나 모어를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R)SBI의 학습자와 교사의 외국어 숙달도는 여전히 추정치일 뿐이다. 학습자와 교사의 외국어 능력이 인도네시아어 능력에 미치지 못할 때, 그들은 MLE 및 EFA의 원칙과 성과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R)SBI는 학생들이 국제 학교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증대시키기보다는 학업 성취를 극대화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학교 수업의 모든 분야에서 교육과 학습 활동은 외국어 학습과 같은 특정 목적을 제외하고는 인도네시아어를 교수 언어로 하여 이루어진다. 교수·학습 과정에서 모든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때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함에 있어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작문 연습을 할 때 인도네시아어의 구어와 문어를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더불어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해당 과목의 성취도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문법적 오류도 점검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학생들의 언어의 활용 능력 또한 평가 항목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 특히 언어 과목 이외의 교사들도 글을 쓸 때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의 사용이 훌륭하고 올바른 학생의 보고서에는 사고와 이성의 규칙적인 흐

름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도네시아어 사용에 관심을 갖는다면, 학생들도 인도네시아어의 사용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교실 안팎에서의 인도네시아어 사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로써 학생들은 상황이나 목적, 장소, 매체, 대담, 독자 등에 따라 언어의 사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5. 보존과 진흥

법령 24/2009는 인도네시아에서 언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세 가지 활동, 즉 언어를 개발하고, 강화하며, 보호하는 활동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개발이란 첫째, 어휘를 강화하고 언어 체계를 안정화, 표준화함으로써 언어 자료를 현대화하는 것과 둘째, 언어의 어휘사용역을 발달시키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 언어로서 인도네시아어의 언어적 지위를 향상하는 노력 또한 포함한다. 언어의 함양 또는 강화는 언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유형과 모든 단계의 교육, 훈련, 개선 활동 및 언어 정책을 사회화하는 활동에서 언어를 익힘으로써 사용하는 언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뜻한다. 언어 교육과 더불어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언어 공동체에 대한 규범적이고 모범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고취하고자 한다. 언어 보호(protection)는 문서화, 연구, 개발, 지도 및 교육과 필요 시 저작권 보호의 방법 등을 통해 언어를 유지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여기서 말한 발달과 함양, 보존의 대상은 토착어와 국어, 외국어를 포함한 언어와 문화이다. 이를 행함에 있어, 중앙 정부의 주요 책무가 인도네시아어와 외국어를 개발, 강화시키고 보호하는 데 있다면, 지방 정부의 주요 책무는 우선적으로 토착어에 있다고 하겠다. 각자의 우선적 임무에 더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언어의 개발, 함양 및 보존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 서로에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개발, 강화, 보호 임무는 법령 24/2009 제41조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에 부여되었다. 정부는 세계화의 필수 전제 조건에 걸맞게 사회·국가적 삶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의 언어와 문화를 발달, 함양,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이 세 가지의 임무는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되어야 하고, 언어 기관은 또한 그것의 이행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언어의 개발, 강화와 보호는 또한 법령 24/2009 제42조에 의거해 볼 때, 지방 정부의 의무이기도 하다. 지방 정부는 언어가 시대에 걸맞은 사회적 삶의 위상과 기능을 충족시키고, 인도네시아 문화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언어와 문화를 개발, 함양, 보호해야 한다. 이는 토착어의 개발, 함양, 보호책이 인도네시아 공통의 문화와 언어를 분리시키는 것

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인도네시아어에 있어서도 그랬듯이, 토착어의 개발, 함양 및 보호 역시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중앙 정부의 협조 아래 지방 정부 부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 측면에서 보자면, 중앙 정부는 언어와 문학의 개발, 육성, 보호에 관여하는 각 기관에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언어 정책을 마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언어와 문학의 개발, 강화 및 보호는 (1) 과학과 기술 및 예술의 발달, (2)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3) 국가의 문화적 다양성에 발맞추어 이행되었다.

언어 활성화의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언어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개발되고 육성되어야 할 언어가 있는가 하면, 단지 육성만을 필요로 하는 언어도 있고, 보호만을 요하는 언어들도 많이 있다. 언어를 보호하는 방법은 재활성화에서 문서화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발달과 훈련은 젊은 세대에서부터 구세대에 이르기까지 언어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는 언어는 말뭉치가 개발되고 그것이 잘 사용되기만 한다면 생명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언어를 개발시키고 교육하는 활동 안에는 보호를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생명력이 낮은 언어에 대해서는, 그것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일부 젊은 세대들에 의해 사용되거나 또는 가족, 종교, 문화 활동의 영역에 국한되어 모든 젊은 세대들에 의해 사용될 때, 재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보호 활동이 진행되었다. 위기에 처한 언어들은 이러한 보호 활동으로 인해 다시금 폭넓은 영역에서 사용되면서 새로 생명력을 얻게 되었다. 반대로 젊은 세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언어에 대해서는 문서화 단계까지 보호 작업이 진행된다.

법령 24/2009에서는 인도네시아어가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여 국민들과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이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위급 정치인 가운데, 대통령과 부통령 및 여타의 정부 관계자들은 국내외의 공식 회담에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이로써 세계 전역에서 국가의 공식적인 영역에서는 인도네시아어가 사용되게 되었다. 2011년 아시아 태평양 의회 포럼에서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한 것은 좋은 소식이라 할 만하다. 몇 해 전, 포럼에서의 인도네시아어 사용에 대한 의회와 히다얏 누르 와히트(Hidayat Nur Wahid) 의장의 승인이 떨어졌고, 이에 포럼 참석자들은 인도네시아어로 자랑스럽게 발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령 24/2009가 제정된 뒤에 인도네시아에서 지역 토착어 사용은 두 번째 중요한 언어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비록 외국어가 여타의 인도네시아 언어보다 경제적 영향력이 크긴 하지만, 그것은 단지 세 번째로 중요한 언어일 뿐이다. 예를 들면, 법령 24/2009의 제36/UU조에 따라, 과학 서적을 출판할 때는 인도네시아어의 사용이 필수적인 반면, 특정

한 목적의 학문적 저술이나 출판물 또는 특수 분야의 연구에 관한 학술적 저술과 출판물에서는 토착어나 외국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 또, 법령 24/2009의 제37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인도네시아어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토착어와 외국어 번역을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언어 사용에 관한 모든 법령은 인도네시아어의 사용을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보조할 언어로는 외국어보다 토착어를 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 즉, 토착어의 사용이 외국어의 사용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6. 결 론

인도네시아의 학교 교육에서는 교실 내 상호 작용의 매개어로 토착어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국가 교육 체계의 주요 교수 언어인 인도네시아어의 기능을 보조하는 차원이다. 이러한 정책은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 5년 만에 국가 법령으로 규정되었다. EFA 프로그램에서와 같이 모어인 토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가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상호 작용 매체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강력한 정책을 뒷받침함으로써 토착어의 개발, 함양, 보호에 힘써 왔다. 언어 정치의 측면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국가 규제와 관계 부처의 법령, 지역 조례 등의 형태로 토착어 관리에 관한 적절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 왔다.

사실상 인도네시아에서는 국가 내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토착어의 발달, 강화 및 보호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토착어의 사용을 보호하고 있다. 문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지역 언어를 어떻게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발달시키며 강화하고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ALDC는 언어 다양성을 보호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모든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언어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은 모든 언어학자들과 문화학자들에게 여전히 커다란 도전이다.

참고 문헌

- Casson, Ronald W. 1981. *Language, Culture, and Cognit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 Halim, Amran (ed.). 1976. *Politik Bahasa Nasional = National Language Policy*. Jakarta: Pusat Pembinaan dan Pengembangan Bahasa.
- Koentjaraningrat. 1984. *Kebudayaan, Mentalitas, dan Pembangunan = Culture, Mentality, and Development*. Jakarta: Gramedia.
- McMahon, April M.S. 1994. *Understanding Language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ttle, Daniel dan Suzanne Romaine. 2000. *Vanishing Voices: The Extinction of the World Languag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achman, Arief. 2005. "The Role of Education in the Protection and Saving the Endangered Languages". Paper of *International Symposium the Dispersal of Austronesian and the Ethnogenesis of the Peoples in Indonesia*. Solo, 28 June-1 July 2005.
- Sedyawati, Edi. 1995. "Keanekaragaman Budaya Indonesia: Kini dan Esok = Cultural Diversity of Indonesia: Today and Tomorrow". Paper of seminar *Fenomena Kebinekaan Bangsa Indonesia Masa Kini dan Kemungkinan-Kemungkinannya di Masa Datang* (Bogor, 16-18 January 1995).
- Sugiyono, Evarinayanti, dan Didi Suherdi. 2010. "On Bridging Student's Learning in First Grades Using Mother Tongue : The Case on Sundanese Classrooms". Paper presented on *A Regional Meeting on the Dissemination of Project Results and Identification of Good Models* (Arnoma Hotel, Bangkok, Thailand, 24-26 February 2009).
- Wurm, Stephen A. (ed.). 2001. *Atlas of the World's Language in Danger of Disappearing*. Paris: UNESCO Publishing.

Safeguarding Language Diversity in Indonesia

Sugiyono

(The Agency for Language Development and Cultivation)

1. Introduction

Extinction of the language as a cultural heritage is an undeniably must be faced. In globalization world, the problem is how to slow down the extinction of the language. There are informed about 100 languages from around 6,500's will be disappeared every year. Approximately 100 languages are spoken in California and more than 200 Aboriginal languages in Australia have been extinct. Nettle and Romaine (2000) estimated that about half of the world's languages will disappear in the next century. Simon Robinson, Executive Director of the First People's Cultural Foundation (2005), in fact, estimates that about 90% of the world's languages will be extinct by the end of this 21st century.

Language considered threatened if the language does not develop and the speakers tend to shrink away and disappear. A language becomes extinct because of the bilingualism, i.e. when another language – mostly second language – is adopted and used for various purposes which usually the first language domain. In a bilingual situation, language shift is the neglect of the ancestral language – which is known and spoken first – for a new language (*non-ancestral*). Mastering a new language expands across the boundaries of generations and dialectal boundaries so may be said that the old language becomes a minority (see Dorian, 1994:135).

Which can be categorized as a threat to the extinction of a language is *language death*, either immediately extinction (*sudden death*), the radical extinction (*radical death*), and the extinction of the *bottom-to-top death*. This language extinction will occur in the unstable bilingualism as a regressive switch of the minority language to the majority

language (McMahon, 1994:234).

Indonesian government take a full responsibility on maintain and safeguarding language – include literature – diversity in Indonesia. To manage diversity of languages, the government basically accomplishes the responsibility in at least three ways, i.e. providing the institution which is imply providing annual budgets as well, covering the use of language in national education system, and strengthening linguistics regulation. The Indonesi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Agency for Language Development and Cultivation (ALDC) which has branches in almost every province. In national education system, the government allows the use of local languages as medium of interaction in the classroom, although limited in the early stage of learning-teaching process. In the strengthening of regulation, the Indonesian government has also published Act 24 of 2009 which, in principle, governing how to use, how to develop, how to cultivate, and how preserve the language and literature diversity in Indonesia.

2. Linguistic Fact: Number and Vitality

Geographically, Indonesia is an archipelago country consisting of 13,466 islands, with a land area of about 1.91 million km², with the sea area of approximately 6,279 million km² and is bordered by at least 10 other countries.¹⁾ Indonesia was inhabited by more than 1,128 tribes²⁾ which is according Ethnologue (2012) about 726 languages spoken in the country.³⁾ Another fact is that one of the many languages in Indonesia – it was Bahasa Indonesia – became one of the world's most widely used language following Mandarin, English, Hindi, Spanish, Russian, Bengali, Arabic, and Portugues e.⁴⁾ Even the Indonesian language is also more widely spoken than French.

Since 1990's, ALDC is running the mapping project covered approximately 75% of all Indonesian territory. The rest object spread at eastern part of Indonesia, *i.e.* Maluku and Papua. Different than another language maps – Wurm (1981) and Ethnologue (2000)

1) <http://www.bakosurtanal.go.id/bakosurtanal/rapat-koordinasi-penyusunan-rencana-aksi-nasional-informasi-geospasial/> (May 24, 2012)

2) <http://www.jpnn.com/index.php?mib=berita.detail&id=57455> (May 24, 2012)

3) http://www.ethnologue.com/show_country.asp?name=id (May 24, 2012)

4) http://nagapasha.blogspot.com/2011/12/10_bahasa_yang_paling_banyak_digunakan.html (May 24, 2012)

- Indonesian mapping project collect data directly, rather than simply mapping based on the study of other researchers. Instrument to take data in each observation area covers Swadesh word list, culture vocabulary, plus hundreds of phrases and sentences. Data were also saved in audio format of all questions in questionnaire as well as recording a corpus of oral folklore.

On 2008, from whole research areas have been identified and mapped not less than 442 languages, not include Indonesian. The map the distribution of languages can be seen in Figure 1.



Figure 1. Map of Languages in the Republic of Indonesia

The research will be conducted to map the distribution of languages in the rest region of Maluku and Papua. Until 2011, the project already mapped of approximately 85% and has identified another 133 languages so the total of 575 languages identified. Visual map of the distribution of languages will be updated later in 2013.

Predictable mapping languages in Indonesia will be completed no later in 2015. Followed the mapping project is historical-comparative study to see the kinship of each language in Indonesia and to reconstruct proto languages.

Languages of Indonesia have a various range of speaker number. There are found three languages spoken of tens of millions of people. It is Javanese language which is spoken by 84.3 million people, Sundanese spoken by 34 million people, and Madurese

which is spoken by 13.6 million people. Based on Ethnologue current inventory, the number of speakers of languages in Indonesia can be described as fol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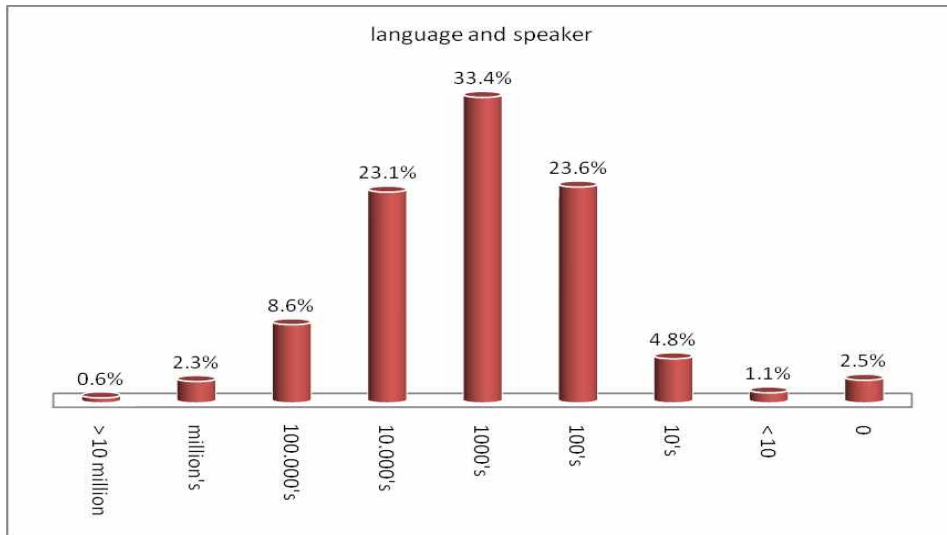


Figure 2. Number of languages by speaker number

According to UNESCO as stated in the *Atlas of the World's Language in Danger of Disappearing*, Indonesia has more than 640 vernacular (*local language*) is more than 400 Malayo-Polynesian languages and 240 languages are languages of Papua (2001:40). Of this amount, there were approximately 154 languages to be revitalized, covered 139 endangered languages and 15 languages extinct.

Table 1: Number of endangered and disappeared languages

Location	Endangered	Extinct
Java	0	0
Borneo	1	0
Moluccas	22	11
Papua and Halmahera Island	67	1
Sulawesi	36	1
Sumatra	2	1
Timor-Flores and Bima, Sumbawa	11	0
Total	139	15

Mostly endangered and extinct languages found in Maluku, Papua, the islands of Halmahera, and Sulawesi. If the geographic boundaries maintain the vitality of language, languages in that area must be secure because of least contact with other languages for those areas separated by natural boundaries such as oceans, forests, and mountains. It was predicted that the amount of language extinction rates in the region most likely due to natural disasters or wars between tribes.

Decrease in the number of local languages speakers in Indonesia is generally a result of urbanization and inter-ethnic marriage. Both are the reason why the speakers of the local language to move to use national language, the Indonesian. As a result, the number of Indonesian speaker growth by time, even those who speak Indonesian as first language as well. But, the number of people who speak the mother language, however, larger than those who use the language in daily conversation.

In 1990 census of the population of Indonesia, we found the fact that there are no less than 14.8% of 174,303,277 Indonesian peoples speak Indonesian as mother tongue. But, it is also the fact that the number of people who use the Indonesian in daily communication more than that, *i.e.* 18.7% or 32,607,330 peoples. It was mean that almost about 6,832,185 people who speak local language as mother tongue no longer use the language in everyday conversation. Increasing mortality rate, the decline in the number of speakers of local languages will also be accelerated by the interethnic marriage and also inter-ethnic contacts in urban communities.

Increasing the number people who speak the Indonesian language as mother tongue or who speak Indonesian as a second language are inseparable from the strategic position of Indonesian language for the nation, both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Indonesian language was defined as the Indonesian national language in 1928, was declared as the authorized language of the country in 1945 along with the independenc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The strategic position of Indonesian caused also rapid growth of Indonesian language since as national and official language, Indonesian language was developed by perfect language planning and policy so keep up the vocabulary in line with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grammar standardized, as well as the growing number of speakers, both domestically and abroad.

The diversity of languages in Indonesia is also reflected in the diversity of orthographic system, although not all languages have the system. Writing tradition in Indonesia has begun since many centuries ago. Local writing systems in Indonesia derived from

Pallava and Arabic writing systems. It is rumored that writing systems were originated from Pallava that have existed in Indonesia since 400s and then approximately one thousand years later Arabic writing system came to Indonesia. Until the 19th century, at least eleven local writing systems were known to be used and to develop in Indonesia. The eleven writing systems are those of Javanese, Sundanese, Balinese, Bugis, Karonese, Mandailing, Lampungnese, Rejang, Toba, and Kerinci. Some of them, that are Javanese and Balinese ones, are still used well, but most of those are no longer used. Consequently, not only has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writing in the systems decreased, but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reading or understanding the written texts has also become smaller.

Historically, alphabets of writing systems that developed in South Asian and South East Asian areas originated from Brahmi alphabet.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at least 200 kinds of writing systems were developed or influenced by Brahmi alphabet. And even more than that, nearly all of the writing systems that are developing in India nowadays derive from Brahmi writing system. In South East Asian countries (Burma, Thailand, Cambodia, Laos, Vietnam, Indonesia, and Phillippine), the influence of Indian that came through Hindu-Buddha religion, brought Sanskrit with some kinds of Indian writing system that was adapted by many languages in Sout East Asian. Sanskrit writing system was adapted into Pali alphabet in Burma, Thailand, Laos, and Cambodia and Kavi alphabet in Malay archipelago including Indonesia. Kavi alphabet was mainly used in ancient Javanese literature, but inscription in Ligor, Thailand shows that this alphabet was also used outside Java island.

About the fourth century to the seventh century, some remained inscriptions in Vietnam, Kutai Kartanegara East Borneo, Kedah, Burma, Thailand, and West Java showed the spread of Grantha alphabet of South India to various places in South East Asian. The oldest inscription was written on copper porcelain plate of Pallava kings that was presumably made in the fifth and the sixth century.

It is rumored that this alphabet was used by Brahman Dravidian class to write holly books in Sanskrit in South India. The influence of Grantha alphabet that came to South East Asian is the type of alphabet used during Pallava kings period in the fourth century. Therefore, the term Pallava alphabet became popular in South East Asian, particularly in Indonesia. The experts regarded this Pallava alphabet as the center of writing systems that developed in Indonesian local writing systems.

When Islamic civilization came to Nusantara around 600-800, Arabic alphabet influenced writing system in the area. Arabic alphabet was adapted with many adaptations from Malay language to Javi alphabet. This alphabet covered 29 Arabic alphabet with 6 additional letters in Malay phonological system. This system even developed well - in that time - in the area which is already have writing system derived from Palava or Bhrami. In Java which is already has Java script derived from Kavi, for example, this Arabic Malay alphabet used in certain domain and was known as *pegon*.

The eleven writing systems that have developed in Indonesia become the authentic evidence that literacy tradition in Indonesia has begun since many centuries ago. The creation of new writing systems adapted from Pallava, Kavi, or Arabic alphabet became the evidence that the foundry of information in writing system was regarded important in the civilization at that time. The eleven local writing systems in Indonesia formed substantial awareness with a very high cultural value.

The arrival of more universal Latin alphabet slowly fades away local writing systems. Some provinces carry out the revitalization of their local writing systems use, but most of them cry for the lost vitality of their local writing systems. As the result, slowly complexity values and the advancement of Indonesian symbolic way of thinking will fade away along with the lost local writing systems used by native speakers. Though it is not to revitalize the local writing systems, the adoption of local writing systems into Memory of the World documentation will remind us and the world that in Indonesia there have ever been many writing systems that describe complexity and advancement of Indonesian way of thinking.

3. Linguistics Institution

In the occupation of Japan has established Indonesian Commission (1942). In the period after independence, the founding ITCO (*Instituut voor Taal en Cultuur Onderzoek*) in 1947 is worth noting as an important event in the history of the Indonesian language. ITCO is an institution that was formed to accommodate the scientific activities of language and culture. These institutions was led by GJ Geld who later became director. As well as Geld, experts such as C. Hooykaas, WJS Poerwadarminta, A. Teeuw, PAE Van Wouden, Roolvink, and several other Dutch scholars are the great names of

his services in ITCO. On the next periods, noteworthy institutional events changes such as the following.

- 1) In 1948, *Balai Bahasa* (hall of Languages) was established in Yogyakarta based on a decision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Teaching and Culture No. 1532/A dated February 28, 1948.
- 2) In 1952, *Balai Bahasa* changed to *Lembaga Bahasa dan Budaya* (Language and Culture Institute) to be a part of the Faculty of Letters, University of Indonesia. This changed was based on the Decree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Culture dated August 1, 1952. The institute has three branches, namely Yogyakarta Branch, Singaraja Branch, and Makassar Branch.
- 3) In 1959, the *Lembaga Bahasa dan Budaya* transformed to be *Lembaga Bahasa dan Kesusastraan* (Institute of Language and Literature) based on the Decree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Culture No. 69626/B/S dated June 1, 1959 with the number and position of the branch remains. This institution is no longer to be a part of Faculty of Letters, University of Indonesia, but is directly under managemen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 4) In 1966, based on Presidential Decree. 75/V/Kep/II/1966, the managerial of *Lembaga Bahasa dan Kesusastraan* is transformed to be *Direktorat Bahasa dan Kesusastraan* (Directorate of Language and Literature) under the Directorate General of Culture.
- 5) In 1969, the *Direktorat Bahasa dan Kesusastraan* is converted into the *Lembaga Bahasa Nasional* (National Language Institute based on a Decree of Minister of Education and Culture No. 034/1969 dated May 27, 1969.
- 6) In 1975, the *Lembaga Bahasa Nasional* was changed to *Pusat Pembinaan dan Pengembangan Bahasa* (Center for Language Cultivation and Development) based on Presidential Decree No. 44 and 45 as well as Minister of Education and Culture No. 079/O/1975. Branches in the area later called *Balai Bahasa Yogyakarta*, *Balai Bahasa Denpasar* and *Balai Bahasa Ujungpandang*.
- 7) In 1999, fourteen branches of *Pusat Pembinaan dan Pengembangan Bahasa* was established by Decre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No. 226/O/1999 dated 23 September 1999 and no. 227/O/1999 dated 23 September 1999. The fourteenth located in Banda Aceh, Medan, Pekanbaru, Padang, Palembang, Bandung, Semarang, Surabaya, Banjarmasin, Jayapura, Pontianak, Language Palangkaraya,

Manado, and Palu.

- 8) In 2000, the name of *Pusat Pembinaan dan Pengembangan Bahasa* transformed into *Pusat Bahasa* (Language Center) which is under the Secretariat General of the 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 9) In 2008, another eight branches was founded in provincial capital, namely Bengkulu, Bangka Belitung, Kepulauan Riau, Banten, Nusa Tenggara Timur, Gorontalo, Ambon, and Ternate.

Act 24/2009 determines that the linguistic and literary issues in Indonesia are handled by the agency responsible to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Culture. Therefore, since the year 2011, the *Pusat Bahasa* modified and strengthened its authority to *Badan Pengembangan dan Pembinaan Bahasa* (Agency for Language Development and Cultivation), which is a language institute that is one level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The main task was to oversee the use of language, develop, cultivate, and protect the language and literature in Indonesia. Included in the scope of that task is the facilitation for the people of Indonesia to master in foreign languages and the mastery of the Indonesian language for foreigners through BIPA (Indonesian for Foreign Speakers).

The agency language is in the state capital (Jakarta). In addressing the issue of language and literary, the Agency is assisted by all 30 branches which are spread all over Indonesia as shown in the following map.



Figure 3. Distribution of Branches

The presence of specialized agencies that deal with the problem of language in Indonesia is proof of the atten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n handling the issue of language diversity in Indonesia by an integrated and well planned. It is undeniable that at this period of emerging language centers in various universities, both oriented to the assessment of language proficiency as well as research. Similarly, the emergence of regional language centers by local government which is also supports the implementation of the agency branches task in the region.

4. Language in Education

Although nationally, the Indonesian language is the primary language of instruction in national education system, use of local languages as media of interaction are also reserved. Since 1950, education in Indonesia does not proscribe the use of local languages as the medium of interaction in the classroom. Both the Act 20/2003 on National Education System - including the 1950 jo Act 4 of 1954 Act 12 and Act 2 of 1989 which will be based of Act 20/2003 - and the Act 24/2009 open the opportunity the using of local languages in the class room. Local language may be used in the early stages of education to transmit certain knowledge and skills. In addition to Indonesian and local languages, even a foreign language can also be used as the medium to support the acquisition of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of learners.

The use of local languages as the language of instruction in the classroom is the real proof that Indonesia has since 1950 been implementing the principles articulated by the UNESCO EFA in 1990s. Using local languages is an effort to reach out to students who have not been able to follow lessons presented in the Indonesian. In other hand, it was also a proof that Indonesia has also implemented MLE (*multilingual education*) program which is an educational program utilizing first language as the medium of the initial rated for then one day - usually in class III or IV - switching to a national language. The new MLE program itself was introduced by UNESCO in the 2000s.

The use of foreign languages—mostly English—as medium of class instruction allowed even since the Act 4/1950. If at that time, foreign language was used to convey knowledge and specific skills, Act 20/2003 Article 33 and Act 24/2009 Article 29 allows the using foreign languages as the medium to support the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of

learners. Therefore, a foreign language may be used in the present subjects of foreign language itself. Even as evidence to show the result of foreign language teaching, learners are allowed to write final papers (thesis, theses, and dissertations) in a foreign language as well.

The phrase “to support the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of students” then is interpreted broadly in the (R)SBI – school with international standard. (R)SBI can deliver the course in English or other foreign languages for certain subjects from the fourth grade. However, Indonesian language, religious, citizenship, history, and local content have to use the Indonesian language. Therefore, as the demands of learning a foreign language, educators must have the ability to teach in English are indicated by a TOEFL score of ≥ 7.5 or equivalent, and in fact, the principal must able to speak English or other foreign languages as well. In that way, the (R)SBI is expected to build a culture that leads to an increase of capacity in English and/or other foreign languages, as well as in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as well as cross-cultural nation.

Students in the (R)SBI may indeed not require the local language or mother tongue in the learning process because they are guaranteed to be able to speak Indonesian at least, even proficient in foreign languages. Unfortunately, in many cases,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of learners and educators in the (R)SBI is still an assumption. MLE and EFA principles and the achievement would be violated if the foreign language skills of learners and educators are not better than their proficiency to speak Indonesian. Rather than rising capability students who have high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ational school graduates, (R)SBI the achievement which should be optimized with using the most understood language by students and teachers.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y in all fields of study classes are conducted by using Indonesian language as language of instruction, except for certain purposes such a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purposes. In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that all teachers should provide exemplary to students in the use of Indonesian language, both in guiding student learning in the classroom and in examining their students’ learning outcomes. In addition, all teachers in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should focus on using Indonesian, both in the use of spoken and written language in writing tasks. The teachers are requested also to inspect the grammar correctness, in addition to examining the substance achievement. In other word, provision of assessment must take into account also the usage of the language. The teachers, especially no-language teachers, should give punishment

to the students who do not use language in his writing correctly. As mentioned above, the use of language is good and right in the student papers will show the regularity of flow of thought or reasoning. Concern for the use of Indonesian by students will encourage students to be more careful in the use of Indonesian language. The creation of such a study would provide experience to students that the use of Indonesian in the classroom situation is different with the use of Indonesian in situations outside the classroom. That will bring the students generalized use of language was not everywhere, but depending on the situation, purpose, place, media, talk, or readers, and so forth.

5. Conservation and Revitalization

The Act 24/2009 mandated the three activities in the handling of language issues in Indonesia, it is the development, enhancement, and protection. The term *development* refer to an effort to modernize the corpus of the language through vocabulary enrichment, stabilization and standardization of the language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language registers. However, in Act 24/2009 tasks the development of language covered also effort to increase linguistics status of the Indonesian language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Cultivation or enhancement of language is an effort to improve the quality of language use through language learning in all types and levels of education, training, upgrading, and the socialization of the language policy among the speaker and user. With language coaching, we are trying to boost discipline, exemplary, and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language community in Indonesia. Protection language is an effort to maintain, conserve, and preserve the language through documentation, research, development, coaching, and teaching, even to the protection of the copyright when needed.

Objects that are addressed in the development, cultivation, and conservation is a language (including literature), both the local language, national language, and foreign languages. In implementation, the development, enhancement, and protection of Indonesian, and foreign languages to be a major task of the central government, whereas, the development, enhancement, and protection of local languages into the primary task of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to the primary duties of each,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also obliged to give each other support in the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tasks, cultivation, and conservation of language.

Development, enhancement, and protection assigned to the Indonesian government (Article 41, Act 24/2009). The Government has an obligation to develop, cultivate, and protect the Indonesi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order to continue to meet the position and function in the life of society, nation and state, in time line with globalization prerequisite. Development, enhancement, and protection should be planned gradually, systematically, and sustained by the language institute.

Development, enhancement, and conservation will be the duty of local government (Article 42, Act 24/2009). In that case, local governments must develop, cultivate, and protect the language and literature in order to continue to meet its status and function in social life in accordance with the times and to remain part of Indonesia's culture. It means that development, cultivation, and protection of local language not allowed to separate or tend to detach the language from the common culture of Indonesia. As well as the efforts of the Indonesian language, development, cultivation, and protection should be run gradually, systematically, and sustained by local government agencies under the coordination of central government.

In terms of policy, the central government is given authority to set national linguistics policy in which will be used as guidelines for each institution in how to develop, nurture, and protect the language and literature. In principle, the development, enhancement, and protection of language and literatur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1) the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art, (2)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nd (3) the nation's cultural diversity.

Since conditions in different vitality, the treatment of one language to another and may also vary. There are languages that can still be developed and fostered its use, there are languages that only need to be fostered, there are also a lot of languages which can be protected only. Under the circumstances, the language protections also vary, ranging from revitalization to documentation. Development and training is still conducted on the language used by speakers of the youngest generation to the older generation in almost all domain of language use. The language is still high vitality will remain alive if the corpus developed and its use fostered as well. For those languages, development and coaching include protection efforts.

To the language with low vitality, the protection conducted to the point revitalization if the language is still used by speakers of some of the younger generation in the language in almost all domains, or by all young people in the domain of family and

religion and cultural activities only. By this stage of protections, the endangered language is intended to regain its vitality because of its use back into a wider sphere. In contrast, for languages that are not used anymore by almost all speakers – include the youngest generation – the protection performed until the documentation stage.

It was also mandated by the Act 24/2009 the use of Indonesian in various domains to obtain economic value so the Indonesian people's or everyone who doing business in Indonesia will give positive attitude. In high-level politics,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and other state officials are required to speak the Indonesian language in official meetings both within and outside the country. In that way, it is expected Indonesian then also have a place in a variety of official state domains worldwide. It is also a fact that provides good news that the Indonesian delegation in parliamentary forum in Asia Pacific in 2011, has used in the forum's nations. Previous years, the use of Indonesian in the forum it has been approved by parliament and Hidayat Nur Wahid – one of Indonesian senior politician – proudly share a speech in Indonesian to all participant in the forum.

Behind mandate the use of the language set out in Act 24/2009, the use of local language is positioned as an important second language in this country. Although the impact of economic greater than other Indonesian languages, foreign languages only positioned in third place. In writing and scientific publications, for example, the Indonesian language is mandatory to use, but for the writing and publication of a special-purpose scientific or scholarly writing and publication of a special field of study may use the local language or foreign language (Article 36/UU 24/2009). The information about goods and services are distributed in Indonesia, for example, the Indonesian language must be used but can also be equipped with translation in local languages and foreign languages (Article 37, Act 24/2009). In all settings the use of language in the Act, the Indonesian language is the one which shall be used, the local language as the main supporter before a foreign language. That is, the use of regional languages must take precedence over the use of foreign languages.

6. Conclusion

In education, the use of local languages as the medium of interaction in the class was allowed to support the functions of the Indonesian language as main language of instruction in the national education system of Indonesia. This policy was stated in the national regulation even from five years after Indonesia's independence. The use of local languages as their mother tongue – as in the EFA program – even is seen as an effective media interaction to educate the nation. It is meat also that development, cultivation, and protection of local languages have a strong guarantee in government policy. In the politics of language, the handling of the local languages has been given a very adequate legal basis by bo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form of national regulations, ministerial regulations, and local regulations.

Thus, in fact, use of local languages has been shaded by a very strong legal protection as strong as the legal base for the development, enhancement, and protection to maintain diversity in the country. The challenge is how the government,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an realize the use, development, enhancement, and protection language of the area adequately. For all reason, to have the support, ALDC asked cooperation to all institution on conducting research and protection to the diversity. Safeguarding language diversity in Indonesia, however, is a big challenge for all linguist and culture scholar in general.

Reference

- Casson, Ronald W. 1981. *Language, Culture, and Cognit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 Halim, Amran (ed.). 1976. *Politik Bahasa Nasional = National Language Policy*. Jakarta: Pusat Pembinaan dan Pengembangan Bahasa.
- Koentjaraningrat. 1984. *Kebudayaan, Mentalitas, dan Pembangunan = Culture, Mentality, and Development*. Jakarta: Gramedia.
- McMahon, April M.S. 1994. *Understanding Language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ttle, Daniel dan Suzanne Romaine. 2000. *Vanishing Voices: The Extinction of the World Languag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achman, Arief. 2005. "The Role of Education in the Protection and Saving the Endangered Languages". Paper of *International Symposium the Dispersal of Austronesian and the Ethnogenesis of the Peoples in Indonesia*. Solo, 28 June-1 July 2005.
- Sedyawati, Edi. 1995. "Keanekaragaman Budaya Indonesia: Kini dan Esok = Cultural Diversity of Indonesia: Today and Tomorrow". Paper of seminar *Fenomena Kebinekaan Bangsa Indonesia Masa Kini dan Kemungkinan-Kemungkinannya di Masa Datang* (Bogor, 16-18 January 1995)
- Sugiyono, Evarinayanti, dan Didi Suherdi. 2010. "On Bridging Student's Learning in First Grades Using Mother Tongue : The Case on Sundanese Classrooms". Paper presented on *A Regional Meeting on the Dissemination of Project Results and Identification of Good Models* (Arnoma Hotel, Bangkok, Thailand, 24-26 February 2009)
- Wurm, Stephen A. (ed.). 2001. *Atlas of the World's Language in Danger of Disappearing*. Paris: UNESCO Publishing.

제2부 / Session 2



김세중
Kim Sejung

대한민국, 국립국어원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Republic of Korea

현 대한민국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

한국어 통사·의미론,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연구

Dr. Kim Sejung is the head of the Public Language Promotion Department at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He earned his Ph.D. degree in Linguistic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research fields are Korean syntax and semantics, the loanword orthography, and the romanization of Korean.

한국의 언어 보존 정책

- 역사와 과제 -

김 세 중
(국립국어원)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주변 국가의 강력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한국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물론 언어이다. 한국어는 중국어나 일본어와는 기원적으로 분명히 구별되는 언어지만 오래 전부터 중국어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 왔는데 어휘 차용에서 특히 그렇다. 한국어가 주변 국가들과 교류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어떻게 받아 왔으며 한국어를 어떻게 지키고 가꾸어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어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훈민정음의 창제이다. 조선 제4대 임금인 세종은 온 백성이 다 알 수 있는 문자가 없음을 걱정하여 백성이 누구든지 쉽게 배워서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까지 백성들은 문자 생활을 하지 못하였다. 한문을 배운 일부 계층만이 한문으로써 문자 생활을 하거나 한자를 이용한 이두로써 문자 생활을 하였다. 세종은 중국과 말이 달라서 중국의 문자로는 우리말을 표현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해 백성들의 손쉬운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든 것이다.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정신에는 자주와 민본이 바탕에 깔려 있다. 당시 조선은 중국의 강력한 영향 아래 있어 중국의 뜻을 거역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지배층의 사대주의는 강고했고 신하들은 세종의 새 문자 창제에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이를 무릅쓰고 세종은 문자 창제를 이뤄냈다. 그 바탕에는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세종은 1443년 훈민정음을 완성하고 3년 동안의 시험 기간을 거쳐 1446년 반포하였다. 훈민정음의 반포 후 최초로 간행한 책자는 “용비어천가”로서 세종의 선대 조상들의 업적

을 칭송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후 아들인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석보상절”을 짓게 하였으며 왕이 스스로 “월인천강지곡”을 지었다. 한편으로 한자음을 바르게 적기 위하여 “동국정운”을 펴냈다.

훈민정음은 세계 문자 역사상 매우 특이한 문자이다. 대개 문자는 다른 문자로부터 오랜 시기에 걸쳐 조금씩 변형되어 형성되어 왔지만 훈민정음은 어느 특정 시기에 갑자기 출현한 문자라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든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매우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인 훈민정음은 바로 한문을 대체하지는 않았지만 차츰 민간에 퍼지기 시작했고 한국이 문화적으로 독자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절대적인 공헌을 하였다. 훈민정음이 창제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한국인들이 어떤 언어생활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쉽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문화적으로 중국에 예속되어 독자적인 민족 문화를 꽃피우지는 못했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고 각 분야에서 우수한 두뇌의 인재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것도 쉬운 문자를 가진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훈민정음의 창제는 한국어의 보전과 진흥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15세기에는 훈민정음을 이용한 서적 간행이 폭넓게 이루어졌다. 각종 불경 언해와 유교 윤리서의 언해, “두시언해”와 같은 문학서의 언해서가 만들어졌다. 흥년에 백성들의 배고픔을 덜 수 있는 구휼의 방법을 담은 언해서의 간행도 있었다.

한글이 순탄한 길을 걸어온 것만은 아니다. 1504년 연산군 10년에 언문에 대한 강력한 탄압 조치가 내려진다. 연산군은 백성들 가운데서 언문으로 자신의 학정을 비판한 사실에 크게 분노하여 언문 자체를 쓰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는 잠시 동안의 일에 그쳤으며 언문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하였다. 연산군 스스로가 그 조치를 곧 거둬들이기도 하였다. 연산군은 2년 후 왕위에서 쫓겨났다.

16세기에 중인 출신의 학자 최세진은 한자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학습서인 “훈몽자회”를 지어냈다. 여기에도 한글이 이용되었으며 한자의 교육과 함께 한글이 더욱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한문과 언문이 병존한 시기였다. 지배 계층에서는 여전히 한문을 사용했고 민간에서는 언문이 일기, 편지, 문학 작품 등에서 퍼져나갔다. 그것은 문어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구어에서 한국어의 지위는 흔들림이 없었다. 물론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처럼 아예 중국어를 우리의 언어로 받아들이자는 극단적인 주장이 있기도 했으나 개인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았다.

19세기 후반 들어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었다. 구어와 문어 사이의 괴리가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구어에서는 한국어가 사용되지만 문어는 사대부층의 한문, 서리들

의 이두, 백성들 사이의 언문으로 나뉘어 쓰이던 복잡한 상황에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기독교의 전래와 함께 성경의 보급이 이루어졌는데 한글을 이용하여 구어에 가깝게 만들어졌다. 또한 신문의 간행이 시작되었다. “한성순보”는 1883년에 발간되었는데 처음에는 한문 신문이었으나 “한성주보”로 바뀌면서 한글이 쓰이기 시작했다. 1896년 “독립신문”은 전면적으로 한글을 써서 간행되었다.

19세기말 조선은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었다. 정부는 쇄국 정책을 오래 펴왔으나 서구 제국에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으로 근대적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근대적 학교 제도의 실시, 신문의 발행 등을 시작하게 되었다. 정책적으로 국어를 발전시키려는 조치는 1894년 갑오개혁 때부터 시작되었다.

1894년 고종은 칙령 제1호 ‘공문식’ 제14조에서 법률, 칙령은 모두 국문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을 섞어 쓴다고 하였다. 같은 사항은 이듬해에 개정된 공문식에서도 똑같이 반영되었다.

1895년 칙령 제49호로 발표된 법관 양성소 규정에서도 법관 양성소의 생도를 뽑는 입학시험 과목으로 한문 작문, 국문 작문, 조선 역사와 지리 대요를 규정함으로써 관리 임용 시험에 국문을 최초로 부과하였다. 1896년 학부 고시를 통해서는 초등 교육에 관해 규정하였는데 오륜행실부터 소학과 우리나라 역사와 지리, 국문, 산술, 그 외에 외국 역사와 지리 등을 가르치게 하였다.

국문으로 법령을 작성케 하고 교과서를 국문으로 편찬하는 등 국문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국문에 대한 정리가 절실히 요청되었다. 이에 1907년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이 아뢰고 학부대신 이재곤이 청하여 국문연구소를 설치하였는데 국문연구소는 정부에 의해 최초로 설립된 국어 연구 기관이었다. 국문연구소에서는 1907년 제1차 회의를 열고 1909년까지 23차례 회의를 열어 국문연구의정안을 학부대신에게 제출하였다. 이 의정안에는 아래아를 비롯하여 혼란이 심했던 몇 가지 글자의 사용 여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세상에 공포되지는 못했다. 그리고 조선 왕조는 일본에 합병됨으로써 막을 내리고 국권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일제는 1910년 국권을 강탈하고 보통학교의 교과서 편찬에 쓰기 위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을 1912년 공포하여 시행하였다. 이후 1921년에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대요’로 개정하여 공포하였는데 이도 역시 문제가 제기되어 1930년에 ‘언문철자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철자법은 1930년부터 교과서에 채택되었다.

1910년 국권을 빼앗기고 ‘국문’이란 말이 금지되었으며 ‘조선어’라는 말로 대체되었다. 이미 1896년부터 “독립신문” 제작에 참여하면서 국어 연구에 몰두하였던 주시경은 국어 연구에 앞장선 선구적 학자였다. 주시경은 15세기 훈민정음 창제 이후 5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언어도 적지 않게 변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표기법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스

려왔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스스로 연구에 매진하였고 후진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단순히 표기법 문제뿐 아니라 중국어에 눌러 있었던 한국어 자체의 힘을 기르기 위해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남으로써 한국어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그의 뜻은 후학들의 임무로 남겨졌다.

1908년 주시경, 김정진 등을 중심으로 국어연구학회가 조직되었는데 1911년 ‘배달말글모음’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1913년 ‘한글모’로 다시 바꾸었다가 1921년 ‘조선어연구회’로 변경되었다. 1931년에는 ‘조선어학회’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49년 이후 ‘한글학회’로 되어 오늘에 이른다.

비록 일제 강점기였지만 우리말을 지키려는 민간의 노력은 활발하였다. 1926년 훈민정음 반포 480년을 맞아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로 정해 한글을 기렸다. 다음 해에 기관지 ‘한글’이 간행되면서 ‘한글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민간 학자들의 한국어 수호를 위한 노력은 줄기차게 이어졌다. 1933년에는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어 발표하였고 이어서 1936년에는 ‘사정한 표준어 모음’을 간행하여 사전 편찬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1940년에는 외래어 표기법을 발표하였다. 한편 ‘브나로드’ 운동과 함께 문맹 퇴치를 위한 활동도 펼쳐졌다.

1919년 삼일 운동으로 일제는 문화 정책을 펴서 1920년 한국어 신문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발행되고 다수의 근대 문학 작품이 한국어로 발표되는 등 비록 식민지 상태였지만 한국어는 활발히 사용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 이후 상황이 급변하였다.

1937년 일본이 중일 전쟁을 일으킨 후 일제의 조선어 말살 정책은 본격화되었다. 국어 상용이 대표적인 정책이었는데 일상에서 조선어를 쓰지 않고 일본어를 쓰라는 것이었다. 일본어로 된 ‘황국신민의 서사’를 전국에 배포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조회와 각종 행사 때에 외도록 하였는데 그 취지는 황국의 신민으로서의 신념을 갖게 하고 내선일체와 동포 단결의 뜻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1938년에는 내선일체를 목표로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여 공표하였는데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로 구별하였던 것을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로 수정하였다. 또한 소학교에서의 조선어 과목이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3년 뒤인 1941년에는 소학교를 ‘황국신민의 학교’라는 의미로 국민학교로 바꾸었고 동시에 국민학교에서의 조선어 과목을 폐지하였다.

1940년 당국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폐간을 명하였고 두 신문은 1945년 12월에야 다시 발행되었으니 5년 동안 한국어로 된 신문이 없는 암흑 시기를 지나게 된다.

더욱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후인 1942년 10월 일제는 국어학자 33명을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하여 16명을 기소했고 두 명이 감옥에서 옥사하기까지 하였다. 이를 ‘조선어학회사건’이라 한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한국은 일제 지배의 사슬에서 벗어났지만 바로 독립 정부를 구성하지는 못하였다. 전승국인 미국이 38선 이남에서 군정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군정청은 1945년 9월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을 일반 명령으로 하달하였는데 학교에서의 교육은 한국어로 할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어학회에서는 ‘한글 첫 걸음’을 교과서로 편찬하였고 이 책이 대량 배포되어 교육에 사용되었다. 일제 말기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이 여러 해 동안 중단되었기 때문에 한글을 깨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라 이 책은 널리 사용되었다. 광복 후 어문 정책은 조선어학회가 주도했고 한글 전용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도록 했다.

일본어의 잔재를 씻어내려는 움직임도 활발하였다. 1947년 문교부에서는 국어정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상생활 어휘를 심의하게 하고 학술용어제정위원회를 두어 전문용어를 심의하게 하였다. 그 결과 862개 단어에 대한 우리말을 결정하여 1948년 ‘우리말로찾기’라는 단행본을 발간하여 일반인이 사용토록 하였다.

군정 기간 동안 문교부가 문맹 퇴치에 힘을 기울인 노력도 간과할 수 없다. 1946년 3월부터 계몽운동을 펼치고 공민학교를 설치하여 문맹 퇴치에 힘썼는데 한 통계에 따르면 광복 당시 문맹률이 77퍼센트였는데 1946년에는 42퍼센트로 줄어들었다 한다.(동아일보 1947. 8. 3. 보도)

군정이 끝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같은 해 10월 9일 법률 제6호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쓰되 일정 기간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행령 제정이 따르지 않았고 벌칙 조항도 없어서 충실히 시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1949년 동 법률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한글전용촉진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으나 활동이 지속되지 못하였다.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이 공포되었는데 여기에 한글날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1990년 정부의 공휴일 축소 조치에 따라 제외되었고 2005년 한글날이 국경일이 되었지만 공휴일에서는 빠진 채 남아 있다. 그런데 한글 단체를 중심으로 한글날을 공휴일로 해야 한다는 청원이 결실을 맺어 정부가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기로 함에 따라 내년 부터는 다시 한글날이 공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전쟁 말기인 1953년에는 한글 파동이 일어났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글 맞춤법을 쉽게 바꾸겠다고 한 것인데 2년에 걸친 논란 끝에 대통령이 간소화안을 철회함으로써 종 지부를 찍었다.

1961년의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는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개정하지 못하였고 1962년 문교부 안에 한글전용특별심의회를 발족시켜 제2의 한글도로찾기 운동을 벌였다. 또 1965년부터 국어 교과서에 국한 혼용이 실시되었다. 이후 1968년 대통령령으로 한글전용연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논란이 되

었던 교과서의 국한 혼용은 1971년부터 한글 전용으로 바뀌어 1975년까지 시행되는 등
찾은 변화가 있었다.

1970년대에 우리말을 정화하기 위한 국어순화운동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어정화운동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그해 8월 각 부처 국
장급 공무원과 학계 인사 등 22명으로 국어순화운동협의회가 구성되었고, 9월에는 민간
원으로 인사들로 국어순화추진회가 결성되었다. 또한 각 부처에서 의뢰한 용어의 심의를 위
해 같은 해 12월 국어심의회 안에 국어순화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
나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국어순화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
하였다. 동시에 추진되어 오던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같은 규정의 보완 작업도
일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정부 차원의 국어 조사 기관의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마침내
1984년 학술원 안에 국어연구소가 설치되어 국어 정책을 뒷받침하는 활동이 좀 더 체계
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6년에는 외래어 표기법이 개정되고 1988년에는 한글 맞춤
법과 표준어 규정이 50여 년 만에 개정되었다. 그리고 임의기관에 지나지 않았던 국어연
구소의 위상을 높이기로 함에 따라 국어연구소는 1990년 말 문을 닫고 1991년 1월 문화
부 소속의 정부 기관으로서 국립국어연구원이 탄생하게 되었다.

국립국어연구원은 1991년 개원 이후 가장 큰 사업으로 국어사전 편찬에 주력하여 1999
년 ‘표준국어대사전’을 간행하였다. 한편 국어 정보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1999년부터
10년 계획의 세종계획을 이끌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어 학습 수요가 세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한국어 세계화를 위해서도 진력해 왔다.

1998년 한국 사회에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터져 나와 사회적 논란을 불
러일으켰다. 작가인 정을병 씨, 복거일 씨가 영어를 공용어로 쓰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조
선일보는 아예 찬반양론을 붙여서 사회적 의제로 삼았다. 이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된 데
는 1997년 말 있었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관계있다. 이 경제적 위기로 한국은
큰 어려움에 빠졌는데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위기를 잘 극복하였으나 세계화에 대한 의
식이 커졌고 동시에 압도적인 국제어인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아예 영어를 공용
어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논쟁은 오래 가지는 못하였
다. 실제로 공용어로 지정되는 일이 벌어질 기미는 없었고 논쟁에 그쳤다. 물론 일부 기업
에서는 사내 회의에서 영어를 쓰게 하고 대학에서도 영어로 강의하게 하는 등 부분적으로
는 영어를 공식 언어로 쓰는 일이 생겨났다. 그러나 그것은 영어를 한국의 공용어로 하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큰 것이다. 영어는 여전히 외국어의 위치에 있다.

정부 수립 후 국어에 관한 법령은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과 문화예술진흥법이 전부였
다. 이들 법령을 하나의 법에 흡수하고 국어 진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포함시킨

국어기본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2000년대 들어서 시작되었다. 국어기본법은 2004년 말 국회를 통과하여 2005년 1월 공포되고 200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국어기본법에서는 국어와 한글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다. 각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에 국어 발전을 책임지는 국어책임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국민의 국어 상담에 응하는 일을 맡는 국어상담소(후에 국어문화원으로 명칭 변경)를 두도록 하였다.

2. 한국어 보존과 진흥의 과제

1) 문자 정책

한국어의 문자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를 놓고 오랜 논란이 있어 왔다. 한글이 한국어의 고유문자로 국어기본법(2005년 공포)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만 한자 또한 우리의 문자이니 교육과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논란은 있어 왔지만 한자의 사용이 줄어들고 한글로 국어 생활을 하는 것이 대세로 굳어졌으니 이제는 큰 논란 거리가 되지 못한다.

한자 사용은 그렇더라도 한자 교육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남아 있다. 한자 사용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한자 교육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기도 한다. 한자 교육이 한자어 이해와 어휘력 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다. 한국, 중국, 일본의 한자가 상당히 다르고 한자어는 더욱 다른 것이 현실인데 어떤 한자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냐, 또 거리의 안내판에 어떤 한자를 써야 할 것이냐 등이다. 중고교 학생들이 한국 한자어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라면 한국의 전통 한자를 가르쳐야 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다만 거리의 안내판은 외국인을 위한 것이므로 중국과 일본의 한자와 한자어를 써서 그들에게 편의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다.

요컨대 이제 문자 정책에 관한 한 한글 전용이나 국한 혼용이나의 지루했던 논란은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글 전용의 대세는 확고히 자리 잡았다.

2) 세계어인 영어에 대한 대응

한국어를 버리고 아예 영어를 쓰자는 영어 공용어화 논쟁은 일단 정리가 되었다. 특정 지역(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계획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영어의 위세와 유용성을 중시하여 한국어 대신 영어를 쓰려고 하는 움직임

은 계속되고 있다.

일부 대기업에서 회의 때에 영어를 쓰도록 강요하고 있는가 하면, 대학에서는 영어 강의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신입 교수를 채용할 때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다. 영어만 쓰는 유치원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 영역에 걸쳐 영어의 사용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어가 위협받을 정도는 아니어 보인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서 외국어로서의 영어의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한국어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에 원어민 영어 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국어 교육의 약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별로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언어는 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더 많은 소통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어 능력을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외국어 배우기를 원치 않는 사람에게까지 외국어 습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밀려오는 영어의 위세에 대응하여 한국어 능력의 중요성도 높아져서 몇 가지 한국어능력시험이 시행되고 있고 이를 대학의 입학시험이나 회사의 입사 시험에 참고하는 일이 늘어났지만 아직 부분적일 뿐이다. 한국어는 확고하게 한국의 공식적인 언어로 자리 잡았고 모든 문화, 사회, 경제 활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적 위세를 갖고 있는 영어의 중요성에 못지않게 기본 의사소통 도구이자 문화 창조의 도구인 한국어의 중요성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3) 국어 순화

국어 순화는 해묵은 과제이다. 고유어가 한자어에 눌려서 사라진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20세기 들어서 일본어가 밀려 들어오고 동시에 영어도 들어왔다. 일본어는 광복 이후 우리말로 되찾기 운동으로 대체로 제거되었지만 영어에서 들어온 외래어에 대해서는 훨씬 관대했다. 영어계 외래어를 쓰지 말자는 운동과 쓰고자 하는 욕구 사이에 힘겨루기가 계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영어에서 들어오는 외래어가 더욱 늘어났다. 새로운 과학 기술, 상품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영어 외래어가 가파르게 증가했고 통신 기술의 발달로 유입 속도가 더 빨라졌다.

외래어에는 분명 순기능도 있다. 상당수의 외래어가 이미 있던 고유어나 한자어로 대체하기 어렵다. 그런 외래어는 국어 어휘를 풍부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별 새로운 뜻도 없으면서 원래 쓰이던 고유어나 한자어를 몰아내는 외래어도 있다. 어떤 외래어가 순기능에 속하는 외래어고 어떤 외래어가 역기능에 속하는 외래어인지는 분간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람마다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순화가 어려운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새로운 어휘를 받아들이면서도 이미 있던 고유어나 한자어를 없애는 말에 대해서는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적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

4) 국어사전의 선진화

한 나라의 언어가 굳건히 지켜지고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전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어의 사전은 아직 만족할 수준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전 편찬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질적으로 충실한 것은 아니다.

정체불명의 낱말, 용례를 찾기 어려운 낱말이 사전에 많이 올라 있다. 그것이 과연 국어 단어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말들이 사전에 상당수 들어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거꾸로 분명히 쓰이고 있지만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낱말들도 적지 않다.

그리고 사전에 오른 말들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편이다. 그 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정보가 아직도 부족하다. 낱말이란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의 빈도에 차이가 많은데 빈도 정보도 잘 나타나 있지 않다.

한국어를 잘 부러 쓰려면 각 낱말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사전에 들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전을 더욱 충실하게 다듬어 나가는 일은 앞으로 한국어를 지켜나가는 데 필수적이다. 다행히 국립국어원에서는 2010년부터 표제어 수를 대폭 늘리고 일반인이 직접 사전 편찬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 편찬에 착수해서 내년 초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5) 불합리한 어문 규정의 극복

한국어 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일 중의 하나가 불합리한 어문 규정이다. 분명 널리 쓰이는 말이 비표준어로 되어 있고 잘 쓰이지 않는 말이 표준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 ‘님’은 한국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로서 유명한 시에도 나오고 대중가요에도 나온다. 그러나 ‘님’은 비표준어이고 ‘임’이 표준어이다. 또, 순대를 넣어 끓인 국은 한국인들이 흔히 먹는 음식인데 ‘순대국’은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이고 ‘순댓국’이 맞춤법에 맞다. 그러나 시장에서 ‘순댓국’이라는 간판은 찾아보기 어렵고 ‘순대국’이라는 간판만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문 규정 때문에 한국인들 사이에 국어는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도 이런 예를 들어 교실에서 배운 한국어와 현실의 한국어가 다름을 지적한다.

6) 남북 언어 통일의 과제가 남아 있음

1945년 남북 분단 이래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 아래에서 살아왔다. 그 결과 언어 차이가 꽤 생겨났다. 어휘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일부 문법적 차이도 생겨났다. 사잇시옷, 두음 법칙과 같은 맞춤법의 차이도 심각한 상태다.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는 이상 언어 통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통일이 언젠가 이루어지면 언어 통일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 이전이라도 지금 이상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고, 있는 차이도 양쪽이 합의하여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7) 방언의 사라짐

각 지역의 방언적 특성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교육을 통한 표준어의 보급과 방송의 영향 때문이라 여겨진다. 문화적 다양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방언적 특성이 사라지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것이라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 여건 아래서도 방언을 존중하는 정책을 펴으로써 약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다.

8) 욕설, 비속어의 확대

한국어가 영어의 위협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는다 해도 아름답고 품위 있게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늘어나는 욕설, 비속어, 차별적 언어 등 문제는 여간 심각하지 않다. 특히 청소년들의 일상화된 욕설은 한국어의 장래를 어렵게 한다. 청소년들이 받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부모를 비롯한 주변 어른들이 사용하는 욕설의 영향 등이 원인인데 해결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유행어, 은어의 증가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젊은 층에서 일어나는 표기법을 어기는 현상은 언어 파괴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것인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인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9) 한국어 수요 증가

한국어는 영어로부터 위협받고 있지만 한편으로 많은 나라에서 배우기를 선호하는 언어이기도 하다. 특히 한류 열풍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내에는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어 학습에 필요한

교재를 꾸준히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고 한국어 교원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효과적인 교과서, 사전, 참고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론적으로는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또한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최근 국어기본법을 개정하여 한국어 보급을 위해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다.

3. 맺음말

한국어의 역사는 유구하다. 장구한 세월 동안 한국인들이 사용해 왔다. 중국어로부터 오랫동안 영향을 받아왔고 20세기 들어서는 일본어와 영어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특히 20세기 전반기는 한국어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시기였다. 한국어의 명맥이 끊어질 뻔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일본어로부터의 위협을 가까스로 극복한 후 한국어는 영어 외래어의 범람을 경험하고 있고 최근에는 언어 자체를 영어로 바꾸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며 기업, 대학 등에서 부분적으로는 영어가 한국어 대신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한국어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어는 여전히 7,000만 한국인들의 공적, 사적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튼튼히 존재하고 유지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지위 상승에 따라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한국어의 위치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한국어는 위기와 희망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술한 어려움을 잘 이겨내 왔듯이 한국어를 잘 지켜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리라 기대한다.

Preservation Policies for the Korean Language

- History and Problems -

Kim Sejung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Republic of Korea)

Korea has developed its own unique culture, while admitting influences from the surrounding countries throughout its history. There is no doubt that the key factor in Korean culture is its language. Although the Korean language is clearly differentiated from Chinese and Japanese in terms of its origin, it is indisputable that foreign languages have had a strong influence, including the influx of loanwords. This paper is intended to clarify how the Korean language has been affected by surrounding countries through cultural exchange and how Korean people have preserved and cultivated their vernacular language.

1. The Korean Language until Present Day

No one can deny that the most important incident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is the invention of Hunminjeongeum, the Korean alphabet (henceforth referred to as *Hangeul*). Sejong, the four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invented characters that everyone could easily learn and use, as he was concerned about the absence of characters that all Korean people could use in their daily lives: commoners in the Joseon Dynasty could not read or write before the creation of Hangeul.

Before the invention of Hangeul, there were two ways that Korean people could leave records. One way was using Chinese characters, which was limited to privileged elites who had received a Chinese classics education. The other way was using *idu*, which also utilized Chinese characters. In this linguistic situation, King Sejong felt pity for his people, as most of them could not express their thoughts in written form. He thought the biggest problem was the inconsistency between spoken and written language, as they used the Korean language for speaking but Chinese characters when they wrote. Therefore, for the sake of easier communication, he invented characters that would fit the Korean language.

King Sejong's creation of Hangeul reflected the spirit of pursuing self-reliance and democracy. Joseon was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China at that time, and they had to follow orders from them. Although officials with toadyish minds opposed Sejong's idea to invent a vernacular writing system, King Sejong, whose heart was full of affection for his people, completed his project in 1443. He proclaimed the new writing system in 1446 after a three-year trial.

The first book published in Hangeul was *Yongbieocheonga*, which praised the achievement of the King Sejong's ancestors. After that, King Sejong let his son Suyangdaegun compile *Seokbosangjeol* and *Worincheongangjigok*. Meanwhile, King Sejong published *Donggukjeongun*, which described the correct transcription of Chinese pronunciations.

Hangeul is the most distinctive writing system in the history of the world. Whereas most characters in other languages have gradually developed over time, hangeul emerged suddenly in a particular time period. Furthermore, it is the only writing system in the world that imitates the shape of the vocal organs.

Although it was a scientific and distinctive writing system, Hangeul did not immediately replace the status of Chinese characters in the Joseon Dynasty. However, the use of Hangeul spread gradually among commoners, and it played a critical role in maintaining and advancing Korea's unique culture. Nobody can be sure, but we can imagine that without Hangeul, it would have been much harder for Koreans to maintain and develop their own unique culture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China.

These easy-to-read-and-write characters must have contributed to the enthusiasm for education and the growth of highly educated intellectuals among all sectors worldwide. Furthermore, the invention of Hangeul is believed to have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the Korean language. In the fifteenth century, book publishing using Hangeul was widely carried out. A large number of translations of Buddhist sutras, Confucian scripts, and other literary books, including *Dusieonhae*, were published. Additionally, books on how to deal with famine were published in Hangeul.

Hangeul has not always had a smooth road. Yeonsangun, the ten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prohibited the use of Hangeul in 1504, the tenth year of his inauguration, after he found out that some of his subjects had condemned his tyranny using Hangeul. However, it was a momentary incident, and he couldn't fundamentally prohibit the use of Hangeul. In the end, Yeonsangun himself withdrew his order and ended up being dethroned in two years' time.

Choe Sejin, who was a sixteenth century scholar from the middle class, published *Hunmongjahoe*, a book for learning Chinese characters that used Hangeul. This book was widely used and disseminated the use of Hangeul among the learners.

Joseon was a diglossic community that used both Chinese characters and the vernacular writing system Hangeul; the former was used by the ruling classes and the latter by commoners in the form of diaries, letters, and literature. This division was only a matter of written language; the status of the Korean language was firm and strong when it came to spoken language. Although Park Jega, a radical scholar of the Realist School of Confucianism, insisted upon adopting Chinese language as the national language, it was merely his personal opinion.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he distinction between spoken and written language started to change, and this required a change in the linguistic situation. Traditionally, the ruling class used Chinese characters when they wrote, while the functionaries used *idu*, and only vulgar people used Hangeul. All of them, however, used the vernacular language when they spoke. This complex linguistic situation couldn't last beyond the late nineteenth century.

One of the factors that brought about this change was the publication of the Bible in Hangeul, which reflected more spoken language. Another factor was the publication of newspapers. The first Korean newspaper, *Hanseongsunbo* (1883), used Classical Chinese, but its successor, the *Hanseongjubo* (1886), partly used Hangeul. Later, *Dongnipsinmun* used Hangeul exclusively.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Joseon was the arena of the struggle among world powers. Despite the fact that the Joseon Dynasty had pursued a closed-door policy for a long time, there was no other option but to open its ports to Western powers. After opening its ports, Joseon introduced modern systems such as the Western school system and newspaper publication. It was after the Gabo Reform of 1894 that language policies were initiated.

In article 14 of the 1894 edict No. 1, known as *Gongmunsik*, King Gojong declared that laws and edicts should be written in Hangeul, although adding a translated version in Classical Chinese or mixing Hangeul and Chinese characters would be allowed. This was upheld even after *Gongmunsik* was modified the following year.

Furthermore, King Gojong reformed the legal officer training center through edict No. 49, and so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the Korean language would be

added as one of the subject matters on the exam; the new entrance exam consisted of the Classical Chinese composition, Korean language composition in Hangeul, the history of Joseon, and geography. In 1896, he also restructured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which would now consist of *oryunhaengsil* (the Five Confucian Virtues), *sohak* (elementary learning), Korean history and geography, Korean language and Hangeul, and mathematics, as well as foreign history and geography.

Although the government enacted policies to promote the use of Hangeul, such as writing laws and publishing textbooks in Hangeul, refining the Korean language was urgently needed. Therefore, in 1907, the National Language Research Institute (*gungmunyeonguso*) was established per the request of Prime Minister Lee Wanyong and Minister of Education Lee Jaegon. It was the first national language research institute to be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This institute submitted *Gungmunyeonguuijeongan* to the Minister of Education over 23 meetings between 1907 and 1909; it was a document regarding research on the Korean language and included whether or not to use a few confusing characters, such as ‘ㆍ’. Unfortunately, this document couldn’t be published. And then Joseon lost its sovereignty to the Japanese Empire.

After Japan’s annexation of Joseon in 1910, the colonial government promulgated “*Eonmun* Orthography for Use in Primary Schools,” which was followed by a revision in 1921. After facing some unexpected problems with the second version, they presented the third and final version in 1930, which was adopted by textbooks.

The Korean language in colonial Joseon was called *Joseoneo*, meaning the language of Joseon, as it could no longer be called the “national language.” Ju Sigyeong, who had participated in the publication of *Dongnipsinmun* in the 1890’s, dedicated himself to the study of Joseoneo and produced pioneering research. He strived to solve the problems with Joseoneo, especially the absence of a systematic orthography. He tried to create an orthography that would reflect the historical changes of the language, since it had been around five hundred years since the invention of Hangeul in the fifteenth century. Moreover, he made an effort to foster younger students. His endeavors were not limited to orthography; they also extended to coining vernacular neologisms for the sake of strengthening the power of Joseoneo, which had long been suppressed by Classical Chinese. He died when he was still young, and thus his efforts to promote the Korean language were inherited by his successors.

In 1908, the Research Academy for the Korean Language (*gugeoyeonguhakhoe*) was

founded primarily by Ju Sigyeong and Kim Jeongjin, and this academy changed its name several times afterward: to Baedalmal Geulmoeum in 1911, Hangeulmo in 1913, Joseoneoyeonguhoe in 1921, Joseoneohakhoe in 1931, and Hangeulhakhoe in 1949.

Although Joseon was under the colonial rule of Japan, civil efforts to preserve the vernacular language were very active. For example, the 29th day of the ninth month of the lunar year was designated as Gagyae Day in 1926 to commemorate the 480th anniversary of the creation of Hangeul. It was renamed Hangeul Day after the first volume of the journal *Hangeul* was published.

Civil scholars' efforts to preserve the vernacular language were persistent and led to many important results: the promulgation of the "Proposition for the Unification of Hangeul Orthography" in 1933; the publication of "A Collection of Standard Language Vocabulary" in 1936; and the announcement of "Orthography for Loanwords" in 1940. In the meantime, a crusade against illiteracy was carried out with the V Narod Movement.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in 1919, the colonial government changed their stance to a so-called "cultural policy," which allowed for broader use of the Korean language in print media: two Korean-language newspapers, the *Dong-A Ilbo* and *Chosun Ilbo*, began publication in 1920, and many modern literary works were published in the Korean language. However, this situation began to change in the second half of the 1930s.

In 1937, Japan triggered war between China and Japan, and their policy on the annihilation of Joseon became extreme.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changes was that they forced the Korean people to use the Japanese language in their daily lives. Additionally, all Korean people had to recite the Imperial Oath and Pledge of the Imperial Subjects in Japanese at every event. These actions by the colonial government sought to make Joseon people believe they were a part of a Japanese Empire and think of Joseon and Japan as one nation.

In 1938, the Japanese empire announced the revision of the Ordinance on Joseon Education, which reorganized the school system from primary, secondary, and women's secondary schools to elementary, middle, high, and women's high schools. Additionally, at the elementary school level, Joseon was changed from a mandatory to an optional subject. Primary schools were renamed *gungminhakkyo* (school for subjects of the Japanese Empire) in 1941. Furthermore, Joseon was abolished in *gungminhakkyo*.

In 1940, the colonial government ordered *Dong-A Ilbo* and *Chosun Ilbo* to be abolished, and it was not until December 1945 that these newspapers resumed publishing. Accordingly,

the Korean people had to live an era of darkness, without any newspapers written in the Korean language.

In October 1942 when Japan triggered the Pacific War, the Japanese Empire put thirty-three Korean linguists on trial, claiming they had violated the Maintenance of the Public Order Act. They prosecuted sixteen of them; two of them died in jail. This is referred to as the Joseon Language Institute incident (*joseoneohakhoe sageon*).

When Japan was defeated in the Pacific War, Joseon regained its independence. However, the independent government could not be established right away; the United States, the victorious nation, established a military government south of the 38th parallel. This military government issued an order called “Education for the Joseon People of the New Joseon” in September 1945, which ordered that school education be carried out in the Korean language. Hence, the Joseon Language Institute (*joseoneohakhoe*) compiled the textbook *First Step with Hangeul* (*Hangeul Cheotgeoreum*), which came to be widely distributed and used for educational purposes. The great success of this textbook was attributed to the high illiteracy rate all over Joseon, which was due to the absenc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during the colonial period. After regaining independence, the language policies were mainly led by Joseoneohakhoe; they pursued the exclusive use of Hangeul but also allowed the use of Chinese characters when necessary.

The movement to remove the remains of Japanese language was also carried out briskly. In 1947, the Ministry of Education established the National Language Purification Committee, which was in charge of reviewing basic vocabulary words that were used in everyday life. Moreover, they established the Committee for Enacting Technical Terms, which was in charge of reviewing professional terms. As a result, vernacular terms for 862 words were selected and published under the title of *Rediscovering our Language* (*Urimal Doro Chatki*).

The Ministry of Education’s efforts to remove illiteracy during the military government cannot be overlooked. The Ministry established public schools for eradicating illiteracy after March 1946. Statistics show that the illiteracy rate decreased rapidly from 77% in 1945 to 42% in 1946 (*Dong-A Ilbo* August 3rd, 1947).

After military government rule came to an e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on August 15th, 1948. That same year on October 9th, they announced the sixth provision of the Law on the Exclusive Usage of Hangeul. This law indicated that official docu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written in

Hangeul, but the use of Chinese characters in combination with Hangeul was also allowed for the time being. However, this law was not fully practiced due to the lack of both enforcement ordinance and penalties for violations. The Association for Promoting the Exclusive Use of Hangeul was founded in 1949 to encourage the enforcement of the law, but its activities did not last.

At first, Hangeul Day was included on the list of the national holidays when the Guidelines for Holidays of Government and Public Offices was announced in 1949. It was later excluded from the list when government policy reduced the number of national holidays. In 2005, Hangeul Day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commemorative day, but not a national holiday. Several Hangeul organizations petitioned the government to designate Hangeul Day as a national holiday, and it was recently granted. Therefore, Hangeul Day will be back on the list of Korean national holidays.

In 1953, at the end of the Korean War, the Hangeul Simplification Dispute (*hangeulpadong*) occurred. This upheaval was caused by the President Lee Seungman, who insisted that Hangeul orthography be simplified. After two years of controversies, the dispute ended after the president himself withdrew the plan.

After the May 16th Military Coup in 1961, the National Reconstruction Supreme Council attempted to amend the Law on the Exclusive Usage of Hangeul, but failed due to opposition. In 1962, the Ministry of Education launched the Special Council for the Exclusive Use of Hangeul and began the second stage in the movement to refine Hangeul. In addition, Korean textbooks started to adopt the use of both Hangeul and Chinese characters after 1965. The Research Committee for the Exclusive Use of Hangeul was later founded in 1968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e controversial mixed script was again turned back in favor of the exclusive use of Hangeul, a change that was in effect from 1971 to 1975.

The government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National Language Purification Movement during the 1970s. President Park Jeonghui ordered the purification of the national language at a cabinet meeting in 1976; accordingly, the National Language Purification Movement Association was founded in August. This association consisted of twenty-two high ranking government officers and scholars. In September, a Committee for the National Language Purification was also launched, which consisted of senior civilians. In addition, a Subcommittee for National Language Purification was newly organized in December 1976; they reviewed the terms requested by each government department.

However, the National Language Purification Movement could not continue after the sudden death of President Park Jeonghui in 1979; all plans for revising the orthography system, language standardization, and loanword orthography were brought to a halt.

However, in the 1980's, the need for a national research center on the national language was raised, and as a result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was founded within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in 1984. Through the efforts of the Center, national language policies were able to get more systematic support. The loanword orthography was updated in 1986, and Hangeul orthography as well as provisions for language standardization were updated for the first time in over fifty years. The government decided to enhance the position of the National Language Research Center, which had been merely a temporary institute. As a result, the Center was closed at the end of the 1990s,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was established instead in January 1991. The Institute published *The Comprehensive Standard Korean Dictionary* in 1999, its biggest project since its foundation. In the meantime, the Institute led the Sejong Plan, which was a ten-year plan beginning in 1999. In the 2000s, as the demand for learning Korean began to increase in other countries, they also made an effort to globalize the Korean language.

In 1998, there were many who thought English should be made the official language of Korea, which resulted in social controversies. Two writers, Jeong Eulbyeong and Bok Geoil, asserted that English needed to become the official language of Korea. *Chosun Ilbo* made it into a social issue by gathering pros and cons. This controversy was related to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This economic crisis made Korea undergo great adversity, but the government and Korean people all joined forces to overcome the crisis. Due to the growing recognition of globalization and the sense of dread at the status of English as the international language, some suggested that Korea should adopt English as an official language. But this controversy didn't last long. In reality, it was highly unlikely that English would be made into an official language, and so it just ended as a mere controversy. It is undeniable that some companies made their employees use English during meetings and some universities made professors give lectures in English. These cases illustrate the limited situations in which English has already been used as an official language. However, English is still far from being Korea's official language; it is certain that English is still a foreign language in Korea.

There have only been two decrees on the national language in Korea since the

government was established: the Law on the Exclusive Usage of Hangeul and the Law on the Promotion of Culture and Art. However, efforts to legislate the Framework Act on the Korean Language emerged in the 2000s; it merges the two existing decrees and also includes new policies for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language. This law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late 2004, promulgated in January 2005, and enforced beginning in July 2005.

the Framework Act on the Korean Language defined of the national language and Hangeul. According to this law, each Ministry and the local government are responsible for appointing the National Language Director, who is in charge of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language. In addition, the Consulting Center for the National Language (later renamed the Cultural Center for the Korean Language) was established.

2. Tasks to Preserve and Promote the Korean Language

1) Policies on the Characters

There has been a long-standing controversy surrounding the question on the boundary of the Korean characters. Although Hangeul is clearly defined as the vernacular characters of the Korean language by the Framework Act on the Korean Language, many people continued to suggest that Chinese characters also deserve to be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Korean characters. They also have been arguing that the use and teaching of Chinese characters should be encouraged. Despite these controversies, the use of Chinese characters has continuously diminished and Hangeul has firmly settled as Korea's official writing system.

Whereas the ordinary use of Chinese characters is no longer a big issue, the teaching of Chinese characters still remains debatable. Even people who were against the use of Chinese characters partly agreed to teach Chinese characters, because they thought teaching Chinese characters would help students understand Sino-Korean words and thus would increase their vocabulary.

This raises other problems.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between the Chinese characters used in Korea, China, and Japan, and there is an even bigger gap when it

comes to the level of vocabulary between Sino-Korean, Chinese, and Japanese words. Therefore, it would be quite problematic to decide which type of Chinese characters should be on street signs. On the one hand, it would be better to teach Korean-style Chinese characters so that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can better understand Sino-Korean words. On the other hand, as far as street signs are concerned, it would be better to use Japanese- or Chinese-style Chinese characters for the convenience of foreigners. Many street signs have already adopted Japanese or Chinese characters.

In brief, these tiresome disputes on whether to use Hangeul exclusively or mixed with other script are believed to be finished. The general trend towards the exclusive use of Hangeul has been firmly established.

2) Reaction to English as a World Language

We believe that the controversy over using English as Korea's official language is over. Also, plans to use English as an official language in certain areas (e.g.,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ere not implemented. However, there are still movements to use English instead of the Korean language, which emphasize the power and usability of English.

Some big companies are forcing their employees to use English in meetings, and the number of English lectures at universities is constantly increasing. When some universities recruit new professors, their criteria often becomes whether or not the applicants are able to give a lecture in English. The number of English-only kindergartens is also increasing. Although it is true that the use of English is expanding in various sectors, it is not threatening the status of the Korean language.

However, the importance of English has been increasingly stressed in schools, while the importance of the Korean language has been reduced. Almost all schools in Korea hire native English teachers. Although there are some growing concerns about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its importance grows weaker, it is unlikely that the situation will change.

Because language is a tool for communication, the ability to speak different languages is necessary in order to have more communication opportunities. However, it is excessive to force individuals to learn a foreign language; it is not right to make people who do not want to learn foreign language learn it under compulsion.

A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Korean language ability is also growing in response to the surging power of English. For example, a few kinds of Korean language tests are conducted, and some universities and companies are actually consulting these tests scores in their selection process, although it is still partial. Given the fact that it is the official language of Korea, the importance of the Korean language shouldn't be overlooked, as it is also the basis of all cultural,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in Korea. The significance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cannot transcend the value of the Korean language as the means of everyday communication and the creation of culture.

3) Purifying the National Language

Purification of the Korean language is an old project. Historically, many vernacular words have been replaced by Sino-Korean words. Furthermore, in the twentieth century, Japanese words flooded into the Korean language, as did English words. Although the influence of the Japanese language was almost removed through the purification process, we are still using many English loanwords. It has been controversial whether to continue to use these English borrowings or to restrict their use, but the number of loanwords is ever increasing. The influx of new scientific technologies and new products encouraged the use of English words, and their spread has accelerated as a result of development in communication technologies.

On the one hand, some loanwords have their benefits, and it seems impossible to replace them with the existing vernacular words or Sino-Korean words. Those loanwords have positive aspects that help make Korean vocabulary more affluen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other loanwords that substituted existing words, even though the meaning could be sufficiently conveyed using the existing ones. We cannot deny that it is hard to clearly identify which loanword has a positive function and which has a negative function. Everyone is expected to have a different opinion on this when they are asked about it. This is what makes the purification process so difficult, and this will continue to be the case in the future. Future policies should focus on selectively including new loanwords into Korean vocabulary by suppressing the use of loanwords with a negative function.

4) Advancement of the National Language Dictionaries

It is indispensable to compile a high-quality dictionary to enhance the position of the national language and encourage people to use the language properly. Unfortunately, current Korean dictionaries are not adequate, as the history of dictionary compilation in Korea is not a very long one. Despite a history of nearly one hundred years, its quality is not good enough.

There are many entries in current dictionaries which are unidentified or not used in real life. Furthermore, it is even more problematic that there are many entries which are misidentified as Korean vocabular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many Korean words which are missing from dictionaries even though they are actively used in everyday life.

Information on headwords is also insufficient. Specifically, most dictionaries do not offer enough historical information on how the word has changed over the course of time. They also lack information on its frequency, which is crucial for understanding how a word is actually used.

Providing sufficient information in dictionaries is the number one priority in encouraging the proper use of a language. Only dictionaries contain all the essential information on every wor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reate high-quality dictionaries for the preservation of the Korean language in the future. Fortunatel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began to compile the *Open Dictionary for Korean Language* beginning in 2010, which has no limit in the number of entries. Moreover, the general public can participate in the compilation process. This dictionary will be available online beginning in early 2013.

5) Overcoming Irrational Rules in Language Policy

Irrational rules in language policy cause inconvenience. A word that is definitely widely used is referred to as a nonstandard word, while a word that is rarely used is referred to as a standard word. For instance, the word *nim* is broadly used, and its usage can be found in famous poems and popular songs. However, according to the current rules, *nim* is a nonstandard word; instead, *im* is a standard word. Additionally, the spelling of *sundaeguk* (a type of blood sausage soup) is widely used but is against

the rules of Korean orthography; *sundaetguk*, which is rarely used, conforms to the rules. In effect, most of the market signs adopted the former. This kind of discrepancy between the rules and reality makes Korean people think Korean language is difficult to use. Moreover, foreign students in Korea also pointed out the difference between what they learned in the classroom and what they actually experienced in real life.

6) Remaining Tasks for the Linguistic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North and South Korea have existed under different political systems since 1945, and this has resulted in a significant gap between their languages. It is not limited to lexicon; it also extends to the grammar and the notational system, including the interposing *siot* (the Korean letter ㅅ) and the initial sound of a word. It is currently hard to believe the language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will become unified; however, this needs to happen should reunification happen someday in the future. Considering this possibility, we should make an effort to reduce this linguistic gap through negotiations.

7) Disappearing Dialect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local dialects are rapidly disappearing. It seems to have been caused by the dissemination of the standard language through public education and by the influence of broadcasting. It is a shame that the Korean language is losing its cultural diversity, although it is an unavoidable trend in modern society. We expect that language policies focusing on the value of dialects will slow down the pace of the each dialect's distinction.

8) Common Use of Curse Words and Slang

Apart from the matter of preserving the Korean language against the threat of English, the other problem that we face is how to refine the Korean language. This is actually a serious matter, because curse words, slang and discriminatory expressions are so prevalent in the Korean language. Above all, they are mostly used by teenagers,

which make this problem even more serious. This problem seems to have been caused by stress from excessive studying, as well as the influence of the surrounding adults' linguistic habits, including those of their parents.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this issue, but permanent solutions have never been suggested.

In addition, buzzwords and jargon are seriously increasing. Also, many young people do not follow orthography rules, and this is often criticized as a destruction of the language. There has been some controversy over whether to regard this as a temporary blip or to prepare some strategies for implementation. A careful consideration is necessary.

9) Increasing Demands for the Korean Language

Learning Korean is becoming popular in many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Hallyu* (the Korean Wave) has especially motivated foreign people to take an interest in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This expanded demand for the Korean language is not just limited to people abroad; it also exists within Korea, as there are those with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who speak Korean as their second language. Under the guidance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the Korean government continuously develops teaching materials for Korean language learners and educates Korean language teachers.

It is crucial to provide useful textbooks, dictionaries, and reference materials to Korean language learners. Professional scholars majoring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have dedicated themselves to developing the field, and they have already achieved a certain degree of theoretical advancement.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lso requires policy-base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recently amended the Basic Law on the National Language, establishing the Sejong School Foundation, which would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ll over the world.

3. Conclusion

The Korean language has a rich history, as it has been used by the Korean people for a long time. It has also long been affected by foreign languages such as Chinese, Japanese, and English.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was the most dramatic era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as it underwent difficulties that seriously threatened its survival. Even after overcoming the threat of the Japanese language, it is now under the threat of English, such as the flood of English loanwords, opinions on making English the official language of Korea, and the preference of companies and universities for English.

However, these phenomena do not seem to jeopardize the status of the Korean language. The status of the Korean language is still the firm and stable means of communication for seventy million Korean people. More recently, the demand for learning Korean is rapidly increasing all over the world as Korea's economic and cultural standing have been enhanced. The popularity of the Korean language reflects its thriving state. In a nutshell, the Korean language is experiencing both crisis and prosperity at the same time. Koreans are expected to preserve and advance their language in the future just as they have done throughout history.

국립국어원 2012 국제 학술대회

제3부 Session 3

피르코 누올리에르비

Pirkko Nuolijärvi

핀란드, 핀란드 언어원

Institute for the Languages of Finland, Finland

스카코프 마하트

Skakov Maxat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문화정보부 언어위원회

Language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Kazakhstan

제3부 / Session 3



피르코 누올리에르비
Pirkko Nuolijärvi

핀란드, 핀란드 언어원
Institute for the Languages of Finland, Finland

현 핀란드 언어원장 겸 교수, 핀란드 언어 문제 위원회 부위원장
언어 변화와 변이, 언어 정책, 이민자의 언어 상황에 관한 연구
사회 언어학 및 언어 사회학 관련 저서 집필

Pirkko Nuolijärvi is a professor and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the Languages of Finland, Helsinki. In addition, she is the vic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for the language affairs in Finland. Her research focuses on variation and change in Finnish, institutional interaction as well as language variation in the public sphere. Furthermore, she has written about the immigrant language situation as well as language policy in Finland. She has published several books and numerous articles in sociolinguistics and language sociology.

핀란드의 자국어 보호와 진흥

피르코 누올리에르비
(핀란드 언어원)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첫째,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다른 언어의 영역을 점차 침범하고 있는 현재의 언어 환경에서 핀란드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핀란드 국내에서 벌어지는 스웨덴어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알아본다. 스웨덴어는 핀란드의 다수 언어인 핀란드어에 의해 압박을 받고 있는 소수 언어이다. 그리고 배경 차원에서 핀란드의 언어 법령 제정에 관한 사항들도 살펴보겠다. 언어를 보호하기 위한 언어 법령 제정은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핀란드의 현재 언어 환경도 간단히 살펴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글은 영어와 대립하고 있는 핀란드어, 핀란드어(및 영어)와 대립하고 있는 스웨덴어에 대한 지원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자국어

핀란드는 공식적으로 핀란드어와 스웨덴어 두 개의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이중 언어 국가이다. 핀란드의 헌법 및 언어법(Language Act)에 따르면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는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2011년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핀란드어 사용자는 인구의 90%인 반면에 스웨덴어 사용자는 5.4%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어째서 인구의 5%가 사용하는 언어가 90%가 사용하는 언어와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답은 핀란드의 역사와 언어적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핀란드의 정치적 역사는 다음과 같이 세 시대로 구분된다. 스칸디나비아 패권과 스웨덴과의 통합 시대(~1809), 제정 러시아 통치하에서 부분적 자치권을 보유했던 시대(1809~1917), 독립 시대(1917~)가 그것이다(McRae 1999). 더 나아가 1995년부터는 핀란드가 유럽 연합(European Union)의 회원국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다.

중세 시대에 핀란드는 분단을 겪지 않았었다. 핀란드는 점진적으로 스웨덴 영토에 흡수 되었고, 남서부 해안에 스웨덴인이 거주하게 되었으며 핀란드인은 나머지 영토로 뺀어 나 갔다. 16세기에 스웨덴이 더욱 중앙 집권화하면서 스웨덴어가 공식 석상에서 주된 언어로 사용되었으며 식자층 역시 이를 지지하게 되었다. 핀란드어는 루터파 교회(Lutheran Church)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고(Vikør 2000)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1 언어였다.

1808년부터 1809년까지 스웨덴과 러시아 간에 전쟁이 있는 후, 핀란드의 스웨덴령은 러시아에 귀속되었다. 당시의 황제는 비교적 자유를 허용하는 편이어서 핀란드인에게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주었기 때문에 언어적 상황도 기존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스웨덴어는 핀란드의 공식적인 표준어로 남아 있었으며 그 지위 역시 확고하였다. 그 후 1863년, 핀란드어도 공식적으로 스웨덴어와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꾸준히 성장을 거듭했다(Vikør 2000). 그러다 핀란드가 독립한 1917년에는 핀란드어가 표준어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2. 핀란드의 언어적 환경

전통적으로 핀란드에서 사용되어 온 언어는 핀란드어, 스웨덴어, 그리고 북방 사미, 이 나리 사미, 스콜트 사미를 포함한 세 종류의 사미어(Sámi), 루마니아어, 핀란드 및 스웨덴 수화 등이다. 이러한 언어들은 모두 핀란드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¹⁾ 특히 19세기 이후로는 러시아어와 타타르(Tatar)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에스토니아어와 독일어를 사용하는 주민들까지 생겨났다. 게다가 지난 30년 동안에는 아프리카인과 아시아인 등 이전에는 핀란드에 존재하지 않았던 언어 집단의 구성원들도 핀란드로 이주하게 되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핀란드에서는 15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어릴 때부터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이중 언어 화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말 핀란드의 인구는 540만 명이다. 핀란드 인구 중 4,863,351명(90%)이 핀란드어를, 291,219명(5.4%)이 스웨덴어를 모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1,870명(0.03%)이 사미어를 모어로 사용하고 있다. 사미족의 인구는 9,000명에 달하지만 그 중 2,000명 미만의 인구만이 사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핀란드어, 스웨덴어, 사미어 외의 언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244,827명으로 전체 인구 중 4.5%이다. 그 중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러시아어(58,331명), 에스토니아어(33,076명), 소말리아어(14,045명), 영어(13,804명), 아랍어(11,252명)로 나타났다(인구 구조 2011).

1) 핀란드의 전통적인 소수 집단에 대해서는 Myntti & Nuolijärvi 2006 참조.

현재 핀란드인의 다수(60% 이상)는 남서부의 도심 지역과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지역들은 역사적으로 핀란드의 중추 역할을 해 왔다. 스웨덴어 사용자들은 주로 남부 및 서부 해안과 올란드(Åland)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헬싱키와 그 주변 도시를 포함하는 남부 해안 지역에서는 대부분 이중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핀란드의 언어적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중요한 것은 핀란드어도 스웨덴어도 둘 다 세계적인 언어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점은 현재 핀란드의 언어 현황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현재 핀란드에서는 업무 시 자국어 외에 영어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 역시 영어와 그 밖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참고해 볼 때 핀란드와 같은 작은 국가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자국어 교육 등의 언어 교육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3. 핀란드의 언어 법령 제정과 핀란드어 및 스웨덴어 프로그램

앞서 언급하였듯이 핀란드의 언어 법령 제정은 국가 차원에서 언어를 보호하기 위한 근간이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헌법(Constitution), 언어법(Language Act), 교육 기본법(Basic Education Act)을 중심으로 자국어에 관한 핀란드의 언어 법령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http://www.finlex.fi> 참조). 또한 지방 언어 및 소수 언어를 위한 유럽 헌장(European Charter for Regional or Minority Languages)에서의 핀란드 협약뿐만 아니라 자국어에 관한 언어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협약에서도 핀란드 내 스웨덴어의 보호 문제를 다루고 있다.

1) 헌법

핀란드 헌법(PL 731/1999)은 2000년 3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는 자신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권리이다. 헌법의 6장에서는 모든 언어 사용자의 원칙적인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 누구도 용인 가능한 이유 없이 자신의 성별, 나이, 출신, 언어, 종교, 신념, 의견, 건강, 장애, 기타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헌법은 좀 더 세부적이긴 하지만 1919년의 전 헌법(94/1919)과 유사하며, 1922년의 언어법(148/1922)과도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핀란드의 이중 언어 사용은 법령 제정의 역사 안에서 전통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이중 언어 사용에 대한 내용은 헌법(§17)에 아래와 같은 조문으로 명시되어 있다.

핀란드의 국어는 핀란드어와 스웨덴어이다.

법원 및 기타 당국 앞에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해당 언어로 된 문서를 수령하는 모든 개인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공공 당국은 평등의 원칙에 따라 핀란드어 및 스웨덴어 사용 인구의 문화적, 사회적 요구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핀란드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지위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헌법은 다른 모든 법률을 구속하며 다른 법률의 제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 언어법

200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언어법이 1922년에 제정된 기존의 법령을 대체하였다. 이전의 법령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법령도 헌법에 명시된 자국어인 핀란드어와 스웨덴어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고 새로운 언어에 대한 권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언어법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권리의 실제적인 실현에 있다. 언어법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필요 없이 정부 당국이 개인의 언어권을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어법은 정부 기관을 단일 언어 기관과 이중 언어 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언어적 분리는 개인의 언어권과 정부 당국의 언어 의무 양자에 있어서 모두 중요하다. 언어법은 핀란드의 국민이 법원 및 기타 정부 기관에서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일 언어 국가 기관 역시 두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고객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언어적 기술이 부재한 경우에는 통역사 또는 번역사를 이용할 수 있다.

언어법의 적용은 해당 지역의 언어 환경이 단일 언어 환경인지 이중 언어 환경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국무원(Council of State)은 10년마다 지방 자치 단체에 거주하는 각 주민의 언어에 관한 인구 데이터 시스템(Population Data System)의 정보를 기초로 각 지역의 언어 환경을 결정한다. 이중 언어 사용 지역에서 사람들은 지방 당국과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로 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만, 단일 언어 사용 지역에서는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할 수 있다. 2012년 현재 핀란드어 단일 사용 지방 자치 단체는 287곳, 스웨덴어 단일

사용 지방 자치 단체는 19곳, 스웨덴어를 우위 언어로 사용하는 이중 언어 지방 자치 단체는 12곳, 핀란드어를 우위 언어로 사용하는 지방 자치 단체는 18곳이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150만 명의 인구가 헬싱키를 포함한 이중 언어 사용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 당국 또는 지방 당국 등 이중 언어 당국은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정보의 내용 전체를 두 언어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핵심이 되는 정보를 두 언어로 제공하면 된다.

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산하 기업이 당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언어법의 조항이 적용된다. 행정 업무가 정부 당국이 아닌 다른 기관에 위임될 때도 반드시 언어법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 자치 단체가 민간 기업에 공무를 이관하는 경우, 지방 자치 단체는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법률이 요구하는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는 언어법의 시행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 국무원은 매 선거 주기마다 언어권의 구현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해당 보고서는 핀란드어와 스웨덴어 외에도 사미어, 루마니아어, 핀란드 수화, 기타 언어 관련 사항을 함께 다룬다. 현재까지 두 건의 보고서(2006, 2009, <http://www.om.fi>)가 제출되었으며 2013년에 다음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언어법은 최소 수준을 설정하는 일반적인 법령이다. 언어법은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를 모두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 인구가 더 적은 스웨덴어에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핀란드의 자국어 관련 법률 제정은 언어법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 또는 사회 복지 신청자의 언어권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항이 의료 및 복지 관련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교육 기본법, 대학법, 지방 자치법 등의 기타 법규에도 자국어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올란드 섬에도 자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그 목적은 스웨덴어와 해당 지역의 특수한 문화를 보호하는 것이다. 법률 제정은 국제적인 관례에 기초하고 있다(올란드 자치권에 관한 법률(Act on the Autonomy of Åland) 1144/1991).

3) 교육 기본법

핀란드에서는 누구나 기본적인 무상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언어권의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환경은 바로 학교 제도이다. 현재 종합 학교의 교육은 교육 기본법(628/1998)에 규정된다. 해당 법령의 10장은 교육 언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교수 언어, 교과 외 교수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이다.

교수 언어는 사미어, 루마니아어 또는 수화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수업의 일부는 학생들의 수업 능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경우, 상기 언급한 학생들의 모어 외의 다른 언어로 진행될 수 있다.

해당 법률의 12장은 모어 교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모어로서, 교수 언어와 일치하는 핀란드어, 스웨덴어, 또는 사미어를 교육 받는다.

각 학생은 종합 학교와 상위 2차 학교에서 자신의 모어로 수학할 수 있다. 아동의 모어를 언급할 때는 가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사회와 학교 제도는 그들대로 모어 교육 기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교육 기본법(11장)에 따르면 기본적인 교수요목은 다음과 같은 주요 교과를 포함한다. 모어와 문학, 제2 국어(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 외국어, 환경 교과, 보건 교육, 종교 교육 또는 윤리, 역사, 사회 교과,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리학, 체육 교육, 음악, 미술, 공예, 가정 등이 그것이다.²⁾ 지난 10년 동안 종합 학교의 핀란드어 사용 학생들 간에 제1 외국어로서 영어의 지위가 부쩍 높아졌다. 이는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스웨덴어나 기타 언어를 선택하는 비율이 예전보다 낮아졌음을 뜻한다.

4) 언어 정책 프로그램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핀란드 역시 자국어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으며, 세계화 환경에서 자국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핀란드 언어 연구소(Research Institute for the Languages of Finland)는 1998년에 언어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에는 핀란드 내 스웨덴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창설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9년에는 ‘핀란드어의 미래’라는 핀란드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그뿐 아니라 핀란드 정부는 현재 자국어를 위한 추가 전략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지난 수년 동안 다양한 평가와 제안이 이루어졌다. 해당 프로그램의 제안 사항에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육, 보건 및 사회 서비스, 행정, 매체 등 제반 영역에서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기본 교육에서의 언어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Nuolijärvi(2012) 등을 참조.

5) 지방 언어 및 소수 언어를 위한 유럽 헌장

핀란드는 일찍이 1994년 11월 ‘지방 언어 및 소수 언어를 위한 유럽 헌장’을 비준했다(<http://conventions.coe.int/treaty/Commun/QueVoulezVous.asp?NT=148&CM=1&CL=ENG> 참조). 해당 헌장의 목적은 유럽의 역사적인 지방 언어 또는 소수 언어를 보호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다. 해당 헌장은 유럽의 문화적 전통과 유산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적·공적인 삶에서 지방 언어 또는 소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헌장에서 언어권은 양도 불가능하며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 다루어지고 있다.

핀란드는 해당 헌장이 핀란드에서 적게 사용되고 있는 공용어인 스웨덴어와, 지방 언어 또는 소수 언어인 사미어에도 적용된다고 선언하였다. 게다가 핀란드는 루마니아어에 관한 조항의 제1~4문단에 명시한 원칙을 필요한 부분만 약간 수정하여 카렐리아어와 핀란드의 기타 비영토 언어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핀란드는 유럽 의회(Council of Europe)에 4개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012년 유럽 의회의 장관 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는 핀란드 당국에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를 권고하였다.

- (1) 구조화된 정책과 장기적인 재정 지원 계획의 수립을 통해 사미어 교육을 강화할 것
- (2) 영구적인 언어 보금자리(Language Nest)를 제공하는 등의 수단으로 ‘이나리, 스콜트 사미어’ 등 특히 위협에 처한 언어들을 보호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
- (3) 스웨덴어 및 사미어로 사회,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 (4) 루마니아어 교사를 교육하기 위한 혁신적인 전략을 개발·이행하고 루마니아어로 된 교육 자료 생산을 확대하여 루마니아어 교육 기회를 증진시킬 것
- (5) 교육의 전 단계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교육 과정과 미디어에서 핀란드의 지방 언어 또는 소수 언어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핀란드 내 헌장의 적용(Application of the Charter in Finland) 2012)

이처럼 상기 권고 사항은 핀란드가 위협에 처한 사미어 및 루마니아어의 상황을 개선할 뿐 아니라 소수 공용어인 스웨덴어 역시 보호하도록 고무하고 있다. 요컨대 이 헌장과 유럽 의회의 기관을 통한 전체적인 보고 절차는, 핀란드가 해당 영역에서 스스로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4. 자국어의 현 실태 및 이에 대한 실질적 지원

이 장에서는 현재 자국어 집단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다. 핀란드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영어에 대항하여 핀란드어를 보호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핀란드어에 대항하여 스웨덴어와 사미어를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1) 핀란드어

핀란드의 다수 언어인 핀란드어는 지난 150여 년간 강력한 지위를 점해 왔다. 그에 앞서 15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핀란드에서는 스웨덴어가 행정 및 교육 언어로 사용되었다. 지난 150여 년 동안 핀란드어는 구어와 문어의 차원에서 모두 핀란드 사회의 필수 언어로 자리매김해 왔다. 핀란드어 화자들은 핀란드어를 모국어로 의식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핀란드어를 발달시켜 왔다. 그 덕분에 핀란드에서 모국어인 핀란드어의 지위는 매우 굳건해졌다. 핀란드어는 유럽 연합의 공용어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핀란드어는 핀란드의 많은 가정에서 제2 언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스웨덴과 같은 국외 지역에서도 제1 언어 또는 제2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국제화 및 세계화의 영향으로 유럽 및 세계의 언어와 언어 집단의 관계가 변화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규모가 작은 언어 집단은 자신들의 언어 사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게 되었다. 대학과 학문 분야뿐 아니라 국내 소재 외국계 기업 등 사회의 특정 영역에서 모국어의 사용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핀란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의 각 영역에서 영어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될 것이다.

2000년대에 이위베스켈레대학(University of Jyväskylä)에서 실시한 핀란드인들의 영어 사용, 영어에 대한 태도, 영어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설문조사(Leppänen et al. 2011) 결과, 핀란드 내 영어의 지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는 가장 널리 학습되는 언어이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외국어가 된 것이다. 핀란드인들은 자신의 영어 능력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영어에 대한 핀란드인의 전반적 태도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실용주의적이며, 영어가 핀란드어 및 문화를 위협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점차 다문화화, 세계화되어 가는 현 상황에서 영어 지식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핀란드인은 영어와 기타 외국어 학습의 동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핀란드인은 외국어 학습에 거의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는 여타의 유럽인(특히 다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차이를 보인다(2006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참조).

세계화된 지구촌에서 핀란드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이번 발표를 통해 대학 수준에서의 핀란드어 사용,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핀란드어 과학·예술 분야 전문 용어 뱅크(Bank of Finnish Terminology in Arts and Sciences), 핀란드 언어원의 업무, 핀란드어 인쇄물 및 매체의 역할 등 핀란드어의 다면적 사용 및 발달을 위한 네 가지 활동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고등 교육 및 연구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는 식자층의 핀란드어 실력과 그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핀란드어를 어느 정도로 사용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식자층은 국제적 활동을 위해 외국어 능력을 갖추는 필요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 같은 국가에서 고등 교육에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핀란드의 대학들은 핀란드어 실력의 중요성과 영어의 필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수년 동안, 핀란드에 위치한 12개 대학 중 대부분이 교육과 연구를 위한 자신들의 언어 전략 또는 원칙을 수립해 왔다. 여기에서는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헬싱키대학(University of Helsinki, https://www.helsinki.fi/language_principles TARKISTAN LINKIN 참조)과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이위베스켈레대학(이위베스켈레대학의 2012년 언어 정책, <https://www.jyu.fi/hallinto/strategia/en/university-of-jyvaskyla-language-policy-2012/view> 참조)의 전략을 그 예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략에는 언어적 관점으로 바라본 고등 교육과 프로그램을 조직화하기 위한 주요 원칙 및 실질적인 해법이 포함되어 있다.

헬싱키대학은 자체의 언어 원칙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들의 언어 숙련도를 증진시키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공동체에서 언어는 하나의 자원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 대학은 핀란드의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 및 학문 분야에 있어서 자국어(핀란드어와 스웨덴어)의 지위를 보존하고 지원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헬싱키대학의 목표 중 하나는 핀란드의 자국어가 학문 및 교육의 언어이자 사회적 상호 작용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즉, 대학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새로운 지식은 교육과 문화를 통해 전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학이 추구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헬싱키대학은 외국의 학생, 교수, 연구원들에게도 호소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관건은 이 두 가지 사항을 함께 고려해, 자국어에 대해 대학이 갖는 책임을 수행하면서도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을 찾는 것이다.

헬싱키대학은 자국어를 연구 및 학문의 언어로 공고히 하는 것과 대학 내에서 전반적·효과적으로 이중 언어를 상용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 교육, 행정, 서비스, 의사소통에서 사용되는 자국어를 보다 알기 쉽고 풍부한 언어로 가꿔 나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헬싱키대학은 다른 언어로 수행되고 있는 교육과 연구에 대해서도 대

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의 주요 원칙은 서로 다른 언어를 병렬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즉, 한 언어가 다른 언어에 대해 우위를 점하거나 다른 언어를 대체하지 않으며 나란히 제시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헬싱키대학은 대학의 목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자국어의 지위를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영어를 통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 교육은 다중 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핀란드어, 스웨덴어 또는 영어 등의 외국어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외국어를 통한 교육은 교육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을 때, 또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때 시행될 수 있다. 학습 지도 과정 중에는 다중 언어 능력의 이점, 그리고 학생의 모어 외 언어가 시험 및 교육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영어로 진행되는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 및 학습 목표를 도입할 때는,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2개의 국어로 사용되는 용어를 학생들이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오랫동안 핀란드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영어만을 사용한 영역에서 특히 어려운 문제이다.

헬싱키대학은 다양한 교육 과정에서 영어의 지배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있지만, 핀란드의 자국어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즉, 영어가 지배적인 학과목에서도 자국어의 적극적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헬싱키대학은 특히 핀란드의 교육, 사회, 문화적 강화를 증진하는 학과목에서 자국어로 작성된 교재 편찬을 독려하고 있다. 대학은 해당 연구가 사회 전체에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지식을 모두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헬싱키대학은 연구원들이 자국어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지식을 공유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학과목에서 자국어 용어를 제정하고 유지하는 것은 대학과 사회의 상호작용에서 대학이 담당해야 할 핵심적인 의무이다.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성격의 정보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핀란드어, 스웨덴어, 영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해당 법률이 제공하는 보호와 관련된 정보 또한 이러한 언어들로 제공되어야 한다. 헬싱키대학의 안내 책자, 이름, 지침서, 표지판, 웹 사이트 등뿐만 아니라 대학의 전략적 계획, 정책 프로그램, 기타 주요 문서 역시 모두 핀란드어, 스웨덴어, 영어로 발행될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헬싱키대학은 원칙적, 실질적으로 삼중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삼중 언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이 대학이 자국어를 책임질 의무를 잊어 핀란드어와 스웨덴어의 입지가 좁아진다면 이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현재 일부 학과목에서 이러한 현상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국어와 기타 언어의 병렬적 사용은 헬싱키대학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이다.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이위베스켈레대학은 2012년에 새로운 언어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새로운 전략에 따르면 핀란드어는 국제 대학의 초석이다. 이론과 과업의 우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핀란드어와 영어를 사용한 학문적 의사소통에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지원이 다른 언어로도 제공될 것이다. 게다가 학생들 또한 자신의 학업에 대해 대중 및 그 분야 전문가 양쪽과 모두 소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교사들은 핀란드어로 양질의 표준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구어 및 문어를 통한 학문적 의사소통에 특별히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핀란드로 온 교환 학생들에게는 핀란드어와 핀란드 문화를 통한 수업이 제공되고 있다. 이 대학은 가장 뛰어난 국제적 포럼에서 논문을 발표하도록 격려하면서, 핀란드어로 그것을 출간하고 핀란드어를 학문을 위한 언어로 발전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번째로, 학술 전문 용어를 다룸으로써 핀란드어를 지원하려는 노력이 있다. 핀란드어 과학, 예술 분야 전문 용어 بانک(<http://tieteentermipankki.fi/wiki/Termipankki:Project>)는 핀란드의 모든 연구 분야에서 영구적인 전문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려는 목적을 가진 종합적인 프로젝트이다. 이것은 AOF(Academy of Finland)와 헬싱키대학이 2011년부터 5년간 재정을 지원하는 기반 구축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언어 정책과 사회 과학에 기여하는 것이다. 핀란드의 대규모 학술 전문 용어 بانک은 연구자, 통역사, 언론인, 예술 및 과학 분야에서의 연구와 그 결과에 대해 핀란드어로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학술 용어가 한 자리에 모인다면 종합적인 논의와 연구의 가능성이 향상된다.

전문 용어는 예술과 학문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집단을 통해 수집한다. 이 프로젝트는 식물학, 법학, 언어학 등 3개 분야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파일럿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는 주요 학회로는 핀란드 변호사 협회(Suomalainen Lakimiesyhdistys), 핀란드 바나모 생물 학회(Suomen Biologian Seura Vanamo), 핀란드어 연구 학회(Kotikielen Seura), 기타 언어학 관련 학회 등이 있다. 여기서 언급한 모든 학회들은 100년 이상 동안 자신들만의 특수한 용어를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그들은 현 상황에서도 해당 주제를 논의하기 위한 탄탄한 전통과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각 전문가 집단의 구성원들은 광범위한 위키(Wiki) 편집 자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자리에도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의 허가를 받아 이 전문 용어 بانک에 기존의 용어를 통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프로젝트는 핀란드어 학습 학회(the Federation for Finnish Learned Societies)와 이 학회에서 주관하는 프로젝트 ‘예술, 학문 전문 용어를 위한 자원 봉사(Tieteen termistötalkoot)’와 협력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핀란드어 학습 학회와 대학에 소속된 사람으로, 자원 봉사자로 일하고 있다. 또한 이 전문 용어 بانک 프로젝트는 핀란드 언어원(Kotus)과 핀란드 전문 용어 센터(The Finnish Terminology Centre TSK) 등에 소속된 전문 용어 전문가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핀란드 언어 자원 컨소시엄(Finnish Language Resource

Consortium, FIN-CLARIN)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 관계를 통해 유럽의 인프라인 CLARIN-ERIC 및 ESFRI과도 연계되어 있다.

세 번째로, 핀란드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 외에도 핀란드어의 특질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 역시 중요하다. 핀란드는 이러한 일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언어에 특화된 국가적 전문 기관인 핀란드 언어원(Kotimaisten kielten keskus 또는 Kotus / Institutet för de inhemska språken)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의 업무는 핀란드어 및 스웨덴어 계획을 포함하며, 그 활동은 이러한 언어들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사미어, 루마니아어, 수화 위원회의 업무 조율 또한 해당 기관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

핀란드 언어원은 언어와 명칭 계획을 수행하고, 핀란드어 및 스웨덴어 사전을 편찬하며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언어 말뭇치와 기록 보관소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이 연구소는 핀란드의 언어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한다.

네 번째로, 모국어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언어를 다방면에서 구어, 문어로 배우고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 프로그램, 소셜, 그리고 새로운 소셜 미디어에서처럼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 모든 분야에서 전문어로서의 핀란드어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핀란드어의 보호 및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2) 스웨덴어

세계의 다른 많은 소수 언어와 비교해 보면, 핀란드 내의 스웨덴어 사용 인구수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핀란드에서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환경을 좀 더 면밀하게 점검해 보면, 그들의 일상생활이 항상 스웨덴어만으로는 영위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언어 법령 제정 적용에 관한 자체 보고서(2009년 *언어 법령 제정에 관한 정부 보고서*(Report of the Government on the application of language legislation) 참조)에서, 모든 정부 기관이 취해야 하는 조치와 사회적 의사 결정과 관련된 조치를 제시하였다. 정부 당국은 제정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각 기관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언어권을 확보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핀란드에서는 단순한 언어 법령 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 당국의 운영과 정치적 의사 결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언어법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거의 취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시민들은 기본적인 언어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9년 정부는 2006년의 자체 보고서에서 제시한 조치에 대한 권고 사항의 체계적인 이행을 제안하였다.

해당 조치에 대한 권고 사항은 법원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지방 자치 당국의 운영과도 관련이 있다. 권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안내 문서에서 언어 법령 제정의 이행을 통합함.
- 시민의 언어권이 모든 단계에서 확보되도록 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및 인사 규정을 계획하고 이행함.
- 언어 법령의 준수를 관리, 감독함.
- 이러한 과정에서 두 국어의 사용이 어떻게 증진되는지에 대해 감시, 평가함.

고위 공무원들과 지방 자치 단체의 의사 결정자들은 이러한 조치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 또한 모든 공무원들은 언어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수년간 많은 대형 이중 언어 사용 지방 자치 단체들의 언어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특히 스웨덴어로 운영하기 위한 언어 정책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아직까지 이러한 조치의 결과를 실제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언어 법령 제정과 언어적 권리에 대한 정부 당국과 시민들의 지식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발전이라 할 수 있다.

핀란드 정부에 따르면, 언어 법령의 적용과 언어적 권리 이행을 위한 정부 당국의 권한은 기존 감시 도구의 일환으로서 명료해져야 한다. 많은 지방 자치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형 이중 언어 사용 지방 자치 단체들은 2009년에 지난 3년 동안 서비스 체인의 다양한 단계에서 언어 법령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평가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수도권 지역의 지방 자치 단체들은 스웨덴어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특별한 자체 평가 체제를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사회 복지 및 의료 서비스의 기능을 평가한다. 해당 평가는 주로 고객들의 구두상 피드백에 기초하고 있다. 서부 해안의 오스트로보트니아(Ostrobothnia)에 위치한 모든 지방 자치 단체를 포함하여 많은 이중 언어 사용 지방 자치 단체들 또한 정기적인 주민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설문 조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서비스 지점에서 수행되며, 지방 자치 단체 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 자치 단체가 민간 서비스 제공 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서비스의 기능을 감시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법령을 제정한다고 해서 모든 직원이 두 가지 언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정부 당국은 그들의 의무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서비스 지점이 존재한다면 다양한 서비스 지점에서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헬싱키에서 의료 서비스에 적용되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두 언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 상주하도록 업무 교대 및 업무 분배를 조직화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핀란드어와 스웨덴어 서

비스가 동일한 서비스 지점에서 제공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종류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많은 이중 언어 사용 지방 자치 단체들은 사회 복지 및 의료 부서의 직원들에게 언어 능력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 자치 단체들에는 이중 언어 활동을 조직화하거나 언어 능력 보너스를 지급하기 위한 공통적인 관례는 없다.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적 권리는 기본적으로 이중 언어 환경에서 잘 보호된다. 스웨덴어가 다수 언어인 이중 언어 사용 지방 자치 단체에 소속된 핀란드어 사용자들 또한 다수 언어로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 사용 지방 자치 단체에 소속된 스웨덴어 사용자들보다 해당 지방 자치 단체가 핀란드어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더욱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어 사용 인구의 언어적 권리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시민이 스웨덴어 의사소통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을 경우, 스웨덴어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행정 당국의 서비스는 핀란드어로 제공된다. 하지만 이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상당하다.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적 권리는 오스트로보트니아에서 가장 잘 보호되고 있다. 스웨덴어 사용 인구가 많은 핀란드 남부가 언어적 권리의 확보가 여전히 가장 잘되어 있는 곳이다.

학교는 스웨덴어 사용 아동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의 교육 체계는 1년 동안의 자발적 예비 교육이 선행될 수 있는, 전체 연령 집단을 위한 9개년의 기본적인 교육(종합 학교), 직업 관련 및 일반 교육으로 구성된 고등 2차 교육(3년), 대학과 폴리테크닉이 제공하는 고등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국어가 두 개 존재하는 상황에서 핀란드의 학교 체계에도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아동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아동을 위한 것이다. 이 둘 모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이어지게 된다.³⁾

종합 학교에서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핀란드어를 배우는 것보다 스웨덴어를 더 적게 배운다. 이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6년을 보낸 후에도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것이 덜 유창함을 뜻한다. 핀란드에서는 핀란드어 사용 학교에서 스웨덴어를 핵심 교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스웨덴어 외에 스웨덴어보다 더 널리 사용되고 있는 러시아어 또는 스페인어 등 더 많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 낫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학부모들의 대다수는 여전히 스웨덴어를 핀란드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학교에서 스웨덴어를 배우기를 바라고 있다.

3) 1차 언어로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은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 학교를 선택한다. 물론 다중 언어 또는 국제 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만 가능하다.

핀란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수 언어와 소수 문화를 지원하는 방법 중 하나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소수 언어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핀란드에서는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스웨덴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의 스웨덴어 구사 능력 역시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대중적인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스웨덴어를 통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는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스웨덴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캐나다의 언어 집중 모델을 따라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아동을 위한 스웨덴어 집중 교육이 1987년 바사(Vaasa)에 도입되었으며, 그 후 1991년에는 수도권 지역 등 기타 이중 언어 사용 지역에 이러한 교육이 도입되었다. 현재 유아원, 유치원, 종합 학교에서 스웨덴어 언어 집중 교육을 제공하는 지방 자치 단체는 17개이다(Kangasvieri et al. 2011, 47-49). 게다가 중국어로 부분적인 언어 집중 교육을 제공하는 일부 학교에 의해 최근에는 새로운 기회도 생겨났다.

총체적 초기 집중 교육은 핀란드에서 가장 일반적인 집중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3세~6세 사이의 유아원/유치원 아동부터 시작하여 종합 학교의 9학년까지 이어진다. 2009년 가을, 탁아소 또는 유치원의 집중 교육 아동은 958명이었으며 종합 학교 1학년~6학년의 집중 교육 학생은 2,184명, 종합 학교 7학년~9학년 사이의 집중 교육 학생은 838명으로, 그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다(<http://www.uwasa.fi/kielikylpy/lyhyesti/suomessa/>; Kangasvieri et al. 2011, 23). 이 수치는 핀란드 내 핀란드어 사용 학생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핀란드의 많은 지역에서 스웨덴어 (그리고 핀란드어) 집중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교사의 수가 적고, 많은 지방 자치 단체들의 보수적인 태도 때문에 스웨덴어 집중 교육 학급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바사대학(University of Vaasa)이 핀란드에서의 언어 집중 교육에 대한 연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다른 대학에서도 언어 집중 교육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언어 집중 교육은 교육 대상 언어에서만 아니라 모어와 기타 주요 과목에서도 좋은 결과를 낳았다. 행동을 통한 언어 학습 방법 또한 다른 학급에서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종합 학교에는 스웨덴어 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이 프로그램은 스벤스카 누(*Svenska Nu*, Swedish Now) (<http://www.svenskanu.fi/>)로, 핀란드어 사용 학생들이 지금보다 더 조기에 스웨덴어를 선택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스웨덴의 청소년 문화를 핀란드 교실에 도입하고, 앵글로 색슨 문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스웨덴어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쉽고 좋은지를 보여주며, 학생과 교사를 위한 새로운 교육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핀란드어 사용 학생들의 스웨덴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교사들을 위한 추가적인 교육 또한 마련되었다.

스벤스카 누(Svenska Nu)는 핀란드와 스웨덴, 다양한 협회들, 스웨덴-핀란드 문화 센터인 하나사라-하나홀멘(Hanasaari-Hanaholmen), 특정 민간 후원자 등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핀란드 내의 모든 핀란드 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핀란드 학교에서 스웨덴어 교육을 지원하는 주된 동기는 이념적이면서도 실질적인데, 다수 구성원들의 소수 언어 능력이 향상되면 소수자의 상황을 이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중 언어 환경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스웨덴어 소수자의 관점에서는 핀란드 내 스웨덴어 학교의 수준을 핀란드어 학교만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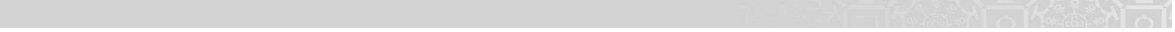
핀란드에는 오보 아카데미(Åbo Akademi)와 스웨덴 경제 학교(Svenska Handelshögskolan Hanken) 등 두 개의 스웨덴어 대학이 있다. 특히 스웨덴 경제 학교(Hanken)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스웨덴어 사용이 크게 감소하였다. 점점 더 많은 수업과 프로그램이 영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핀란드어 대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하여 연구 결과가 영어로만 발표되고 있다. 대학법에 따르면 스웨덴 경제 학교는 스웨덴어 대학이지만, 머지않아 핀란드에는 오보 아카데미만이 스웨덴어 대학으로 남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핀란드 내 스웨덴어 학교 체계에 외에 스웨덴어 사용 집단은 그들의 문화를 스웨덴어로 향유할 수 있다. 스웨덴어 극장, 스웨덴어 문학, 스웨덴어 신문과 잡지, 스웨덴어 라디오 및 텔레비전 채널, 스웨덴어 교구, 스포츠 클럽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핀란드 내 스웨덴 문화의 지속을 보호, 지원하고 있다.

5. 토 론

본고는 핀란드의 자국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핀란드에서 사용하는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는 둘 다 큰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언어 공동체는 현재의 상황과 영어와 같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압박에 대해 깊이 깨달아야 한다.

다문화주의는 핀란드 내 학교에서 일상의 일부분이며, 특히 대도시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되고 있다. 약 4,000명의 이주 아동들이 헬싱키의 종합 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다. 가장 큰 규모의 언어 집단은 러시아어, 소말리아어, 에스토니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집단 등이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국어의 수는 약 40여 개이다(<http://www.helsinki.fi>). 교육 기본법 또한 교육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핀란드어와 스웨덴어가 아닌 다른 배경을 가진 이주 학생들의 언어로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일부 지역 당국들은 아랍어, 소말리아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에스토니아어 등으로 이중 언어 또는 모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 소수자들의 균형 잡힌 밝은 미래는 개인과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 우리는 다양



한 모어를 보호함으로써 자국어 학습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제공할 수도 있다.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는 이 언어들을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핀란드 사회에 속한 다른 집단의 언어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핀란드에서는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를 익히고 사용하는 데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공적 활동 및 사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핀란드가 언어 권리와 모어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요컨대 우리가 우리의 언어 사용을 거부한다면 그것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풍부한 언어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 결정권자이다.

참고 문헌

- Application of the Charter in Finland* 2012. European Charter for Regional and Minority Languages. 4th monitoring cycle. A. Report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Charter. B. Recommendation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on the application of the Charter by the Finland. Strasbourg.
- Kangasvieri, Teija, Miettinen, Elisa, Palviainen, Hannele, Saarinen, Taina & Ala-Vähälä, Timo 2011. *Selvitys kotimaisten kielten kielikylpyopetuksen ja vieraskielisen opetuksen tilanteesta Suomessa. Kuntatason tarkastelu*. Jyväskylän yliopisto. Soveltavan kielentutkimuksen keskus.
- Kielilaki / Språklag [Language Act] 423/2003. <http://www.finlex.fi/fi/laki/ajantasa/2003> [referred: 21 June 2012].
- Leppänen, Sirpa, Anne Pitkänen-Huhta, Tarja Nikula, Samu Kytölä, Timo Törmäkangas, Kari Nissinen, Leila Kääntä, Tiina Räisänen, Mikko Laitinen, Heidi Koskela, Salla Lähdesmäki & Henna Jousmäki 2011. *National Survey on the English Language in Finland: Uses, meanings and attitudes*. eSeries. <http://www.helsinki.fi/varieng/journal/index.html>.
- McRae, Kenneth D. 1999. Conflict and Compromise in Multilingual Societies. Finland. With the assistance of Mika Helander and Sari Luoma. Vol. 3. Helsinki: Finnish Academy of Science and Letters – Suomalaisen tiedeakatemia toimituksia 306, Humaniora.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 Myntti, Kristian & Pirkko Nuolijärvi 2006. The Case of Finland. In Spiliopoulou Åkermark, Sia, co-editors Leena Huss, Stefan Oeter & Alastair Walker: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national debates: Minorities around the Baltic Sea*. Ålands Islands Peace Institute, Mariehamn, 171–225.
- Nuolijärvi, Pirkko 2012. Language education policy and practice in Finland. In: Stickel, Gerhard (ed.), Annual Conference 2011 of EFNIL in London.
- Official Statistics of Finland (OSF): Subject choices of students [e-publication]. ISSN=1799-1056. Subject choices of comprehensive school pupils 2010. Helsinki: Statistics Finland. http://www.stat.fi/til/ava/2010/02/ava_2010_02_2011-05-25_tie_001_en.html. [referred: 23 June 2012].
- Opetushallitus – Utbildningsstyrelsen – The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Education. The Curriculum. http://www.oph.fi/english/education/basic_education/curriculum [referred: 21 June 2012].
- Opetushallitus – Utbildningsstyrelsen – The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Education. The Curriculum. http://www.oph.fi/english/english/mobility/testing_language_skills [referred: 21 June 2012].

Perusopetuslaki/Lag om grundläggande utbildning 628/1998.

<http://www.finlex.fi/fi/laki/ajantasa/1998/19980628> [referred: 25 June 2012].

Population Structure 2011. Statistics Finland. vaesto.tilasto@stat.fi

Report of the Government on the application of language legislation 2009. Ministry of Justice. Helsinki.

Suomen perustuslaki / Finlands grundlag [Finnish Constitution]. PL 731/1999.

<http://www.finlex.fi/fi/laki/ajantasa/1999> [referred: 25 June 2012].

Vikør, Lars S. 2001. *The Nordic Languages. Their Status and Interrelations*. Oslo: Novus forlag.

Protecting and revitalizing national languages in Finland

Pirkko Nuolijärvi

(Institute for the Languages of Finland)

This paper covers, first, the activities undertaken to protect Finnish, the majority language of Finland, in our present linguistic environment, where English as a worldwide language is taking over domains from other languages. Second, it discusses how the Swedish language in Finland should be protected. Swedish is, *de facto*, the minority language under the pressure of the majority language Finnish in our country. As background, the paper provides information on language legislation in Finland. By protecting languages, language legislation is the framework and the first step of all the activities. Third, this paper describes, very briefly, what kind of a linguistic landscape Finland today is. However, the focus of this paper is on the support of Finnish against English and Swedish against Finnish (and English).

1. The national languages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Finland is known as an officially bilingual country with two national languages, Finnish and Swedish. This means that, according to the Finnish Constitution and the Language Act, Finnish and Swedish have an equal status. At present, Finnish speaking people represent 90% of the population, whereas Swedish speaking people represent 5.4% (Statistics Finland 2011). One may wonder why 5% of the population should have a status equal to that of 90% of the population. The explanation lies in the history and the linguistic traditions of Finland.

There are three main periods that can be identified in Finland's political history: a period of Scandinavian hegemony and union with Sweden down to 1809, a period of

partial autonomy under Tsarist Russian rule from 1809 to 1917, and a period of independence since 1917 (McRae 1999). A fourth period started in 1995 when the country became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Finland has no history of separate statehood in the Middle Ages. It was gradually absorbed by the Swedish realm, and the south-western coast was populated by Swedes, while Finns expanded over the rest of country. As the Swedish State became more centralized during the 1600th century, the status of Swedish as the leading language for official and formal use and the language of the educated élite was reinforced. Finnish was used by the official Lutheran Church (Vikør 2000). Finnish was also the first language used by the majority of people.

After the war between Sweden and Russia from 1808 to 1809, Sweden lost the territory of Finland to Russia. The Tsars were relatively liberal, allowing Finns a high degree of autonomy, and they did not change the linguistic situation. Hence, Swedish remained the official standard language of the country and its status was strong. In 1863, Finnish was officially put on an equal footing, and it expanded steadily (Vikør 2000). When Finland became independent in 1917, Finnish had a status as a standard language.

2. The linguistic landscape of Finland

Traditionally, the languages used in Finland have been Finnish, Swedish, three Sámi languages (North Sámi, Inari Sámi and Skolt Sámi), Romani, and the Finnish and Swedish Sign Languages. These languages have historical ties to the country.¹⁾ Especially since the 19th century, there have also been speakers of Russian and Tatar, as well as other languages, including Estonian and German.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in particular, members of language groups not previously represented in Finland, especially African and Asian people, have moved to Finland. According to the statistics, as many as over 150 languages are spoken in Finland. Hence, there are more and more people who use fluently two first languages from the very beginning, and besides these languages they master well, e.g., the majority language Finnish or the second national language Swedish.

1) About the traditional Finnish minorities see, e.g., Myntti & Nuolijärvi 2006.

At the end of 2011 there were ca. 5.4 million inhabitants in Finland. Of the population of Finland, 4,863,351 people (90.0%) spoke Finnish, 291,219 people (5.4%) Swedish and 1,870 people (0.03%) the Sámi languages as their native language. The Sámi numbered nearly 9,000, but fewer than 2,000 of them spoke Sámi. People with a native language other than Finnish, Swedish or Sámi numbered 244,827, or 4.5% of the population. The largest groups spoke Russian (58,331 persons), Estonian (33,076 persons), Somali (14,045 persons), English (13,804 persons) and Arabic (11,252 persons). (*Population Structure* 2011.)

Today, the majority of Finns (over 60%) live in the south-western urbanized areas of Finland and in larger cities. Historically, these areas have also been the core of Finland. The speakers of Swedish live on the southern and western coasts and in Åland. It is especially the southern coast that is largely bilingual, including Helsinki and the other cities surrounding it.

As regards the linguistic situation in Finland as a whole, it is important to stress that neither the majority language Finnish nor Swedish are worldwide languages. This is a very important factor that marks the practice of languages in Finland. Thus, in addition to national languages, especially English is an essential language for many people in their work, and also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have to take into account the needs of English and other widely used languages. Hence, language education in a small country like Finland is an important part of school education, including the native languages.

3. Language legislation and Finnish and Swedish language programs in Finland

As mentioned above, Finnish language legislation is the ground for protecting the languages at the State level. The Finnish language legislation concerning the national languages will be presented here mainly in the light of three Acts or Decrees: the Constitution, the Language Act, and the Basic Education Act (see <http://www.finlex.fi>). In addition, the language programs concerning the national languages as well as Finland's agreements in the European Charter for Regional or Minority Languages will be mentioned. These agreements also take into account the protection of Swedish in Finland.

1) Constitution

The Finnish Constitution (PL 731/1999) became effective on 1 March 2000. It defines the basic freedom and rights of the individual. One of the most important rights is the right to one's own language and culture. Section §6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equality in principle of speakers of all languages:

Everyone is equal before the law.

No-one shall, without acceptable reason, be treated differently from other persons on the grounds of sex, age, origin, language, religion, conviction, opinion, health, disability or other reason that concerns his or her person.

In this respect the new Constitution resembles the former Constitution from 1919 (94/1919), albeit that it is somewhat more detailed, and the Language Act from 1922 (148/1922). Hence, the Finnish bilingualism has a long tradition in the legislation. Bilingualism has been recorded in the Constitution (§17) with the following wording:

The Finnish national languages are Finnish and Swedish.

The right of every individual to use his or her own language before courts of law and other authorities and to receive documents in that language shall be guaranteed by an Act. The public authorities shall provide for the cultural and societal needs of the Finnish and Swedish speaking populations on an equal basis.

Thus, the status of the languages used in Finland historically is laid down by the Constitution. This is important since the Constitution is the law that is binding on all the other laws and it has a considerable influence over other legislation.

2) The Language Act

The new Language Act came into force on 1 January 2004, replacing the old Act from 1922. Like the old Act, the present one only concerns the constitutionally determined national languages, Finnish and Swedish. The new Act does not entail any new language rights; its primary objective is to ensure the realization of these rights in practice. The

Language Act prescribes that the authorities shall on their own initiative see to the realization of the language rights of individuals, without the individuals having to call attention to the rights by themselves.

The Language Act is based on a division of the authorities into unilingual and bilingual authorities. The linguistic division is important for both the language rights of individuals and the language obligations of the authorities. The Language Act states that a Finnish citizen is entitled to use either Finnish or Swedish in courts of law and in dealings with other national authorities. Unilingual state authorities, too, shall provide service in both languages, but they can use interpreters or translators if they do not possess the language skills needed to give service in the language of the client.

What the law requires concerning language is based on local circumstances in monolingual or bilingual municipalities. Every ten years the Council of State decides the division on the basis of the information in the Population Data System regarding the language of each inhabitant of the municipality. In a bilingual municipality, people are entitled to use either Finnish or Swedish with the local authorities, while in a monolingual municipality, only one language can be used. In 2012, there were 287 monolingual Finnish speaking municipalities, 19 monolingual Swedish speaking municipalities, 12 bilingual municipalities with Swedish as the predominant language, and 18 bilingual municipalities with Finnish as the predominant language. In total, 1.5 million inhabitants live in bilingual municipalities, including the capital Helsinki.

A bilingual authority, be it a State authority or a municipal authority, must use both Finnish and Swedish whilst offering information to the public. However, the information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equally comprehensive in both languages. What counts is that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is available in both languages.

When companies owned by the State or municipalities are responsible for matters pertaining to the authorities, the provisions of the Language Act will be applied to them. When tasks of public administration are delegated to other bodies than the authorities, it must be ensured that the service level required by the Language Act is maintained. If, for instance, a municipality transfers public duties to a private enterprise, the municipality has to make sure that the enterprise undertakes to provide the language services required by law, if this cannot be arranged in another way.

The Ministry of Justice is responsible for monitoring the enforcement of the Language Act. The Council of State shall submit a report to Parliament on the realization of

language rights for every election period. In addition to Finnish and Swedish, the report discusses Sámi, Romani, the Finnish sign language and other languages. So far, two reports have been given (2006, 2009, <http://www.om.fi>), and the next one will be given in 2013.

The Language Act is a general Act determining a minimum level. The Act protects both national languages, but it is important especially to Swedish, the national language used less widely in Finland. The legislation concerning the Finnish national languages is naturally not restricted to the Language Act. More detailed provisions on the language rights of a patient or a social welfare client are included in the Acts concerning health care and social welfare. In addition, several other regulations, such as the Basic Education Act, the University Act, and the Municipality Act include regulations having to do with the national languages.

The island of Åland has its own legislation, the objective of which is to protect the Swedish language and the special culture of the province. The legislation is based on international conventions (Act on the Autonomy of Åland 1144/1991.)

3) The Basic Education Act

Everybody is entitled to free basic education in Finland. An environment importa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inguistic rights is the school system. The present education in comprehensive schools is stipulated by the Act on Basic Education (628/1998). Section 10 of the Act states the following on the language of instruction.

The language of instruction and the language used in extracurricular teaching shall be either Finnish or Swedish.

The language of instruction may also be Sámi, Romani or sign language.

In addition, part of teaching may be given in a language other than the pupils' native language referred to above, provided that this does not risk the pupils' ability to follow teaching.

Section 12 of the Act states the following on the teaching of mother tongue:

As mother tongue, the pupil shall be taught Finnish, Swedish or Sámi in keeping with the language of instruction.

Each pupil can study his or her own mother tongue at the comprehensive school and the upper secondary school. The family is in a crucial position when stating the mother tongue of the child. Society and the school system are, for their part, in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organization of the mother-tongue tuition.

According to the Basic Education Act (Section 11), the basic education syllabus shall contain the following core subjects: mother tongue and literature, the second national language (Finnish or Swedish), foreign languages, environmental studies, health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or ethics, history, social studies, mathematics, physics, chemistry, biology, geography, physical education, music, art, crafts, and home economics.²⁾ During the past decade the status of English as the first foreign language among the Finnish-speaking pupils in the comprehensive school has increased. It means that Finnish-speaking pupils have chosen to study Swedish and other languages less often than earlier.

4) Language policy programs

Finland, just as the other Nordic countries, has paid attention to its native languages, and published several language policy programs in order to protect the native languages in the globalized surroundings. First of all, in 1998, the Research Institute for the Languages of Finland drew up the language policy program *Kotimaisten kielten tutkimuskeskuksen kielipoliittinen ohjelma*. In 2003, the Institute drafted a program for Swedish in Finland, titled *Tänk om... Svenska språknämndens förslag till handlingsprogram för svenskan i Finland* (2003). The program for Finnish in Finland (*Suomen kielen tulevaisuus*, 'the future of Finnish') was published in 2009. In addition, the Government of Finland is currently preparing a strategy for the national languages.

Hence, many evaluations and suggestions have been made during the past few years. The suggestions in the programs concern, e.g., education from the kindergarten to the universities; health and social services; administration; media; and the possibilities to develop and maintain one's own language and culture.

2) More information about the languages in basic education, see, e.g., Nuolijärvi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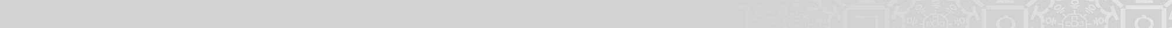
5) The European Charter for Regional or Minority Languages

Finland ratified the European Charter for Regional or Minority Languages (see, <http://conventions.coe.int/treaty/Commun/QueVoulezVous.asp?NT=148&CM=1&CL=ENG>) among the first states in November 1994. The Charter aims to protect and promote the historical regional or minority languages of Europe. It was adopted, on the one hand, in order to maintain and to develop Europe's cultural traditions and heritage and, on the other hand, to respect an inalienable and commonly recognized right to use a regional or minority language in private and public life.

Finland has declared that the Charter applies to the Swedish language, which is the less widely used official language in Finland and to the Sámi languages which are regional or minority languages in Finland. Furthermore, Finland declared that it undertakes to apply, *mutatis mutandis*, the principles listed in paragraphs 1 to 4 of the said Article to the Romani language, to the Karelian language, and to the other non-territorial languages in Finland.

Finland has submitted four reports to the Council of Europe. In 2012,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recommended that the Finnish authorities, as a matter of priority

- (1) further strengthen education in Sámi, notably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structured policy and a long term financing scheme;
- (2) take urgent measures to protect and promote Inari and Skolt Sámi, which are particularly endangered languages, in particular by means of the provision of language nests on a permanent basis;
- (3) take further measures to ensure the accessibility of social and health care in Swedish and Sámi;
- (4) develop and implement innovative strategies for the training of Romani teachers, extend the production of teaching materials in Romani and increase the provision of teaching of Romani;
- (5) take measures to increase awareness and tolerance vis-à-vis the regional or minority languages of Finland, both in the general curriculum at all stages of education and in the media. (*Application of the Charter in Finland* 2012.)



Hence, the recommendations encourage Finland to strengthen especially the situation of the endangered Sámi and Romani languages but also to take care of the national minority language Swedish. In sum, the Charter and the whole reporting process with the organs of the Council of Europe offer excellent possibilities for Finland to evaluate its efforts in the area.

4. The current situation of native languages and their support in practice

This chapter concentrates on how the situation of native language groups seems today and how Finland in practice works to protect and support Finnish against English, Swedish against Finnish, and the indigenous Sámi languages against Finnish.

1) Finnish

Finnish, the majority language of Finland, has had a strong status for just some 150 years. Swedish used to be the language of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in Finland from the 1500s to the 1800s. Over the past 150 years the written and spoken Finnish has become a language essential in Finnish society. Finnish speaking people have been very aware of their native language and developed it in all domains of societal life. Hence, we can say that the status of Finnish as a national language has been and still is strong in Finland. In addition, Finnish is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in the European Union. It is also used as a second language in many families in Finland and as a first or second language outside of Finland, especially in Sweden.

However, over the past few years,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have changed the relationship of languages and language groups in Europe and worldwide. The smaller language groups have to be more conscious of their language use because there is a danger that, in certain domains of society, especially in universities and scientific life in general, as well as in international companies of Finnish background, the use of the native languages will decrease. The significance of English for many Finns and in many societal domains in Finnish society will become more and more pronounced.

A survey on Finns' uses of, attitudes to and perceptions of English in the 2000s made in the University of Jyväskylä (Leppänen et al. 2011) confirms that English has a strong presence in Finland. English is the language studied most widely and the foreign language used most commonly. Finns assess their own skills in English as relatively good. According to the study, Finns' overall attitudes to English are quite positive and pragmatic and they do not consider English a threat to the Finnish language and culture. Instead, knowledge of English is considered an essential resource in the increasingly multicultural and globalizing world.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Finns are motivated to study English and other foreign languages. In this respect they differ from many other Europeans – particularly speakers of languages spoken by large numbers of people – who are not nearly as interested in foreign language studies (cf. Eurobarometer 2006).

How to protect Finnish in the globalized world village? In my presentation, I'd like to mention four activities undertaken to support and develop a multifaceted use of Finnish: the use of Finnish at the university level, the new increasing Bank of Finnish Terminology in Arts and Sciences, the work of the Institute for the Language of Finland, and the role of Finnish literature and media.

First, the language used in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has an influence on the kinds of skills educated people have in Finnish and how they can use Finnish for special purposes in different occupations and professions. At the same time, internationalized people also need skills in foreign languages. Hence, the question of language choice is not very simple in higher education in countries like Finland.

In principle, Finnish universities are very aware of the need for skills in Finnish and the need for English. During the past few years, almost all of the 12 universities in Finland have written their language strategies or principles for teaching and research. The examples presented here are the strategies of the bilingual Helsinki University (University of Helsinki, see https://www.helsinki.fi/language_principles TARKISTAN LINKIN) and the unilingual Finnish Jyväskylä University (University of Jyväskylä Language Policy 2012, see <https://www.jyu.fi/hallinto/strategia/en/university-of-jyvaskyla-language-policy-2012/view>). The strategies include the main principles and practical solutions for organizing higher education and programs from the language point of view at the university level.

According to its language principles, the University of Helsinki promotes the language

proficiency of its students and staff, as well as supports their knowledge of different cultures. Languages are seen as a resource within the academic community. The University bears a special responsibility for preserving and supporting Finland's national culture as well as the status and position of its national languages (Finnish and Swedish) in all research and scholarship.

One objective of the University of Helsinki i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Finland's national languages as languages of scholarship and academic training and as a means of enhancing societal interaction. The University is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research benefits society and that new knowledge is integrated into the overall education and culture that inherently belong to everyone. On the other hand, the University of Helsinki has to be an attractive option for foreign students, teachers and researchers. The challenging objective is to combine internationalization with the University's responsibility for Finland's two national languages.

Among other objectives, the University of Helsinki secures the status and the position of Finland's national languages as languages of research and scholarship and strengthens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versity's bilingualism which within the university community must be both omnipresent and functional. The University ensures that the language used in research, teaching, administration, services and communication is rich and comprehensible. At the same time, the University tries to determine the status and development targets for teaching and research undertaken in other languages. The main principle is that parallel language usage refers to the simultaneous use of different languages in one or more fields of activity. It means that no language overrules or replaces another, but the languages are used in parallel across all areas of language usage. Arranging teaching in English supports the educational targets set by the University without undermining the position of Finland's national languages.

University teaching is multilingual; thus, teaching can be offered in Finnish, Swedish and in foreign languages, particularly in English. Teaching in foreign languages can be included in studies when it is meaningful from the point of view of arranging the teaching or in order to meet learning targets. In the course of the students' academic guidance, attention will be paid to the benefits of multilingual skills and to the fact that the language of examinations and teaching can be a language other than the students' mother tongue. When introducing teaching and learning objectives for students participating in courses given in English it is essential that students be aware of the terminology

used in their field in both national languages, as required. This is a great challenge for those fields which have worked only in English for a long time and not in Finnish at all.

Although the University acknowledges the dominant role of the English language in several disciplines, it also fosters the preservation of Finland's national languages, and aims to secure their future as vibrant and full-bodied languages in disciplines dominated by English. The University encourages publishing in Finland's national languages, especially in disciplines that promote Finland's educational, social and cultural enrichment. The University is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research benefits society at large and that new knowledge is made available to all. Therefore, it is the University's duty to encourage researchers to publish and share expertise in Finland's national languages. Creating and maintaining domestic terminology within different disciplines is central to the University's duty to interact with society.

Information of a fundamental or permanent nature must be available in Finnish, Swedish and English for the benefit of all students and staff. Information which relates to protections afforded by law must also be available in these languages. The University's strategic plans, policy programmes and other main documents as well as brochures, names, guides, signs, and websites will be published in Finnish, Swedish and English.

As we can see, the bilingual University of Helsinki is, in principle and in practice, trilingual. Being trilingual is no disgrace, but it would be a disgrace, if the university forgot its duty to take care of the national languages, and the domains of Finnish and Swedish became smaller. In some disciplines, this is obvious today; however, the parallel use of national languages and other languages is, in general, usual at the University of Helsinki.

The unilingual University of Jyväskylä published a new language strategy in 2012. According to the new strategy, the Finnish language is the cornerstone of the international university. Systematic support is offered on Finnish and English scientific communication in order to ensure the quality of theses and assignments. Support will also be offered in other languages, if necessary. Furthermore, students should also be able to communicate on their discipline to both professionals in their field, as well as to the general public, and support will also be available for these purposes.

All teachers are responsible for fostering good standards in Finnish.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both oral and written scientific communication. Incoming exchange students are offered studies in the Finnish language and culture. Despite encouragement to publish

on the most distinguished international forums, the University is also committed to promoting publishing in Finnish and to developing Finnish as a language of science.

Second, there are efforts to support Finnish by taking care of scientific terminology. The Bank of Finnish Terminology in Arts and Sciences (<http://tieteentermipankki.fi/wiki/Termipankki:Project>) is a multidisciplinary project which aims to gather a permanent terminological database for all fields of research in Finland. It is an infrastructure project funded for five years (from 2011) by the Academy of Finland and the University of Helsinki. The goals of the project serve language policy and sociology of science. An extensive Finnish research terminology bank will help those researchers, translators, journalists and others who write about research and its results in the arts and sciences in Finnish. By gathering scientific terminology in one place, the bank also improves the opportunities for multidisciplinary discussion and research.

Terminology is gathered among expert groups in different fields of the arts and scienc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in three pilot projects: botany, jurisprudence, and linguistics. The key societies cooperating with the pilot projects are the Finnish Lawyers' Association (Suomalainen Lakimiesyhdistys), the Biological Society of Finland Vanamo (Suomen Biologian Seura Vanamo),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Finnish (Kotikielen Seura) and other linguistic societies. All of the associations mentioned have developed their special languages for more than 100 years. Hence, they have solid traditions and wide experience for discussing the theme even in the current situation. The members of each expert team have access to a wide range of wiki editing resources and can add information into every slot of the database in their field of expertise. It is also possible to include existing terminologies in the bank subject to permission by those who own the copyrights.

The project cooperates with the Federation for Finnish Learned Societies and its project Tieteen termistötalkoot (Voluntary work for the terminology of arts and sciences). The experts come from both the member societies of the FFLS (TSV) and from universities and work as volunteers. The project also has other cooperative partners, such as the Institute for the Languages of Finland (Kotus), and terminologists, for example, from The Finnish Terminology Centre TSK. The project is affiliated with the Finnish Language Resource Consortium FIN-CLARIN, and through this affiliation, it has a connection to the European infrastructures CLARIN-ERIC and ESFRI.

Third, beside the wide use of the Finnish language, it is also important to preserve

and develop the quality of Finnish. The State supports this work and it has a special institute for this purpose, the Institute for the Languages of Finland (Kotimaisten kielten keskus or Kotus / Institutet för de inhemska språken), which is a national expert institute specialized in languages. Its tasks include the planning of Finnish and Swedish, and its activities concentrate on these languages. In addition, the coordination of the work of the Sami, Romani, and Sign Language Boards belongs to the work of the Institute.

The Institute for the Languages of Finland carries out language and name planning, compiles especially Finnish and Swedish dictionaries, and conducts different research projects supporting these operations. The Institute also maintains various linguistic corpora and archives. Furthermore, the Institute is actively involved in the language policy in Finland.

Fourth, the best way to protect one's native language is to learn and use it as a spoken and written language in a multifaceted way. Hence, maintaining the status of Finnish in school programmes, fiction, and professional language in every area; newspapers, magazines, and other publications, radio and television, as well as in the new social media, is remarkably significant to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Finnish.

2) Swedish

In comparison with many other minority languages in the world, the situation of the Swedish speaking population in Finland is excellent and unproblematic. However, by closer examination of the circumstances of the Swedish speaking people in Finland, we find that their everyday lives do not always work out in Swedish.

In its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language legislation (see, e.g., *Report of the Government on the application of language legislation* 2009), the Government proposed measures which every authority and court should undertake, as well as measures relating to societal decision-making. The legislation is binding on the authorities; nevertheless, it does not contain detailed provisions on how to ensure linguistic rights in the practical operations of each authority. Mere language legislation is not sufficient in Finland; instead, practical measures are also needed both in the operations of the authorities and in political decision-making. However, these practical measures to implement the Language Act have mainly not been undertaken. This endangers the securing of the basic linguistic rights of the Swedish speaking citizens. In order to secure the linguistic

right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in practice, the Government proposed, again in 2009, the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the suggestions for measures it had proposed in its report of 2006.

The suggestions for measures concern the operations of state administration and municipal authorities as well as the courts.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

- incorpor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language legislation in guidance documents
- planning and implementing customer service and personnel policy by securing that the linguistic rights of the citizens are ensured at all stages
- supervising that language legislation is complied with
- monitoring and evaluating how the operations promote the use of both of the national languages

The senior civil servants and the decision-makers of the municipality are responsible for arranging these measures. In addition, every civil servant is liable to comply with language legislation.

During the past years, many large bilingual municipalities have become better aware of the linguistic rights and drafted language strategies to ensure operations especially in Swedish, even if the results of these measures cannot yet be seen in practice. The increased knowledge among the authorities and citizens about the language legislation and the linguistic rights is an important step forward.

According to the Finnish Government, the application of language legislation and the competence of the authorities to implement linguistic rights should be clarified as part of the existing monitoring tools. Many municipalities evaluate their own operations. Especially some of the larger bilingual municipalities stated in 2009 that, during the past three years, they had been monitoring and evaluating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language legislation at different handling stages of the service chains. The capital region municipalities have a special self-evaluation system relating to services in Swedish. For example, the functionality of certain social welfare and health care services has been evaluated. The evaluation is mainly based on oral feedback from the customers. Many bilingual municipalities, including every other municipality in Ostrobothnia on the western coast, also carry out regular inhabitant questionnaires. The questionnaires are usually conducted at the municipal service points and they are used to monitor the

functionality of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municipality itself, as well as services purchased by the municipality from private service providers.

The legislation, however, does not mean that all employees must master both languages. In practice, the authorities can act in the way they consider most appropriate with regard to their own duties. If, for instance, there are several service points, different service points can provide service in different languages. This model has been used in Helsinki in health care services. Another possibility is to organize work shifts and work distribution in such a way that employees who master both languages are always available. Usually, the service in Finnish and Swedish is given in the same service point. Of course, it depends on the circumstances what kind of a model is available. Many bilingual municipalities pay their social welfare and health care personnel a language skill bonus. However, the municipalities do not have a common practice for organizing the bilingual activities or paying language skill bonuses.

The linguistic rights of the Finnish speaking population are mainly well secured in bilingual environment. The Finnish speaking people in bilingual municipalities with Swedish as the majority language are also more satisfied with the service provided by the municipality in Finnish than the Swedish speaking people in bilingual municipalities with Finnish as the majority language. Thus,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in the securing of the linguistic rights of the Swedish speaking population. A central observation is that in public administration the service of those speaking Swedish takes basically place in Finnish, unless the citizens specifically ask for communication in Swedish. However, the regional differences are considerable. The linguistic rights of the Swedish speaking population are best ensured in Ostrobothnia. In southern Finland where the number of the Swedish speaking population is high, there remains most to be improved in the securing of the linguistic rights.

The school offers important support to Swedish speaking children. The Finnish education system consists of a nine-year basic education for the whole age group (comprehensive school), which is preceded by one year of voluntary pre-primary education; upper secondary education, which consists of vocational and general education (3 years); and higher education, which is provided by universities and polytechnics. With the two national languages, there are also two main lines in the Finnish school system: one for the Finnish speaking children and another one for the Swedish speaking children, all the way from the kindergarten to the universities.³⁾

In the comprehensive school, Finnish speaking pupils learn Swedish less than Swedish speaking pupils learn Finnish. It means, in general, that Finnish speaking pupils are less proficient in Swedish than Swedish speaking pupils are in Finnish after six years of school. Swedish as a core subject in Finnish schools has been a permanent theme in the public debate in Finland. Some parents stress that it would be better to learn more languages other than Swedish, e.g., Russian or Spanish, which are used more widely than Swedish. However, the majority of Finnish speaking parents still regard Swedish as an important part of Finnish culture and want that their children learn Swedish at school.

According to many opinions in Finland, one method to support a minority language and culture is to develop minority language skills also among the majority. There is ongoing public debate in Finland on how Swedish skills could be improved among Finnish speaking pupils and students but also among those who speak Swedish as their mother tongue. Various efforts have also been made to support studies in Swedish. This paper will discuss two ways to improve Swedish skills among Finnish speaking children.

Following the Canadian model of language immersion, Swedish language immersion for Finnish speaking children was introduced in Vaasa in 1987 and, later on, in certain other bilingual regions, for instance the capital region in 1991. Presently, there are 17 municipalities offering language immersion in Swedish in kindergartens, pre-schools and the comprehensive school (Kangasvieri et al. 2011: 47-49). Further, new opportunities have been made available recently by a couple of schools that offer partial language immersion in Chinese.

Early total immersion is the most usual immersion programme in Finland. Early total immersion is usually begun between the ages 3 and 6 and continued from the kindergarten/preschool to grade 9 of the comprehensive school. In the autumn of 2009 there were 958 immersion children in day care or preschools, 2 184 immersion pupils in grades 1 to 6 of the comprehensive school, and 838 immersion pupils in grades 7 to 9 of the comprehensive school in Finland, more than half of them in the capital region (<http://www.uwasa.fi/kielikylpy/lyhyesti/suomessa/>; Kangasvieri et al. 2011: 23). It is just a small part of all the Finnish speaking pupils in Finland, but there is a

3) Children who speak some other language than Finnish or Swedish as their first language choose either the Finnish or the Swedish school. Of course, they can also choose multilingual or international schools, but this is only possible in the capital region or in larger cities.

growing interest towards Swedish language (and Finnish language) immersion in many parts of Finland. However, it is not very easy to increase the number of Swedish immersion classes because of the small number of Swedish speaking teachers and the reserved attitudes in many municipalities.

Research into immersion in Finland has been practically shouldered by the University of Vaasa, but there are currently immersion researchers even in other universities. According to many studies, the results have been really good, not only in the immersion language, but also with the mother tongue and other core subjects. The method, language learning in action, also seems to work well in other classes.

There is another programme that aims at strengthening the learning of Swedish in comprehensive school. The programme *Svenska Nu* (Swedish Now) (<http://www.svenskanu.fi/>) encourages Finnish speaking pupils to choose the Swedish language earlier than pupils do today. Its goal is to strengthen the Swedish language skills among Finnish speaking pupils by bringing Swedish youth culture into Finnish classrooms and offering an alternative to Anglo-Saxon culture; showing how easy and nice Swedish is in practice; and offering new education material for pupils and teachers. Furthermore, further education for teachers is arranged during the project.

Svenska Nu is funded by the Finnish and Swedish States, a variety of foundations, the Swedish-Finnish cultural centre Hanasaari – Hanaholmen, and certain private sponsors. The project works in cooperation with all the Finnish schools in Finland.

The main motivation for supporting Swedish education in Finnish schools is ideological and practical at the same time: When the majority members have better skills in the minority language, it is easier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the minority, and, of course, it will lead to better opportunities to find a workplace in bilingual environments. From the Swedish minority point of view, it is important to maintain the Swedish schools at as high a level as the Finnish schools in Finland.

There are two Swedish universities in Finland, the Åbo Academy (Åbo Akademi) and the Swedish School of Economics (Svenska Handelshögskolan Hanken). Especially in Hanken, the use of Swedish has decreased dramatically over the past few years. More and more courses and programmes are given only in English, much more so than in the Finnish universities, and research is only published in English. According to the University Act, Hanken is a Swedish university, but it is obvious that, in the near future, there will only be one Swedish university left in Finland, the Åbo Academy.

Besides the Swedish school system in Finland, the Swedish speaking group can enjoy culture in Swedish: Swedish theatres, rich Swedish literature, Swedish newspapers

and magazines, Swedish radio and television channels, Swedish parishes, sport clubs, and so on. All of these activities protect and support the maintenance of Swedish culture in Finland.

5. Discussion

This paper has concentrated on the national languages in Finland. Finnish and Swedish used in Finland both belong to languages that are really privileged. However, these language communities also have to be deeply aware of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pressure from languages used more widely, like English.

Multiculturalism is part of everyday life at schools in Finland, especially in larger cities and towns. About 4,000 children of immigrant origin study at comprehensive schools in Helsinki. The largest language groups are Russian, Somali, Estonian, Arabic and Vietnamese. The number of native languages taught is about 40. (<http://www.helsinki.fi>.) The Basic Education Act also allows education to be carried out, wholly or in part, in the native language of the immigrant pupil or pupils with other backgrounds than Finnish or Swedish. Some local authorities have offered either bilingual or native language education in Arabic, Somali, Russian, Vietnamese, and Estonian. A good and balanced future of minorities in Finland is a major advantage for both individuals and the whole of society. By protecting different mother tongues we can provide a good basis for learning national languages better, too. Finnish and Swedish are not only for native speakers, but they are also the languages of other groups in our society.

As has been described above, there are a number of public and private activities in Finland that seek for sound and good alternative ways of learning and using Finnish and Swedish. Even if Finland is very aware of language rights and the importance of the native languages, there are still many challenges we need to tackle. In sum, it is not the fault of English speaking people if we avoid using our own language. It is us who decide how rich our language is and how long we will be using it. We are the ones who decide.

References

- Application of the Charter in Finland* 2012. European Charter for Regional and Minority Languages. 4th monitoring cycle. A. Report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Charter. B. Recommendation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on the application of the Charter by the Finland. Strasbourg.
- Kangasvieri, Teija, Miettinen, Elisa, Palviainen, Hannele, Saarinen, Taina & Ala-Vähälä, Timo 2011. *Selvitys kotimaisten kielten kielikylpyopetuksen ja vieraskielisen opetuksen tilanteesta Suomessa. Kuntatason tarkastelu*. Jyväskylän yliopisto. Soveltavan kielentutkimuksen keskus.
- Kielilaki / Språklag [Language Act] 423/2003. <http://www.finlex.fi/fi/laki/ajantasa/2003> [referred: 21 June 2012].
- Leppänen, Sirpa, Anne Pitkänen-Huhta, Tarja Nikula, Samu Kytölä, Timo Törmäkangas, Kari Nissinen, Leila Kääntä, Tina Räisänen, Mikko Laitinen, Heidi Koskela, Salla Lähdesmäki & Henna Jousmäki 2011. *National Survey on the English Language in Finland: Uses, meanings and attitudes*. eSeries. <http://www.helsinki.fi/varieng/journal/index.html>.
- McRae, Kenneth D. 1999. Conflict and Compromise in Multilingual Societies. Finland. With the assistance of Mika Helander and Sari Luoma. Vol. 3. Helsinki: Finnish Academy of Science and Letters – Suomalaisen tiedeakatemia toimituksia 306, Humaniora.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 Myntti, Kristian & Pirkko Nuolijärvi 2006. The Case of Finland. In Spiliopoulou Åkermark, Sia, co-editors Leena Huss, Stefan Oeter & Alastair Walker: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national debates: Minorities around the Baltic Sea*. Ålands Islands Peace Institute, Mariehamn, 171–225.
- Nuolijärvi, Pirkko 2012. Language education policy and practice in Finland. In: Stickel, Gerhard (ed.), Annual Conference 2011 of EFNIL in London.
- Official Statistics of Finland (OSF): Subject choices of students [e-publication]. ISSN=1799-1056. Subject choices of comprehensive school pupils 2010. Helsinki: Statistics Finland. http://www.stat.fi/til/ava/2010/02/ava_2010_02_2011-05-25_tie_001_en.html. [referred: 23 June 2012].
- Opetushallitus – Utbildningsstyrelsen – The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Education. The Curriculum. http://www.oph.fi/english/education/basic_education/curriculum [referred: 21 June 2012].
- Opetushallitus – Utbildningsstyrelsen – The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Education. The Curriculum. http://www.oph.fi/english/english/mobility/testing_language_skills [referred: 21 June 2012].

Perusopetuslaki/Lag om grundläggande utbildning 628/1998.

<http://www.finlex.fi/fi/laki/ajantasa/1998/19980628> [referred: 25 June 2012].

Population Structure 2011. Statistics Finland. vaesto.tilasto@stat.fi

Report of the Government on the application of language legislation 2009. Ministry of Justice. Helsinki.

Suomen perustuslaki / Finlands grundlag [Finnish Constitution]. PL 731/1999.

<http://www.finlex.fi/fi/laki/ajantasa/1999> [referred: 25 June 2012].

Vikør, Lars S. 2001. *The Nordic Languages. Their Status and Interrelations*. Oslo: Novus forlag.

제3부 / Session 3



스카코프 마하트
Skakov Maxat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문화정보부 언어위원회
Language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Kazakhstan

현 카자흐스탄 문화정보부 언어위원회 위원장
카라간다 주립대학 경제학 박사

Skakov Maxat is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on Languages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He received his Ph.D. in Economic Sciences from the Karaganda State University.

국가 통합의 주요 요소

스카코프 마하트

(카자흐스탄 문화정보부 언어위원회)

도 입

국어는 모든 국가에서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 현재 210개의 국가에서, 50억 이상의 인구가 세계 도처에서 1,651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중 카자흐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1,500만 명 이상이다. 카자흐어는 투르크 어족에 속하는데, 약 2억의 인구가 30개의 투르크 어족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카자흐어를 알고 이해하며 국제 관계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카자흐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구소련에서 사용하던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에스토니아어, 몰도바어, 아르메니아어, 그루지야어, 타지크어 사용자들의 수보다 두 배 이상 많고, 유럽에서 발달한 핀란드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덴마크어, 헝가리어, 체코어, 슬로바키아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다. 카자흐어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언어이자 다양한 언어적 기원으로부터 비롯된 언어이다. 또한 강한 잠재력을 보유한 언어이며 카자흐스탄 공화국과 같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나라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국어이다.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세대의 의무이다. 세계의 문명국들에서는 국어의 지위가 매우 확고하며 그 우월성과 권리가 법에 의해 합당한 보호를 받는다. 국어를 소유하고, 국가의 토대로써 국어를 확립하는 것은 세계 역사를 통해 보았을 때 주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독립을 위해 투쟁한 나라들이 언어적 독립에서부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봐도 국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독립 역시 공동체 내에서 언어의 독립을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이 언어 정책면에서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 왔다는 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명히 드러났다. 물론 카자흐어가 결코 쉽게 국가적 지위를 획득한 것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했고, 애국적인 시민들의 용기 덕분에 국가적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카자흐어의 이러한 발전은 나자르바예프 누르술탄 아

비슬리(Nazarbayev Nursultan Abyshuly)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대통령은 2010년 카자흐스탄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에서 2020년 국가 개발 전략을 분석하며 “이 프로그램의 주요한 목적은 국가의 독립을 확고히 하고, 카자흐 민족의 국가적 변형을 위한 길을 닦으며, 언어와 문화가 널리 융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 통합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다음 세대의 변형을 도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뜻에 따라 카자흐스탄을 변형시키고 언어의 지위 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이 국가 차원의 언어 정책으로 추진된 것이다.

국어 개발 전략은 국가 통합의 첫 번째 단계에서 시작되었다. 1995년에 승인한 헌법에서 카자흐어는 주권 국가 역사상 최초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국어라는 지위를 획득했다.

1. 카자흐스탄의 언어 정책 개발 단계

일반적으로 국가 수립과 발전의 역사에서 언어 정책은 매우 중요시되어 왔다. 언어 정책을 펼칠 때에는 국가의 어느 구성원들(소수 민족, 사회 그룹)이든 그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다민족 국가일수록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 세기 말, 독립 국가들 사이에서 수립된 카자흐스탄은 역사적 운명으로 뭉친 여러 국가 대표들이 연합한 다민족 국가로서 국가의 지위를 정립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카자흐스탄의 언어를 발전시킬 방안에 대한 모색이 시작되었다. 카자흐스탄의 언어 개발 과정은 다음의 몇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 첫 번째 단계: 1988-1994 - 카자흐 민족을 포함한 인종 집단의 민족적 의식의 각성 및 재발전

이 단계에서 소련 재건 및 카자흐스탄의 독립과 관련하여 일어난 민주주의 과정으로 인해, 모국의 역사의 주인인 카자흐 국민들 간에 광적인 민족의식이 생겨났다. 바로 이 순간, 많은 민족적 애국심 및 과도한 민족주의적인 동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카자흐 국민들에게 이 단계의 긍정적인 측면은 카자흐 국가의 많은 대표들이 카자흐어 쪽으로 돌아섰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카자흐 국민들의 민족의식의 발전이 국가 내 다른 민족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전에 연방 국가 몇몇은 이 과정에서 국제적인 대립을 야기했고, 또한 언어 논쟁에서 편파적인 정책을 내세웠다.

이 단계에서, 언어 개발에 관한 규범적이고 법적인 원리의 기초도 세워졌다.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언어 관련 법률은 1989년 9월 22일에 최초로 승인되었고, 카자흐어는 국어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이 날짜는 이후 카자흐 국민의 언어 기념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 이는 주권 국가인 카자흐스탄의 1993년 최초 헌법에 나타나 있다.

2) 두 번째 단계: 1995-2000 - 국제적 호의와 화합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에 있는 모든 민족의 언어 개발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의 정책적인 지원과 새로운 헌법의 승인에 기인한, 1995년의 언어 개발 기초 단계

1995년, 카자흐 국민 의회는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카자흐 국민 언어 개발 정책에 따라, 적절한 사회 언어학적인 공간 창조와 민족 그룹의 언어 개발 문제에 착수한 것이다.

또한 1996년 11월 4일자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언어 정책 구상’이 대통령령으로 승인되었다. 카자흐스탄 언어 정책의 방향은 이 구상에 잘 설명되어 있다. 1998년에 언어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최초의 정부 프로그램(1998~2000) 실행을 위한 주요 절차가 승인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국어와 기타 언어 개발을 위한 적절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간의 부족 및 목적 실행과 관련된 다른 의무적 요인으로 인하여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의 역할을 수행할 카자흐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러시아어의 사회적 기능을 보존하며 또한 민족 언어 개발 방향을 제시할 뚜렷한 정책의 방향은 이때부터 체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세 번째 단계: 2001-2005 - 이 단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언어 사용 및 개발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부가 승인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국어 정책 전략 방향의 실행과 관련한 강력한 절차이다. 국어 사회 통신 서비스의 수립과 확장, 러시아의 일반적인 문화 서비스 보존, 소수 민족 그룹 언어 개발 논점이 주요 방향이다.

2006년 언어 정책에서부터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다. 일단 이 단계는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 및 중앙 국가 기관에서의 사무 업무 일정을 국어로 바꾸는 임무와 관련이 있다. 또 카자흐스탄 국민에게 전하는 대통령의 메시지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카자흐스탄’에서 다룬 ‘언어 통합’ 문화 프로젝트의 실현과도 관련되는 것이었다.

현재 언어 정책의 주요한 방침 중 하나는 사무 업무에서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일정에 따라, 중앙 및 지역 집행 기관의 행정 언어는 2010년 초부터 국어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어의 사용 영역이 넓어짐은 물론, 국어의 지위에 따르는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국어를 통해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국

어의 사용 영역을 확장하는 주요 이유는 국어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서이다.

이 무렵 카자흐스탄에서는 고유 명사에 대한 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 방침에 대한 규제 및 법적 토대가 이미 수립되어 있었지만, 이를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고유 명사 규정과 관련한 이 분야의 작업 수행은 별도의 법률 채택을 요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때의 언어 정책 방침 중 하나는, ‘언어 통합’ 문화 프로젝트의 수행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의 모든 시민이 대통령령에 따라 세 개의 언어를 배우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주된 흐름은 사회적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카자흐어를 발전시키는 것이지만, 카자흐스탄에서 문화적 역할을 담당해 온 러시아어를 보존하는 문제도 고려되었다. 이와 함께 국제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영어의 중요성에 대한 고찰도 이루어졌다.

2. 국가 통합의 주요 요소로서의 국어

현재 국가적 측면의 언어 정책은 카자흐스탄의 모든 국민의 권리에 따라 실행된다. 이는 모든 소수 민족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거나 자녀를 양육할 때의 언어, 그 밖에 교육과 문학 언어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어는 정신적 차원에서 국가 통합의 주요한 요소로 기능할 수 있게 됐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카자흐스탄 모든 시민의 의무이자 과제이며, 언어를 통해 사회 생활과 경쟁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점은 기본 과제의 수행에도 반영되었다.

국어 교육의 인프라는 매우 넓어졌다. 카자흐어로 교육을 하는 유치원과 학교의 숫자가 증가한 것은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국어를 배우려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의 성인들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되었다. 아스타나와 알마티를 비롯해 공화국 내의 모든 지역에 지역 국어 교육 센터가 설립되었고, 국어 교육 통합 시스템도 형성되었다. 현재 130개에 달하는 국어 교육 센터가 지역과 시에서(국가 교육 센터-57, 비국가 교육 센터-73)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문서를 국어화하는 작업 역시 시행되고 있다. 2009년 1월 1일부터, 국어를 이용한 문서 검열 자동화 시스템이 모든 중앙 및 지역 기관에서 채택되었다. 오늘날 전국적으로 중앙 및 지역 기관의 82%가 국어로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어 교육 방법도 널리 보급되고 있다. 2011년에 10가지 종류의 러시아-카자흐 다분야 관용 표현집 백만 부가 출간됐고, 그 후에 “카자흐 문학 언어 용어집”(15

권), “전 세계 어린이 문학 보고” 시리즈(15권), “동화의 세계”(60권), “카자흐 어린이 문학 대표 고전”(5권), 오디오 북 등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 프로그램이 출시됐다.

또한 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기술적 접근을 강조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국어’가 개설되어, 자주 업데이트되고 있다(www.til.gov.kz). 이를 통해 20종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용자들의 국가적 분포는 주로 터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프랑스, 독일 등이다.

국어 통신 서비스는 국가 대중 매체 콘텐츠 안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50% 이상의 전자 대중 매체와 인쇄 매체에서 카자흐어가 사용되고 있다.

해외 거주 동포와 문화적인 유대를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계획도 실시되고 있다. 해외 거주 동포의 사회 경제적인 여건을 설명하기 위해, 지적인 기회, 모국어의 현재 위치와 미래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언어 개발은 카자흐스탄 국가 정책의 기초이다. 언어적 쟁점에 대한 적절한 해결은 국제 관계와 민중의 균형,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강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언어의 풍요로움은 언어에 내재해 있으므로 언어는 그 자체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은 카자흐스탄 헌법에도 잘 반영돼 있다. 즉, ‘카자흐스탄 국민의 언어 개발 및 교육 조건 형성을 위한 국가적 배려’에 이러한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이, 카자흐스탄에는 8,000개에 달하는 중등 교육 기관이, 그 중 약 50%는 카자흐어를 가르치고, 26% 이상의 학교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며, 다른 26%는 둘 다 가르친다. 우즈베크어, 위구르어, 타지크어 및 우크라이나어를 가르치는 학교들도 있다.

국가는 가능한 한 모든 민족의 대표 언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카자흐스탄 내 모든 지역에서 각 민족의 문화와 모어를 가르치기 위해 일요일 특별 교실이 전면적으로 시행 중이며, 그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현재 30개 민족어를 사용하는 190개 이상의 일요일 특별 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어에 대한 여러 민족 대표들에 대한 존경심은 카자흐 국민에 대한 깊은 존경이자, 시민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소식에 의하면, 국어를 배우는 소수 민족 대표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1,000명 이상의 소수 민족 출신자들은 카자흐어를 완전히 익힌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라는 카자흐스탄의 모든 시민은,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국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만약 국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정한 국민이 될 수 없다. 진정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카자흐어를 자신의 국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시행 중인 언어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 간 언어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분석은 1년에 2~3번 정도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분석은 단지 언어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인구 통계학 및 유목민에 대한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카자흐어와 카자흐 포털 이용에 관한 작업은 새로운 정보 기술의 영역 내에서 개발해야 한다. 카자흐스탄 내에 그리고 카자흐 이주자 집단 내부에 카자흐어로 된 책을 공급하기 위해, 일단 인터넷 상점 개설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문명국가들의 경험을 참조한다면, 카자흐스탄의 모든 민족들은 풍부한 언어 보존에 초점을 맞춘 국어 정책 방향의 타당성을 확신할 것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모든 민족들은 언어를 배우기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받고 있다. 중국은 언어 통합이 국가 통합이라고 믿는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국어의 국가적 지위에 대해서는 의심조차 품을 수 없다. 프랑스, 독일 및 일본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어의 국가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의 경우 언어에 관한 특별법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헤브라이어와 아랍어는 공식적인 언어로 인정받고 있다. 유대인들은 4천 년 동안 헤브라이어를 사용해 왔고, 복음서도 헤브라이어에 되어 있다. 헤브라이어를 아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시민의 의무는 아니다. 헤브라이어 능력이 요구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만 배우면 된다.

카자흐스탄에 있어서 발트 해 부근 국가들의 소수 민족을 위한 정책, 언어 교육, 역사·문화·전통 및 관습 보존을 위해 채택한 법령, 공동 수행 작업 경험 등은 매우 중요한 참고가 된다. 물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에는 여전히 소수 민족에 관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다민족과 관련된 문제를 힘이나 압력에 의해 해결하려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의 소수 민족 정책도 평화적이어야만 한다.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단지 해당 민족의 역사, 문화, 언어를 보존하는 것에 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회의 건설자가 되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언어 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될 언어 사용과 개발을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미래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국가 통합 강화를 위한 중요 요소로서 폭넓은 국어 사용을 규정하는 언어 정책을 만들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모든 민족의 언어를 보존하는 것이다.

국가 통합 강화를 위한 중요 요소로서 프로그램의 모든 정책은 국어의 발전을 가장 중시하면서도, 공화국 시민의 언어 및 정신·문화적인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고자 한다. 그 뿐 아니라 이 프로그램은 문서에서의 언어 사용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 일종의 규범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프로그램에 명시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몇몇 방침은 다음 사항들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모든 시민이 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시스템 창안 작업을 기획한다. 그래서 국어 교육에 따른 통합된 표준 기술에 대한 준비, 평점에 따른 서비스 평가 및 국어 교육 인가 시스템 준비, 국어 교육의 독려를 위한 시스템 창안 등을 목표로 한다. 둘째, 국어에 관한 평판을 높이기 위한 작업 수행과 필요성 및 수요 확대를 고려한다. 셋째, 카자흐어 보존 개선 및 체계화를 통해, 카자흐 국민의 말하기 문화 개발, 카자흐어 쓰기 개선 및 언어문화 개선이 이루어지는 언어 환경 창조를 목표로 한다. 넷째, 카자흐스탄 국민의 언어 능력 개발 측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어의 기능을 보존하고, 소수 민족의 언어를 배우고 보존할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영어와 기타 언어 교육에 관해서도 적절한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시한 목표의 실행을 통해 2020년까지 다음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2017 - 국어를 배우는 카자흐스탄 국민의 비율은 80%가 될 것이고, 2020년에는 95%까지 증가할 것이다.

2020 - 러시아어를 배우는 카자흐스탄 국민의 비율은 적어도 90%가 될 것이다.

2020 - 영어를 배우는 카자흐스탄 국민의 비율은 약 20%가 될 것이다.

결 론

2011-2020년 카자흐스탄 공화국 언어 사용 및 개발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은 앞으로 10년 동안 실행될 것이다. 2020년에 국어를 배우는 사람의 비율을 95%까지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의 과업의 중요성과 규모를 고려한다면, 현재 국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모든 중앙 및 지역 집행 권력이 집행 요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자르바예프 누르술탄 아비술리 대통령은 “애국자는 자신의 모국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자신과 민족을 믿으며 공동체에 헌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신의 역사, 모어, 출신을 알지 못한다면,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우리의 입장은 민족적 이기심이 아니라 민족적 애국심이다. 우리는 다민족과 다민족어를 지지한다. 그것이 모든 민족 대표와 그들의 언어를 존중하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 오랜 세월 등한시한 모어를 존중하며 그것을 심도 있게 아는 동시에, 모어를 배우면서 그것에 국가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숭고한 의무이다. 우리는 민족의식이 민족 문화의

일부가 아니라 주요한 뿌리이자 평화의 토대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국어의 운명은 국어에 대한 각 민족들의 긍정적인 인식에 달려 있는 것이다.

현재 여러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활동을 더 활발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 Khalel Dosmukhameduly는 “언어의 무기는 출판사와 학교이다. 출판사와 학교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매우 용감한 무기이다. 출판사와 학교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그런 식으로 국가에 침투하지 않는다. 출판사와 학교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올바른 언어라면, 이는 국가 차원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풍요롭게 하고 번영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과거의 말이지만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 유치원과 학교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카자흐어가 될 것이고, 언어의 지위는 언어가 정보 시스템과 인터넷에 진출할 경우 개선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카자흐스탄 사회에서는 카자흐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있다. 인터넷상에 개설되는 카자흐어 사이트들은 그러한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카자흐어로 된 사이트의 방문자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카자흐어가 사용되는 공개 토론 방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젊은 층들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은 흥미를 보이고 있다. ‘쇠가 달 귀졌을 때 두드려라’라는 속담과 같이 이러한 현재 추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즉 현재 우리는 법률 개정예 반영될 변화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언어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추진해 갈 언어 정책 전문가, 실무 집행자 그리고 국회 의원의 능력이 충분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항상 민족의 언어가 민족의식, 민족적 명예의 고양, 그 필요 수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다른 모든 이들보다 더 나쁘지 않다는 느낌만으로도 충분한 실정이다. 아직까지 독립의 정신이 충분히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유라 할 것이다.

현재 국제 기준에 따른 국가 개발의 주요한 지표 중 하나는 카자흐스탄에 완전한 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어가 카자흐스탄의 유일한 모어라는 관점을 버리고, 카자흐어가 카자흐스탄의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인 언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카자흐스탄 민족에게는 모어이지만 다른 민족들에게는 두 번째 모어가 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목표의 제안을 통해 우리는 국제 사회에서 카자흐스탄의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제 조건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모든 기관에서 일하는 국가 공무원이 국어를 사용하도록 촉구하고 그들을 자극하고 실제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국어 사용을 장려할 뿐 아니라, 일반 대중이 국어를 일상 사회 언어로 사용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특히 소수 민족 대표들이 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소수 민족 대표들에게 국어의 사용을 장려할 뿐 아니라, 국어 교육 성적이

우수한 대표들을 국가 기관에 더 많이 고용할 필요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 공무원의 국어 교육 수준을 진단하는 시험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일반 공동체에 대해 국어의 영향력 증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문화 협회 간의 돈독한 공조 작업, 지적인 사회 복합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의 미래가 젊은이들의 손에 달려 있는 만큼 젊은이들의 국어 사용 능력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국가 기관, 서비스 분야, 권리 보호 기관 및 법원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반드시 국어를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모 있고 복합적인 정책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의 제12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키릴 문자의 로마자화는 카자흐 문자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국제적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제안은 승인할 만한 가치를 갖는다. 로마자를 사용하는 것은 무한 경쟁의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이고, 언어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로마자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고 긴 과정이며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문자 문제를 더욱 철저히 연구하고 국가와 언어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카자흐어의 풍부한 단어’에 관하여 말하자면, 더 많은 토론거리가 있다. 주요 논점은 풍부한 언어적 자산을 한 데 모아 컴퓨터에 기록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며, 사용 영역을 결정하고, 어휘 및 표현법 등을 보전하며, 이를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이다. 언어를 보존하고 컴퓨터를 통해 저장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문명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언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도 해결해야 한다. 첫째, 국어의 필요성은 커져야 하고, 국어는 매력적이어야 하며 권위를 확보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의 모든 시민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언어를 배워야 한다. 모든 카자흐 시민이 자신의 경력을 쌓고 국가의 시민으로서 충분히 고민한 뒤 자신 있게 ‘카자흐어가 국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후에야 진정으로 국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시민들이 국어가 갖는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을 위한 국어 교육 과정의 개발을 늘리고 그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 작업을 능숙하게 실행하고 조직화하기 위해, 우리는 교사와 직원을 늘리기 위한 지역 언어 관리 권한을 이용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대 요소는 정보 기술에 착수하는 것이다. 전자책을 사용하는 언어 학습자, 원격 교육에 대한 대책 등의 활용 및 준비는 언어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 영역의 작업 개선,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

다면 국어의 사용 영역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 정책을 수행할 때의 중요한 논점 중 하나는 해외 거주 동포를 돕는 것이다. 이 논점은 언어 정책 방침 중 하나로 지정될 수도 있다. 해외 거주 카자흐 동포들이 겪는 현재의 주요 문제는 카자흐어를 배우는 일이다. 많은 국가에서 카자흐어 교육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나뉠대로의 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어가 확대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 그 중 가장 주된 장애물은 사회 환경 및 실제 생활 상황에서 카자흐어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카자흐어는 해외 동포들의 일상생활에서 점차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것이 동포에 대한 원격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거주 카자흐 시민 중에서 카자흐어 교사를 뽑고, 체계적으로 카자흐어 능력 개선 과정을 실시하며, 카자흐 대학에서 더 높은 교육을 받은 우수한 학생 가운데에서 카자흐어 교육 지원자 그룹을 조직하고 업무를 할당하는 것과 같은 정책들을 완성해야 하는 이유이다. 오늘날 새로운 정보 기술을 사용하여 우리는 새로운 교육 시설, 교재, 방법론, 이주자 국가의 교육 및 언어 영역에 기초한 용어집 등을 준비하고 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점은, 카자흐스탄의 언어적 환경은 카자흐어를 구사하는 민족의 성장과 함께 마련된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언어적 환경을 견고하게 형성하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강화할 수 없다면, 그 언어를 발전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현재 카자흐스탄 사회의 ‘장애물’은 이러한 언어적 환경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해외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온 동포들이 특출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과의 유대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카자흐스탄에 대한 충성심과 자신의 언어를 간직해 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카자흐어에 대한 ‘새로운 활력’과도 같다. 예를 들어 더 많은 귀환자들을 다른 국적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역에 정착시키는 문제가 적절한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카자흐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기관을 세우고 카자흐어 학교, 유치원 등을 반드시 개설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Messag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Nursultan N. «New Kazakhstan in new world» to Kazakhstan people. 2007, «Astana poligraphy» JSC, 66 pages.
- Messag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Nursultan N. «Development of Kazakhstan peoples' economic condition- main purpose of state policy» to Kazakhstan people. 2008, «Elorda» poligraphy, 23 pages.
- Messag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Nursultan N. «New decade - new economic development - new possibilities of Kazakhstan» to Kazakhstan people. 2010, «Astana poligraphy» JSC, 37 pages.
- The law of the RK «On Language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Almaty, the 6th of July, 1997.
-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lmaty, 1993.
- The summary of language poli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the 4th of November, 1996.
- B. Khasanuly, Deep history of the language policy. «Mother language» newspaper, the 1st of July, 1993.
- S. Orazalinov, If heart will open its eyes. Almaty, «Dauyr» poligraphy, 2001.

State Language

— Main Factor of Country Unity

Skakov Maxat

(Language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TRODUCTION

National language is an every nation's respective value. Presently in 210 countries more than 5 billion people speak 1 651 languages in all over the world. And more than 15 million people in the world speak the Kazakh language. If one takes into account that the Kazakh language is included in Turkic group of languages and that about 200 million people speak about 30 Turkic languages, the number of people who know and understand the Kazakh language, use it as an international relationship tool is increasing. The number of people who speak it is twice greater than those who speak Latvian, Lithuanian, Estonian, Moldovian, Armenian, Georgian, Tajik languages which were used in former Soviet Union, and much more greater than the number of people who speak Finnish, Norwegian, Swedish, Danish, Hungarian, Czech, Slovak languages which developed in Europe. A language with very rich history, language system made by language source, strong potential, state language of all the citizens' who possess rapidly developing independent country like the Republic of Kazakhstan is the Kazakh language and its development is a duty of our generation. That is why the status of state language in civilized countries of the world is especially marked. Its superiority and rights are properly protected by the law. Possession of national language, the status of state language and its establishment of the country's basis is a principal set up in the world's experience. It depends on the fact that nations that strive for country's independence begin solving their issues from independence of

language. Therefore, its way to independence Kazakhstan began from demand of language to take respective place in the society.

From the day of reaching independence our country as a separate state held a right direction in the language policy, it has been proved over time. The Kazakh language was not easily given a state status. On this way our language got through many difficulties and hardships, and with the bravery of faithful to their country citizens it took its place on the pedestal. The beginner of all these activities is the President, National leader Nazarbayev Nursultan Abyshuly.

In his Message to Kazakhstan people in 2010 the President, analyzing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country for 2020, said: “The main purpose of this programme is prosper the country’s independence, pave the way for prosperity of Kazakh people as a nation, make possibilities for the language and culture to flourish widely. We can achieve this goal that will help prospering the next generation only with persistence and by preserving the unity of our country.”

Therefore number of activities that can influence prosperity of our independence, strengthening of language status was performed in language policy of the country.

Clear strategy of state language development was assigned from the first stage of statehood consolidation of the country. In the Constitution accepted in 1995 the Kazakh language got high status of state languag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our sovereign country.

1. LANGUAGE POLICY DEVELOPMENT STAGES IN KAZAKHSTAN

If we get through the history of statehood’s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different countries, we will understand that one of the main position of statehood is constructive and weighted language policy.

Stable language policy that does not humiliate rights of all the citizens (ethnoses, social groups) of the country is very important, especially, for multiethnos countries.

In the end of the last century raising its flag among independent countries, Kazakhstan began to establish its statehood as multiethnos country where representatives of many nations were united by historical destiny.

From this exact moment a searching stage in clearance of country’s main principal began

in our country in the sphere of our language.

If we analyse the process of languages development in our country, we can relatively divide it into several stages.

The first stage: 1988 – 1994 – awakening and redevelopment age of national consciousness of different ethnoses in our country including Kazakh people. At this stage due to democratic processes taken place in connection with the reconstruction in Soviet Union and getting independence of our country, there was awakening and establishment process of frenzied national consciousness among Kazakh people who is historical owner of its native land. At this very moment many national-patriotic and excessively nationalistic movements have been appearing. The positive side of this stage for Kazakh people is that many representatives of Kazakh nation turned to the Kazakh language. Yet the main achievement of this stage is not to let the awakening and establishment processes of Kazakh people national consciousness to infringe rights of other nations in our country. These processes in several former Union countries led to international sharpening and also became the result of one-sided policy in language issues.

At this stage a languages development normative-legal basis foundation was built also. The law of Kazakh SSR on language was accepted for the first time on the 22nd of September 1989, the Kazakh language began possess the status of state language (this date was later officially recognized as Kazakh peoples' languages day). This case took place in the first Constitution of 1993 of our sovereign country.

The second stage: 1995 – 2000 – due to acceptance of new Constitution and with the help of President's policy aimed at development of languages of all nations that live in our country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friendliness and harmony, the stage that was a foundation for language development. In 1995 Kazakh People's Assembly began its work. According to policy of Kazakhstan peoples' languages development there were proceeded proper social-linguistic space creation and ethnic groups language development issues.

As well on the 4th of November in 1996 by the Decree of the President a «Conception of the language policy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was approved. Tendency of our country language policy was defined in this Conception. In 1998 there was accepted its main mechanism for execution the first Governmental programme on using and developing languages for 1998 – 2000. Its main purpose is to make suitable conditions for development of state and other languages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However

because of limitation of time and other factors the arisen obligations related to execution of these purposes were not performed at proper level. Nevertheless, a predominant direction of language policy to provide Kazakh language to serve according to the status of state language and to preserve social functions of Russian language and also work in ethnic languages development direction systematically began from this moment.

The third stage: 2001–2005 – this stage began from accepting Governmental programme on using and developing languages for 2001–2010. This Programme is a strong mechanism of execution of state language policy strategic directions. Widening and establishment of state language social-communicative service, preserving general cultural service of Russian language, ethnic groups languages development issues are the main directions.

We can say that a new stage began in language policy from 2006. This stage, firstly, is connected with assignment by President's Decree the transference schedule of office-work in regions and central state authorities into state language, and also with realization of «Languages unity» cultural project which was said about in President's Message to Kazakhstan people «New Kazakhstan in new world».

Transference of office-work into state language is one of the main directions of present languages policy. According to above mentioned schedule the office-work in central and local executive authorities was transferred into state language from the beginning of 2010. Execution of such measure actually influenced on widening of state language usage sphere and its service according to its status. That is why the main mechanism of providing office-work in state language and widening its usage sphere is putting a national terminology in order. Development of sphere terminology pursuit were intensified.

At this time, scientifically base of the work toward regulation of onomastic space in our country arisen as issue that was waiting for its decision making. In spite of the fact that regulatory and legal base had already founded for this direction, there was a need to improve it according to present times. Performing work in this sector related to regulation of onomastic space required adoption of another law.

At that time, one of the directions of language policy is an implementation of «Languages unity» cultural project aiming to make necessary conditions for every citizen of our country to learn three languages easily according to the President's Order. Thereby through realizing the development of state language as main direction, there appeared need to think about preservation of overall cultural service of the Russian

language in Kazakhstan. At the same time being one of the preconditions of reaching global level the importance of English language was taken into consideration, there was said about preparation of its learning complex measures.

2. STATE LANGUAGE AS MAIN FACTOR OF COUNTRY UNITY

Today from state side corresponding language policy is conducted according to the rights of all people in Kazakhstan. It provides preservation of language rights of all ethnoses and free choice of relationships, upbringing, learning and literature language.

Thereby state language is main factor of spiritual and national unity. Learning it is a duty and task for every citizen of Kazakhstan, it determines every individual's aspiration for social life and competition opportunity.

Certain results were reached on the basis of performed tasks for that reason.

Infrastructure of learning state language became very wide. The number of kindergartens and schools providing education in the Kazakh language is increasing.

The share of adults in our Republic who learned state language is increasing. All necessary conditions were provided to teach them. Regional State Language Learning Centres were established in all regions of our Republic, in Astana and Almaty cities and an integrated system for state language learning was formed. At the present 130 State Language Learning Centres are working in the regions and cities (state learning centres-57, non-state learning centres-73).

Urge toward transference of documentation into state language is being implemented. From the 1st of January 2009 an automated system for monitoring documentations in state language was adopted in all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Today documentation in state language is 82% in all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State language learning methods were provided.

Only in 2011 10 different Russian-Kazakh multisphered phrasebooks were published with million copies, then «Vocabulary of Kazakh literature language» in 15 volumes, series of books «Treasury of world children literature» (15 volumes), «In the world of fairytales» (60 volumes), «Classical representation of Kazakh children literature» (5 volumes), audiobooks, innovative methodic programs and others were published.

With the aim to enforce new technologies in approach for state language learning there was created a portal «State language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it is often renovated (www.til.gov.kz). More than 20 kinds of internet services were provided. Geography of portal users is Turkey, USA, Japan, Russia, China, France, Germany and other countries.

It is observed that communicative service of the state language was established in state mass media content. Today the volume of spreading of electronic mass media in the Kazakh language, also share of printing pages in Kazakh is more than 50%.

Planned work on strengthening and development of cultural links with our compatriots who live abroad is being conducted and established. Aiming clarification of social-economic conditions of our compatriots who live abroad, intellectual opportunity, present position and future of mother language social research is being organized.

Languages development is a foundation of state policy in our country. Proper resolution of language issues are premises for balance of international relationships, peoples' grouping and strengthening of social agreement.

If we remember the words «The wealth of language is in language, that is why it has no lack», in our Constitution it was clearly defined «The state cares for making conditions for learning and developing Kazakhstan peoples' languages».

As to prove it, there are about 8 000 secondary schools in our country, about 50% percent of them are Kazakh schools, in more than 26% are teaching in the Russian language, another 26% is mixed. There are also schools with Uzbek, Uigur, Tajik and Ukrainian languages.

State cares for all nations representatives' languages in our country as far as possible. In order to develop mother language and culture the Sunday schools system were established to teach mother language in every region of our republic, and now they are working in full. Their number is increasing every year. At the present more than 190 Sunday schools of 30 national languages were organized and are working well. Funds granted for these schools from state budget are increasing every year.

Respect of other nation's representatives to state language is their citizenship and great esteem for Kazakh people. According to last information,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of other different nations who learned state language is increasing. At the present more than 1000 other nations representatives who work at state service completely learned Kazakh language. In general every citizen of Kazakhstan who wants

to achieve his or her goals should know language, only having understood that your career will not improve without knowing language, and that you can not be a real citizen of your country then you can say that Kazakh language is a state language.

The main factor for determining the problems and objectives of further execution of language policy is to analyse the ethnolinguistics situation in the country. Such analyses should be provided 2-3 times a year, it is not only for language policy, but also resolution for education, culture, demography and sort out nomadic processes issues.

Works on using the Kazakh language and portal lines in Kazakh should be developed in the sphere of new information technology. In Kazakhstan and among Kazakh diasporas in order to distribute a book in Kazakh we should solve such problems like opening INTERNET shops.

According to global civilized experience all ethnoses in Kazakhstan will be convinced of correctness of state language policy directions that pointed at preservation of language wealth. At the same time they have suitable conditions to learn language. China believes that language unity is a country unity. It is not allowed to give rise to doubt to language's state status in Malaysia. France, Germany and Japan are supporting the state status of language in legal manner.

Special law on languages was not adopted in Israel, however the Hebrew and Arab languages are official languages.

Jewish people have been speaking the Hebrew language for 4 thousand years. Gospel was written in Hebrew.

To know the Hebrew language is not a duty of all people in Israel. It is obliged only for citizens whose work or their duties are connected with using the Hebrew language.

Policy conducted for not so many people from Baltic countries, Group of Acts adopted for preservation of language learning, nations' history, culture, traditions and customs, work experience carried out jointly with them are very important for Kazakhstan. Of course, there are multinational problems, that have not been solved yet, in other nations' every sphere in Lithuania, Latvia and Estonia. Everybody knows that solving these important problems with force and compulsion methods never lead to good results.

That is why national policy conducted in Kazakhstan – many nations of the Republic should live in peace, not just preserving their nation's history, culture, language, but also should work in order to become sole builder of the society.

In order to develop language structure, a State Program for languages using and

development for 2011-2020 (further - Programme) was developed.

The main objective of the Program is to preserve all ethnoses' languages in Kazakhstan to establish corresponding language policy that will provide widely usage of state language as an important factor for nation unity strengthening.

All measures in the Program as important factor for nation unity strengthening are based on state language development dominance and intended to fully satisfy of spiritual-cultural and language demand of our Republic citizens. Along with that it is normative organizational basis of main problems solving in using and development of documents languages.

To reach objectives specified in the Program, several directions were aimed at:

Firstly, organisation of work on creation of system of state language learning by all citizens is planned. For that reason preparation of integrated standard-technology according to state language learning, preparation of accreditation system for state language learning and estimation of its service according to rating, creation of system for stimulation state language learning process are aimed at.

Secondly, implementation of works on raising reputation of state language and broaden its necessity and demand are considered.

Thirdly, through the Kazakh language reserve improvement and systematization, development of Kazakhstan people speech culture, improvement of Kazakh language writing and creation of tolerate language environment language culture improvement measures were pointed out in the Program.

Forthly, linguistic capital development measures of Kazakhstan people are aimed to reach. For that reason we should make suitable conditions to preserve the Russian language function, to learn and preserve languages of ethnoses who live in Kazakhstan, also suitable conditions for English and other languages learning were considered.

The implementation of objectives set before gives an opportunity to reach following results till 2020:

2017 - the share of Kazakhstan people who learned state language will be 80%,
and in 2020 - will increase till 95%.

2020 - the share of Kazakhstan people who learned the Russian language will be at least 90%.

2020 - the share of Kazakhstan people who learned the English language will be about 20%.

CONCLUSION

Within the execution of State Programme intended for languages use and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2011-2020 objectives for reaching effective results and scaled activities were set for the next ten years. That is why while we consider the scale and importance of President's task to bring share of people who learned state language to 95% in 2020, we think that at present while implementing pointed state program all central and local executive powers should reinforce executive requirements.

As our President Nazarbayev N.A. said, «to be patriot means to love your motherland with all your heart, to believe yourself and your people, to serve your community. But if you do not know your history, mother tongue, your descent you can not be real patriot!».

Our position is not national selfishness but national patriotism. We support multinationality and multilanguages. That is why respecting every nations representative and their languages, respecting our stepped aside mother language through many years because of definite reasons, deeply knowing it, through learning it give it state status is our noble duty.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national consciousness is not a part of national culture but its main root, base of our peacefulness.

The destiny of state language needs awakening of national positive nature.

In spite of what activity we begin to do we should develop it further. Once one of the respective person Dosmukhameduly Kh. said: «Weapon of language are publishing houses and schools, publishing houses and schools that are very courageous weapon that frights people. Language used in publishing houses and schools do not penetrate through the country that way. If language of publishing house and school is a right language it will prosper, enrich and blossom language used in the country», he said. In this point of view, the importance is still present in spite of passed time. It is clear that kindergarden and school language will become Kazakh, language position will be improved in case of entering of language into information system and internet.

At present, the society changed its opinion about Kazakh language. It is proved by the facts like opening sites in Kazakh language on internet, they not were just opened but its permanent visitors number is increasing, also appearing of Kazakh forums, and causing interest for this matter especially of young people. And now using this moment effectively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as it is used to say, let us not leave behind the work that can be done today, that is why we should determine changes

that are to enter into the law, adopting resolutions and performing activities. We believe that spiritual power of famous people who work in the sphere of language policy, really concerning people, Parliament deputies is sufficient.

The main thing is that we should always know that the national language depends on national consciousness, elevation of national honour, its necessity level. Today feeling of not worse than everybody else is sufficient to our nation. It is true that for now the spirit of independence has not yet fully recovered us.

That is why the general purpose is starting of this activity by all of us as one person.

At present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 one of the main indicators of country development is a providing full service of state language in our country. We should get rid of the opinion that state language is only mother language of Kazakh nation and influence it to be general language for all citizens of Kazakhstan, mother language for Kazakh people and second mother language for others.

Putting such objectives forward we can reach for creation of premises to provide real competitive ability of our nation in present world. For that reason we should influence state employees who work in all state authorities to speak state language, stimulate them for that and take measures to create material conditions. However we should not involve only state employees to know state language but also contribute to make it daily-social language for mass of people. Especially providing multisided learning of state language by other nations representatives we should consider the ways of encouraging them. For that reason we should not just make other nations representatives to learn and know state language but also know that one of our general objective is to engage them more for state service according to their language learning quality. At this point it is important to enter test system for determining state language learning level of state employees which is preparing in the sphere of language learning.

To start conducting effective measures connected with increase of state language influence in general community environment is one of the main directions of this sphere. For that purpose working hard with national, cultural associations, intelligent society complex activities should be made.

If we keep in mind that future of the state is in hands of young people, we will do not forget that state language especially important for nowadays youth. So that is why nowadays young people working in state authorities, service sphere, rights protection authorities and court sphere without knowing state language can not perform their

tasks. That is why the scaled and complex measures should be done in this sphere.

The Kazakh language graphics, which was said about by our President on XII Session of Kazakhstan Nations Assembly, e.g. task about consideration the opportunity of transference of today using Cyrillic alphabet to Roman alphabet, cause us to think about. Really we need to say that this is approvable step in today global level. Because using Roman alphabet is the way to compete with competitive world, and also pledge of our language future, these issues were set about by scientists and specialists many times. However knowing that transference to Roman alphabet is hard and long process and with good sides it has negative sides we should completely research this issue and make reasonable resolution for the future of our nation and language.

Saying «Word wealth of the Kazakh language» there is more to discuss. Its main issue is to gather fully and thrifty all the wealth of our language, focus in one direction, record in computer memory, explain meaning, determine sphere of usage, to make lexical, phraseological, etc. reserve of state language, take it into state protection. Because in all civilized countries tradition word reserve is pasported, saved in the computer memory forever and continue to be enlarged.

Every problem's resolution in language has its adding part for problems resolving sphere. Firstly, necessity of state language should be increased, language should be made attractive and authoritative. Every citizen of Kazakhstan in order to reach his or her purpose should know language, after realizing that you can not improve your career, you can not be fully considered as citizen of your country you can confidently say that Kazakh language is a state language. This time is not so far from us. That is why we should remember that we feel understanding of citizens, generally society of the state language importance. For that reason we should increase the number and quality of state language learning courses for adults that are opening locally. In order to conduct this work profitably, to systematize it we should use power of regional language management increasing teachers and staff units. Another very important factor in fully solving of this problem – entering information technologies. Provision of language learners with electronic textbooks, distant learning, preparing and using different methods are very important in learning language. Through continuity, improvement of the work in this sphere many problems will be solved in increase of state language using sphere.

One of the issues performing with the language policy is to help our compatriots who live abroad. This issue can be even named as one of directions of language policy.

The main current problem of the Kazakh diaspora abroad is learning the Kazakh language. In many countries the problem of Kazakh language teaching found positive resolution. However in spite of performed work there are many factors that do not let the Kazakh language to be spreaded. The main obstacle among them, there is no necessity of the Kazakh language from side of social environment and real life conditions. For that reason it is clear that the Kazakh language gradually move away from everyday life among compatriots from different countries.

That is why to teach compatriots distantly, prepare teachers of the Kazakh language among Kazakh citizens abroad and systematically conduct qualification improve courses, organize the Kazakh language teaching volunteer groups among excellent students from Kazakhstan institutes of higher education and distribute their work, such and other important measures should be completed.

Today using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we should prepare and issue new learning facilities, learning books, methodical facilities, vocabularies based on language and education sphere of diaspora countries.

Another thing to say, language environment occurred in Kazakhstan society with the growth of Kazakh nation who know the Kazakh language. If one can not form language environment sturdy and absolutely strengthen it, it is very difficult to develop language. At the present the reason of «obstacle» in our society is an absence of this language environment. That is why in solving this problem the exceptional position is took by relatives who return to our country from abroad. Because, in spite that they grew in another country they preserved their language and heart in Kazakh state fearing that they can break the link with their nation. Today their joining us is like «new blood» to the Kazakh language. For example, the issue of settling more repatriates in the regions with more people from other nationality and crowd them densely. If this matter do not meet proper resolution there will be great need to open the Kazakh language school, kindergarden, to make state establishment to work in the Kazak language.

LIST of USED PUBLICATIONS

- Messag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Nursultan N. «New Kazakhstan in new world» to Kazakhstan people. 2007, «Astana poligraphy» JSC, 66 pages.
- Messag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Nursultan N. «Development of Kazakhstan peoples' economic condition- main purpose of state policy» to Kazakhstan people. 2008, «Elorda» poligraphy, 23 pages.
- Messag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Nursultan N. «New decade – new economic development – new possibilities of Kazakhstan» to Kazakhstan people. 2010, «Astana poligraphy» JSC, 37 pages.
- The law of the RK «On Language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Almaty, the 6th of July, 1997.
-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Almaty, 1993.
- The summary of language poli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the 4th of November, 1996.
- B. Khasanuly, Deep history of the language policy. «Mother language» newspaper, the 1st of July, 1993.
- S. Orazalinov, If heart will open its eyes. Almaty, «Dauyr» poligraphy, 2001.

국립국어원 2012 국제 학술 대회

종합 토론 Open Discussion



● 국립국어원 2012 국제 학술 대회

● 세계화 시대의 자국어 진흥 정책

발행인: 민현식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인쇄일: 2012. 11. 16.

발행일: 2011. 11. 20.

제 작: (주)계문사